

畿甸考古

제 2 호

2002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발 간 사



기전문화재연구원은 지난 2002년에도 경기지역의 문화재 지표조사, 시·발굴조사, 그리고 문화재 관련 사업에 전념하는 한해를 보냈습니다. 돌이켜 보면 1999년 설립된 이래 한결같은 마음으로 추진해왔던 일이지는 합니다만 작년 한해는 지표조사와 시굴 및 발굴조사의 양이 많아 방대한 업무를 추진해 온 관계로, 성과만큼 어려움 또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유사 이래 한반도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온 요충지로서 찬란한 문화유산의 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의 경기도 역시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는 가운데 전역에서 활발하게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눈부신 개발의 한가운데서 문화재를 발굴조사하고 그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내리며 보존과 기록에 힘쓰는 일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내놓은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겨울에도 천막속에서 난로를 때며 조사에 임했던 우리 연구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 속에서 우리 자신을 부각시키는 일은 스스로 뿌리문화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옛것과 독특한 그 유산을 보존하고 탐구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 한해동안 우리 기전문화재연구원의 활동상황과 연구된 논문들, 그리고 경기도내 문화재조사 상황 등을 모아서 『畿甸考古』 제2호를 펴내면서 지난해를 정리하고 좀 더 나은 연구기틀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2003년 6월

기전문화재연구원장 장 경 호

축 사



새로운 세기, 새로운 민선 도정 3기를 맞이하여 경기도는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전진기지로서 새롭게 위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경기도'라는 도정목표 아래 동북아 경제의 중심·통일의 전진기지·선진 교육문화·쾌적한 삶의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삼아 단순한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도정목표에 발맞추어 문화분야에서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범위를 넓힌 문화예술 활동,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문화 인프라의 구축, 경기도의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 그리고 상대적으로 문화적 잠재력이 풍부한 북부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지원 등 다각적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전문화재연구원은 경기문화재단의 부설기관으로서 경기도의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중요한 몫을 감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경기도의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조사와 병행하여 개발로 인해 사라지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선행하여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기록·보존하는 등 경기지역 문화재 연구와 보존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畿甸考古』는 기전문화재연구원이 작년 한해 동안 추진했던 조사와 연구 성과, 연구논문 등 경기도 문화재계의 동향을 정리해 발간한 것입니다. 지난 노력의 결과를 모아 이렇게 연보로 정리하여 성과와 과오를 다시 집어보는 작업은 기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경기도의 문화재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발간을 위하여 애써주신 기전문화재연구원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03년 6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송태호



기전문화재연구원 전경



기전문화재연구원 지도위원회의



2002년 경기도 문화재관계자 연수중 대표이사 축사 광경



경기도 건축·토목관계자 문화재연수 수료식



한국문화재조사연구전문기관협회 책임자 회의(재단 회의실)



제1차 기전문화재연구원 학술강연회(강의 : 佐藤興治)



2002년 문화유적답사프로그램(여주 고달사지)



2002년 문화유적답사프로그램 참가자 기념촬영



여주 파사성 2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하남 교산동 건물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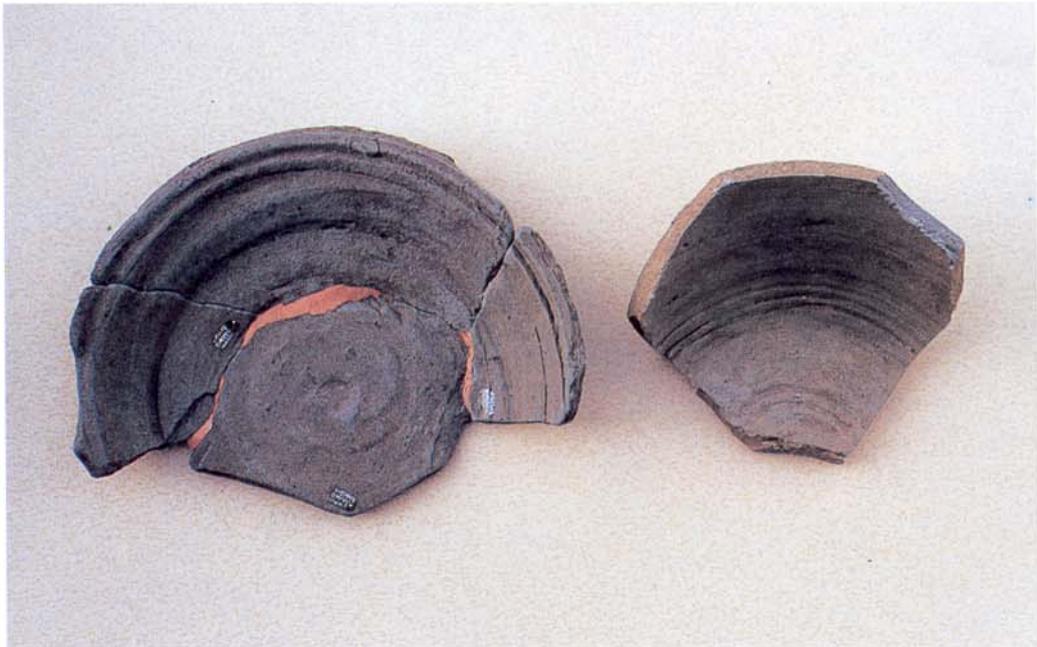
수원 울전지구 유적 전경



수원 울전지구 출토 무문토기 각종



연천 학곡리 적석총 유적 전경



연천 학곡리 적석총 출토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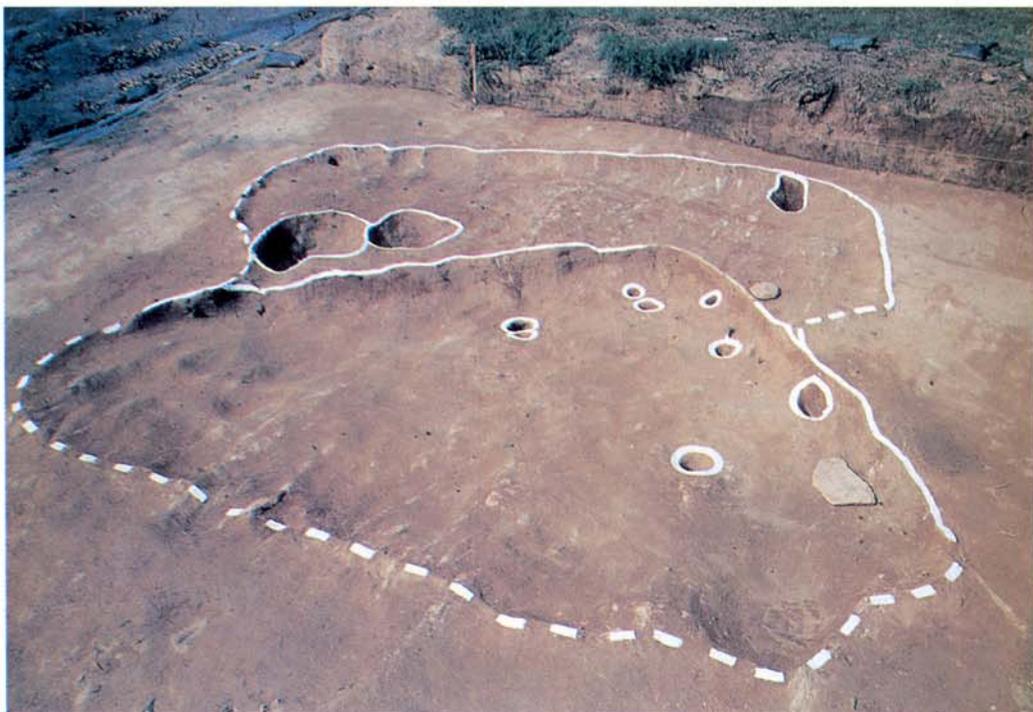
용인 죽전지구(12번) 청자가마 전경



용인 죽전지구(12번) 1-2호 청자가마 전경



용인 죽전지구(12번) 청자가마 출토 불상류



안양 관양동유적 1·2호 주거지



남양주 호평지구 흑요석 석기 출토 모습



화성 기안리유적 전경



화성 기안리유적 출토 송풍관



화성 발안리 마을유적 전경



화성 발안리 마을유적 1호 주거지 출토 유물



양주 회암사지 출토 수막새류



용인 수지빌라트 신축부지내 16호 주구석곽묘와 중북 민묘 조사완료 전경



용인 수지빌라트 신축부지내 16호 주구석곽묘 전경



용인 수지빌라트 신축부지내 19호 수혈유구 탄화미 노출 모습

차 례

발간사 장경호

축 사 송태호

화보

I. 현황

- | | |
|------------|----|
| 1. 기구표 | 21 |
| 2. 정원 및 현원 | 21 |
| 3. 주요일지 | 23 |

II. 2002년도 조사연구 및 각종 사업

- | | |
|-----------------|----|
| 1. 조사 연구 활동 | 29 |
| 2. 주요 유적의 조사 개요 | 33 |
| 3. 간행물 | 85 |
| 4. 문화재 관련 사업 | 88 |

III. 2002년 경기지역 考古學界 소식

- | | |
|------------------|-----|
| 1. 유적조사 | 95 |
| 2. 주요 유적 현장설명회 | 97 |
| 3. 간행물 | 135 |
| 4. 학회 모임 및 각종 소식 | 137 |

IV. 연구노트

- | | |
|--|--------------|
| 1. 서울·京畿地域의 최근 考古學的 成果에 의해 부각된 古代史의 爭點 | 권오영 157 |
| 2. 百濟積石塚의 歷史考古學的 性格과 그 意味 | 김성태 167 |
| 3. 『三國遺事』의 王曆第一과 紀異篇 | 하정용 200 |
| 4. 驪州地域 陶磁遺蹟의 現況과 性格 | 백종오/ 조주연 221 |
| 5. 1910년대 초반 日帝의 朝鮮 文化財 政策 | 박익수 255 |

V. 글마당

- | | |
|---------------|---------|
| 유적발굴과 발굴자의 자세 | 조유전 285 |
|---------------|---------|

VI. 부록

- | | |
|--------------------------|-----|
| 1945년~1990년 경기도 문화재조사 자료 | 29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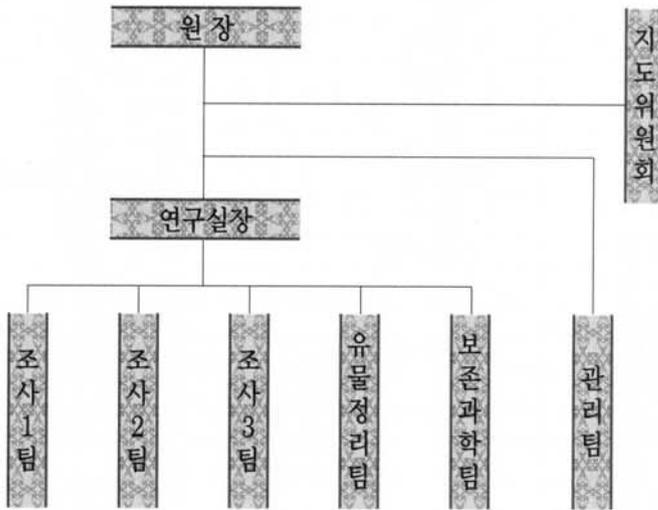
I. 현황

1. 기구표

2. 정원 및 현원

3. 주요일지

1. 기구표



2. 정원 및 현원 (총 39명 : 정규직 12명, 계약직 27명, 2003년 5월 현재)

직제별	계	연구직	일반직	가능직	계약직
합계(39)	13(12)	9(9)	1(1)	2(2)	(27)
원장	1(1)	수석연구원(1)			-
연구실장	1(1)	책임연구원(1)			-
조사 1팀	2(3)	선임연구원(0) 연구원(3)			연구원(6)
조사 2팀	2(2)	선임연구원(1) 연구원(1)			연구원(7)
조사 3팀	2(1)	선임연구원(0) 연구원(1)			연구원(9)
유물정리팀	1(0)				연구원(3)
보존과학팀	1(1)	연구원(1)			
관리팀	3(3)		일반직5급(1)	가능직7급(1) 가능직8급(1)	운전 및 현장지원(1) 사무보조원(1)

○ 직원현황

직 급	성 명	직 위	전 공	비 고
수석연구원	장 경 호	원 장	고건축학	
책임연구원	김 성 태	연구실장	고고학(병기류)	
일반직 5급	임 재 옥	관리팀장	일반사회교육	
선임연구원	김 무 중	조사2팀장	고고학(토기류)	
연 구 원	김 아 관	조사3팀장	고고학(골각기)	
연 구 원	소 상 영	조사4팀장 대행	고고학(신석기)	
연 구 원	정 해 득	조사4팀원	문헌사(지방사)	
연 구 원	김 성 수	조사2팀원	고고학(북방 이민족사)	
연 구 원	김 기 태	조사4팀원	고고학(구석기)	
연 구 원	김 응 신	보존과학팀장	보존처리(금속)	
기능직7등급	유 영 주	사원	회계 · 계약	
기능직8등급	채 정 민	사원	컴퓨터과학	
연구원	1팀	고 재 용	계약직 연구원	고고학(기와류)
		김 태 근	"	고건축학
		김 영 준	"	고고학(신석기)
		이 승 연	"	고건축학
		박 종 규	"	고고학(건축사)
		김 한 식	"	고고학(청동기)
	2팀	유 병 린	"	고고학(무문토기)
		정 상 석	"	고고학(선비/부여)
		이 상 결	"	고고학(청동기)
		조 병 택	"	고고학(백제)
		박 경 신	"	고고학(백제)
		이 석 재	"	고고학(주거지)
	3팀	서 봉 수	"	역사고고학
		허 미 형	"	역사고고학
		이 동 성	"	고고학(동물뼈)
		최 철 희	"	고고학(도요지)
		서 길 덕	"	고고학(주거지)
		노 대 석	"	미술사(도자사)
		윤 현 희	"	미술사(불교미술)
		이 미 란	"	역사고고학
		이 승 원	"	고건축
	유물 정리	김 영 화	"	역사고고학
		진 수 정	"	고고학(원삼국)
윤 소 영		"	고고학(백제)	
사 원	안 갑 용	사원	운전 및 현장지원	
	이 종 애	"	세무 회계	

3. 주요일지

1. 2. 2002년 사무식

3. 1. 2002년 1차 조사원 충원
(유은식, 이석재, 박경신)

3. 28~29. 경기도 건축·토목 관계자 문화재연수
주제 : 국토개발과 문화재의 보존
장소 : 라비도리조트
답사 : 회암사지
참석인원 : 37명



지도위원 위촉식 및 전체 지도위원회의

4. 1. - 『畿甸考古』 창간호 발간
- 인사이동

정해득 연구원 2팀 → 1팀
윤용희 조사원 1팀 → 2팀
최철희 조사원 2팀 → 3팀

4. 23. 2002년 지도위원 위촉식 및 지도위원회의
김동현(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 김병모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임효재(서울대학교) / 조유전(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최병현(숭실대학교) / 이인숙(전 경기도박물관장)
이선복(서울대학교) / 이남규(한신대학교)

4. 26. 제27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회의 주관
장소 :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
주제 : 삼국의 성립과 발전기의 남부지방

5. 1. 2002년 2차 조사원 충원
(박종규, 조병택, 이미란)

7. 1. 임창열이사장 퇴임 및 손학규 신임
이사장 취임

7. 3. 경기문화재단 창립5주년 기념식
(재단 다산홀)

8. 13. 제1차 기전문화재연구원 학술강연
회 개최



제1차 기전문화재연구원 학술강연회 개최

-일 시 : 2002. 8.13(화) 10:00~12:00

-장 소 : 경기문화재단 6층 강의실

-주 제 : 日本 奈良縣內 最近의 主된 發掘調査 紹介

-발표자 : 佐藤興治(日本 阪南大學)

8. 1. 2002년 연구원 충원 - 김기태

8. 14. 홍기헌사무총장 퇴임

9. 6. 한국문화재조사연구전문기관협의회 조사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전체 회의 개최

-일 시 : 2002. 9. 6. (금) 14:00 ~ 18:00

-장 소 : 경기문화재단 6층 강의실 및 회의실

9. 13. 송태호 대표이사 취임

10. 1~2. 한국·EU 국제학술회의 개최 지원

10. 19(토)/10. 30(수)/ 11. 27(수)/ 문화유적 답사프로그램 실시(3회)

-장소 : 여주 고달사지 발굴조사 현장 및 인근지역

-참석인원 : 총 81명



체육대회를 마치고

- 10. 31. 경기문화재단 체육대회

- 11. 22~23. 문화재관계자 연수 개최
 - 장 소 : 화성시 라비돌리조트 대회의실
 - 답 사 : 수원 화성

- 12. 6. 서울경기고고학 학술대회 공동개최
 - 공동개최기관 :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서울경기고고학회
 - 주제 : 서울경기지역 고고학 발굴조사와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일시 : 2002. 12. 6(금) 09:30~20:00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원 강당
 - 참석인원 : 총134명

- 12. 31. 2002년도 종무식

Ⅱ. 2002년도 조사연구 및 각종 사업

1. 조사 연구 활동

2. 주요 유적의 조사 개요

3. 간행물

4. 문화재 관련 사업

1. 조사 연구 활동

1) 지표조사 : 28건

(2002. 12. 31 기준)

번호	건명	조사기간	지역(면적)	성격 및 유물/조치		보고서	발주처
1	파주 대중골프장 공사지역 지표조사	1,22~3,12	파주시 조리면 장곡리 (150,168㎡)	성과없음		약보고서 제출	포스에이씨건축 감리사무소
2	경의선 전동차사무소부지 지표조사	1,22~2,4	파주시 봉암리 882 (320,000㎡)	성과없음	토·자기면류외	약보고서 제출	대우건설(주)
3	광주 직동 채석장부지 지표조사	1,30~2,19	광주시 직동 산27 (91,000㎡)	성과없음		약보고서 제출	세진산업개발(주)
4	안성 공도지구 지표조사	2,22~5,3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송두리, 용두리 (478,978㎡)	고인돌1기, 유물산포지 6개소	시·발굴조사 예정	『안성 공도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문화재지표 조사 보고서』 제출	경기지방공사
5	평택 청북지구 지표조사	2,25~6,30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후사리 및 안중면 덕우리 (1,984,000㎡)	토·도자류, 와류, 각종 석물	시굴조사 예정	『평택 청북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한국토지공사
6	팔탄면 노하리 지표조사	3,12~3,30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612-3 (120,954㎡)	성과없음		약보고서	고려중한건설 (동남토목측량)
7	화성 향남지구 지표조사	3,18~8,24	화성시 향남면 행정리, 방축리, 도이리 (1,685㎡)	유물산포지6, 분묘, 석물	원형점토대도 기편, 몸돌, 토도자류, 석물류(시굴예정)	『화성 향남 택지개발 예정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한국토지공사
8	오리~죽전 복선전철구간 지표조사	3,19~4,3	용인시 수지읍 죽전4리 일원 (1,8km)	청동기주거지, 수전	공렬토기(시굴조사예정)	보고서제출	(주)청석엔지니어링
9	광명 경륜경기장 부지 지표조사	3,19~4,17	광명시 광명동 452번지 일대 (204,022㎡)	성과없음		보고서제출	국민체육진흥공단
10	평택 칠괴동 아파트건축부지 지표조사	3,21~3,30	평택시 칠괴동산 72번지 (20,403㎡)	성과없음		약보고서제출	(주)신우건설
11	하남 감북~초이 도로개설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4,9~5,3	하남시 감북동 초이동 일원 (2,5km)	성과없음		조사완료	하남시청
12	풍성아파트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5,2~5,31	화성시 태안읍 기안리 457-93외 61필지 (159,282㎡)	백제분묘, 주거유적	백제토기외 (시굴조사)	『화성 풍성아파트 사업부지 지표조사 보고서』	(주)풍성주택
13	용인 흥덕택지개발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5,14~9,11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일원 (2,173,000㎡)	유물산포지16개소, 고려중후기건물지, 조선분묘	무문·백제토기류, 와류(시굴조사예정)	『용인 흥덕지구 택지개발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제출	한국토지공사
14	성남 도촌택지개발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5,21~7,9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원 (919,000㎡)	고려이후 유물산포지 5개소	연경질토기편 분청자편(시굴조사예정)	『성남 도촌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대한주택공사

번호	건명	조사기간	지역(면적)	성격 및 유물		보고서	발주처
15	군포 부곡택지개발사업 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5. 21~7. 9	군포시 부곡동 일원 (470,000㎡)	분묘군, 백제·조선 주거/생산유적	백제토기편 도자편, 기와류 (시굴조사예정)	『군포부곡택지개발지구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제출	대한주택공사
16	양평~여주간 도로확장 및 포장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6. 1~8. 30	양평군 백안리 ~ 여주군 대신면 (15.62km)	청동기, 고려·조선기 유물산포지, 지석묘	석제검파두식, 도·자기·와류(시굴조사예정)	『양평~여주간 도로확장 및 포장구간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제출	극동엔지니어링
17	경춘선 전동차사무소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7. 5~9. 10	남양주 평내동 송능리 일대(343,562㎡)	유물산포지 3, 조선분묘1	토·도자편 (시굴조사예정)	약보고서 제출	(주)유니백
18	전국~영중간 도로확장 및 포장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7. 30~11. 30	포천 영중면 양문리~주원리/연천 청산면 백의리-장탄리 (12.5km)	선사유적4개소, 건물지1	빗살무늬·각종 토기편 (시굴조사예정)	약보고서 제출	(주)한맥기술
19	남양주 가운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8. 6~10. 5	남양주 가운동, 노동동 일원(497,000㎡)	성과 없음		약보고서 제출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20	하남 풍산 택지개발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8. 28~11. 25	하남시 덕풍동, 풍산동, 신장동일원 (992,000㎡)	유물포산지 3개소	토·도자편	약보고서 제출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21	오리~수원간 복선전철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8. 28~11. 25	수원시/용인시 일원			약보고서 제출	철도청
22	평택~음성간고속도로개설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10. 1~10. 20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일대(2km)	성과 없음		약보고서 제출	(주)신성사운드빌
23	화성 기산리 주택신축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10.16~10. 30	화성시 태안읍 기산리 370(57,389㎡)	유물포산지 1개소	무문토기(시굴조사예정)	약보고서 제출	(주)유로디엔아이
24	용인 삼각곡~연수원간 도로건설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11.5~12.25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연남리 일원 (3,28km)	삼국시대고분, 백제주거지·분묘, 유물산포지3개소	백제토기, 철검, 도·자기류(시·발굴조사예정)	『삼각곡~연수원간 도로건설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제출	한국토지공사
25	오산 가수동 신축아파트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11. 12~12. 2	오산시 가수동 일원 (82,039㎡)	유물산포지	토도자류, 와류(시굴조사예정)	약보고서 제출	(주)늘푸른주택
26	시흥 방산~하중간 도로건설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11.15~03. 2,12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 시흥시 포동 (5.48km)	유물산포지2개소	갑발편등	『시흥방산~하중간 도로건설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제출	시흥시청
27	용인~포곡 도로건설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12. 3 ~ 03. 1. 30	용인시 마평동 ~ 모현면 초부리 일원 (9.1km)	하천변 총적대지3개소	시굴조사예정	『용인~포곡간 도로건설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제출	(주)삼보기술단
28	오산 세교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12. 30~03. 4. 8	오산시 세교동, 금암동, 내·외삼미동, 수청동 일원 (3,257,000㎡)	지석묘9기, 유물산포지16개소	백제토기, 자기류(시굴조사예정)	보고서작성중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2) 시 · 발굴조사 : 25건

(2002. 12. 31 기준)

번호	건명	조사기간	지역(면적)	성격 및 유물	보고서	발주처	
1	수원 장안프라자 신축부지 시굴조사	1.18~2.16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	성과 없음	약보고서제출	대한건설(주)	
2	화성 태안3택지개발지구 시굴조사	2.27~03.3.13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안녕리 일원 (287,000㎡)	건물지, 수혈, 석곽, 추정생산유적	백제/무문토기, 도기, 청·백자류 (발굴예정)	보고서 작업중	대한주택공사
3	화성 발안 택지개발지구 발굴조사	3.4~04.2.6	화성시향남면발안리 일원(59,319㎡)	백제주거지 각종 토실	토·도자류, 석기류	조사진행중	대한주택공사
4	화성 동탄지구 시굴조사	3.18~03.9.12	화성시동탄면반송리 산122-2번지/산96-4번지일대 21지점(59,796㎡)	지석묘기, 석곽묘3기, 토광묘2기, 주거지4기, 구덩이유구9기, 가마기등	연질토기편, 회청색도기편, 자기편	조사진행중	한국토지공사
5	수원 울전택지개발지구 발굴조사	02.4.3~03.4.13	수원시 장안구 울전동산38-2번지 일원	청동기·고려·조선주거지, 환호유구	석축류, 공렬토기, 토도자류	약보고서제출	대한주택공사
6	용인 죽전지구(8번지역) 발굴조사	4.26~03.10.30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8번지 (시굴:18,170㎡, 발굴:3,306㎡)	ㄷ형석축유구 (추정간물지)	청자/분청편, 와편, 경질토기편	약보고서제출	한국토지공사
7	남양주 호평지구 구석기유적 발굴조사	02.5~10	남양주시 호평동 64-1전 일대 (8,200㎡)	여러지점의 석기집중구역	몸돌, 정돌날, 돌나르 격지, 좀돌날, 굽개, 훑날, 밀개, 새기개, 두르개, 찌개, 다면석기	유물정리중	한국토지공사
8	용인 수지빌라트 신축공사부지 시·발굴조사	5.20~03.4.30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산93-9번지	석곽묘, 주거지, 토광묘, 적석유구, 회곽묘, 석곽묘, 가마, 토광묘, 주거지	토제방추차, 청동제교구, 철검, 분청사기, 각종 자기류, 도기, 장군, 청동제함, 匙箸·指環·족집게	연장조사진행중	(주)수지종합건설
9	용인 죽전지구(12번) 발굴조사	5.21~03.6.30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6,615㎡)	청자가마, 폐기장, 석렬유구	대접, 점시, 잔, 대반, 호합, 병, 뚜껑	조사진행중	한국토지공사
10	연천 학곡제 개수공사지역 발굴조사	5.28~12.31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초기백제 적석총	토기류, 구슬류, 철기류, 청동기류	유물정리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1	안양시 관양동 선사유적 발굴조사	5.28~7.31	안양시 관양동 15-3(750㎡)	청동기시대 주거지3기	무문토기, 석검, 석촉	보고서 작업중	한국수자원공사
12	양주 회암사지 5차 발굴조사	6.14~03.4.8	양주군 회천면 회암리 산14-1일원	3단지 동쪽지역	도자류, 와류	조사진행중	양주군청

번호	건명	조사기간	지역/면적	성격 및 유물		보고서	발주처
13	안산 대부도 패총 지표 및 발굴조사	6.24~ 10. 20	안산시 대부 남동 330-1~330-11번지 일원	신석기시대 패총	즐문토기, 석촉	보고서 작업중	안산시청
14	용인 문화복지행정타운 건축부지 시굴조사	6. 28~ 8. 16	용인시 일원	성과 없음		약보고서제출	용인시청
15	화성 기안리 풍성아파트 신축부지 시굴조사	7. 3~ 12. 15	화성군태안읍기안리 457-83번지외약 93필지(114,466㎡)	다수의 구상유구, 수혈 등	대응편, 기와편, 각종 타날토기편 등 백제유물다수	발굴조사전환	(주)풍성주택
16	포천 일동 ~ 영중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시·발굴조사	02. 8. 13 ~03. 2.18	포천군일동면 길명리산350-5번지(6,600㎡)	요지 및 건물지		조사진행중	(주)효자건설
17	하남 시가지우회도로구간시굴조사	8. 13~ 10. 11	하남시덕풍동 산24-1	청동기시대 주거지, 석곽묘, 민묘, 수혈유구 등	삼각만입석촉, 꾀石, 편평석부, 지석, 무문토기저부, 타날문토기, 경질토기완, 인화문토기, 동천(天元聖寶), 자기	발굴조사전환	하남시청
18	고양시 벽제관지주변 다세대주택신축부지 시굴조사	8. 26~ 9. 7	고양시 벽제관지주변	성과 없음		조사완료	개인(이효선)
19	여주 고달사지 4차 발굴조사	8.28~ 03. 5. 20	여주군북내면상교리 47-1번지일원(3,600㎡)	6호건물지동쪽 지역	토·도자류, 와류	조사진행중	여주군청
20	여주 파사성 3차 발굴조사	8.28~ 03. 3. 21	여주군대신면 천서리 9번지 일대		백제토기, 와류, 토, 도자류	조사진행중	여주군청
21	화성 기안리 풍성아파트 사업부지 발굴조사	8.31~ 03. 4. 30	화성시 태안읍 기안리	시굴조사와 비슷한 양상		조사진행중	(주)풍성주택
22	하남 교산동건물지 4차 발굴조사	10.1~ 04. 3. 24	하남시 교산동 78-3번지 일대 (약 2,850평)	동쪽건물지, 남동쪽 담장지 회절부 및 동쪽담장지	삼수키와각종, 명문와, 분청자, 청자	조사진행중	하남시청
23	용인 서리상반고려백자 요지2차 발굴조사	10.7~ 03. 2. 3	용인 서리 상반	고려청자 요지	고려백자편, 가미벽체편, 요도구등	조사진행중	용인문화원
24	하남 시가지 우회도로공사문화재 발굴조사	11. 8~ 03. 3. 7	하남시 덕풍동 산 24-1(1,818㎡)	청동기시대주거지, 석곽묘		조사일시중지	하남시청
25	용인 수지빌라트 신축공사부지연장발굴조사	11. 15~ 03. 2. 25	용인시구성읍보정리 산93-9번지	석곽묘, 주거지, 토광묘, 적석유구, 회곽묘, 석곽묘, 가마, 토광묘, 석곽묘, 주거지	토제방추차, 청동제교구, 철검, 분청사기, 각종 자기류, 도기, 장군, 청동제합, 盥箸	조사진행중	(주)수지종합건설

2. 주요 유적의 조사 개요

1) 2002년도 기전문화재연구원 현장설명회

일시	조사명	담당 조사팀
2. 8	수원시 장안프라자부지 시굴조사	조사1팀
2. 22	서안산 IC구간 유적 발굴조사	조사3팀
5. 9	수원 울전지구 발굴조사 (1차)	조사3팀
5. 17	여주 파사성 발굴조사 (2차)	조사3팀
6. 5	화성 태안3지구 시굴조사	조사2팀
7. 8	용인 수지빌라트유적조사 (1차)	조사3팀
7. 18	용인 행정타운부지 시굴조사	조사1팀
7. 31	화성 풍성아파트부지 시굴조사	조사2팀
8. 5	용인 수지빌라트유적조사 (2차)	조사3팀
8. 20	남양주 구석기유적 발굴조사	조사1팀
8. 28	용인 죽전지구 완장이골 석축유구(8지점) 발굴조사	조사1팀
9. 11	하남 시가지우회도로시굴조사	조사2팀
9. 11	수원 울전지구 발굴조사 (2차)	조사3팀
9. 12	안양 관양동 발굴조사	조사1팀
9. 27	시도 1·2호선 패총발굴조사	조사1팀
10. 14	연천 학곡리 적석총 발굴조사	조사3팀
11. 28	용인 수지빌라트 발굴조사 (3차)	조사3팀
12. 4	양주 회암사지 발굴조사 (5차)	조사1팀
12. 6	용인 수지빌라트유적조사 (4차)	조사3팀
12. 12	여주 파사성 발굴조사 (3차)	조사3팀
12. 14	용인 죽전 청자가마(12번) 발굴조사	조사3팀
12. 18	화성 동탄지구 시굴조사	조사2팀
12. 26	하남 교산동 건물지 발굴조사	조사1팀
12. 28	화성 기안리 발굴조사	조사2팀

2) 주요 유적

1) 시도 1·2호선 확·포장공사구간내 유적(대부도 흙곳1패총 발굴조사)

가) 위 치 : 안산시 대부 남동 330-1~330-11번지 일원

나) 조사기간 : 2002년 7월 29일 ~ 9월 26일(현장실조사 60일)

다) 시 대 : 신석기시대

라) 조사내용

대부도 흠긋 1패층은 1984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한 '서해도서 지표조사'에서 빗살무늬토기가 수습되어 학계에 처음 알려졌다. 유적은 도로 우측의 구릉에 위치하는데, 도로로 인하여 잘려나간 단애부분에서 파악된 패각의 규모는 동서18m, 두께는 최대 60cm이다. 층위는 표토 밑에 흑갈색패각층→갈색사질점토+잡석층→기반암으로 구성된 단일패각층으로 추정되었다.

조사는 제초작업 후 패각의 전체 범위를 파악하고, 패각의 평면·수직적 층위파악을 위하여 4×4m의 방격법을 이용하여 능선과 직교하게 총 10개의 피트(A1~E2)를 설치하였다.

각 피트에 1m의 기준 토층독을 남겨 패각층의 층위를 연속선상에서 파악하였으며, 또한 설치된 피트는 다시 1×3m의 시굴 Tr을 넣어 각 Tr의 층위를 먼저 파악한 후 전면제토를 원칙으로 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자연유물과 패각의 구성비를 파악하기 위하여 패각층은 모두 체질을 실시하였다. 설치된 피트중 1구간은 단애면과 접한 남쪽이며, 2구간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구릉의 위쪽이다.

흠긋 1패층의 층위는 일단 육안으로 관찰된 토양의 색깔과 구성, 패각의 마모와 부식도를 1차 기준으로 삼고 층위를 나누었다. 발굴 조사결과 흠긋 1패층의 경우 퇴적층이 현재 잔존하는 단애면에 가장 두텁게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면을 따라 퇴적되어 남쪽으로 두터운 퇴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제 중심 패각층은 이미 훼손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 기준을 가지고 구별한 층위는 총 6개이다. 각 Tr별 층위의 구성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유물은 모든 층에서 발견되나 흑갈색 혼토패층에서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며, 각 층에서 출토된 유물은 시기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짧은 시기에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과 석기류 등 모두 100여점이 확인되었다. 빗살무늬 토기의 기형은 입술과 바닥 출토품이 많지 않아 정확치는 않으나, 대체로 중서부 지방의 포탄 첨저형을 띠고 있다.

문양은 구분계 빗살무늬토기와 동일계 시문토기가 함께 출토된다. 하지만 출토품이 대체로 무문

번호	층위	퇴적특성
1층	표토	• 현재 海松(해송)이 자라고 있는 층으로 아주 얇게 퇴적
2층	황갈색사질 +잡석층	• 사면에서 흘러 퇴적된 층으로 사질층과 잡석이 섞인 층으로 구별되나 일단 하나의 층으로 포함, 즐문토기와 석기 출토
3층	흑갈색 혼토패층	• 토양이 90%정도 섞인 패각층으로 북에서 남으로 퇴적됨, 각종 즐문토기와 석기 출토
4층	황갈색 혼토패층	• 패각이 대부분인 층으로 패각의 부식과 마모가 3층보다 심함, 순패층으로 보이기도 하나 진갈색점토층과 섞여있어 일단 혼패층으로 보고함, 즐문토기 출토
5층	진갈색사질점토층	• 바닥면으로 추정되는 층으로 불맞은 지리가 확인됨
6층	풍화 임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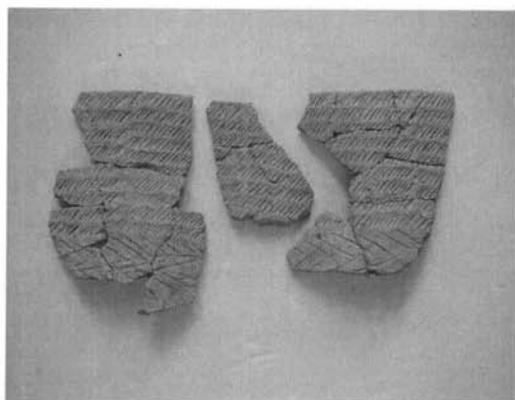
토층 모습

패총의 출토토기는 서해도서지방의 신석기 유적들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오히려 한강유역의 중부내륙지방 빗살무늬 토기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시기도 다른 도서지방보다 대체로 소급될 가능성이 있다.

석기는 마제석부, 화살촉, 갈판이 각 1점씩 출토 되었으며 용도가 불확실한 타제석기도 몇점 출토되었다. 골각기나 동물뼈는 한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마) 조사성과

흘곶 1패총은 이미 패총의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로 출토된 유물의 수와 종류도 많지 않다. 그러나 대부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굴조사된 신석기 시대 패총유적으로 서해도서지방 신석기문화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구분계 빗살무늬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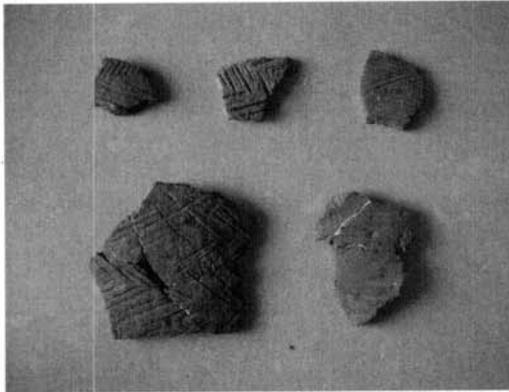
의 몸통편인 것으로 보아 구연부와 동체 상부에만 문양이 시문된 것으로 판단된다.

토기의 문양은 입술에 단사선문을 시문하였으며, 몸체에는 대체로 단치의 횡주어골문이 시문되었다. 바닥은 출토된 편 모두 무문이다. 태토는 대체로 점토질이 강하며 운모, 석면, 장석 등이 섞여 있다.

문양 모티브로 보아서는 흘곶 1

(1)이번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은 빗살무늬토기와 석기류이며 일부 불맞은 흔적이 확인되었으나 별다른 유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빗살무늬토기는 문양의 모티브로 보아 중부내륙지역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석기는 마제석부와 화살촉, 갈판 등이 수 점 출토되었다.

(2)흘곶 1패총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모두 100여점으로 이중 구연부와 저부는 10여



단·다치 황주어골문 토기편 각종

점에 불과하며 대부분 몸통편으로 최소개체수는 10점 미만으로 판단된다. 이는 패총의 중심부가 이미 파괴된 것을 감안해도 매우 작은 수이며 이 유적의 성격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석기도 10여점에 불과하며 조사지역이 패총에 한정되기는 하였으나 주거지와 같은 유구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개류도 굴이 90%이상을 차지하며, 동물뼈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유적도 다른 서해도서 패총과 마찬가지로 임시캠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2) 河南省街地迂廻道路擴·鋪裝工事區間 文化遺蹟 試掘調査

가) 위 치 : 하남시 덕풍동 산 24-1번지 일대

나) 조사기간 : 2002년 8월 13일 ~ 2002년 9월 11일

다) 시 대 : 삼국~조선시대

라) 조사내용

하남시에서는 시내와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일IC에서 하남시가지로 진입하는 우회도로와 덕풍~광암정수장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을 추진하면서 동 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여 왔다. 이에 2000년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하남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상일IC에서 하남시청 방향으로 이어지는 지점 일부에서 무문토기편과 도기배신편이 확인되어 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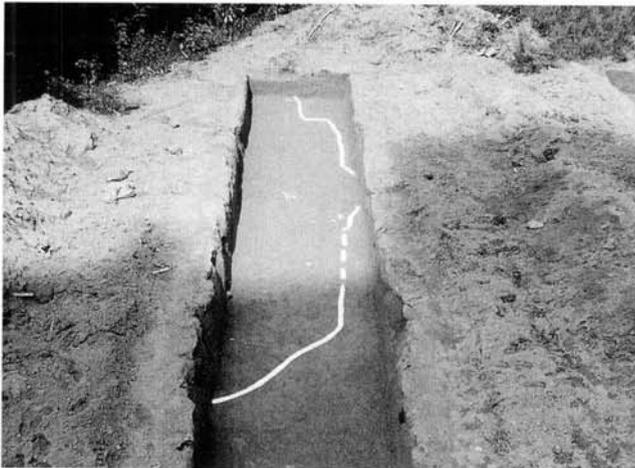
이에 하남시가 동 사업지구에 대한 시굴조사를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여오에 따라 2002년 6월 26일자로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동년 8월 13일 조사에 착수하였다.

유적은 해발 56m의 구릉의 남쪽 경사면으로 현재의 도로 조성부와 맞닿아 있는 구릉 남쪽사면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일부 삭평되어 단애면을 이루고 있다. 이 곳은 하남시청으로 향하는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남동편으로 구릉자락이 일부 돌출되어 있었던 곳으로 구릉지역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

북동편으로는 해발 50~60m의 소구릉들과 논과 밭이 펼쳐져 있고, 북쪽으로 약 3.5km 떨어져서



1호 주거지 확인 근경



2호 주거지 확인 상태

미사리유적이 위치하고 있고 남서편으로 이성산성이 자리하고 있어, 선사 및 역사유적의 부존가능성이 매우 짙은 곳으로 판단된다.

조사방법은 구릉의 서편과 동편으로 나누어, 서편 구릉사면 정상부 일정한 지점에 기준점을 설정하고, 구릉의 경사면 방향으로 등고선방향과 직교하게 트렌치를 설정하였다. 동편과 서편 사이에는 소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소로 북편으로는 곡간이 형성되어 있다. 트렌치의 주축방향은 $N - 20^{\circ} - E$ 이며 트렌치 폭은 2m, 간격은 5m로 설치하였다. 조사는 생토면까지 확인하여 유구의 존재여부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조사지역 구릉 서편의 지형은 전체적으로 동-서 방향으로 완만한 V자형을 이루고 있어 동·서편으로는 지표하 약 20~30cm에

서 생토면이 바로 확인되나, 가운데 부분은 퇴적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 유구의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구릉 동편지점인 도로 접경부도 남동편으로 경사져 있는 지형이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유적의 전체적인 층위는 4개층으로 구분된다. I 층은 경작층인 표토층이며, II 층은 명갈색사질점토층, III 층은 흑갈색점토층의 청동기시대 문화층, IV 층은 황갈색점토층으로 대별된다.

조사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 삼국시대~고려시대의 석곽묘 2기, 민묘 2기, 수혈유구 2기, 기타 이형유구가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장방형으로 장축 8~9m이며 동-서방향, 또는 남-북방향으로 조성되어 있다.

유물은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삼각만입석촉, 敲石, 편평석부, 지석, 무문토기저부가 출토되었고,

각 트렌치에서 타날문토기, 경질토기완, 인화문토기, 동전(天元聖寶), 자기 등이 확인되었다.

마) 조사성과

첫째, 조사지역은 북쪽으로 신석기시대~백제시대의 취락지인 미사리유적, 남서편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성산성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 삼국시대에서 고려·조선 시대에 이르는 석곽묘 2기, 민묘 2기, 수혈유구 2기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석부, 석촉, 무문토기저부, 그리고 각 트렌치에서 경질토기, 타날문토기, 인화문토기등이 출토되었다.

둘째,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구릉의 서사면과 동편하단부에서 확인되어, 주거지의 분포가 밝혀지면 당시의 문화상을 알 수 있을 것이며 광암동 지석묘유적, 미사리 취락유적과 더불어 중요한 비교·연구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유구가 확인된 지역은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완료시 지도위원회의를 거쳐 유구 및 유물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지역바깥인 구릉 정상부와 남쪽사면은 원형보존하는 것으로 조치한다.

3) 漣川 鶴谷里 積石塚 發掘調査

가) 위 치 :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20, 20-1번지 일대

나) 조사기간 : 2002년 6월 7일 ~ 2002년 11월 6일

다) 시 대 : 초기백제

라) 조사내용

학곡리 적석총은 자연제방상의 모래언덕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쪽으로 약 50여m 정도 떨어져 임진강이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구릉의 평면형태는 동서방향이 길고 남북방향이 짧은 장타원형이다. 동단부가 가장 넓으며 서쪽부로 갈수록 폭이 좁아진다. 구릉의 동쪽은 집중호우로 인해 구릉의 일부가 파괴되어 적석부에서 단이지는 형태를 하고 있다

구릉의 조사는 북사면의 중앙과 서쪽에 적석부의 운곽선과 성토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트렌치를 설정하였다. 조사전의 북사면 중앙은 홍수피해로 구릉 사면이 절반이상 파괴되었으며 사면에서 흘러내린 돌들이 어지럽게 노출되어 있었다. 탐색트렌치는 사면의 하단 가장자리부터 적석부의 하단으로 부분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토층에는 성토, 판축 등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자연적인 모래층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트렌치 남벽과 동벽의 일부에서는 점토층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점토층

은 석곽의 바닥면보다 약 1m 정도 아래로 구릉 서쪽에 설정한 탐색트렌치에서도 확인되었다.

구릉 서쪽은 적석부가 끝나면서 자연제방으로 연결된다. 적석부 끝자락에서 경질무문토기가 확인되어 주거지의 부존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트렌치를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표토하 약 0.8m 깊이에서 목탄이 포함된 적갈색점토층이 확인되어 생활유적의 바닥면으로 판단된다.

적석부에 대한 조사는 적석이 비교적 두껍게 남아있는 동쪽부를 먼저 조사하였으며 매장주체부 윤곽선 확인은 강돌로 만들어진 적석층의 특성상 최상단으로부터 수평을 유지하여 일정두께로 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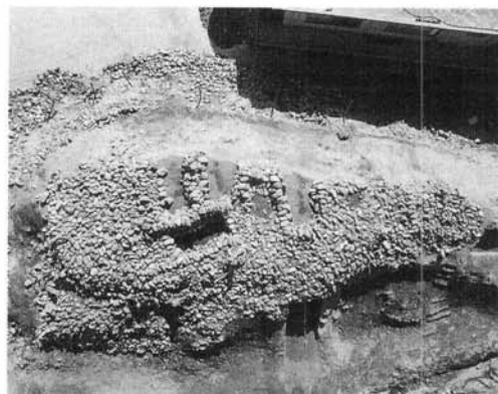
적석층의 전체적인 형태는 동서방향이 길고 남북방향이 짧은 장타원형이다. 적석층의 규모는 25m×10m이며, 동단부가 가장 넓고 서쪽으로 가면서 좁아진다. 잡목제거 후 상면 동쪽과 중앙에는 함몰부가 확인되었으며, 중앙의 함몰부는 남북방향으로 동서쪽을 구분하듯이 움푹 들어가있는 형태였다.

동반부의 적석은 서반부에 비하여 적석이 상대적으로 두텁게 남아 있다. 특히 동남쪽 가장자리부분이 가장 두껍다. 조사는 최상단부터 수평을 유지하여 한 겹 정도 돌을 걷어내면서 인위적인 석렬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상태의 크기 40~50cm 정도 크기의 천석을 길이방향을 따라 면맞추기 한 인위적인 석렬이 일정한 구역을 따라 확인되었다. 동서방향으로 장방형의 석렬이 확인되고 그 남쪽선과 바로 접하여 직각으로 두 개의 장방형 석렬이 배치된 형태이다. 이 중 장축 남북향의 장방형 석렬은 남쪽 끝단이 유실되어 기본적인 형태는 'ㄷ' 자형을 띠고 있다.

서반부의 적석은 동반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얇아 0.6m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그리고 원래 'ㄷ' 모양의 평면형태로 추정되는데 후대의 훼손으로 인해 전체의 2/3이상이 파괴되어 매장주체부의 일부분만이 잔존하고 있다.



적석층 원경



적석층 근경

40~50cm 정도의 천석을 길이방향을 따라 면 맞추기 한 인위적인 남북방향의 석렬 7개 정도가 확인되었다. 이 중 동반부와 경계를 이루는 중앙 석렬과 연결하여 평면 'ㄷ' 자 모양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석곽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1호곽은 동쪽 상면의 중앙에서 북측으로 치우쳐서 위치하며 남벽에 접해서 2호곽이 연결되어 있다. 곽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동-서 방향으로 길다. 규모는 2.7m×1.0m×0.7~1.1m내외이다. 곽은 강돌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남벽이 가장 높게 남아 있으며 벽면도 고르다. 이에 비해 동·서·북벽은 처음 유구 확인시에 드러난 최상단의 열을 제외하고는 하단부로 갈수록 벽선이 고르지 않다.

남벽은 0.3~0.5m 내외의 긴 타원형의 천석을 긴변이 서로 접하도록 쌓았으며 벽면은 어느 정도 고르게 면을 맞추고 있다. 또한 남벽의 안쪽에는 벽면을 따라 세운 돌이 10개가 확인되었다. 이는 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돌은 동·서·북벽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어 곽 조성시에 남벽과 같은 시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곽 조성시에 남벽에 한해서만 돌을 세워 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머지 세벽은 남벽과는 달리 0.3m 내외의 돌로서 바깥쪽으로 맞물려 돌을 쌓았을 것이며, 남벽을 먼저 쌓은 후 나머지 세벽을 쌓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벽은 상단에서 1.5m 떨어져 경사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형돌로 무너짐 방지를 위해 서로 맞물려서 벽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쌓다가 처음 노출된 높이에서 열을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동벽과 서벽은 북벽에 비해 작은 돌들이 맞물려 있는 현상이 비교적 덜하지만 남벽에서와 같이 면이 고르지 않으며 최초 확인된 최상단만이 열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현재 남벽은 6~7단 정도 남아 있으며 다른 세벽은 층단 구분이 애매하지만 5단 정도 남아 있다.

묘곽의 바닥은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모래층(구지표)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 당시 원래 바닥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상부 압력에 의해 무너지거나 원형이 일그러져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조사를 진행하였다. 돌을 사용한 시상을 마련하지 않고 자연사구의 모래층을 정지한 후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뼈조각을 비롯하여 토기편, 구슬이 출토되었다. 뼈는 서벽아래 상단하 0.5m 내외의 깊이에서 조각(부스러기)이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 토기는 적갈색연질타날문토기와 흑색토기 등이 확인되었다. 적갈색연질타날문토기는 호형토기로 저부에는 종방향의 승석문이 타날되었으며 동체부에는 승석문에 횡침선을 그었으며 횡침선의 간격은 상단으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진다. 흑색토기는 동체부편과 구연부편으로 동벽 중앙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에는 하단에 승석문이 종방향으로 타날되어 있으며 상단에는 횡방향의 침선문이 돌아가고 있다. 구슬은 총 4점으로 토제, 유리제 등이며 토제구슬은 납작한 형태를 띠고 있다.

2호곽은 1호곽의 남벽 동쪽에 연접되어 배치되어 있다. 잔존하는 평면형태는 남쪽이 유실되어 'ㄷ' 자형을 띠고 있다. 잔존규모는 2.3m×2.0m×1.2m이다. 석곽은 1호곽과 마찬가지로 0.3~0.5m 내외의 강돌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동벽의 벽면 안쪽에는 1호곽의 남벽처럼 세운 돌이 10개가 확인되었다. 이들 세운 돌은 곽의 벽면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벽의 바깥쪽에도 7개의 세운 돌이 확인되었다. 북벽은 1호곽의 남벽으로 벽면 안쪽은 면이 고르지 않다. 돌의 크기는 하층으로 갈수록 넓어진 단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벽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축조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유물은 토기편, 구슬류, 청동환, 장신구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대부분이 편으로 기형복원이 불가능하다. 구슬류는 유리제, 석제, 마노제 등 재질이 다양하다. 특히 유리구슬 중에는 금박을 입힌 것이 확인된다. 청동환은 고리의 일부가 깨진 상태로 동벽의 중앙 바닥에서 수습되었다. 장신구는 뼈를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한쪽 끝에 구멍이 뚫려 있다.

3호곽은 2호곽의 서측에 연접하여 조성되었으며, 남벽이 유실되어 잔존하는 평면형태는 'ㄷ' 자형을 띠고 있다. 잔존규모는 1.3m×1.8m×0.7m 내외이다. 2호곽의 경우처럼 동벽의 안쪽에 세운 돌이 확인되었다. 3호곽의 서벽 바깥쪽은 상면 중앙에 해당하는데 조사과정에서 남사면에 치우쳐서 인위적인 열로 보이는 돌들이 확인되어 곽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1층 정도를 들어내 보았으나 곽으로 보기가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3호곽의 서벽 바깥쪽이 일부 확인되었는데 서벽의 바깥쪽에도 2호곽의 경우처럼 세운 돌로 보이는 부분이 확인되었다. 바닥면은 다른 묘곽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시설을 마련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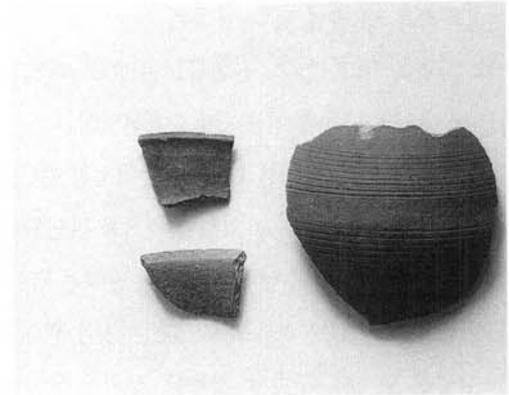
유물은 회색연질타날문토기(편)과 구슬류, 철검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대부분이 편으로 완전한 기형복원은 불가능하다. 회색연질토기는 호형토기로 추정되며 동체하단에는 종방향으로 타날문에 횡방향의 침선문을 그었다. 구슬류는 총 32점으로 마노제, 석제 등으로 특히 관옥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철검은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상태가 양호하며 남측 중앙바닥에서 출토되었다.

4호곽은 3호곽에서 서쪽으로 약 1.0m 정도 떨어져서 위치하고 있다. 잔존하는 평면형태는 남벽이 유실되어 'ㄷ' 자형으로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잔존규모는 2.4m×1.7m×0.6m 내외이다. 곽은 2호곽과 마찬가지로 0.3m~0.5m의 강돌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동벽의 안쪽에는 2호곽, 3호곽처럼 세운 돌이 확인되고 있으며 거의 같은 간격으로 6개가 확인되었다. 남아 있는 층단은 3~4단으로 동반부에서 확인된 1·2·3호곽에 비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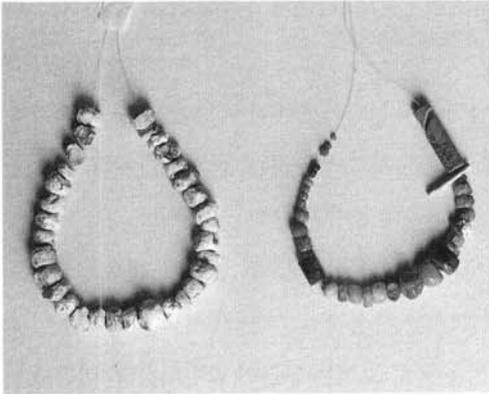
유물은 토기편과 구슬류가 출토되었다. 토기편은 적갈색연질타날문토기(편)와 회색경질토기(편)가 수습되었다. 대부분 편으로 출토되어 전체적인 기형은 확실하지 않다. 구슬류는 마노제, 석제 등으로 총 18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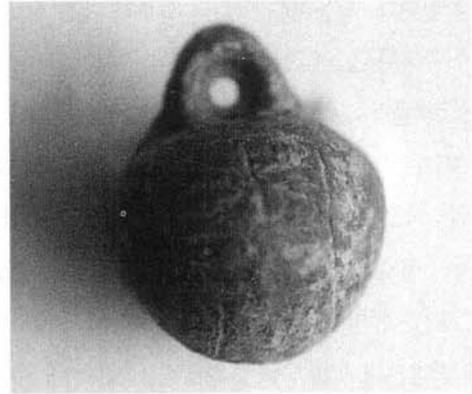
1호곽 출토 유물



1호곽 출토 유물



2호곽 출토 유물



4호곽 출토 청동 방울

마) 조사성과

학곡리 적석총은 하안 충적대지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임진강 유역과 남한강 및 북한강유역에서 확인된 적석총과 동일하다. 또한 각 곽의 바닥면 높이가 동일하고, 적석 기저부의 높이 또한 바닥면의 높이와 같은 것으로 보아 자연사구의 상면을 일정한 높이로 정지하고 적석부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된다.

즙석 또는 무덤보호시설과 기단의 존재여부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강물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받는 동쪽면과 남쪽면에는 즙석 또는 무덤보호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곡리 적석총은 다곽식으로 4개의 묘곽이 확인되었는데 이들 묘곽 가운데 3개는 서로 연결하고 있고, 특히 두 묘곽이 만나는 벽체는 격벽과 같은 모양으로 외벽이 되어 있다. 이들 간의 관계는 주곽과 부곽의 개념보다는 각각이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서 덧대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곽의 평면

형태는 1호곽을 제외한 3개곽의 남벽이 유실되어 ‘ㄷ’자형을 띠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장)방형으로 생각된다. 묘곽은 0.3~0.5cm내외의 길다란 천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또한 벽면의 안쪽에서 세운 돌이 확인되고 있다. 바닥시설은 모두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자연사구의 모래층(구지표)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곡리 적석총의 출토유물은 토기류, 구슬류, 철기류, 청동기류로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기류는 대부분이 편으로 출토되어 전체적인 기형을 알 수는 없지만 부위별 만공의 각도나 경부의 꺾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타날문 단경호류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질무문토기의 제작 기법이 사용된 단경호류의 토기편도 확인되고 있다. 타날문단경호류는 저부에 교차승문, 동체부에는 승석문을 타날하였으며 승석문의 경우 동체 상단으로 갈수록 횡침선의 간격이 좁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낙랑토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회흑색 호와 거치문이 시문된 토기편, 격자타날문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구슬은 반파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135점이다. 재질은 마노, 유리, 석재, 토제 등을 사용하였으며 형태는 환옥, 관옥이다. 마노와 석재를 사용한 환옥의 마연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며 유리제의 경우에도 마무리가 완전하지 않다. 유리구슬 중에는 일부 금박을 입힌 것이 확인되었다.

청동제품은 청동방울과 청동환 1점이 출토되었다. 청동방울은 주조품으로 ‘木’자 형의 문양이 확인된다. 철기류는 이번 조사에서 모두 3점이 출토되었는데 2점은 파손이 심하여 정확한 용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나머지 1점은 철검으로 일부 파손되었으나 양호한 상태이다.

학곡리 적석총은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3세기 후반 4세기전반으로 편년되는 인근의 파주 주월리 주거유적보다 상대적으로 이르고, 토기에서 낙랑토기가 확인되며 경질무문토기가 공반되는 점으로 미루어 적어도 기원후 2세기~3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강과 한탄강유역은 초기 백제사를 규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그동안 조사자료가 부족하였으나 학곡리 적석총이 조사됨으로써 초기 백제 영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일부나마 획득하였다고 생각된다.

4) 수원 읍전지구 발굴조사

가) 위 치 : 수원시 장안구 읍전동 산38-2번지 일원

나) 조사기간 : 2002년 4월 30일 ~ 2002년 9월 30일

다) 시 대 : 청동기시대/고려~조선시대

라) 조사내용

읍전동 유적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읍전동 산38-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은 2000년 기전문화재연구원원이 실시한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에서 무문토기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어 유물 산포지로 보고된 바 있다¹⁾. 그러나 해당지역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일부 택지개발 공사가 진행되어 유적 훼손이 심한 상황이었다. 이에 공사를 중지하고 2001년 4월 3일부터 2001년 9월30일까지 긴급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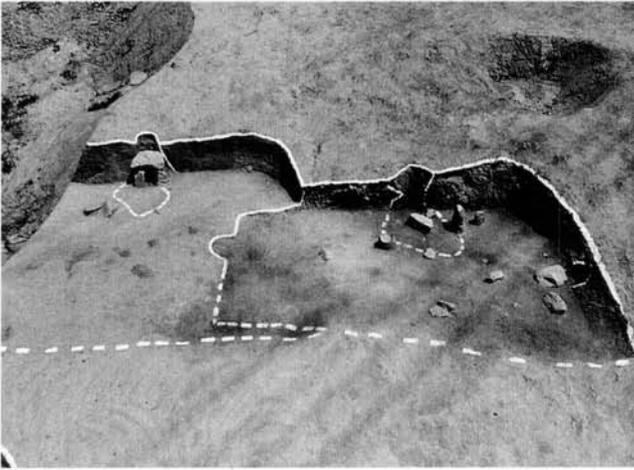
발굴조사 면적은 공사가 진행되어 기반암이 파괴된 구역을 제외한 약 12,000평에 해당한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3기·환호시설·수혈유구 7기 및 고려시대 건물지, 조선시대 주거지 8기·야외 노지 3기와 고려~조선시대에 속할 것으로 추정되는 석곽묘 2기와 성격미상의 유구 1기 및 민묘 16기가 확인되었다. 출토 유물은 마제석기, 공염문 토기편, (공염+구순각목+격자문)토기, 원형점토대토기, 고려~조선시대의 각종 자기류 및 기와류 등이 수습되었다.

환호는 조사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구릉의 사면부에 둘러져 설치되어 있으며 해발 101.5m선에서 103.5m선까지 걸쳐 있다. 규모는 구릉이 절토된 부분을 제외하고 총 연장 약 160m이나, 의도적으로 구를 파지 않거나 삭평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구간을 제외한 실제 환호의 길이는 103m 정도이다. 단면형태는 바닥이 약간 둥글거나 말각식의 V자형 내지 U자형이며, 최대 폭은 1m, 최대 깊이 1m 정도이다. 내부에 퇴적된 양상은 암갈색 사질점토층/갈색 모래층의 반복 현상이 있으며, 하층에 회황갈색 점토층/회황갈색 사질점토+목탄층/적갈색 사질점토층/암갈색 사질점토층(부식기 있음)으로 주로 물 퇴적에 의해 폐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토층 혹은 환호 외부에서 토루 및 기타시설의 존재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출입구로 추정되는 환호 B구간과 C구간 사이의 길이는 약 20m이며, 이 구간은 암반층이 타 구간보다 높게 솟은 형태이다. 이 부분 및 주변에서 주혈이나 기타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내부 혹은 바닥면에서 점토대토기편이 수습되었다.

현재 조사구역의 남쪽으로 환호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조사구역 바깥이며 주택지구가 연접한

1)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5~196쪽.



7·8호 주거지 전경

관계로 확장조사는 불가능하였다. 여타의 부분은 공사로 인한 파괴 및 과천-고색간 고속도로에 의해 대부분 파괴되어 환호의 전체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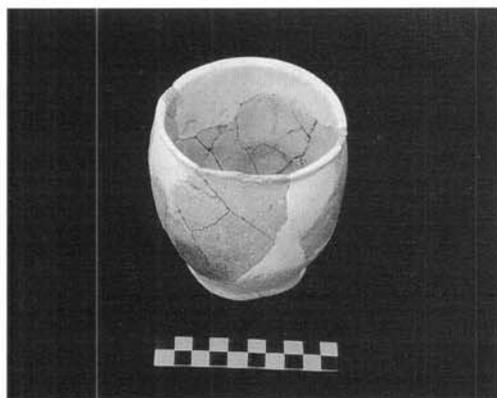
주거지는 총 11기가 확인되었다. 시기별로는 청동기시대 3기, 조선시대 8기로, 모두 구릉 사면부에 조성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대부분 유실이 심하여 원형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1호 주

거지의 경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추정되며, 북서쪽 벽면 모서리에 저장공이 3개 확인되었다. 바닥은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바닥 상면에 전체적으로 목탄이 깔려져 있어 화재로 인해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은 바닥에서 심발형 무문토기 1점만이 수습되었다. 3호 주거지의 경우도 유실이 심하나 남아있는 형태로 미루어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노지 1개소, 주혈 1개, 소혈 1개가 확인되었다. 역시 바닥 상면에 전체적으로 목탄이 깔려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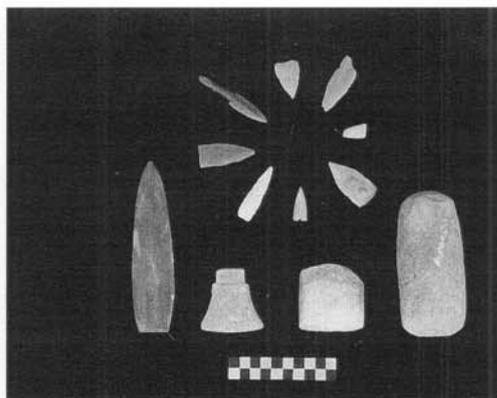
출토유물은 주거지 바닥에서 (공열+구순각목+격자문)의 토기편이 다수 수습되었다.

조선시대 주거지도 사면부를 L자식으로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며, 평면형태가 거의 방형 내지 말각방형계통으로 추정된다. 모두 부뚜막을 설치하였는데 사면 정상부 쪽의 벽면 중앙 혹은 한 쪽 모서리에 치우쳐 축조되었다. 부뚜막이 잘 남은 경우는 모두 측벽석을 세운 다음 덮개돌을 얹은 형식으로 '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측벽을 세우는 양상을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좌, 우측 모두 평저의 돌을 바닥면 위에 놓아서 세우는 형태, ② 한 쪽 측벽은 평저로 바닥 위에 세우고, 한 쪽은 침저로 바닥면에 홈을 파고 꽃은 형태 ③ 양 측벽 모두 침저로 바닥면에 홈을 파고 꽃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부뚜막 주변에는 모두 목탄과 소토 알갱이들이 산재해 있었다. 바닥은 대부분 암반을 수평으로 정지하여 사용하였으며, 특별한 처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유물은 백자, 분청사기편, 철제 가위, 숫돌 등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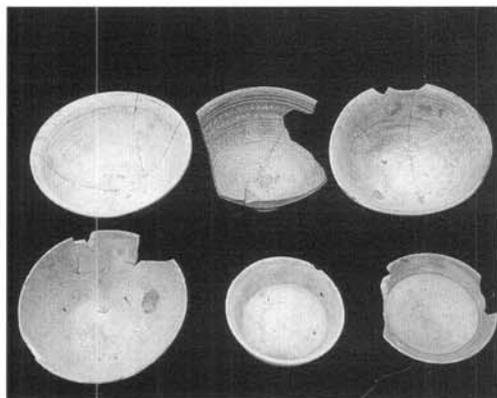
수혈유구는 총 7기로 환호 아래쪽 사면부에서 2기, 환호내부 즉 환호 위쪽인 구릉사면부에서 5기, 환호와 동떨어진 II-1구역의 북쪽 사면부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대부분 평면형태가 원형 내지 타원형이었으나 II-1구역의 7호 수혈은 장타원형이다. 모두 내부에서 부식토와 함께 무문토기편이 출토되며, 4호 수혈에서는 외면 흑색 파수부편과 석촉 4점이, 7호 수혈에서는 점토대토기편이 수습되었다.



1호 주거지 출토 무문토기



석기류 각종



자기류 각종

야외노지는 II-1구역 송신탐 주변에서 3기가 확인되었으며 평면형태는 타원형 내지 원형이다. 규모는 1호-100cm×60cm×34cm, 2호-78cm×64cm×7cm, 3호-110cm×97cm×13cm이다. 출토유물은 1호 노지에서는 백자 소편이, 2호와 3호 노지에서는 기와편이 수습되었다. 노지의 주변에 조선시대 주거지가 분포하고 유물 양상이 유사한 점에서 조선시대 주거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지로는 50cm 크기의 초석 3기와 장방형 석재를 이용한 기단석렬이 275cm의 길이로 확인되고 있다. 초석간의 거리는 남-북이 350cm, 동-서가 250cm이다. 기단석렬은 동쪽 초석에서 동쪽으로 약 240cm 떨어진 지점에서 남-북 방향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건물지에서 북측 및 서측 외곽으로도 길이 590cm, 평면형태 말각식 “ㄱ”식으로 일단의 석렬이 노출되었다. 이것이 건물지 보호를 위한 축대와 같은 성격인지 혹은 담장과 같은 역할을 한 시설인지는 확실치 않다.

건물지를 중심으로 동측은 공사시에 절토되었고, 북측과 서측에서는 다량의 기와편들이 확인되었다. 또한 초석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초석의 남, 북 끝단에는 초석을 놓기 위한 시설로 추정되는 부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본 건물지는 동-서를 장축으로 하고 남향을 정면으로 하는 2칸×1칸의 기와 건물지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귀목문 막새를 비롯한 기와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와의 문양은 무문, 어골문, 선문 등이며 내면에서 굵은 빗질흔이 확인되는 것이 많다. 이외에도 자기류, 도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이 건물지를 덮고 있는 퇴적층 위에 조선시대 주거지가 조성된 점과 유물 양상 등을 비교해 볼

때, 건물지의 축조시기는 대체적으로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용도불명의 유구로는 2호 석곽묘에서 서쪽으로 12m 떨어진 해발 87.5m 부근의 사면 말단부에 1기가 위치한다. 남동쪽 사면부는 유실되었으나 남아있는 형태로 미루어 평면형태는 방형계통으로 추정된다. 암반층을 파내고 수혈을 조성한 후 돌을 놓아 만든 형식으로 수혈의 규모는 길이 260cm, 너비 210cm, 깊이 40cm 정도 남아있다. 수혈내부에 놓아진 돌들은 대부분 불먹은 흔적이 관찰되며 돌 주변에서는 두터운 소토덩이도 수습되었다. 북쪽 벽면은 암반이 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바닥면은 암반층을 수평으로 정지하였다. 유물은 청자대접편과 어골문이 시문된 기와편이 수습되었으나, 유구 확인작업 당시에 이미 지표면에 유구가 노출되어 있었고, 내부에서도 부분적으로 근래 교란토가 섞여 있어 후대에 유입된 유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유구 내부에서 목탄 및 슬래그가 수습되고 있어 제철과 관련된 유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석곽묘는 모두 2기가 조사되었으며 구릉 사면부 및 말단부에 위치한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 방향은 거의 남-북 방향으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장벽은 주로 가로쌓기 하였으나 단벽과 장벽의 모서리 부분에는 세워쌓기 한 부분도 있다. 바닥은 암반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출토유물은 2호 석곽묘에서 관정이 8점 수습되었으며 각각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 1호 석곽 : 묘광-230cm×175cm×60cm, 석곽-175cm×90cm

◇ 2호 석곽 : 묘광-180cm×145cm×40cm, 석곽-140cm×75cm

민묘는 총 16기 중 9기가 이장처리 되었으며 4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근·현대묘로 판단된다. 이 중 8호 묘와 15호 묘는 대형의 목관묘로서 목관을 놓기 전 목관이 놓일 바닥에 보강토를 깔거나 솥을 깔 후 다시 목관을 놓을 광(회와 흙을 섞음)을 조성한 뒤 광과 묘광 사이 및 관 뚜껑 상부에도 일정한 두께의 솥으로 감싸서 보호하였다. 인골은 남아있지 않았고, 출토유물은 8, 15호 묘 모두 관정 여러 점과 허리 정도의 위치에서 유리제 구슬 4점이 각각 수습되었다.

마) 조사성과

울전동 유적은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친 유적으로 청동기시대는 다시 전기와 후기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전기에 해당하는 1, 2, 3호 주거지는 첫째, 구릉성 산지의 사면부에 조성된 점 둘째, 주거형태에 있어 세장방형 내지 장방형계통에 주거지 벽 모서리에 저장공을 설치한다는 점 셋째, 출토 유물이 심발형 무문토기·(공열+구순각목+사격자문)토기·이단경식 석축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여주 혼암리³⁾, 천안 백석동⁴⁾ 유적과 유사하다. 다만 여주 혼암리와 천안 백석동의 경우 이중구연·단사선 요소와 구순각목·공열의 요소가 결합되었으나 울전동 유적에서는 주거지 뿐만 아니라 청동기시대 문화층에서 이중구연 요소의 토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송만영⁵⁾은 서

산 대로리의 경우 공열에 격자문이 시문된 토기를 두고 동북지방과 서북지방의 토기문화가 접촉하기 이전 단계로 판단하고 있으나 백석동의 경우 A-4호에서 출토된 심발형 토기에는 구연에 구순각목+공열+간략화된(퇴화된) 이중구연 요소에 XXX자상 문양이 결합되어 있다.

물론 혼암리유적 에서도 격자문이 시문된 토기편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3호 주거지의 토기편을 이중구연이 간략화된 시기의 다음 단계인 이중구연 요소가 완전히 퇴화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혼암리 단계 이전 시기로 볼 것인지는 이론의 여지가 많다. 다만 후자의 경우로 본다면 울전동에서는 청동기시대 초기와 후기만 남게 되어中间的 공백기에 대해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 원형점토대토기가 반출되는 환호의 시기에 대해서는 비교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근의 남한지방 점토대토기 유적에서 얻어진 절대연대가 B.C 5세기 이전으로 상향되고 있고, 대전 월드컵 경기장 A지역 1지구 1호 무덤, 일산 가와지, 일산 새말 유적, 망이산성 등에서의 절대연대가 B.C 9~4C까지 나타나고 있어 차츰 점토대토기 상한선을 올려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울전동 유적을 비롯해 최근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인천 원당지구 및 2001년 조사된 죽전 대덕골유적⁵⁾의 연대값이 나온다면 더욱 정확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의 환호가 확인되는 곳으로 합천 영창리⁶⁾ 유적이 있지만 두 유적을 비교 검토 할만한 중간 매개 지역이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적의 시기 문제에 대해 유구와 유물이 국한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연대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 앞으로의 자료와 탄소연대 측정치 등 자연과학적 자료가 축적된다면 차츰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선시대 주거지는 인근의 구운동 유적과 주거형태, 부뚜막, 유물 양상에 있어 거의 유사하다. 보고자는 백자와 분청자의 상대편년을 통해 구운동 유적⁷⁾을 14세기 말에서 16세기 초로 보고하고 있다. 울전동 유적의 조선시대 주거지도 대략적으로는 이 시기로 볼 수 있으나 더욱 정확한 시기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서울대학교박물관, 1977, 『혼암리주거지』 4,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총간 제8책.

3) 공주대학교박물관, 1998, 『백석동유적』.

4) 송만영, 1995, 『중기 무문토기시대 문화의 편년과 성격』, 송실대학석사논문, 31 ~ 32쪽.

5)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대덕골 및 도기가마 I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

5) 여주 파사성 2차 발굴조사

가) 위 치: 驪州郡大神面 川西里 9番地 一帶

나) 조사기간: 2001년 9월 24일 ~ 2002년 5월 25일(동절기 중지기간 포함)

다) 시 대: 통일신라

라) 조사내용

우리 연구원에서는 성벽복원공사를 진행중인 여주군의 의뢰를 받아, 체성의 구조에 관한 정확한 학술자료 제시 및 산성의 사용연대와 축성 주체 등의 기본 학술자료를 파악하고자 파사성에 대한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성벽에 대해서는 No. 9~ No. 12구간까지 전면조사를 시행하여, 내벽과 외벽 조사를 시행하였고 체성구조에 관한 정확한 수치와 자료축적을 위해 3D 레이저실측을 실시하였다. 치 2는 조사전 지표 상에 방형의 구조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50cm의 독을 십자로 남기고 4분법으로 조사하였으며 북벽과 서벽의 회절부에 위치하는 아지구에는 10m×10m의 그리드를 설정하고 그 내부에 트렌치를 구획하여 문화층을 구분하는 사전조사를 시행한 후 전면 제토하여 건물지 등을 조사하였다.

이번에 조사된 구간은 북벽과 서벽의 회절부로 60m 구간이다. 체성구조는 1차 조사시와 동일하게 내외협축을 기초로 하여, 산의 경사면에 따라 체성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있으며, 북벽의 외벽은 장방형의 석재를 치석하여 사용하고 있고 치2가 있는 No. 10구간부터는 부정형 할석을 이용한 상부는 거의 훼손되고 장방형 석재를 이용한 하단부만이 남아있다.

체성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물결치듯 회절부로 연결되는데, 회절부의 하단부는 자연 암반을 정지하여 기단석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 위로 장방형의 석재를 쌓았다. 첫번째 단에서 약 30cm 안으로 들여쌓은 흔적이 관찰되는데, 전면의 구조로 보아 곡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잔존하고 있는 성벽의 높이는 외벽은 396~162cm, 내벽은 100cm 내외이다. 또한 조사된 성벽의 전구간에서 ㄱ자형 기단보축을 확인하였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토사와 할석을 사용하여 보축의 앞면을 다시 보강한 듯한 흔적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포루 2는 No. 10구간에 위치하며, 북벽에서 지금의 양평 방향을 경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평면 방형의 구조로 크기는 941~1103×793~875×170cm이며, 상면은 크게 2부분으로 구분된다. 먼저

6) 3중의 환호 시설은 구릉 완사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의 토광묘에서 세형동검이 수습되었는데, 보고자는 이청규의 세형동검 형식분류를 통해 이 유적의 연대를 B.C. 3~1세기로 보고 있다.
김현식, 2000, 「합천 영창리유적 개보」, 「고고학으로 본 변·진한과 왜」,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4회 합동고고학대회, 177~193쪽.

7) 기전문화재연구원, 2002, 「수원 구운동 중세주거유적」, 학술조사보고 제25책.



10~11구간 외벽기단 보축

전면은 직경 80~100cm 가량의 장방형석재 3개를 전면 앞쪽에 한 줄, 뒤쪽에 한 줄 놓았으며, 그 사이는 부정형 할석을 깔아 바닥을 마무리하였다. 후면은 성벽에 양날개로 넓게 붙여 마무리하여 축조하였는데 양옆은 2줄의 할석을 깔아 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후면의 서쪽편에는 방형의 계단식 구조가 있어, 성벽과 연결되는 구조물이 있었을 가능

성이 있다. 특히 후면부에는 조선시대 기와가 다량으로 출토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포루의 양옆에서 확인되는 토층상태로 볼 때 산줄기의 자연경사면을 이용하여 정지한 후 일정한 높이로 성토한 위로 할석을 놓아 기초석으로 활용하였으며, 그 위에 10cm가량 뒤로 물러서 5단의 석축구조로 축조하였다.

아지구에서는 건물지, 담장열, 구들 등이 확인되었다. 건물지1은 남쪽의 초석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하지 않으나 대략 정면 2칸 이상의 건물지로 생각된다. 주축의 길이는 330cm이고 초석은 38×65cm에서 30×34cm 정도로 일정치 않다. 주축의 방향은 동쪽에 치우친 남동에서 북서였으며, 남쪽 성벽을 향해 비스듬히 서있는 상태이다. 생토를 굴착하여 초석을 놓은 것으로 보이며 그 이외에 별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앞쪽에 화덕시설이 확인되었는데 북측과 동측은 장방형의 할석이 남아 있으나 남측은 파괴된 상태였으며, 아궁이는 서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잔존한 규모는 68×68cm정도이며 안쪽에는 흑색 재층이 깔려 있고 남쪽에는 회색 점토가 관찰된다.

건물지 2는 그리드 8에서 확인되었다. 규모는 정면 2칸, 측면 1칸으로 주축의 폭은 590cm이며 단축의 폭은 390cm정도이다. 주축의 방향은 동쪽에 치우친 남동에서 북서이며 초석의 간격은 110cm~325cm이다. 초석과 초석사이에 장방형의 자연석을 놓아 두었으며 그 이외에 별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고 내부에는 기와편만이 깔려있다.

담장 1은 건물지 1의 뒤쪽에 있다. 잔존 길이는 약 17m이고 당초의 폭은 30cm 정도로 추정되나 현재의 폭은 312cm 정도가 된다. 담장의 높이는 150cm 정도이며 산의 능선을 깎아 자연석을 돌 크기에 맞추어 쌓았는데 기단석은 생토 위에 바로 올려 놓았다. 주축의 방향은 동에서 서로 보이며 성벽쪽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아’ 지구 구들유구 조사후 전경

담장 2의 규모는 길이 14.8m로, 당초의 폭은 약 30cm로 추정되나 무너져 내려 현재 폭은 220cm 정도이다. 주축의 방향은 동쪽에 치우친 남동에서 북서로 동쪽의 석렬은 끊어진 것으로 보이며 서쪽은 길이 398cm의 두 줄 석렬이 건물지 2를 피해 돌출되어 있는데 출입구 시설로 추정된다.

구들 1은 No.9 구간 내벽부에서 조사되었으며 규모는 390×60cm이고 주축방향은 동에서 서쪽이다. 흑갈색 사질토를 암반 위에 깔고 그 위에 할석을 놓아 조성한 한 줄의 구들골이 확인되었는데 간격은 36cm이다. 주위에 주공으로 보이는 구덩이가 확인되고 있으나 정형성을 보여주지 못하여 구들 1과의 관계 및 성격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구들 2는 1999년 성벽 긴급발굴조사시 일부가 조사되었으며, 2차 발굴조사시 추가조사 되었다. 구들의 규모는 368×186cm이며, 주축방향은 남동에서 북서이고 3열의 구들골이 확인되었다. 구들골의 간격은 약 20~26cm로서 할석을 세워서 만들었으며 구들장은 편평한 자연석을 이용하였다.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고 그 위쪽에서 개자리가 확인되었다.

구들 3은 구들 2에서 동북쪽으로 약 21.5m정도 떨어져 있으며 규모는 초석까지 포함하여 300×120cm이다. 주축의 방향은 북동에서 남서 방향이며 산사면을 생토까지 굴착하여 평평하게 다진 후 작은 돌을 세워 놓은 두 줄의 구들골을 확인하였다. 구들골의 간격은 약 20cm이며, 구들 앞쪽에 적심을 두고 상면에 82×74cm 크기의 장방형 자연석을 올려놓은 곳이 한군데 확인되었는데 초석으로 보인다.

성격미상 석렬은 구들 1과 인접하여 약 90° 정도 꺾여서 구성되어 있으며 구들 1과 붙어 있는 앞쪽은 48×40cm 정도의 자연석에 면을 맞추어 흑갈색 사질토 위에 올려놓았고 뒤쪽은 작은 할석을 사용하였다. 규모는 322×100cm이고 주축 방향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되어 있다. 남쪽으로 180cm 정도 떨어진 곳에 120×120cm의 적심이 있는데 갈색 사질토 위에 작은 할석들을 방형으로 쌓았다. 주공으로 보이는 구덩이가 주위에 확인되고 있으나 관련성은 알 수가 없다.

출토유물은 승석타날된 백제토기편과 기대로 추정되는 경질토기편을 비롯하여, 철촉, 이형철기편



포루2 조사후 전경



포루2 동벽

등이 수습되었으며, 희미한 명문이 남은 백자발 등이 수습되었다.

토·도기류로 출토되고 있는 종류는 승석타날된 백제토기편 소량과 삼각형 투창이 있는 기대편, 그리고 고려시대 도기편 등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 도기편의 기종은 병, 편병, 호 등이 보이고 있는데 구연은 반구형이고 바닥은 평저이며 색조는 회색에 가까운 강한 회청색을 보이고 있다.

자기류는 주로 일상생활용기로서 기종은 대접, 접시, 잔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분청사기는 문양이 없고 굽 형태는 죽절굽으로 내경하고 있으며, 백자는 오목굽, 내경하는 굽 등의 형태가 보이고 있다. 굽받침은 가는 모래받침, 태토비집받침을 사용하였고, 유색은 맑은 회백색을 띠고 있다. 인접한 지리적 환경과 자기의 품질을 통해 볼 때 생산지는 광주로 추정되는데, 간혹 굽바닥에 음각되어 있는 자기편이 있어 이를 입증한다. 주로 15~16세기의 조선시대로 추정된다.

그 외에 철축, 철정 등과 고려·조선시대 기와편 등이 있다.

마) 조사성과

서북벽의 체성은 포루 2가 있는 부분은 치석한 장방형 석재를 사용해 축성한 부분이 그대로 잔존하며, 서벽으로 오면 하단부는 치석한 장방형석재를 이용하였으나, 상단부는 부정형 할석을 사용하였는데, 거의 훼손되었다. 내부 충진석은 작은 잡석과 부정형 할석을 섞어서 사용하였다. 성벽의 체성 앞부분에는 ㄱ자형의 보축이 사용되었는데, 축성당시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회절부에는 원래의 성벽에서 안쪽으로 들어 쌓은 듯한 흔적이 관찰되는데 아마도 임진왜란 당시 수축한 것으로 보이며, 원래의 성벽보다 후대에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포루2는 포루1과 달리 하단부에 보축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평면 방향에 2개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포루 내부에는 조선 전기로 추정되는 와편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지붕이 있는 건물이 포루 내부에 있었음을 추정케 하며, 축조시기는 파사성 개축시(임진왜란 시) 만들

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아지구는 성벽조사구간의 성내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구들유구 4개소와 건물지 2개동, 담장열 2곳이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후대의 교란으로 인한 듯한 훼손이 있어 정확치는 않으나, 대략 정면 2칸 정도의 소형 건물로 추정되며, 내부에서 주로 고려 도기편과 와편이 출토되어 그 시기의 유구로 추정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소량이지만 백제토기편이 출토되어 파사성의 사용연대로 추정되는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 이전에 백제가 군사요새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6) 여주 파사성 3차 발굴조사

가) 위 치: 驪州郡大神面 川西里 9番地 一帯

나) 조사기간: 2002년 9월 16일 ~ 2002년 12월

다) 시 대: 통일신라기

라) 조사내용



45구간 성내측

파사성에 대한 긴급 및 1차조사에서는 성벽 503m 구간 및 나지구 발굴조사, 다지구와 동문지의 시굴조사, 포루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체성은 내외협축의 석성으로 치석된 장방형의 석재를 이용하여 축성한 구간과 부정형의 할석과 썰기돌을 사용한 구간으로 구분되며, 산 경사면을 정지하여 축조하였다. 또한 일부 구간에서는 ㄱ자형 혹은 단면 삼각형

의 기단보축을 확인하였는데, 주로 북벽과 동벽 일부 구간에서 나타난다.

성내의 유구로는 기단석렬이 확인된 건물지 1동과 구들유구 14기 및 기타 유구 2기가 있으며, 청동기 시대 주거지를 비롯하여 각 시기의 유구와 유물이 모두 분포하고 있다. 주요 유물로는 4세기 경으로 추정되는 승석타날문호, 삼국시대 단각고배편과, 철촉 등이 있다.

2차 발굴조사에서는 성벽60m 구간과 아지구, 포루 2를 조사하였다. 서북벽의 체성은 치석한 장



43구간 성내측



42구간 성외벽

성 외벽은 기반암층을 정지하여 그 상단에 장방형의 석재와 할석을 쌓았는데 No. 42구간은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할석과 잡석을 이용하여 외벽을 쌓고 있으며 1, 2차 발굴에서와 같은 정형화된 보축시설은 보이지 않는다. 외벽 기저부의 석재는 암반 상면에 바로 접해 있지 않고 약 20cm 정도의 암갈색 사질점토층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있다.

No. 43구간은 No. 42구간에 비해 성 외벽에 이용된 석재의 형태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60cm×10~15cm크기 장방형으로 평박한 석재를品茶형으로 쌓고 기반암층을 정지하여 하층의 면석과 맞대었다. 암반의 굴곡이 심한 곳은 하층면석과 암반사이를 작은 할석으로 채워 외벽에서 약 60cm 돌출시켜 놓았다.

No. 44구간은 성 외벽의 켜기석이 체성부에서 이탈된 상태로 외벽자체가 기존의 성외측선에서

방향의 석재를 사용해 축성한 원래의 성벽이 그대로 잔존하며, 서벽으로 오면서 하단부는 치석한 장방형 석재를 이용한 부분이 잔존하였으나, 상부는 수축시 부정형의 할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거의 훼손되었다. 내부 충전석은 작은 잡석과 부정형의 할석을 섞어서 사용하였다. 포루는 평면이 방형이며 전면부와 후면부의 공간분할이 이루어져 있다. 아지구에서는 구들유구 7기와 건물지 2기, 축대 2곳이 확인되었다.

3차조사에서는 성벽 No. 42~No. 46구간과 파사성 북동 회절부 내측으로, 정상부에 해당되는 가지구 그리고 아지구에서 2차 조사시 드러난 건물지 및 축대 유구의 하부 문화층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였다.

체성의 구조는 내외협축으로

밀려나온 곳이 많이 있어 하부까지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No. 45구간은 이번 조사구간 중 외벽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으로 이곳은 북동 회절부에 속하는 구간이다. 이 회절부는 다른 회절부보다 성벽의 선회가 급하며 그 반경이 좁은 곳으로 외벽 석재의 형태는 No. 43구간과 동일한 장방형의 평박한 석재를品茶형으로 잘 쌓았다. 현존하는 높이는 690cm이다. 이곳에서는 외벽 기저부에서 160cm 돌출된 ㄱ자형의 보축시설이 보이는데 높이는 150cm로 풍화암반층과 접하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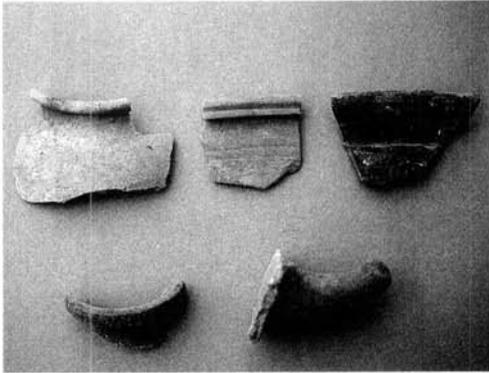
No. 45구간 외벽 회절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양평 상자포리 마애석불입상으로 향하는 능선상에 북동측하여 치로 추정되는 유구가 위치한다. 유구의 평면은 사다리꼴 형태로 외면은 할석과 면석으로 쌓여져 있는데 가장 양호한 곳에 면석이 3단 남아 있다. 높이는 60cm로 동측은 경사가 급하며 풍화암반층에 쌓여 있고 북측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면에 장방형의 석재가 약 2매 정도 잔존하나 끝선이 명확하지 않다. 내부는 잡석과 할석으로 충진되어 있는데 별다른 정형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No. 42구간은 현재 동문지 북측으로 복원된 체성부와 접하는 구간으로 성 내벽은 2~3단의 거칠게 치석된 면석이 잔존하고 있고 다른 시설은 보이지 않는다. No. 43구간 내벽에서는 다른 구간과는 달리 일부 구간(560cm)이 기존의 내벽에서 외측으로 150cm 물러나 있는데 이 곳과 접하여 잡석과 호박돌, 와편이 성내측 바닥면에 깔려 있고 서측은 풍화암반층에 13개의 주공으로 보이는 구멍이가 있다.

No. 44 ~ 45구간은 파사성 체성부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북동 회절부에 속한다. 이곳에서는 내측 보축시설이 노출되었는데 기존의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하나의 보축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절부의 곡선 안쪽을 채우고 있는 3중의 보축시설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가지구는 파사산의 정상 구릉지대에 해당되어 성내측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지점이다. 장대지 시설 또는 다른 유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폭 1.5m의 시굴트렌치를 7개 구획·굴토하였다. 먼저 Tr1의 정상부에서 트렌치와 같은 방향으로 석렬 유구가 노출되었고 동측의 Tr 세곳에서 집석 유구가 나타났지만 정형성은 없고 다만 집석유구의 끝선이 각 Tr의 석재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동측 경사면을 극복하기 위한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서측의 Tr는 별다른 유구는 보이지 않으나 Tr 2의 바닥 풍화암반층에서는 주공으로 보이는 구멍이가 노출되었다.

아 지구는 2차 조사시 드러난 건물지와 축대가 있는 곳으로 하부 유구층의 확인을 위하여 모두 8개의 트렌치를 구획하였다. 건물지 1·2의 하부로는 바로 풍화암반층이 나타나 다른 유구층이 보이지 않는다. 축대 1의 북측과 축대 1·2사이의 Tr에서는 일부 석재와 구들 시설 등이 나타났으며 축대 1의 북측 Tr에서는 통일신라로 보이는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기존의 축대에 쌓여 있던 교란된 석재를 제거한 결과 축대의 하부토층은 황갈색사질점토층 위에 놓여 있으며 축대 기저부의 다른 시설들



출토유물 각종

하나 개체수는 많지 않다. 기타 철정과 철촉 등이 수습되었으며, 철촉은 유경식이며 이단 유경식도 있다. 고려·조선시대 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은 보이지 않는다.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기류는 등잔, 인화문토기편, 줄무늬 병, 단 각고배, 승석문이 타날된 토기편과, 기벽이 남아있지 않으며 상부에 대칼로 관통한 일자형의 구멍이 있는 우각형 파수편, 연질의 시루저부편, 평저의 도기편, 자기류 등이 수습되었다.

자기류는 발, 완, 접시 등 일상생활 용기가 대부분이며 청자에서 분청사기 백자까지 다양

마) 조사성과

• 층위 : 성 내부의 구지표는 분명하지 않은데, 토층은 위로부터 표토층 → 암갈색사질점토층 → 황갈색사질점토층의 순서로 나타나며 내벽과 접하여는 사질토층이 나타난다. 회절부의 내측조사에서는 성토층에서 삼국시대 토기에서부터 조선시대 백자편까지 두루 공반되어 나타난다.

• 체성(성외벽) : 동측 성벽은 할석과 거칠게 치석된 석재를 이용한 구간과 장방형의 석재를 사용한 구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할석과 거칠게 치석된 석재를 사용한 외벽은 훼손 정도가 심한 편이다. 내부 충전석은 다른 구간과 같이 잡석과 부정형의 할석을 사용하였고 경사진 기반암반층과 풍화암반층을 정지하여 외벽을 쌓고 있다.

• 보축 : 일부이지만 ㄱ자형의 보축시설이 나타난다. 이러한 보축이 보이는 곳은 장방형의 석재를 이용한 구간으로 외벽의 잔존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축조 시기는 No. 42구간에 비해 선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성내벽 : 외벽의 석재에 비해 크기와 재질이 일정치 않은 석재로 바른층 막돌쌓기를 하였는데 이것은 내벽을 쌓을때 성내부를 성토하기 때문에 외벽에 비해 거친 석재를 쓴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가지구부터 성내측, 외측까지 하부의 생토는 단일 기반암층의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내측의 경사면을 고려할 때 내측 성토가 필요했을 것이다.

북동측 회절부에서는 내측 보축시설이 3중으로 중첩되어 나타나는데 No. 45구간의 내측보축시설 끝선에서 교란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정형의 석재들이 흑갈색의 사질점토층 위에 노출되었다. 이 3중의 보축시설은 단기간에 축조된 것은 아니며 시기 차이를 두고 여러 번 후축한 것으로 보인다. No.

43구간에서는 일부 내측벽을 마감하여 쌓고 외측으로 물려 쌓은 내벽이 노출되는데 이 부분과 접하여 와적층과 잡석층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어 체성부와 관련된 시설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지구는 표토에 거의 접하여 풍화암반층이 나타나고 있고 동북 방향을 장축으로 한 석렬 등이 보이고 있어 장대지 혹은 다른 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다음 조사시 전면발굴이 필요하다.

아지구 건물지의 하부유구 조사시 축대 1의 북측 Tr에서 몇 기의 치석된 석재와 와편 및 통일신라기로 보이는 인화문토기편들이 수습되어 아지구 축대 하층에 선행유구가 있을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축대는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암갈색사질점토와 소량의 잡석으로 뒷채움을 하였다. 건물지 하부는 풍화암반층으로 다른 유구층은 보이지 않고 생토층과 접하여 있다. 축대 2 남측에서는 3기의 구들유구가 새로이 나타났다.

7) 안양 관양동 선사유적

가) 위 치 : 안양시 東安區 冠陽洞 산15-3번지 및 산15-12번지 일대

나) 조사기간 : 2002년 6월 27 ~ 2002년 9월 10일

다) 시 대 : 청동기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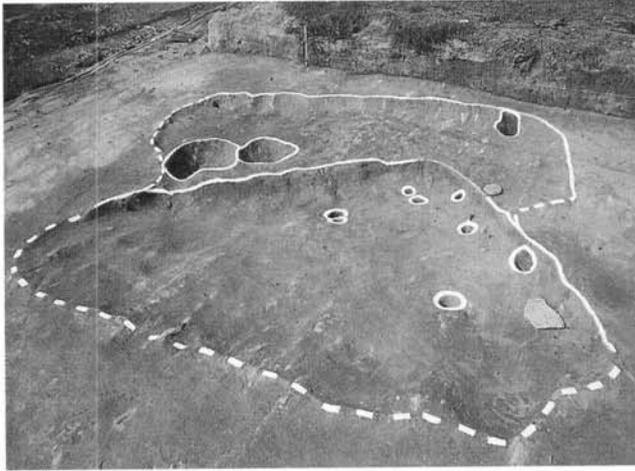
라) 조사내용

안양시 관양동 선사유적은 행정구역상으로 京畿道 安養市 東安區 冠陽洞 산15-3번지 및 산15-12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장차 수도권에서 발생될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을 진행하고자, 1999년 본 연구원에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의뢰하였다. 이후 2000년 12월 7일부터 2001년 6월 10일까지 2차례에 걸친 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5기·수혈유구 4기·석곽묘 5기·토광묘 1기 등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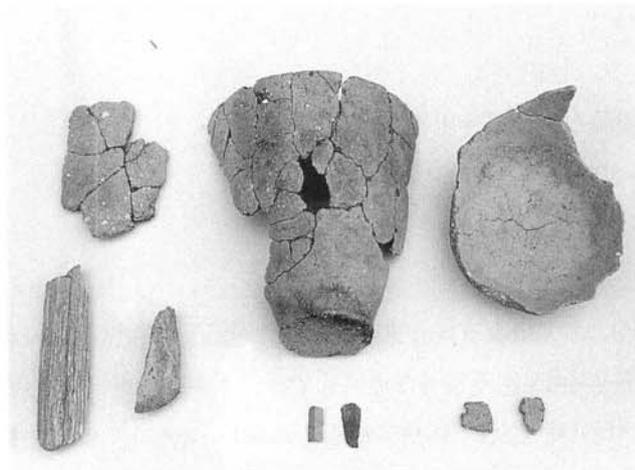
이에 따라 조사지역이 위치하는 구릉 주변으로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2002년 6월 27일부터 2002년 9월 10일까지 연장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번 발굴지역은 산15-3번지 일대이며, 남쪽으로 2001년 조사지역과 접해 있다. 면적은 약 226평에 해당된다. 여기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3기가 추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안양시 坪村洞 방향에서 果川市로 지나는 仁德院 4거리의 좌측언덕(정상부 해발 69m)에 위치한다. 이 구릉의 정상부를 따라 안양시와 과천시 경계가 설정되어 있다. 이 지역은 관악산(冠岳山, 해발 629.1m)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의 끝자락으로 나즈막한 구릉을 이루고 있으며, 조사지역은 이 구릉의 남사면에 해당된다.

유적의 북서쪽은 관악산과 그 줄기인 삼성산(三聖山, 해발 455m)이 위치하는 산악지형이며, 이곳



1·2호 주거지 모습



1·2호 주거지 출토 유물

의 산줄기들은 남북방향으로 뻗어 있어 골짜기를 따라 오랜 옛날부터 한양에서 삼남지방으로 통하는 교통로가 발달하였다. 동쪽은 청계산(淸溪山, 해발 583m)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린 낮은 구릉지대가 자리한다. 남쪽으로는 학의천(鶴儀川)이 동→서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학의천은 비산동(飛山洞) 부근에서 안양천(安養川)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유입된다. 학의천과 안양천의 사이지역에는 저평한 대지가 펼쳐져 있는데, 현재 평촌 신도시가 들어서 있다.

조사지역 내에는 활엽수와 침엽수 등 각종 수풀이 우거져 있으나 활엽수가 우세하며, 참나무류의 각종 도토리나무가 주를 이룬다. 조사지역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설상대지는 현재 포도농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구릉 전체

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래 동안 규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발 등에 의한 유적의 훼손은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유적으로는 본 유적을 비롯하여 부천 고강동유적, 시흥 계수동유적, 용인 봉명리유적, 용인 죽전 대덕골유적, 평택 현화리유적, 평택 지제동유적 등이 있으며, 이번 조사지역과 인접한 평촌·귀인·신촌·갈산 마을에서 13기의 고인돌이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동-서길이 46m, 남-북길이 25m의 부정형한 육각형으로 전체적인 지형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경사진 사면을 이루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소규모의 계곡부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된 지역은 2001년 조사지역의 북쪽과 인접해 있다.

조사를 위해 2001년 조사지역과 접하는 부분을 기준선으로 삼고, 임의의 기준점을 설정하였다.

동-서방향으로 폭 5m의 Grid를 구획하고, 순차적으로 전면 제토하면서 유구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조사지역의 남-북방향 층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a층 : 황갈색사질점토층, 잡석과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으며 점성은 매우 약하다. 무덤과 가까운 북쪽 지역에서만 확인된다.(표토층)

I-b층 : 갈색사질점토층, 잡석이 일부 혼입되어 있으며 백자편·기와편·질그릇편 등이 출토된다.(표토층)

II층 : 암갈색사질점토층, 목탄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으며 점성이 강하다. 무문토기편 등 청동기 시대 유물이 출토된다.

III층 : 진갈색사질점토층, 목탄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으며 점성이 강한 편이다. 무문토기편이 일부 출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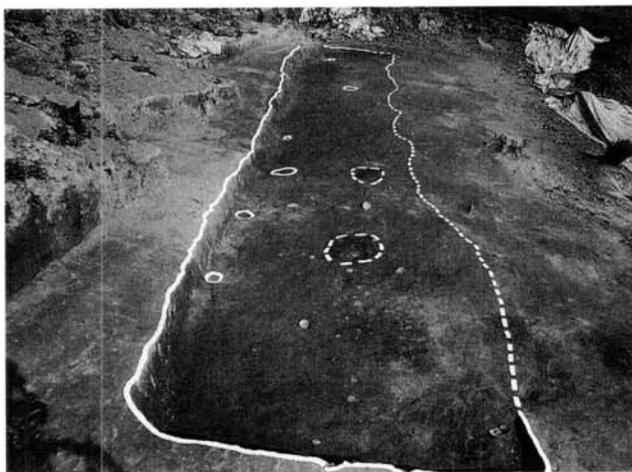
IV층 : 기반암풍화토

○ 1호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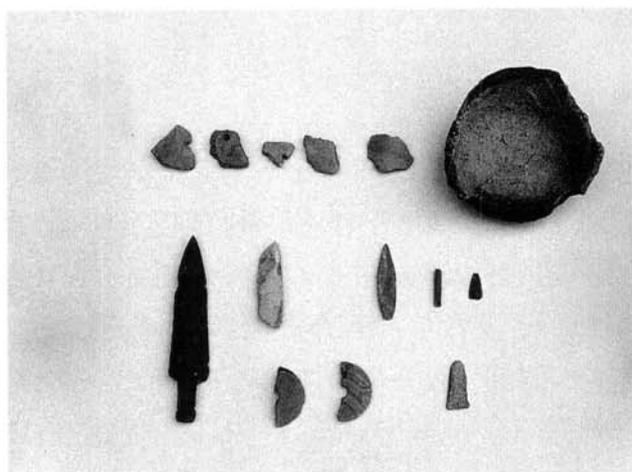
조사지역의 서쪽 사면부에서 확인된 것으로 기반암풍화토를 'L'자형으로 파고 조성되었다. 해발고도는 64.0~63.5m에 해당된다. 전체적인 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우나 심하게 삭평된 상태이다. 잔존길이 4.85m, 잔존너비 2.3m이며 잔존최대깊이는 12cm이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S-112°-W로 등고선 방향과 거의 평행하다. 바닥면에는 별다른 처리없이 기반암풍화토를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바닥은 남쪽으로 약간 경사진 상태이다. 일반적인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고, 후대의 교란구덩이를 포함할 수혈구덩이 3개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무문토기 동체편, 홍도편, 합인석부편, 석봉편 등이 있다.

○ 2호주거지

조사지역의 서쪽 사면부에서 확인된 것으로 1호주거지를 파괴하고 축조되었다. 해발고도는 63.5m에 해당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우나 삭평이 심한 상태이다. 잔존길이 3.85m, 잔존너비 3.68m이며 잔존 최대깊이는 21cm이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동-서방향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바닥면에는 일부 점토를 깔았고, 동북쪽 벽가를 중심으로 8개의 소공(小孔)이 확인되었다. 남쪽 중앙의 삭평된 부근에서 불탄자리가 확인되었으나, 백자 구연부편이 수습되어 주거지와의 관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로는 공렬토기구연부편, 심발형무문토기, 무문토기 저부편, 석제화살촉 등이 있다.



3호 주거지 모습



3호 주거지 출토 유물

○ 3호주거지

조사지역의 동쪽 사면부에 위치하며, 기반암풍화토와 진갈색 사질점토층(Ⅲ층)을 ㄱ자형으로 파고 조성되었다. 지형을 따라 삭평이 이루어져 남쪽 장벽 및 바닥면 일부가 남아있지 않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크기는 길이 15.4m, 너비 3.25m, 잔존최대깊이 63cm이다. 장축방향은 N-65°-E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거의 대부분의 바닥면에 점토를 깔았으며, 북쪽 장벽가를 따라 4개의 기둥구멍이 확인되었다. 이밖에 서쪽 중앙장축선상에 2개소의 토광형노지가 위치하며, 동쪽 중앙장축선상에는 중앙 기둥구멍 1개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공렬토기구연부편, 공렬+구순각목구연부편, 무문토기저부편, 토제 방추차, 마제석창, 석제

방추차, 화살촉, 석착편, 지석 등이 있다.

이밖에 지표 및 문화층에서는 찌개·격지와 같은 뎨석기, 토제 방추차, 석제 방추차, 홍도편, 분청사기인화문접시, 백자발 등이 수습되었다.

마) 조사성과

이번에 조사된 안양시 관양동 유적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청동기시대 주거지 3기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해발 63m 내외의 능선 끝자락에 조성되었으며, 3기 모두 사면부를 ㄱ자형으로 파고 축조되었다. 1호와 2호주거지는 삭평이 심하여 그 형태를 확실히 알기 어려우며, 3호주거

지도 남쪽 장벽과 바닥면 일부가 유실된 상태이다. 조사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추정 장방형 2기(1호, 2호), 세장방형 1기(3호)이며, 추정 장방형주거지에서는 일반적인 내부시설은 찾아지지 않았고, 다만 2호주거지에서 8개의 소공이 확인되었다. 3호주거지에서는 중앙장축선상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2개소의 토광형노지가 확인되었으며, 이밖에 벽과 기둥구멍 4개와 중앙 기둥구멍 1개가 조사되었다.

주거지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토기에서는 공렬토기구연부편, 공렬+구순각목구연부편과 무문의 심발형토기가 혼재되어 있으며 석기로는 합인석부편·석착편·편평육각촉편·이단경촉경부편·능형촉신편·석창·지석 등이 있다.

이는 한강유역에서 확인된 대부분의 청동기시대 주거유적에서 공렬·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 등 구연부시문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과는 일정정도 차이가 있으며, 2002년 관양동유적의 이러한 유물 출토상은 2001년에 조사된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있다.

관양동유적에서는 2001년(조사면적 약 314평)에 5기, 2002년(조사면적 약 226평)에 3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어 면적에 비해 높은 유구의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에 따른 파괴가 비교적 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조사된 관양동유적은 기존에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유적뿐만 아니라, 기전문화재연구원 등에서 근래에 조사한 수원 울전동·용인 봉명리·용인 죽전 대덕골·시흥 계수동·양평 양수리유적 등과 함께 한강유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상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8) 화성 동탄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

가) 위 치 :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 산122-2번지 일대 20지점/
산96-4번지 일대 21지점(59,796㎡-약19,433평)

나) 조사기간 : 2002년 10월 21일 ~ 2001년 12월 10일

다) 시 대 : 청동기시대

라) 조사내용

조사지역은 사업지구의 남단에 해당하며, 남쪽으로 금곡리와 접하는 행장골과 불군골의 북쪽 구릉이다. 행장골과 불군골의 북쪽은 해발 50~100m 이내의 잔구성 구릉들이 골짜기를 따라 분포하며, 20~23지점의 4개 시굴조사 대상 지역이 분포한다.

20지점은 해발 83.0m에서 시작한 세 개의 구릉과 구릉사이의 골간부를 형성하고 있는 지형 조건에 따라 A·B·C·D 네구역으로 나눈 후 B구역의 능선부 중앙에 임의의 기준점을 설정하였다. 기



20지점 전경

준점에 의거 사방 20m의 Grid를 기본으로 구획하고, 그리드 번호는 행과 열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부여하였다. 조사는 트렌치법과 피트법을 활용하였다. 트렌치는 각 그리드 단위로 기준선에서 2m를 이격하여 2×16m를 기준하면서 지형조건에 따라 트렌치의 길이를 조절하였다. 조사는 능선부에서 곡간부쪽으로 진행하였으며, B→A→C→D구역 순으로 진

행하였다. 트렌치는 각 그리드마다 1개소씩 우선 굴토하여 조사지역 전체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이후 각 그리드별로 1개소(경우에 따라서 2개소)를 추가 굴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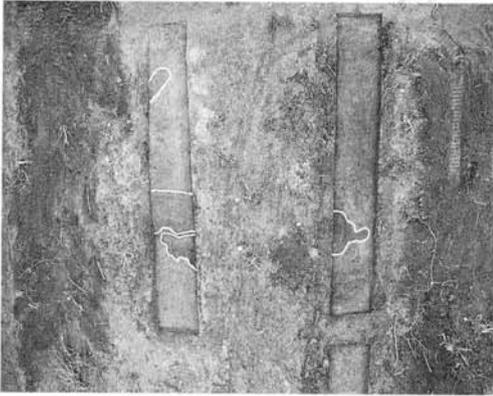
21지점은 지형 조건에 따라 A·B·C 세구역으로 나눈 후, 조사지역 중앙에 임의의 기준점을 설치하고, 20m 단위의 그리드를 구획하여 하였으며, A→B→C구역 순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은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 산 122-2번지 일대 20지점과 동 산96-4번지 일대 21지점으로 동면 금곡리와 접하는 행장골과 불군골 북쪽이다.

20지점은 해발 83.0m의 정상부에서 남쪽구릉으로 해발 45~70m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현재 82,439㎡(약 26,793평) 가운데 44,258㎡(약 14,383평)에 대하여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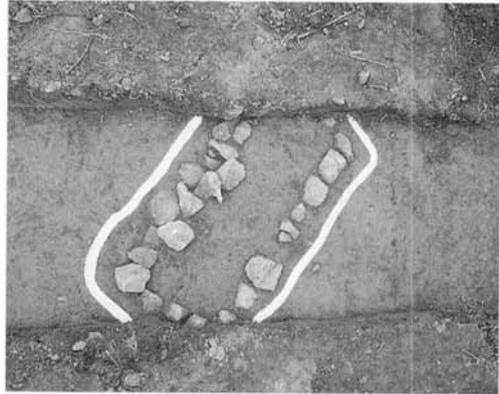
시굴조사 결과, 지석묘 1기, 석곽묘 3기, 토광묘 12기, 주거지 4기, 구덩이유구 9기, 가마 1기, 성격미상 유구 1기로 총 31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한편,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A-사4 트렌치'에서 무문토기편이 수습되었다.

21지점은 불군골의 북쪽 구릉에 해당되며 해발 68.0m의 남서사면이다. 유적은 불군골에 위치하고 있는 논과 접해 있는 남사면과 북편으로 곡간부가 형성되어 있는 동사면·서사면이 해당된다. 현재 28,693㎡(약 8,679평) 가운데 15,538㎡(약 5,050평)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소성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20지점 가마 및 폐기장 노출 전경



20지점 1호 석곽 노출 전경

20지점 유구 현황

○ 지석묘

지석묘는 지표조사 당시 보고된 것으로, 시굴조사 과정 중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지석묘는 동탄배수지의 철망담장과 1m내외정도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다. 남방식 지석묘로 주축방향 남북으로 293cm이고, 단축은 148cm이다. 서쪽측면 현재 노출된 두께는 최대 40cm이다. 지석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해 하부시설등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태이나, 동탄배수지 조성당시 이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 석곽묘

석곽묘는 총 3기가 확인되었다. 구역별로는 A구역 1기, D구역 2기로 나타나지만, 분포상으로는 조사지역의 구릉부에 위치하며 직선거리 70m이내에 3기가 분포하고 있다.

○ 토광묘

토광묘는 고려청자가 출토된 토광묘 1기와 분청사기 2개체분이 노출된 것을 비롯하여 총 13기이다. 상기 2기 이외에는 유구 확인 과정에서 노출된 유물은 없으며, 등고선방향과 직교하는 양상으로 볼 때, 근세 분묘로 추정된다.

○ 주거지

주거지는 총 4기가 확인되었다. B구역의 능선에서 A구역으로 잇는 부근에서 2기와 A구역 남동사



20지점 토광묘내 유물출토 상황

면에서 2기가 노출되었다. 1호 주거지는 북단벽 쪽에 할석 3개가 노출되어 있는데, 부엌시설로 추정되며, 자기 1점이 출토되었다. 3호 주거지는 트렌치 남장벽에서 단면이 확인되었는데 트렌치 바닥면 일부에서 직경 15cm의 목탄이 노출되어 있다. 3호 주거지는 할석과 기와편이 노출되어 있다. 4호 주거지는 유구확인과정에서 적갈색 무문토기편 4점이 확인되었다.

○ 구덩이 유구

구덩이 유구는 D구역을 제외하고 각 구역별로 2~4기가 분포한다. 유구는 대체로 암반을 기반층으로 형성되었다. 4호 유구에서는 트렌치 벽면에서 슬래그가 노출되었으며, 4호 유구를 포함하는 B-다3a트렌치 굴토과정에서 발화석 1점이 출토되었다. 그 외의 유구는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노출되는 유물은 없다.

○ 가마 유구

가마 유구는 가마와 폐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마는 A-사3a 트렌치와 A-사4 트렌치에 걸쳐서 표토하에서 바로 확인되었는데, 단축의 길이는 각각 200cm와 220cm이다. 폐기장은 가마의 부속유구로 목탄과 재를 포함하는 유구로 A-사4 트렌치에서 가마유구의 하단에 조성되어 있다. 가마는 A-사3a트렌치 북장벽쪽으로 향하여 원형소토부를 이루고 있어 회연부로 추정되며, A-사4트렌치에 이르기 까지 10~25cm가량의 소결된 벽체를 노출하고 있다.

○ 성격 불명 유구

B-나1 트렌치 표토 하 120cm에서 확인된 장방형 유구로 성격 미상이다. 트렌치의 층위는 표토, 다량의 할석을 포함하는 적갈색 점질사토층, 회갈색 점질사토, 암반으로 구성되는데, 유구는 암반층에서 확인되었다. 트렌치 바닥면에서 확인된 유구는 회갈색 암반풍화토를 내부토로하고, 주축방향은 북동-남서로 211×90cm이다. 유구 가운데에 3개의 할석이 위치하고 있다.

○ 기타

- A-사4 트렌치

3호 토광묘가 노출된 트렌치로 트렌치 남장벽 부근에서 무문토기편 수습.

- B-다2 트렌치

트렌치 서장벽에서 회색 경질토기 ½개체분 노출.

- B-다5 트렌치

4호 구덩이 유구(B-다3a 트렌치 내) 벽면에서 노출된 것과 동일한 슬래그가 트렌치 남단벽과 서장벽에서 노출.

21지점 조사 현황

조사는 기본적으로 구릉의 경사면과 직교되게 사방 20m의 그리드를 구획하였으며, 20m마다 폭 2m의 트렌치를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20m 간격의 기본 트렌치 조사를 마친 후 10m마다 폭 2m의 트렌치를 설정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경사면의 폭이 좁게 형성되어 있는 A구역과 B구역의 트렌치 길이는 임의로 설정하였다.

조사결과 A구역과 B구역은 경사면이 급하게 이루어져 있어 후대의 삭평이 현저하며 약50~60cm 하에서 암반층이 확인되어 유구 및 유물의 징후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C구역은 트렌치 조사결과 상당히 많은 양의 토사가 중심부에 퇴적되어 있었는데 모래와 점토가 번갈아 퇴적되어 약1m정도 후대에 성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층위는 I층(경작층), II층(모래 점토가 혼입되어 있는 후대 성토층), III층(암갈색점토층), IV층은 황갈색점토층으로 아주 단단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모래, 자갈이 비교적 덜 혼입되어 있다. V층은 연갈색사질점토층으로 IV층보다 밝은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C구역은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 관계로 많은 수의 유구가 조사될것으로 기대하였지만, 확실한 유구는 소성유구 1기만 확인되었다. 유물은 연질토기편, 회청색도기편, 자기편으로 비교적 소수가 출토되었다.

마) 조사성과

20지점은 지석묘 1기, 석곽묘 3기, 토광묘 13기, 주거지 4기, 구덩이유구 9기, 가마 1기, 성격미상 유구 1기로 총 31기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21지점은 소성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석곽묘는 모두 3기가 확인되었는데, 내부조사 미진행인 관계로 출토유물을 확인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토광묘는 13기 가운데 5호와 9호에서는 각각 청자와 분청사기가 노출되었으며, 아직 미조사 상태

로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등고선과의 관계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세 분묘로 추정된다. 주거지는 4기가 확인되었으며, 4호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주거지로 추정되며, 그 외 유구는 부분적으로 들어난 구조물과 유물로 볼 때 모두 고려시기 이후의 주거지로 판단된다.

구덩이 유구는 조사지역 전체에서 모두 9기가 확인되었다. 4호 유구에서 슬래그가 노출되었을 뿐 그 외의 유구에서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다. 구덩이 유구는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관계로 유구의 시기나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없다.

가마유구는 소결된 벽체 일부가 노출된 상태로 유구의 형태나 성격은 추후 조사과정에서 밝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1) 용인 죽전지구 청자가마(12번) 발굴조사

가)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보정 3리(6,615㎡-약 2,000평)

나) 조사기간 : 시굴조사 2001년 12월 18일부터 2002년 1월 14일

발굴조사 2002. 5. 22 ~ 12월 현재

다) 시 대 : 고려시대

라) 조사내용

조사지역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 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죽전지구'안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지표조사과정에서 청자와 가마벽체 조각 등이 확인되어 고려시대 청자가마터가 있던 곳으로 추정된 지역으로 시굴조사에서 가마와 폐기장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변에서 가마와 관련된 유물이 수습되어 조사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사지역은 구릉의 사면으로 조사지역을 제외한 곳은 제토되어 있거나 복토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에 시굴조사에서 가마가 파악된 지역과 그 이외 지역으로 나누어 가마터가 확인 된 곳을 1지점, 북측편을 2지점, 동측편을 3지점으로 임의로 구획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 1-1호 가마

유구의 장축방향은 서쪽으로 15° 기울어진 북서에서 남동이며 봉통부를 포함한 규모는 최대길이 12m, 최대 폭 1m, 최대잔존높이 50cm 정도이지만, 연도는 후대에 나무뿌리로 인해 파괴되어 바닥의 소결된 바닥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었다.

가마는 생토층을 굴착하여 반지하식으로 만들었으며 경사도가 완만한 등요의 형태를 취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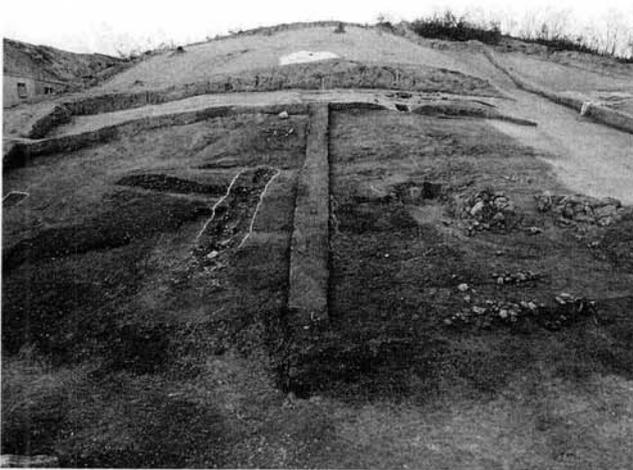
다. 전체 평면모양은 벽을 울퉁불퉁하게 조성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자형 형태를 띠고 있다.

유구에서 연도부는 파괴되어 확인이 어려우며 알 수 있는 구조는 봉통부, 소성실 2칸 뿐이다. 봉통의 규모는 대략 길이 175cm, 폭은 90cm정도이며 1소성실과 구분할 수 있게 높이 15cm정도의 불턱이 있다. 봉통은 진흙으로 벽을 조성하였고 회구부쪽으로 갈수록 좁게 만들었으며, 앞쪽에 재와 모래를 끌어내는 회구부가 보인다.

소성실의 평면형태는 細長한 모양이나 정확히 알 수 가 없으며 최대폭 100cm, 바닥 최대폭 105cm이고 경사도는 약 15° 정도로 보여진다. 소성실의 폭은 일정하지 않으며 좁아들었다가 다시 넓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소성실의 칸을 나눌 수 있는 근거로 보여진다. 바닥에 모래를 깔고 도지미를 얹은 후 기물을 번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연도로 추정되는 곳의 규모는 소결되어 있는 면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데 대략 100cm정도로 보여지나 파괴 상태가 심해 확실하지 않다.

○ 1-2호 가마



유적 전경

유구의 장축방향은 서쪽으로 10° 기울어진 북서에서 남동이며 규모는 잔존 최대길이 390cm, 최대 폭 140cm, 최대높이 10cm 정도이다. 1-1호 보다 선형하거나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초별칸과 연도로 보여진다.

유구의 양벽은 돌로 조성하였으며 끝 부분이 둥글게 좁아들고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하여 대략 60×50cm 크기의 수혈이 확인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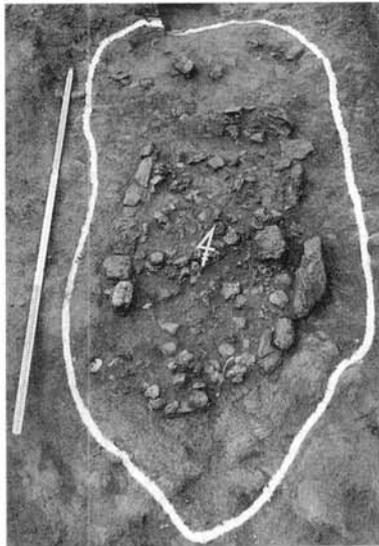
고 있는데 연기가 빠져나가는 시설로 추정된다.

○ 폐기장

생토층을 굴착하여 자기편과 도기편 등을 폐기하였다. 층위는 1층과 2층정도로써 흑갈색 퇴적토



청자가마



1-2호 가마 전경

와 적갈색 퇴적으로 나누어 진다. 1층과 2층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기종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1층에서는 대접, 접시 등의 일상용기와 함께 불교유물로 추정되는 것이 소량 출토되고 있으며 2층은 소량의 적갈색 퇴적토 속에 일상용기가 주로 폐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지미와 벽체편도 함께 확인되고 있다.

○ 석렬

석렬 14기가 확인되었는데 구들유구 1기, 건물지 1기, 추정 공방지 1기, 추정 석곽묘 1기, 기타 10기이다. 기타 10기 중 2기는 석렬에 재가 묻어 있어 불을 땀 흔적은 확실하나 정확한 성격은 알 수가 없다.

그 외에 민묘 10기가 확인되었으나 출토유물이 전혀 없어 조성시기를 알 수 없는 상태이고 기타 유구 3기가 파악되었는데, 불을 먹은 흔적이 있는 소성유구 1기, 폐기 구덩이 1기, 거의 파괴된 수혈 주거지 1기가 확인되었다. 수혈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가마와 같은 시기의 것으로서 가마와 관련이 있는 시설로 생각된다.

○ 유물

청자의 기종은 대접, 접시, 잔, 대반, 호, 합, 병, 뚜껑 등의 일상용기 8종과 불교 유물 1종, 요도구 등이 출토되었다. 받침은 대부분 모래가 섞인 내화토 받침을 하였으며 포개구워서 번조하였다.

· 대접 - 굽의 종류에 따라 다리굽과 평저로 분류될 수 있으며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편이다. 측면은 완만한 곡면을 이루고 있으며 굽저를 보다 크거나 작은 내저원각을 가지고 있다. 내저에 포개 구이 한 흔적이 대부분 있으며 모래가 섞인 내화토를 받쳐 구웠다. 태토는 조질이며 짙은 녹색을 띠는 경우가 많다. 유색은 녹갈색, 암록색, 황록색조를 보이고 있으나 광택이 좋지 않은 편이다. 문양은 영무문, 초문 등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청자류



이형기류



요도구류

· 접시 - 내저원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 내면에는 포개구이를 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구연이 외반한 것과 내만한 것, 사선형이 함께 존재한다. 태토는 잡물이 많이 섞여 있고 암록색, 녹색을 띠고 있으며 유색은 광택이 좋지 않은 편이다.

· 잔 - 굽은 다리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저도 보이고 있다. 굽을 만들어도 굽내면을 깎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내저 원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도 있으며 곡면을 이루거나 직립하기도 한다. 통형 모양을 한 잔이 보이기도 한다. 외면에 연판문을 음각하거나 압출양각하기도 하며 뇌문을 구연 끝에 돌린 경우도 있다.

· 대반 - 구연은 외반되었고 기벽은 사선으로 내려오며 굽은 평저이다. 태토의 질은 조질이며 유색은 짙은 녹색을 띠고 있다.

· 호 - 모양은 내만한하였으며 내저면은 곡면을 이루는 것도 있고 원각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 굽의 접지면은 폭이 좁은 편이며 모래가 섞인 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는데 접시의 내면에서는 포개구이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태토의 질은 좋지 않은 편이며 유색도 회록색, 짙은 녹색을 보이고 있다.

· 합 - 기벽이 결합한 모양은 원통형 모양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 병 - 기형에 따라 정병, 통형병, 유병, 광구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태토의 질과 유색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굽의 접지면에 모래가 섞인 내화토 받침을 하였다.

· 뚜껑 - 축과 꼭지의 유무에 따라 분류되며 꼭지와 축이 없는 경우는 상면이 편평하며 기벽이 사선으로 뺀 형이 있으며 꼭지가 있는 경우 보주형만이 보이고 있다.

- 불상 - 인면편과 손, 발편이 발견되었다. 시유되지 않은 초별편도 함께 출토되었다.
- 요도구 - 시번편이나 물레용구로 추정되는 ■형, ∩자형 등이 출토되었으며 물레에 부착품인 갓모가 존재한다. 도지미는 원판형, 원통형, 절구형 등이 확인되고 있다.

마) 조사성과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11~12세기의 도자기 요지를 확인하였는데 용인 서리, 시흥 방산동 이후 시기의 경기도내 자기 생산 시설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요지와 관련된 부속시설인 공방지 등이 다른 가마조사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되었다는 점, 또한 가마의 조업 당시 사람들의 생활공간으로 보여지는 석렬과 수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가마는 반지하식 등으로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그 구조와 규모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출토유물의 양상은 강진 용운리 10호 가마 2층, 대전 구완동 청자가마, 그리고 음성 생리가마와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적 주변 조사과정에서 청자 가마 다음시기로 보이는 도기가마가 3곳에서 5기가 확인되고 있어 청자가마 이후 이 지역은 도기 생산지역으로 변화되고 자기는 강진으로 집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대접을 비롯한 8개이상의 기종이 수습되었는데 대부분 일상용기이며 신앙의 대상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소량 출토되었다. 시문기법으로는 음각, 양각, 압출양각 등이 보이고 있으며 소재는 앵무문, 연판문, 뇌문, 당초문, 초문 등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산 기물들의 수요처는 인근 지역 일대로 보이고 있는데, 타 기관에서 조사한 주변의 마북리, 죽전리 건물지 등에서 같은 양상의 유물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처와 수요처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며 보살상, 나한상 등은 이 일대 사찰과 연관성을 가지고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2) 남양주 호평동 구석기유적 발굴조사

가) 위 치 : 남양주시 호평동 64-1전 일대 8,200㎡ (약 2,480평)

나) 조사기간 : 2002년 5월 10일 ~ 2002년 10월 9일 (150일간)

다) 시 대 : 구석기시대

라) 조사내용

남양주시 호평동 구석기유적은 2000-2001년에 걸쳐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시행한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 택지개발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중 호평지구 가마터에서 구석기시대의 뎀석기가

수습되면서 확인되었다.

이 지역은 한국토지공사가 수도권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4년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1998년 3월 숭실대학교 박물관에서 이 지역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호평동과 평내동 일대에서 15개소의 유적을 확인하였다. 이 가운데 조선시대 기와가마터 3개소가 기전문화재 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는데 호평동 기와가마터 발굴 도중 와요 아래층에서 구석기 유물이 찾아졌다. 이에 따라 유물층의 확인을 위해 간단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지표에 노출되어 있는 사력층 아래에 쌓인 적갈색 점토층에서 석영 및 규암제 몸돌, 격지, 밀개, 굽개 등을 비롯하여 응회암제 줍돌날몸돌, 줍돌날, 격지 그리고 흑요석제 톱니날과 격지 등이 수습되었다. 이에 호평동 구석기유적에 대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년 5월 10일 발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호평동 유적일대는 천마산, 백봉산으로 이어지는 산지로 둘러 싸여 있는 분지형의 최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분지는 왕숙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침식으로 형성되었으며 지질 차이로 인한 차별침식 기원이 아닌 구조분지일 가능성이 크다. 이 분지내에는 주변 높은 산지에서 침식되어 이동된 사면기원 퇴적물이 널리 퇴적되어 있으며, 이 퇴적물은 분지의 중앙과 하부로 갈수록 고기 하성퇴적물과 혼재하는 퇴적상을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본 호평동 유적에서 산지에 연결되어있는 사면에서는 중력과 호우에 의해 암석류나 토석류와 같은 형태로 사면기원퇴적층의 이동이 흔히 일어나고 있다. 또한 산지 계곡을 따라 곡간에서는 소하천 유수작용에 의한 일시적 홍수퇴적이 일어날 수 있으며, 홍수범람퇴적층도 부분적으로 퇴적될 수 있다. 호평동 유적지는 사면의 말단부에 위치하여 두부침식에 의한 사면 개석이 일어났다. 이러한 산록완사면 환경하에서 퇴적체 상부는 중력작용이 우세한 사면기원퇴적층, 하부는 유수작용이 우세한 가운데 하천기원 퇴적층이 더 잘 나타난다. 암쇄류를 구성하는 자갈은 암반에서 암석이 떨어져 나온 후 유수에 의한 이동거리가 매우 짧기 때문에 각력 내지는 각력의 형태가 우세할 것으로 판단된다.

호평동 유적일대의 기반암 지질은 잔구성 화강암질 편마암(augen granitic gneiss)이 흔히 나타난다. 이 암석은 편마암류 중에서 고도의 화강암화 작용을 받은 암석이며, 흑운모화강암 조성이 아주 비슷하나 현저한 엽리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암은 중립질 내지 조립질 변정질 조직을 이루고 있으며 엽리는 곳에 따라 변화가 있는 편이다. 이 암석은 풍화와 침식에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어서 낮은 구릉 또는 잔구를 형성하고 있다.

호평동 유적에서 나타나는 층위구조는 아래서부터 위로 가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하부에는 편마암의 현지성 풍화대(V층)가 국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위로는 사면기원 퇴적층이 다양한 두께로 분포하여 있는데, 이 사면기원 퇴적층은 하부로부터 직경이 약 30-40cm 에 달하는 암편도 포함되는 각력질 암쇄류층(IVa층)이 가장 널리 분포하며, 이 지층내에는 상대적으로 저습한 지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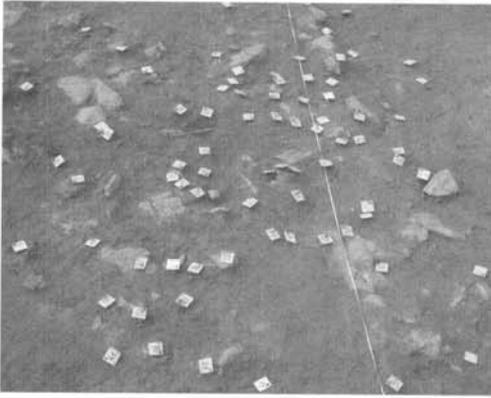
서 형성된 담회청색 니질층(IVb층)이 국부적으로 분포하여 있으며, 이 지층의 연장성은 적은 편이다. 또한 각력질 암쇄류층은 위로 갈수록 암쇄류층의 사이 사이에 명갈색 니사질 찰흙층(IVc층)을 포함하기도 하다가, 최상부로 갈수록 토양썰기(soil wedge) 혹은 동결성 균열조직(frost cracks)이 발달하여 있는 갈색 니사질 찰흙층(III층)이 분포하여 있다. 실제로 2지구의 구덩5(H-J/35-37)에서는 약 70cm 두께로 분포하여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구덩내에서 횡적 연장성도 다른 구덩에 비하여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이 보다 더 상부 지표면은 다양한 표토물질 이동작용에 따라 여러 차례 재이동 작용도 가능한 상태로 집적되어 있고, 이들은 각력질 자갈, 니질물 및 사질물이 다양하게 혼재하는 상태로 분포하여 있다(II층). 그리고 지표 최상부에는 최근 경작층 내지 인위적인 교란층인 표토층(I층)이 분포한다.

호평동 구석기유적의 지층 형성시기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한반도에서는 사면기원 퇴적층 형성이 촉진될 수 있었던 환경은 빙기동안이며 이때는 토양내의 동결작용과 용해작용이 왕성했던 시기로 판단된다. 따라서 호평동 유적의 암쇄류층은 최종빙기에 형성된 지층으로 잠정 해석된다(현재 연대측정이 실시중에 있음). 특히, 사면기원 암쇄류층의 최상부에는 소규모의 국부적 토우작용(earthflow) 혹은 국부적으로 형성된 니류층(mud flow)이 분포하여 있다. 이들은 횡적 연장성이 빈약한 편이나 전형적인 최종빙기 최성기 동안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토양썰기 조직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토양썰기가 포함되어 있는 니사질 찰흙층은 한반도 최종빙기 최성기인 약 20,000년 전후에 형성된 지층이며, 이보다 더 하부의 기반암 바로 상부에 있는 암쇄류층은 약 65,000년전 보다 더 나중 시기에 형성된 지층으로 잠정 추정된다.

현재까지 발굴이 진행된 구역(전체 조사면적의 1/7에 해당)을 중심으로 볼 때 호평동 유적에서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곳은 토양썰기가 발달하여 있는 갈색 니사질 찰흙층(III층)의 아래부분이며 유물은 현재 발굴구역 전체 면적에 걸쳐 분포한다.

출토된 석기의 종류에는 몸돌, 좀돌날 몸돌, 격지, 돌날, 좀돌날을 비롯하여 굽개, 홈날, 밀개, 새기개, 뚜르개 등의 잔손질된 석기와 찍개, 여러면석기 그리고 돌망치 등이 있다. 석기제작에 활용된 돌감은 석영, 규암, 흑요석, 혼펠스, 유문암, 응회암, 세일, 역암, 수정, 벽옥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의 석영은 맥석영이며 유백색의 질이 뛰어난 것이 흔하게 관찰되고 드물긴 하지만 몸체가 자갈돌인 것도 있다.

유물은 조사된 구역 전체에 걸쳐 군데군데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각 석기집중 구역은 주로 사용된 돌감에 따라 구분된다. 즉 11열의 A~C 구역에서는 주로 흑요석이 활용된 좀돌날 몸돌, 좀돌날, 격지, 좀돌날의 끝부분을 뾰족한 모양으로 잔손질하여 만든 뚜르개 등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데 이 중에는 두 점의 격지가 서로 붙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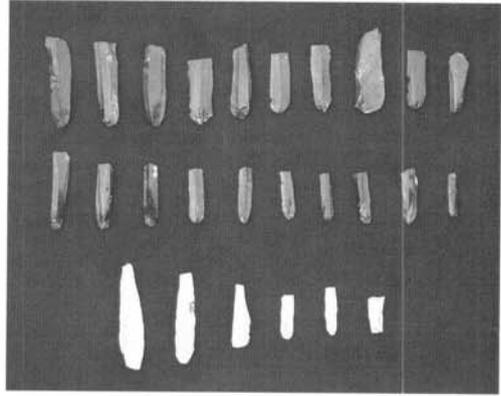


유물분포상태



석영제 석기 노출 모습

15~16열의 G~I구역에서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석영제 격지와 돌조각이 분포한 구역과, 주로 혼펠스가 사용된 석기 집중구역으로 구분된다. 또한 F17칸을 비롯하여 20~21열의 E~F 구역에서는 석영, 혼펠스, 유문암, 응회암, 흑요석 등 여러 종류의 돌감을 사용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석영제 몸돌, 격지, 굽개, 홈날, 여러면 석기를 비롯하여 혼펠스 줌돌날몸돌, 격지, 돌날, 줌돌날 그리고 흑요석으로 만든 밀개 등이 밀집되어 있다. 20~21열의 O~P 구역에서는



석기류 각종

끝부분이 갈린 돌망치를 비롯하여 세일, 혼펠스 등의 돌감을 이용하여 만든 여러점의 밀개와 새기개 그리고 떼기축을 중심으로 반조각난 커다란 첫격지의 전체 날부분을 가지런하게 얇은 잔손질을 베풀어 만든 굽개가 있다. 또한 혼펠스의 줌돌날과 작은 돌조각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Q21칸과, 질이 좋은 유백색 석영제의 고갈된 몸돌, 격지, 돌조각이 집중되어 있는 R19칸에서 나타나는 석기의 분포 양상을 통해 볼 때 석기제작터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석기가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나타나는 구역 중 적어도 3곳에서는 비교적 많은 양의 숯이 찾아졌는데 그 분포 규모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마) 조사성과

첫째, 유적의 1지구 중심을 이루어진 현재까지의 발굴조사 및 2지구 시굴조사 결과 후기구석기시대의 유물이 출토되는 갈색 찰흙층은 유적의 전체 조사면적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1지구의 석기 집중구역에서 나타나는 석기의 분포양상은 돌감에 따른 석기제작터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각 구역에서 출토된 전체 석기의 구성, 석기제작기법상의 특징 및 석기에 나타난 쓴자국에 대한 연구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여러 지점의 석기 집중구역에서 출토된 솥은 이러한 문화층의 시기뿐 아니라 당시의 자연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될 것이다.

세째, 현재까지 발굴된 석기는 1,200여 점에 이르며 석기의 종류에는 몸돌, 줍돌날 몸돌, 돌날, 격지, 줍돌날을 비롯하여 굽개, 홈날, 밀개, 새기개, 뚜르개 등 여러 종류의 잔손질된 석기와 찍개, 여러 면석기, 돌망치 등이 있다. 이러한 석기 제작에 활용된 돌감은 석영, 규암, 역암, 흑요석, 혼펠스, 유문암, 응회암, 세일, 수정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각 돌감에 대한 정확한 판별과 더불어 원산지 추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당시 사람들의 활동범위를 복원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넷째, 호평동 유적은 후기구석기시대의 특징적인 유물이 출토된 유적으로 경기도 광주 삼리유적, 의정부 민락동유적 그리고 강원도 철원 장흥리, 홍천 하화계리, 양구 상무릉리 유적 등과의 비교 연구는 이 지역의 후기구석기시대 문화양상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13) 하남 교산동 건물지 4차 발굴조사

가) 위 치 : 하남시 교산동 78-3번지 일대(약2,850평)

나) 조사기간 : 시굴/1차 1999년 8월23일~ 2000년 12월 18일

2차 2000년 7월 3일~2001년 11월 24일

3차 2001년 7월 30일~12월 31일

4차 2002년 10월 1일~12월 31일

다) 시 대 : 통일신라기~조선시대

라) 조사내용

하남 교산동 건물지는 1999년 세종대학교 박물관에서 시행한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이래로 그 보존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자 학술조사가 계획되었고 본 연구원에서 1999년 유적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표상에 드러난 건물지 외에 여러개의 중복된 건물지가 확인되어 조사지역을 건물지 배치에 따라 3개의 지점으로 구분하고 각 지점에 대한 연차조사계획이 실시되었다.

4차 발굴조사는 2002년 10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실시되었으며 2회이상의 중복된 양상이 확인된 동쪽건물지, 남동쪽 담장지 회절부 및 동쪽담장지가 조사되었다.

동쪽건물지는 건물지 배치중 동쪽에 위치한 건물지이며 서쪽건물지와 대칭하고 있다. 그러나 위치와는 달리 건물지를 이루고 있는 단은 서쪽건물지보다 약 2m가량 높은 위치에 있으며 너비도 2배 가량 넓은 형태이다. 시굴조사시 지표면에 최후대의 건물지 초석열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건물지 외곽으로 담장지로 추정되는 2개의 석열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굴조사시 확인된 최상부 건물지 초석열 사이로 중복된 선대건물지 초석 및 적심이 일부 노출되었다. 후대건물지 조영으로 인해 상당부분 파괴되어 북단과 남단일부에서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2m내외의 주칸거리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쪽건물지를 이루고 있는 단의 형태가 서쪽이 낮은 계단형을 이루고 있는데 서쪽건물지와 대칭되는 유구는 낮은단에서 확인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탐색트렌치 조사상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변에서 확인되는 대형초석들도 상부건물지에서 유실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건물지 존재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상부 건물지가 위치한 부분은 담장지의 연장선상에 위치해 있으므로 최상부 건물지가 조영될 시기에 담장지로서의 용도는 폐기되고 건물지조영과 관련하여 삭평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금번 탐색트렌치 조사에서 담장지 석축열로 추정되는 석열이 건물지 하층에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최상부건물지에서 원지반층인 암반풍화층까지는 1.3m의 퇴적층을 이루고 있는데 담장지 연장부 석열은 80cm깊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석열아래에서도 10cm가량의 기와포함 퇴적층이 있다. 퇴적층 하부에서는 더이상 유구는 확인되지 않고 원지반층인 암반풍화토가 확인되었다.

3차 발굴조사를 통해 남쪽담장지는 상·하층이 각 2단씩의 석축으로 축조되었으며 회절부의 특징이 하층석축은 방형으로 된 반면 상층석축은 곡선으로 되어있어 서로 다른 축조방법을 보이고 있으므로 상부의 석축은 후대에 보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금번조사는 이러한 남동회절부의 동쪽연장부에 대한 조사로서 동쪽건물지가 위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조사를 실시하였고 동쪽건물지가 위치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탐색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절부와 인접한 부분의 양상은 우선 상부의 표토층을 제거하고 할석층을 노출하였으나 그 형태가 정연하지 않고 외곽석축열의 유무가 판단되지 않음에 따라 부분적으로 탐색트렌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S3E4에서는 표토층을 제외한 성토층은 황갈색의 매우 단단한 점토층으로 되어있으며 유물도 극히 소량 포함된 층위였으며 상·하단 각각 1단씩의 석축열이 노출되었으며 계단식으로 축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석축열 및 담장내측부는 황갈색점토층으로 되어있으며 표토를 제외하고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동쪽담장지 연장부에 대한 조사는 현재 동쪽건물지가 위치한 지점에 해당하므로 유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탐색트렌치조사가 중심이 되었다. 우선 동쪽건물지 N3E4그리드 동쪽외곽에

설치한 탐색트렌치 하단 회절부에서 기 확인된 석축열과 동일한 형태의 석축열이 확인되었다. 또한, 건물지 내부에 설치한 탐색트렌치 상에서도 동일한 진행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석축열이 확인되었는데 높이는 약 70cm이며 맨아래단 위로는 1단가량 들어쌓은 형태이다. 동쪽담장지의 내면에 해당하면서 남쪽담장지 외면 석축의 축조방법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4차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이전조사들에 비해 기와류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백자류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자 및 토기편은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

기와류의 출토양상은 각종 문양의 암기와, 수기와가 출토되었으며 동쪽건물지 남단부 탐색트렌치에서 기 출토된 것과 동일한 문양대의 연화문수막새편 1점, 동쪽건물지내부탐색트렌치 석축열하부에서 귀면와 1점이 출토되었다. 명문와는 여러점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동쪽담장지 연장부에서 기 출토된 바 있는 '戒達伯士' 銘 명문와가 출토되어 담장지의 축조시기와 관련되어있을 것으로 짐작되며, '官' 銘, '대' 銘으로 추정되는 명문와 등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명문와 수점이 출토되었다

자기류는 각종기형의 백자편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분청사기와 청자편이 극소량 출토되었다. 특히 동쪽건물지 서쪽경사면에 대한 조사에서 말이 시문된 철화백자편이 1점 출토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극히 소량의 토기편만이 출토되었는데 동쪽건물지 남단부 탐색트렌치상에서 바닥에 격자문이 시문된 대부완으로 추정되는 토기저부편이 연화문 수막새편 1점과 함께 출토되었다. 그 밖에는 출토된 토기편들은 대체로 고려이후의 경질토기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마) 조사성과

이상의 하남 교산동 4차 발굴조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동쪽건물지는 2회에 걸쳐 중복된 건물지임이 확인되었다. 최상층 건물지는 주칸거리 3m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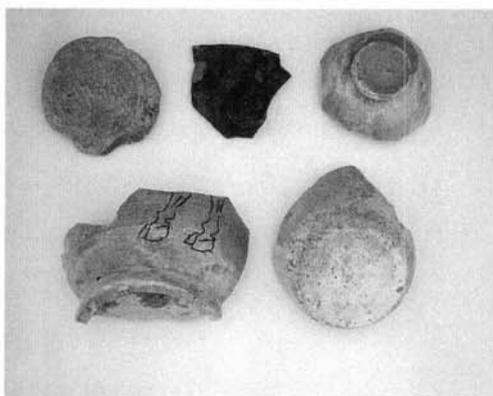
교산동 건물지 전경

조선시대 건물지로 추정되며 2차 건물지는 상당부분 초석이 유실되어 정확한 규모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주칸거리 2m를 가지는 건물지로 추정된다. 또한 남쪽 건물지 하층건물지와 동일한 주칸거리를 가지는 것으로 미루어 동일한 시기인 고려시대 건물지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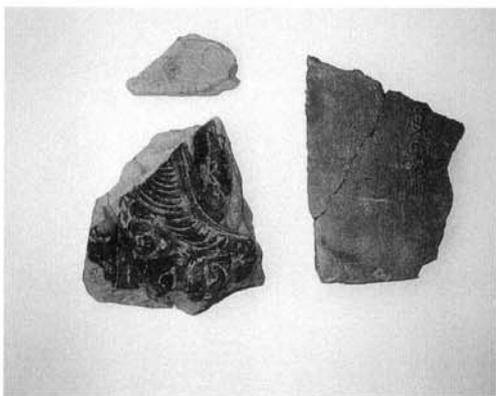
둘째, 동쪽담장지는 3차조사시



동쪽 건물지 항공사진



토·도자류



기외류

남쪽담장지에서 노출되었던 수직상의 축조양상과 달리 상하층의 석축이 1단씩 계단식으로 축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3차조사시 회절부에 대한 조사에서 상·하층의 석축이 각기 다른 축조방식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보축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금변조사에서 확인된 석렬이 회절부상의 석렬들과 같은 레벨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그 연장부로 추정된다. 동쪽건물지 내부 탐색트렌치상에서 담장지 내측석

축으로 추정되는 석렬들이 확인되어 동쪽담장지의 축조당시 규모는 폭4m가량으로 확인되었으나 축조방법에 있어 남쪽담장지의 외곽석축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동쪽건물지 서쪽 경사면상에서 초석들이 일부 노출되어 있고 서쪽건물지와 대칭상의 구조로 볼 때 건물지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4차에 걸친 시·발굴조사를 통해 본 유적에서 통일신라~조선시대에 걸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관영건축물이라는 포괄적인 성격외에 각 건물지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4) 양주 회암사지 5차 발굴조사

가) 위 치 :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산 14-1번지 일대

나) 조사기간 : 1차 1998년 8월27일~ 1999년 6월 30일

2차 2000년 3월 2일~2000년 9월 30일

3차 2001년 3월 8일~2001년 4월 26일

4차 2001년 5월 7일~2002 5월 16일

5차 2002년 6월 14일~2003년 현재

다) 시 대 : 고려말~조선시대

라) 조사내용

양주 회암사지 조사현황

시굴조사 : 1997년 사역 전체 경기도박물관

조사 후 7개년에 걸친 중장기 조사계획 수립

1차발굴 : 1998년 8단지 전체

정청 및 주변 건물지 왕실과의 관련성 확인. 주변 유물산포지에 대한 시굴조사 실시

2차발굴 : 1999년 6, 7단지 전체

경기도박물관, 기전문화재연구원

보광전 건물지의 금탁 발견(명문을 통해 이성계와의 관련성 확인)

3차발굴 : 2000년 5단지 서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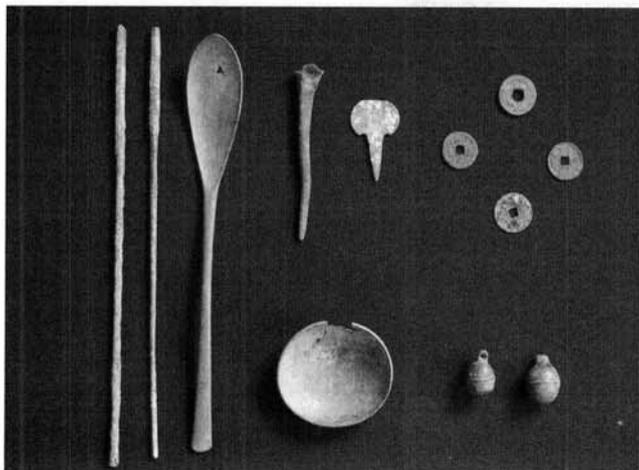
완벽한 상태의 구들시설 다수 조사

4차발굴 : 2001년 5단지 동쪽

4단지 전체

보광전에 이르는 문지가 사천왕문임을 확인

현재까지 조사된 건물지는 5차 조사지역까지 포함하여 모두 50개 건물지에 이르며, 이외에도 정료대, 집수정, 내부담장지, 수조, 맷돌, 배수시설, 화단 등 다양한 유구들이 조사되었다. 건물지 배치는 보광전 건물지가 위치한 6단지를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설법전, 사리전, 정청 등 중앙 전각을 중심으로 나머지 건물지들이 좌우에 배치되고 있으나, 남쪽의 5단지부터 3단지까지는 중정식 배치를 이룬다. 건물지는 대부분 하부 구조가 완벽한 상태로 조사된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다양한 구들 시설



각종 청동류



4단지 '라' 건물지 조사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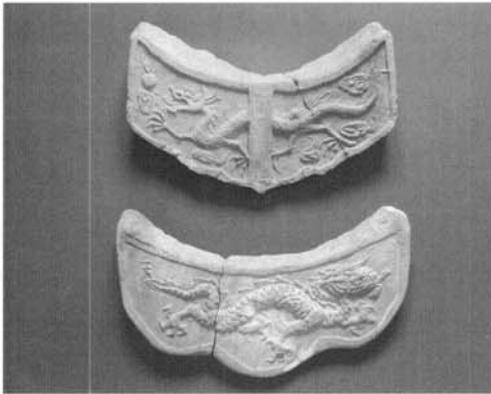
이 조사되어 향후 전통 구들을 이해하는데 있어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출토 유물은 정식으로 보고 될 유물만 2만 여 점에 이르는데, 조선 전기의 유물들이 주종을 이루며, 일부 고려 후기 또는 임란 이후의 17세기 유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5차 발굴조사는 양주 회암사지 3단지 동쪽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지역은 본래 한국 건축문화연구소에 의해 간단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정비가 완료된 지역으로 대체적인 건물지 위치와 규모는 이미 알려져 진 바 있다. 조사는 3단지 동쪽 지역의 경우, 유구 노출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4차 조사시 내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4, 5단지 건물지에 대한 내부조사가 병행 실시되었다. 또한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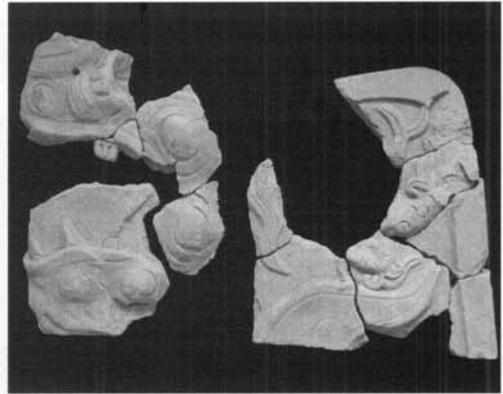
있는 8단지 북쪽 지역 가운데 북동쪽 계곡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집수정이 확인되어 전면 확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회암사지 3단지 동쪽 지역에서 조사된 건물지 가운데 2실로 구성된 건물지는 모두 4개소로 동쪽 동선을 중심으로 3단지 상단과 하단의 좌우측에 각각 분포하고 있다. 상단 건물지는 남북 2실로, 그리고 하단 건물지는 동서 2실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다른 지역에서는 이와 동일한 평면 구조의 건물지가 조사된 바 없어, 3단지 동쪽 지역 건물지군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들 건물지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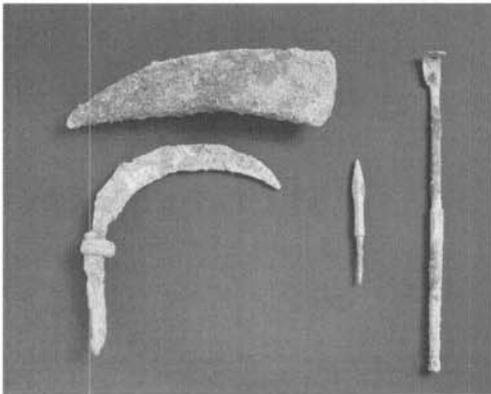
3단지 동쪽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우물지와 방형의 석조물 등이 조사되었는데, 이들 유구들이 개별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정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3단지 「사」 건물지



3단지 출토 암막새



4단지 '바' 건물지 출토 취두



4단지 출토 각종 철기류



4단지 출토 각종 와질 소조품

내부의 맷돌과 건물지 서쪽의 배수로, 수조시설 등이 조사되었는데, 3단지 동쪽 지역의 기능과 관련하여 공간 활용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마) 조사성과

첫째, 발굴단에서는 조사가 완료된 건물지에 대해서는 비닐을 깔고 복토하여 보존하되, 기단과 초석은 노출시키고 있다. 또한 향후 복토가 완료된 건물지에 한해서 잔디를 입힐 예정이나, 유구 보존과 관련하여 잔디 식재가 석조 문화재에 유익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어 향후 발굴 유구 및 건물지에 대한 보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회암사지에 대한 정비 작업은 발굴조사가 완료되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정비 계획에 의거 장기적으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발굴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유구에 대한 최소한의 훼손을 막기 위해 응급적인 수준에서의 정비가 필요함. 집중호우에 의한 유적 훼손을 막기 위해 현재 회암사지 북쪽 배수로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노출된 유구 가운데 석축단 및 일부 건물

지의 석축이 붕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유구에 대한 정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회암사지 중장기 발굴조사계획에 따라 2003년도에는 6차 발굴조사가 3단지 서쪽 지역과 함께 1, 2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2004년도에는 회암사지 사역 외곽지역을 대상으로 7차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넷째, 그러나 사역 외곽지역의 유물산포지에 대한 시굴조사에서 대부분 유구가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물전시관 및 부대 시설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 등으로 2005년까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임.

15) 華城 旗安里 豊盛아파트 新築工事敷地内 發掘調査

가) 위 치 : 화성시 태안읍 기안리 457-83번지 외 83필지 약 114,466㎡

나) 조사기간 : 시굴조사 : 2002년 7월 3일부터 동년 8월 5일

발굴조사 : 2002년 9월 9일~2003년 상반기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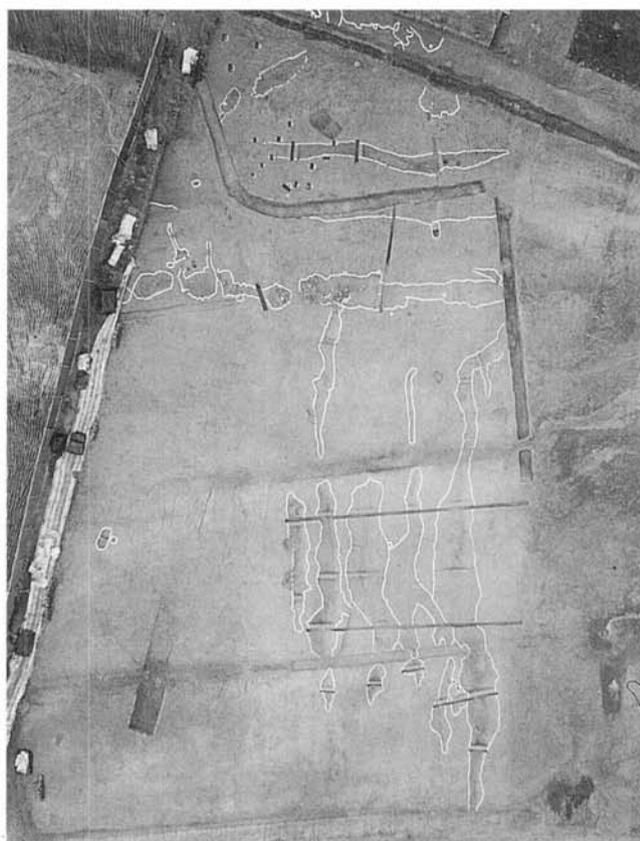
다) 사 대 : 고려초기 백제기

라) 조사내용

(주)풍성주택에서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기안리 457-83번지 외 83필지 약 114,466㎡(약 34,660평)에 대한 아파트 및 학교건설을 추진하면서 동 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우리연구원에 의뢰하여 온 바 이에 2002년 5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배양리 69번지 田 일대에서 백제토기편과 고분으로 추정되는 마운드를 확인하였고(학교건설부지), 배양리 457-116田 일대(아파트건설부지)에서 백제토기편이 산포됨을 확인하였으며, 2002년 7월 3일부터 동년 8월 5일까지 33일간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대상지역의 북동 및 북서사면에서 34,679㎡(약 10,500평)의 면적에서 집중적인 유구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문화재청으로부터 2002년 9월 2일자로 허가를 받아 동년 9월 9일부터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공사시행지역과의 구분을 위하여 경계부분에 울타리를 설치한 후 능선의 주축방향이 남-북인 점을 감안하여 비교적 교란의 정도가 심할 것으로 판단되는 서사면부터 전면적인 제토를 실시하였다. 제토과정에서 유구가 확인되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평면형태를 확인하고 사진촬영 등의 제반기록을 남겼다. 동사면은 시굴조사시에 남겨두었던 N2E0~E1, N4E0~E1트렌치 북벽에 폭 1m의 독을 남겨서 층위를 기록하고 그 밖의 부분은 전면적으로 제토하였다.



1지점 유구 노출 전경

제토결과 전체 조사면적 34,679㎡(약 10,500평) 중 동사면과 서서면 하단부의 3개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14,876㎡(약 4,500평)에서만 유구가 확인되었을 뿐, 그 밖의 지점에서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 조사지역이 능선의 양쪽사면에 분포하고 지장물로 구분되는 6개 지점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지도위원회 의의 대상지역은 1지점이다.

1지점은 능선정상을 중심으로 북서사면의 상부에 해당하며 조사 전 양계장으로 사용되어 등고선방향과 나란하게 위치하였다. 鷄舍때문에 지표의 상당부분이 삭평되었으며, 현재면에는 고토

양층이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조사는 계사가 있었던 바닥면을 정리하고 제토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면 상부에 고토양층을 파고 조성된 5기의 구상유구가 등고선방향과 직교해서 거의 등간격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면 하단부에서는 원형과 방향의 수혈유구와 구상유구가 등고선방향과 나란하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 유구의 윤곽을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수도관 등을 매립하였던 교란층을 제거하여 유구의 단면을 조사할 수 있었다.

조사결과 사면 상부에서는 총 5기의 구상유구와, 하단부에서는 단야로 3기, 구상유구 3기, 집석유구 1기, 수혈유구 7기, 성격미상유구 3기 등 총 22기의 유구를 확인하였다.

이 중 종방향의 구상유구는 완만한 'S'자형의 평면을 띠고 있고 의도적으로 물흐름의 곡류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단면은 완만한 'U'자형을 띠고 있으며, 최대깊이 50cm정도, 최대 폭 2m에 이르는 것들이며, 또한 상호간에 중복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북쪽의 5호에서 남쪽의 1호의 순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층위는 바닥 면에 약 5cm가량의 순모래층이 모든 구상

유구에서 확인되는 점, 전체적인 평면형태가 완만한 'S'자형을 띠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단 배수와 관련된 목적으로 시설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수혈유구는 사면 하단부에서 남-북으로 일직선상에서 4개가 나란하게 확인되었는데, 이 중 1호 수혈에 대한 내부조사에서 방형상의 노벽편이 조사되었으며, 내부토에 대한 물체질 결과 다량의 단조박편이 수습되고 있어 폐기된 단야로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혈과 교란부 단면상에서 확인된 단야로 등으로 볼 때 약 7~8기의 단야로가 밀집,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구의 내부에서는 각종 백제토기편과 소량의 슬래그 등이 출토되었으며, 단야로에서는 단조박편과 다량의 鐵粉을 수습하였다. 출토유물은 기형이 복원되는 것은 없으나 대옹편, 기와편, 각종 타날문토기편 등 백제시대의 유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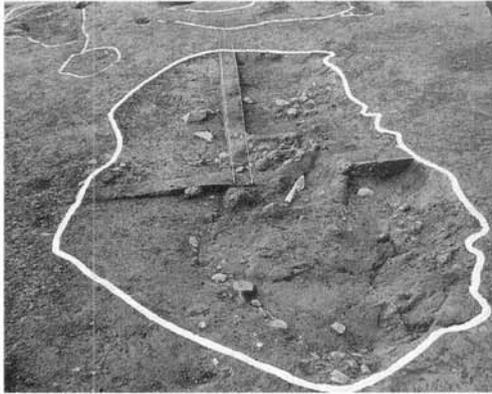
조사된 유구의 속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성격	호수	주축방향	규모(현길이×최대폭)	출토유물	비고
구상유구	1호	N - ° - E	548×76	백제토기편	교란구덩이 2개소
	2호	N - ° - E	1,620×120	백제토기편 외	6호 구상유구와 중복
	3호	N - ° - E	920×172	백제토기편	4-1호 구상유구와 중복
	4-1호	N - ° - E	600×76	백제토기편	3호 구상유구와 중복
	4호	N - ° - E	1,600×180	백제토기편	5호 구상유구와 중복, Y 자형으로 分枝
	5호	N - ° - E	2,040×200	대옹편, 슬래그 외	4호 구상유구와 중복
	6호	N - ° - E	828×132	백제토기편 외	적석유구와 중복
	7호	N - ° - E	752×80	백제토기편 외	
수혈유구	1호	N - 52° - E	344×200	백제토기편, 단조박편, 노벽편	단야로, 조사중
	2호	N - 50° - E	296×104		조사중
	3호		92×92(원형)	백제토기편 외	조사 중, 내부 적석부, 중앙부 소토
	4호	N - ° - E	140×56	백제토기편, 노벽편,	조사중
	5호	N - ° - E	304×84	백제토기편 조사중	
단야로	1호	N - 40° - W	140×50×24(최대깊이)	단조박편, 노벽편	연도제원 : 직경 25cm 원형 최대노벽두께 11cm 최대소결두께 9cm 방형부속시설(38×34)
적석유구	2호	W - S	140×68 360×176	단조박편, 단조대석(?) 백제토기편 외	동쪽유실, 남쪽 突出溝조사 중 6호 구상유구 상부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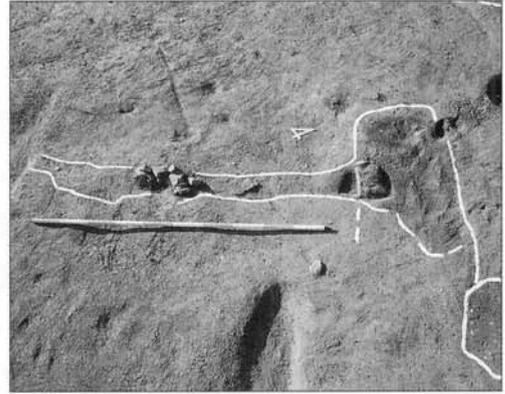
<표 1> 1지점 유구 속성표(2002. 12월 기준)

마) 조사성과

첫째, 아직 부분적으로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정확한 분포범위와 내부구조는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중부지방에서 한성백제기의 철생산 및 가공유적의 조사 예가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한다면 이 분야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I지점 1호 수혈유구



I지점 2호 단야로 전경



IV지점 탄요(炭窯)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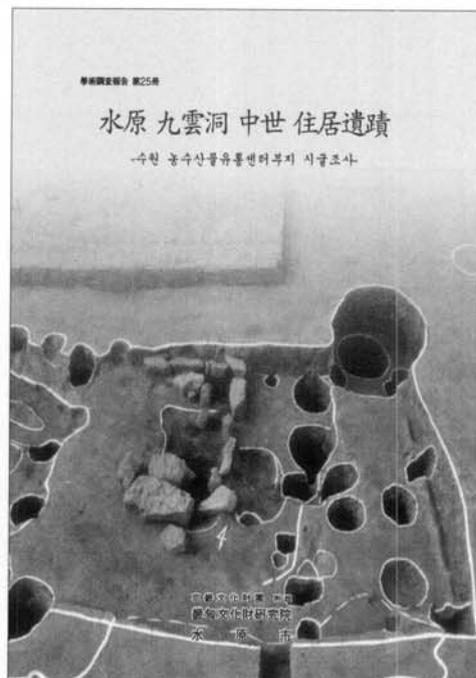
슬래그 일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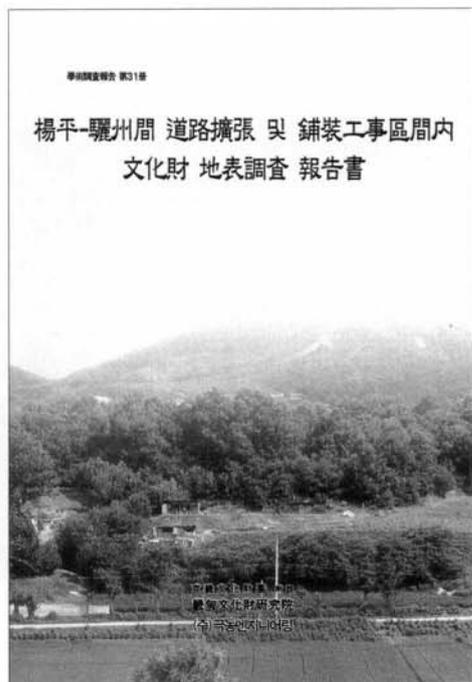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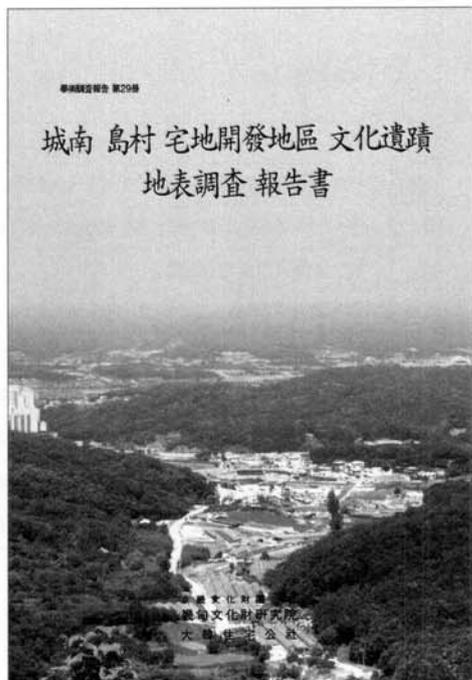
둘째, 유적의 반경 500m내에는 북쪽에 청동기~백제시대의 대단위 취락유적인 고금산유적, 남쪽에 백제시대의 분묘군인 화산고분군이 위치하고 있어 이들 유적들과 함께 한강 이남지역의 한성백제기 지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간행물

1)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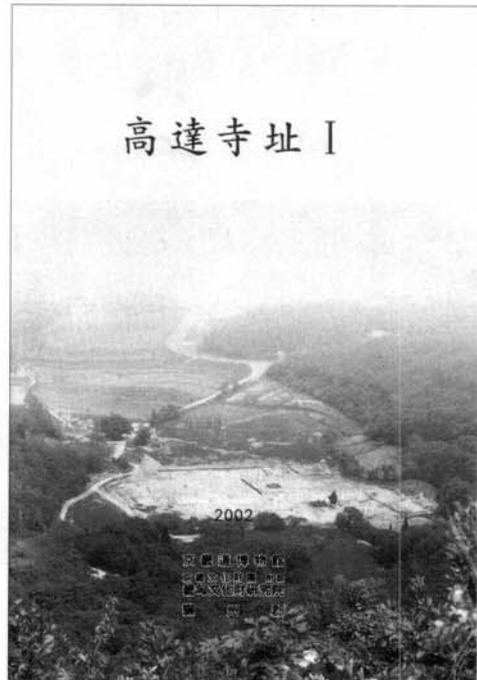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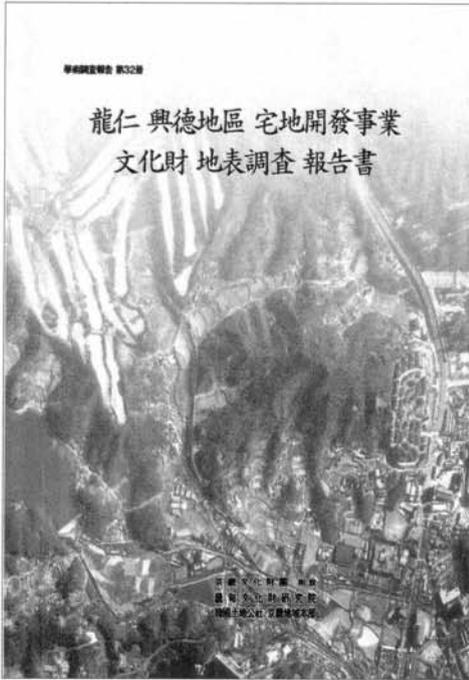
1	연천 삼곶제 개수공사지역내 유적 시굴조사보고서	2002. 5
2	安城 孔道 宅地開發事業地區內 文化財 地表調査報告書	2002. 5
3	漣川 鶴谷堤 改修工事地域內 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2002. 5
4	水原 九雲洞 中世 住居遺蹟	2002. 6
5	平澤 清北 宅地開發豫定地區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2002. 6
6	城南 島村 宅地開發地區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2002. 8
7	華城 鄉南 宅地開發豫定地區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2002. 8
8	楊平 驪州間 道路擴張 및 鋪裝工事區間內 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	2002. 8
9	龍仁 興德地區 宅地開發事業 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	2002. 9
10	삼막곡 - 연수원간 도로건설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02. 12
11	高達寺址 I	200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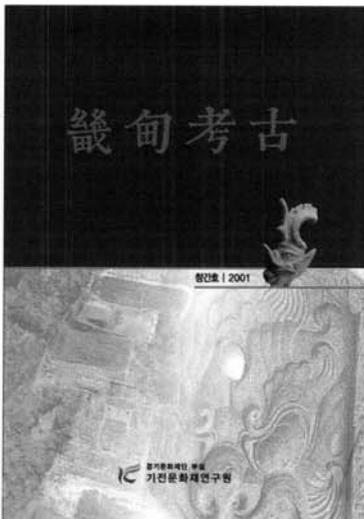
고대사적지

고대사적지



2) 연보

『畿甸考古』 창간호 간행



4. 문화재 관련 사업

1) 문화재 연수교육



건축·토목 관계자 문화재 연수

○ 개최개요

- 시·군 건축·토목관계자와 문화재관계자를 위한 연수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함
- 1박 2일 일정으로 제1일에는 학계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제2일에 기전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현장을 답사하여 강의 내용의 이해를 돕도록 함



회암사지 발굴조사 현장 답사광경

○ 제1차 문화재연수

- 기간 : 2002. 3. 28~29.
- 대상 : 도 및 시·군청 건축, 토목직공무원 및 관계자
- 주제 : 국토개발과 문화재의 보존
- 장소 : 라비둘리조트 강의실
- 답사 : 양주 회암사지 발굴조사현장

○ 제2차 문화재연수

- 기간 : 2002. 11. 21~22.
- 대상 : 도내 시·군 및 문화원 임·직원, 향토사관계자
- 주제 :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 장소 : 라비둘리조트 강의실
- 답사 : 화성 발안지구 발굴조사현장

○ 실시결과

경기도 개발행정의 일선에 서있는 경기도 시·군 건축·토목관계자와 문화재 행정을 담당하는 시·군 문화재 담당자의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고시키고, 특히 대폭 강화되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각종 개발과 관련하여 훼손될 우려가 높은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었다.



화성 발안지구 유적답사

2) 문화재 관련 학술기관 지원

○ 목적

수도권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적 및 문화재 보존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신설된 서울경기고고학회에 학술지원금을 지원하고, 한국문화재조사연구전문기관협회 회비 납부를 통해 학술 지원에 협조하였다.

○ 주요내용

- 서울경기고고학회 정기 학보 『考古學』제1집 발간 지원
- 학회 정기월례발표회 개최(3회) 경비의 일부지원
-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개최지원

○ 지원내용

- 한국상고사학회의 학술발표대회 장소 대관(재단 다산홀)
- 지원금 : 서울경기고고학회 학술지 『고고학』발간 지원
- 협회비 : 한국문화재조사연구전문기관협회

3) 『畿甸考古』발간

○ 발간목적

경기지역 문화재 학술조사에 대한 종합전문지 성격과 수도권 문화재분야의 연간 동향을 실은 연보로서 문화재관련 연구자들이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문화재 정책 입안 기본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발간함

○ 주요내용

- 기전문화재연구원의 문화재 조사성과 및 활동 사항을 정리하여 연보형식으로 수록
- 경기지역의 연간 문화재발굴조사 내용과 경기지역 고고학계 동향을 정리하여 수록
- 자체 문화재 관련사업 요약 수록
- 부록으로 1991~2000년까지 10년간 경기지역의 문화재조사 실적 자료를 정리·수록

○ 발간개요

- 책자명 : 『畿甸考古』창간호
- 판형 및 부수 : 4×6배판 200쪽, 1000부 발간
- 발간/배포시기 : 2002년 4월

○ 배포처

- 국립박물관 등 공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134부
- 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122부
- 고고학 관련학회 및 연구자 616부
- 직원 배부 및 보관용 128부

4) 문화유적 답사프로그램 실시

○ 개요

- 경기문화재단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도민 대상으로 답사지원자를 모집하여 실시함
- 2002년도는 여주 고달사지 발굴조사 현장을 중심으로 하여 인근 영릉과 명성황후 생가를 답사함

○ 실시일정 및 참가인원

- 2002. 10. 19(토) 제1차 답사
- 2002. 10. 30(수) 제2차 답사
- 2002. 11. 27(수) 제3차 답사

○ 실시결과

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의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을 도민을 위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유적답사를 통하여 경기문화재단과 기전문화재연구원의 활동 및 성과를 홍보하였으며 아울러 일반인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



여주 고달사지 답사장면

5) 경기지역 유적발굴 학술대회 개최

○ 목적

기전문화재연구원과 경기지역의 문화재조사 현장에서 직접 조사에 참여하는 문화재조사연구자들간의 학술적 견해 발표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개최내용

- 개최일정 : 2002. 12. 6(금)
- 개최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강당
- 개최방법 : 서울경기고고학회와 공동개최
- 주 제 : “서울경기지역 고고학 발굴조사와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를 시작하며



종합토론 장면

○ 개최 결과

경기지역의 문화재조사 현장에서 직접 조사에 참여하는 중견 및 소장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기서울지역 고고학 연구의 현황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모색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았다.

Ⅲ. 2002년 경기지역 考古學界 소식

1. 유적조사

2. 주요 유적 현장설명회

3. 간행물

4. 학회모임 및 각종 소식

1. 유적조사*

번호	조사명	기간	담당	지역	성격
1	여주 중앙리 고려 백자요지2차 발굴조사	02.11.1 ~ 03.2.28	경기도박물관	여주군 북내면 중앙리	가마와 관련된 아궁이 주변의 보호시설과 배후시설 각종기형의 고려백자, 요도구류
2	경의선 연결도로 비무장지대구간 문화유적시굴조사	3.11~ 3.31	경기도박물관 세종대박물관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추정건물지, 기와가마, 저장공, 수혈유구 석물류, 수의, 와류
3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퇴계원간) 확장구간내 문화유적 3차조사	6.28~ 8.17	경기도박물관	하남시 춘궁동	건물지, 수혈유구, 부석유구
4	파주 해음원지 연장발굴조사	3.20~ 6.10	단국대매장문화재 연구소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행궁지와 원지로 나누어 건물지의 배치 상태, 구조, 성격 파악 막새 및 평기와류, 토기류, 석기류
5	이천 설성산성 2차 발굴조사	6.10~ 9.10	단국대매장문화재 연구소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설성산	6개소의 건물터, 저수시설과 토광(저장시설) 기대, 대부용기, 고배, 호·옹류, 기와류, 살포, 주조철부, 낫 등의 농기구류, 철제칼, 투겁창, 화살촉 등 각종 무기류, 철제 가위, 솔 등 생활 도구, 건축부재 등
6	과천 관아지 추정 건물지 발굴조사	8.28~ 10.30	단국대 매장문화재 연구소	과천시	건물지 와류, 도자류
7	시흥 오이도 패총 발굴조사	7~	서울대박물관	시흥시 정왕동 안말	선사에서 통일신라기에 이르는 패총 및 아궁이와 온돌 발굴 즐문토기편, 백제토기류
8	포천 일동-영중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발굴조사	3~10	세종대박물관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374-3 일대	길이 17.5m, 너비 8.2m의 장방형 대형 주거지, 소성유구 경질무문토기편, 격자문토기편, 토우, 석기류

*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조사자료는 제외함.

번호	조사명	기간	담당	지역	성격
9	평택 칠원동 가마유적 시굴조사	4.10~ 5.21	세종대박물관	평택시 칠원동 19, 20번지	와요지 4기
					해무리굽청자류, 명문와, 일취문 수막새 등
10	연천 고인돌유적조사	6.24~ 9.13	세종대박물관	연천군 연천읍· 전곡읍·백학면 일원	연천고인돌유적에 대한 시·발굴
11	광주 분원리 도요지 발굴조사	9.7~ 11.15	이화여대 박물관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일원	총 4기의 가마, 공방/퇴적층 확인
					백자편, 갑발, 문방구류
12	성남 남한산성 행궁5차 발굴조사	4.14~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광주시 산성동 938일대	행궁지, 저장용 구덩이
					백제토기편, 도자류편
13	용인 동백지구 시굴조사 및 추가시굴조사	2002. 1.29~2 18/ 3.25~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용인시 구성읍 동백리, 중리 일원	토광묘, 수혈유구, 적석유구/추 정토기요지, 구석기문화층, 숯 가마 등
					토기편, 자기편, 와류편/밀개, 굽개, 격지석기, 몸돌석기, 회 (청)색 경질토기편, 호형토기, 발형토기
14	화성 천천리 유적 발굴조사	7.25~ 11.	한신대박물관	화성시 봉담읍 수영 리/매송면 천천리	청동기시대 취락
					공렬토기, 공렬+구순각목토기, 석기류
15	부천 고강동 유적 5차 발굴조사	5. ~8.	한양대문화재연구소	부천시 고강동	청동기시대 주거지, 석곽묘
					무문토기, 각종 석기류, 점토대 토기, 흑도장경호편 등
16	파주 적성우회도로 구간내 시굴조사	9.5~ 11.15	한양대문화재연구 소(2구역)/서울대 박물관(1·3구역)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주월리 일원	유물집중구역, 추정구덩이유구
					규암제와 석영제의 석기유물
17	연천 전곡리 선사유 적 야외토층 보완 발굴조사	7.5~ 이후40 일간	한양대문화재연구소	연천군 전곡리	뼈기층 3매 확인
					지표 및 봉괴지점유물 포함 구석기 34점
18	하남 이성산성 10차 발굴조사	10.16 ~12.	한양대박물관	하남시 춘궁동	동문지·성벽과 북쪽 회절부 구조 파악
					고배, 인화문토기편, 연질호 등 각종 토기류, 석기류, 철기류, 기와류

2. 주요 유적 현장설명회*

(1) 파주 혜음원지 2차 발굴조사

- 위 치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 조사기간 : 2002. 3. 20 ~ 6. 10
- 시 대 : 고려시대
- 조사기관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 조사내용

혜음원지의 전체 규모는 약 12,000㎡(4,000평)에 이른다. 그 중 2001년도와 2002년도 발굴조사된 지역은 전체의 1/3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조사 성과는 예상외로 커서 초창시 혜음원지의 모습과 이후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이번 조사 결과 상부 유구는 거의



발굴지역 전경

유실되었지만 다행히 하부 유구는 남아 있어서 건물지의 구조, 규모, 배치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혜음원지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서서히 낮아지는 계곡부에 축조되었다. 비록 급경사는 아니지만 산지인 관계로 건물을 축조하기 위해서 지형에 따라서 東西 방향으로 여러 단의 축대를 쌓아 평탄지를 조성한 후 건물을 축조하였다. 아직 혜음원지의 전체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발굴조사가 진척되지 않아서 전체 건물지가 몇 단을 이루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된 건물지는 그 구조와 배치상태로 크게 2지역으로 구분된다. 즉 A~G 건

* 여기에 수록한 자료는 각 발굴조사 기관이 발표한 현장설명회자료를 편집·수록함.

물지와 I~P 건물지로 구분된다. 두 건물군은 I 건물지 북쪽의 축대와 담장으로 구획되었다. 이 중 전자는 행궁지로 추정되며 후자는 원지로 추정하였다.

아직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각 건물의 성격과 구조 배치에 대한 고찰에는 무리가 따르고 그 결과도 앞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굴된 유구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행궁지와 원지로 나누어 건물지의 배치 상태 및 구조, 성격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추정)行宮址

• 配置와 構造

(추정)행궁지(이하 행궁지로 칭한다)는 남쪽의 석축 및 북쪽과 동쪽 경사면에 시설된 석축과 담장에 의하여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다. 출입은 행궁지 남쪽 석축에 있는 3개의 계단과 북쪽 담장의 쪽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곳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지는 B 건물지이다. 주향이 남서 30°인 정면 9칸×측면 3칸의 대형 건물지이다. 이 건물지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며 건물이 배치되었다. 즉 중앙에 정면 3칸×측면 3칸의 건물이 있고 동쪽과 서쪽에 각각 정면 2칸×측면 3칸 규모의 건물이 배치된 구조였을 것으로 보인다. 지붕 구조는 중앙 건물이 높고 동서 건물은 이 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이며 중앙 건물 측면에 동서 건물 지붕선이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건물들은 B 건물지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며 세워졌다. 우선 B 건물지 동서로 각각 정면 2칸×측면 1칸의 소규모 부속건물이 위치하는데 정면이 모두 B 건물을 향하도록 하였다. 그 남쪽으로는 단을 이루며 낮아지고 여기에는 모두 4동의 독립적인 건물이 배치되었다.



건물지 및 세면·세탁시설

이 지역 모두 유구 하부에서 원토층이 노출되고 있고, 출토되는 유물도 시기 차이가 없다. 창건 당시의 건물 배치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건물지의 성격을 살펴볼 때, 제일 먼저 주목되는 것은 건물의 배치 상태이다. 중앙에 대형 건물을 중심으로 부속 건물들이 좌우대칭을 이루며 배치되고 있다. 건물 배치가

일정한 격식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 건물지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조된 것 일 가능성이 크다. 건물의 구조에 있어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B 건물지의 경우 내부 2열의 초석 간격이 바깥쪽 초석 간격 보다 커서 내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D 건물지와 G 건물지도 마찬가지이다. E 건물지와 F 건물지는 초석의 횡렬은 3.5m이지만 종렬 간격은 1.3m로 일반 건물 보다 좁다. 이 경우 내부의 공간이 3부분으로 나누어져 일반적인 건물의 용도로 구분되는 것이다. 또한 석축과 담장에 의하여 공간이 완전히 폐쇄된 고립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온돌시설이나 다른 난방시설도 발견되지 않는다. 출토된 유물도 건물의 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발굴하는 과정에서 용두와 치미를 비롯한 다량의 귀목문 막새기와가 출토되었다. 초석과 기단석을 비롯한 석제품도 잘 다듬어져 있었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물지는 특수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선 혜음원이 사원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법당 공간이었을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곳을 법당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법당 구역일 경우 전면에 큰 마당이 존재하지만 여기에는 마당 공간이 좁다.

둘째, 법당 구역일 경우 개방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사방이 폐쇄되어 凡人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였다. 통행은 남쪽 석축에 시설된 3개의 출입문으로만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것도 좁은 통로를 거치도록 하였다.

셋째, B건물지 뒤에는 계단식으로 후원을 조성하여 넓히고, B건물지 동쪽과 서쪽 기단에서 북쪽 담장까지 담장을 쌓아서 완전히 폐쇄하였다. 이는 B 건물지의 주인공이 고위 신분의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다.

넷째, 출토된 유물과 유구 가운데 불교와 관련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로 보아 이 곳을 법당 구역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곳을 바로 『혜음사신창기』에 기록된 별원 즉, 행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물의 배치나 구조가 궁궐 건축에서 볼 수 있듯이 좌우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고 각 건물의 구조가 특수한 용도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용두와 치미를 비롯한 출토 유물도 행궁이었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고려 숙종-예종대에는 국왕의 南京 순행이 자주 있었고 그 경로는 혜음원을 지나가는 것이었다. 혜음원이 예종의 명에 의하여 축조되었던 만큼 빈번한 국왕의 남경 행차를 대비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혜음원은 개경과 남경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마땅한 국왕의 유숙처가 없다. 때문에 혜음원에 국왕의 남경 행차시 유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B 건물지가 正殿에 해당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전을 중심으로 부속 건물을 좌

우대칭으로 격식을 가지고 배치되었던 것이다. 또한 행궁이기 때문에 석축과 담장으로 폐쇄하여 하단 건물지와 구분하고 凡人의 근접을 막았던 것이라 하겠다.

② 院址

• 配置와 構造

院址는 경작과 민묘 조성과정에서 많은 유구가 유실되었다. 2001년도 조사시 일부가 노출되었고 2002년 발굴조사에서 나머지가 노출되었다. 그러나 중앙계단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은 대체로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모든 잔존유구가 노출되었으나 서쪽 지역은 민묘와 경작지로 인하여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북쪽에는 2001년 조사시 노출된 I 건물지가 자리잡고 있다. 이 건물지는 중앙부에 1칸 규모의 통로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는 건물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행궁지와는 축대와 담장을 통해서 구분되었고 행궁지 남쪽 축대와 I 건물지 북쪽 기단열 사이는 배수로로 활용되었다. I 건물지 전면에는 석축이 있고 중앙부에는 계단지가 있다. 현재 3단 정도가 남아 있고 계단 우석 일부도 잔존하고 있다. 석축의 높이로 보아 원래는 5단 정도가 아닌가 한다. 이 계단을 중심으로 좌우에 K 건물지와 L 건물지가 배치되어 있었다. K 건물지는 민묘로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L 건물지와 동일한 형태와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건물지는 모두 정면 2칸 × 측면 1칸 크기로 규모가 동일하며 서로 마주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L 건물지 뒤(동쪽)에는 L 건물지와 같은 주향을 가진 M 건물지가 있었다. 규모는 정면 4칸 × 측면 1칸이다. 아마도 같은 규모와 형태의 건물이 K 건물지 뒤편(서쪽)에도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院址도 행궁지와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K, L 건물지 전면에는 N 건물지가 있다. 중앙에 정면 1칸 × 측면 3칸의 문지를 중심으로 좌우 정면 4칸 × 측면 1칸의 건물지가 붙어 있었다. 이중 동쪽 건물지는 완전히 노출되었으나 서쪽 건물지는 민묘가 있어서 정면 2칸 × 측면 1칸 정도만 노출되었다. 동쪽 기단은 M 건물지 서쪽 기단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쪽 기단도 현재 민묘터에 있었던 (추정) J 건물지동쪽 기단에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에는 동서 11m, 남북 10m 규모의 마당이 있었다. 마당 중앙에는 박석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I 건물지와 N 건물지를 연결하는 보도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지 동쪽 하단으로 O 건물지와 P 건물지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 O 건물지는 유구의 1/2 이상이 파괴되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공간으로 보아서는 5칸 × 1칸 규모의 건물이 들어갈 수 있지만, 남

쪽에 P 건물지가 누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면 4칸×측면 1칸으로 추정된다. O 건물지 앞에는 발굴조사 전 도랑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유구가 모두 유실되어 건물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결국 지금까지 발굴된 건물지 배치로 보아 원지는 □자형구조에 동쪽으로 서쪽을 향한 건물지 1동 또는 2동 정도가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여기에 남쪽으로 누각형의 건물지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 더 발굴을 진행하여야 분명해 질 것이다.

③ 出土遺物の 檢討

2001년과 2002년 두차례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당시 건물의 성격 및, 규모, 건립시기를 규명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 기와류

기와류는 조사된 전 지역에 걸쳐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특히 건물지 외곽에 설치된 배수로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출토기와는 고려시대 기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이전시대로 올라가는 기와들은 출토되지 않았다. 대부분 유물들이 동일한 문화층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조사된 지역의 건물들은 모두 유사한 시기에 창건되어 운영되다가 한꺼번에 화재에 의하여 폐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와의 종류는 평기와류와 막새류가 주종을 이루며, 다양한 용도의 특수기와가 출토되었다.

막새류는 연화문 수막새가 일부 출토되기도 하였지만 고려시대 전형적인 귀목문 수막새와 암막새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차 조사에서는 연화문 수막새는 크기와 문양에 따라 2종류가 소량 출토되었는데, 특수한 용도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막새류는 막새면의 문양 수법에서 정연한 것이 주류를 이루지만 조잡한 것도 있어 건물의 지붕부를 부분적으로 변화 또는 보수를 위하여 제작 사용되었음도 알 수 있다.

수막새는 막새면 지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문양이나 용도에 따라 10여종으로 분류된다. 대형 수막새의 막새면 지름은 15cm이다. 2001년 조사시에는 대, 중, 소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나, 2002년 조사에서 초소형의 11cm의 수막새가 출토되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암막새도 수막새와 마찬가지로 막새면에 따라 10여 종으로 분류된다. 막새면 좌우에 2개의 귀목문을 장식한 전형적인 고려시대 기와로 외곽이나 귀목문 주위에 1조나 2조로 돌출돌림을 돌렸다. 암막새 중에서는 막새면 외곽에 윤곽대를 돌리고 낮은 귀목문만을 시문한 것도 있고, 막새면을 자른 형태도 있어 모서리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들도 출

토되었다. 암막새에 명문이 있다. 막새면 좌우에 귀목문을 두고 그 사이 중앙에 세로로 “惠蔭院”이라 양각하였다.

평기와의 명문은 제작 시기나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중에서 간지와 “惠蔭寺”명이 새겨진 것이 출토되었다. 명문으로 보아 院과 寺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寺가 院을 관리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과 2002년 조사 모두 출토되었는데, 막새면에 새겨진 명문은 부수에 약간식의 차이가 보인다.

문양평기와는 대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키와는 문양이 소문화되어 무문이 대부분이며, 암키와는 선문, 어골문, 사격자문 등 다양하며, 기하문과 복합문이 다수 확인된다. 암키와 중에서 명문기와의 가 다량 출토되었는데, 마모가 심하여 정확한 판독은 어려운 상태이다. 명문이 새겨진 암키와들은 장방형의 額을 마련하고 그 사이에 양각하였다. 이 외에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작된 기와들과 치미편, 용두편, 잡상편, 귀면와도 출토되었다. 치미편은 몸통, 날개, 꼬리 부분 등이 일부 출토되었다. 용두편과 잡상편은 다양한 조형미를 보이고 있다. 그 외 못을 박아서 쓸 수 있도록 구멍(釘孔)이 뚫린 이형기와도 있다.

• 자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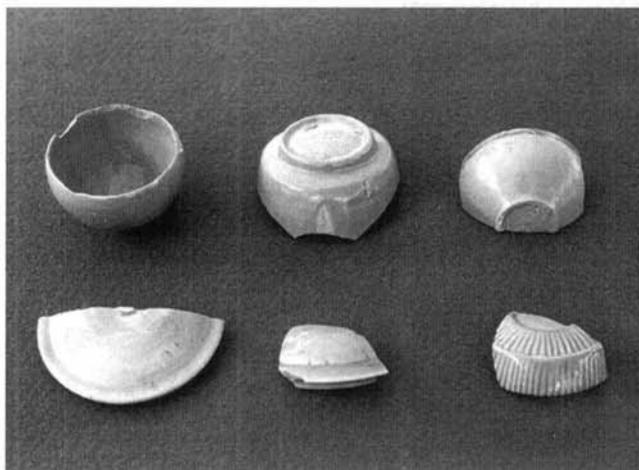
두 차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자기류는 크게 고려청자와 중국백자로 나뉘며 분청사기도 소량 포함된다. 해음원지에서 출토된 고려청자는 유약과 태토가 아주 정선되고 비색을 띠며 굽받침에 있어서도 규석을 받쳐 갑발안에서 정성스럽게 구운 고급청자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지방가마에서 번조한 조질청자도 드물게 있다. 기종은 완, 바리메, 접시, 대접, 잔, 뚜껑, 도침 등이다. 자기에는 음각 앵무문, 양각 포도문, 상감 뇌문, 국화문, 퇴화 국화문을 시문하였다.

전체적인 청자의 기형과 문양을 볼 때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10-Ⅱ층 출토품과 비슷하지만 규석받침을 한 것으로 보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생산품으로 추정된다. 공반하여 출토되는 중국자기류는 기형이나 색, 문양, 번조방법 등으로 보아 宋代의 定窯와 景德鎮窯의 생산품으로 추정된다. 출토된 자기의 전체적인 편년은 11~14C로 생각되며 분청사기도 소량이나마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15C까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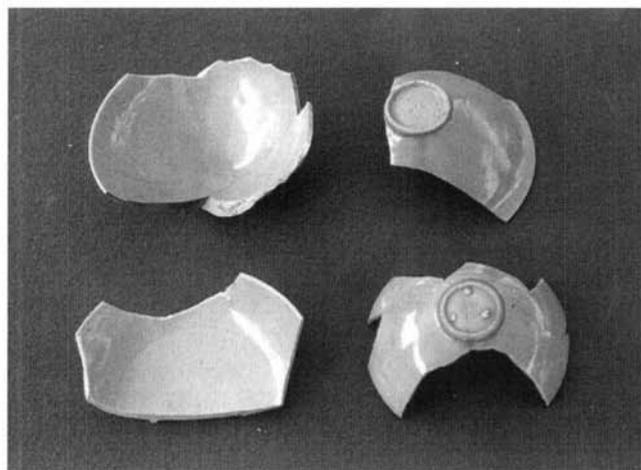
• 토기류

해음원지에서 출토된 토기는 호, 옹류와 병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호류는 광견호, 단경호, 편호 등의 기종이 파악된다. 높이 20cm 내외로, 경부가 없거나 아주 짧게 올라가며 외반되고 바닥이 편평한 평저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옹류는 회청색 경질



해음원지 출토 자기류 각종



해음원지 출토 자기류 각종

로, 평저의 바닥에 배가 부른 형태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파편이기 때문에 전체 기형과약은 어렵다.

병은 반구형의 형태를 가진 구연부편들과 매병이 출토되었다. 대부분 회청색의 경질이다. 매병의 기형을 가진 토기편은 일부 복원이 되었으며 수습된 고려시대 토기편에서는 돌려쌓기와 물레를 이용한 제작방법이 관찰된다. 타날기법을 사용한 정면방법은 대형토기의 내외벽에서 다양한 문양의 박자흔으로 확인된다. 또한 회전력을 이용한 물손질흔은 대부분의 토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기타 유물

그 외 청동제 및 철제류, 토제류 등이 출토되었다. 철제류는 주로 건축부재로서 사용되는 철정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청동제류는 향완, 청동발, 동곳, 개원통보와 용도불명의 청동제품이 출토되었다.

(2) 용인 동백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

- 위 치 : 龍仁市 駒城邑 東柏里 · 中里 一圓
- 조사기간 : 1차시굴 2002. 1. 29. ~ 2. 18.
2차시굴 2002. 3. 25. ~ 40일간
- 시 대 : 조선시대
- 조사기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 조사내용

본 시굴조사 대상지는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동백리, 중리 일원에 위치하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1차 시굴조사(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 2. 16, 「용인 동백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지도위원회 자료」) 및 추가지표조사(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 2, 「용인 동백지구 문화유적 추가지표조사 결과보고문」)를 실시한 결과 1차 시굴지역 주변으로 확장 및 추가 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용인 동백지구 추가 시굴대상지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시굴조사 결과 총 8개 지역 중 2개소에서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2차 시굴조사 범위 이외의 지역인 동백리 산43-3임에서도 폐고분 1기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유구가 확인된 지역은 무연고 경주백씨묘역과 유물산포지Ⅱ 지역이며, 무연고 경주백씨묘역에서는 (추정)토기 요지 2기, 유물산포지Ⅱ 지역에서는 구석기문화층과 (추정) 숯가마 1기, 회곽묘 1기, 토광묘 1기, 수혈유구 1기, 기타유구(성격 미상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표 1> 용인 동백지구 추가시굴 대상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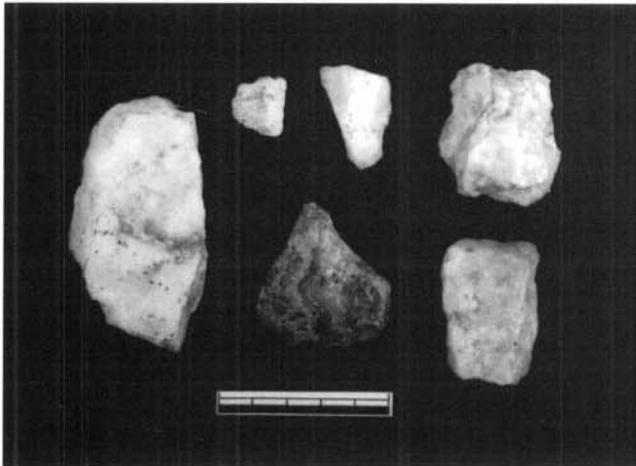
연번	유적성격	소 재	조사면적 (범위평)	유구성격	추정시대	비 고
1	추정절터 및 지석묘	동백리 234전 일원	약 1,100		청동기~조선	지도위원회의 결과 확장된 범위(2002.2.16)
2	무연고 경주백씨묘역	중리 산33-4 일원	약 2,900	분묘	고려~조선	지도위원회의 결과 확장된 범위(2002.2.16)
3	유물산포지Ⅰ	동백리 346-1전 일원	약 730	분묘, 생활유적	고려~조선	수원대 지표조사시 도·토기산포지1
4	유물산포지Ⅱ	동백리 574대, 235-4임 일원	약 4,000	분묘, 생활유적	고려~조선	수원대 지표조사시 도·토기산포지2
5	유물산포지Ⅲ	동백리 326-1전, 327전 일원	약 1,000	분묘, 생활유적	고려~조선	1차 시굴조사시 추가확인
6	유물산포지Ⅳ	동백리 137-3전, 138-5전 일원	약 430	분묘, 생활유적	고려~조선	1차 시굴조사시 추가확인
7	유물산포지Ⅴ	중리 380-6전 일원	약 1,100	지석묘 관련유구	청동기	경기도박물관 기보고 중리지석묘 주변
8	유물산포지Ⅵ	동백리 410전 일원	약 700	분묘, 생활유적	고려~조선	추가 지표조사시 확인지역
계	8개소		약 11,960			

① 추정 절터 및 지식묘

2차 시굴조사 지역은 1차 시굴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①이장되지 않은 민묘 2기 주변에 대한 시굴조사, ②민묘 주변에 위치한 추정 지식묘와 N1W2트렌치내 대형 석재의 성격 파악문제, ③소형 수혈유구 2기의 성격 파악문제, 그리고 ④확장조사를 통한 추정 절터에 대한 성격 파악문제이다.

시굴조사 결과 민묘 2기 주변에서는 이장 행위에 의한 흔적 외에 고고학적 문화행위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정 지식묘와 대형 석재의 경우 추정 상석을 제거한 뒤 정리 및 조사한 결과 지식묘 또는 이와 관련된 기능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토층조사 결과 인위적 행위에 의한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물산포지 II N8W6트렌치 주변 수습 유물



무연고 경주백씨 묘역 1호 토기요지(추정) 출토유물

에 의한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소형 수혈유구에 대한 조사시 구덩이 안에서 페비닐과 소량의 자기편 및 기와편이 혼입된 양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주변 지역에서의 개간·경작행위의 실재 및 민묘 주변에 인접하고 있는 점 등과 연관지어 볼 때 최근에 이루어진 인위적 행위에 의한 시설물로 판단된다. 2차 시굴조사에서 상기한 문제점들 중 선결되어야 할 요점은 1차 시굴조사시 확인되지 않은 절터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1차 시굴조사지역을 제외한 주변 지역에 대해 트렌치를 설정하여 확장조사하였으나 절터 혹은 건물지와 관련된 흔적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현 지표상에 석재들을 모아 놓아 마치 기단석

또는 담장처럼 보이는 석재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소형 수혈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페비닐이 섞여 노출되는 양상을 확인하였을 뿐 건물지 또는 절터와 관련된 자료 확인은 없었다.

② 무연고 경주백씨묘역

조사구역은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중리 산33-4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1차 시굴조사에서는 3기의 분묘와 시굴조사에서 15기의 토광묘가 확인된 바 있었다. 2차 조사구역은 1차 시굴조사구역의 남서쪽으로 뻗어 이어지는 구릉지역인데 1차 시굴조사의 연장선상에서 1차 시굴조사 지역의 인근에까지 유구가 유존할 지도 모를 가능성에 대한 확인조사 차원에서 비롯되었다. 2차 시굴조사지역은 도로에 의해 다시 양분되는데, 동쪽을 가지구, 서쪽을 나지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시굴조사방법은 구릉의 지형을 중심으로 기준점을 설치하고 이 기준점에서 능선과 평행하게 트렌치를 10m 간격으로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가지구에서만 (추정)토기 요지 2기가 확인되었다.

• 1호 토기 요지(추정)

가지구 남사면에서 확인되었다. 시굴트렌치 내에서만 확인되어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유구가 노출된 양상의 일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구가 위치한 지형은 구릉사면으로 트렌치 내의 토층양상은 정상부에 비해 사면쪽이 퇴적층의 두께가 보다 두터운 편이다. 퇴적양상은 정상부의 경우 표토층 아래에 '흑갈색 사질토층→황갈색 점질토층→풍화암반층' 이, 사면 아래쪽의 하단부의 경우에는 표토층 아래에 '암회색 사질계 점질토층→황갈색 점질토층→풍화암반층' 으로 드러났다. 특히 1호 토기요지가 위치한 지형은 구릉의 북사면에 비해 경사도가 보다 심한 편이다. 1호 토기요지는 암회색 사질계 점질토층 아래 황갈색 점질토층에서 노출되었으며, 고온에 의해 형성된 (추정)토기 요지 벽체부 또는 천정부(함몰)에 눌린 상태로 발형토기 1점과 그 주변(상하)에서 호형토기 1점씩이 확인되었다.

• 2호 토기 요지(추정)

1호 토기요지가 확인된 산사면의 반대쪽인 북사면에서 확인되었다. 유구가 확인된 지형은 경사도에 있어 남사면에 비해 그다지 심한 편은 아니다. 유구가 확인된 토층은 1호 토기요지와 유사하며, 평면상으로 볼 때 길이 15m, 너비 5m 정도의 넓은 범위로 숯과 토기편 그리고 고온에 의해 형성된 벽체부 또는 천정부의 회색 소토가 함께 노출되어 있었다. 유구가 입지한 곳에는 소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데, 이들 나무뿌리 바로 밑에도 소토와 토기편들이 박혀 있는 양상

을 보인다.

③ 유물산포지Ⅱ

조사구역은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동백리 574대, 235-4임 일원에 위치한다. 조사구역 내에 기준 점을 설치하고 10m 간격으로 그리드를 설정하여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구역의 전반적인 퇴적양상은 정상부에 비해 사면 쪽이 보다 두텁게 퇴적되어 있으며, 표토층 아래로 '흑갈색 사질토층 → 명갈색 사질토층 → 황갈색 점질토층 → 풍화암반층'의 순으로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산 정상부는 표토층 아래에 '흑갈색 사질토층 → 황갈색 점질토층 → 풍화암반층'의 퇴적 양상을 보인다. 또한 조사구역에서 하단부의 경우 공장이 위치했던 곳으로 건물을 축조하면서 지형을 보다 평탄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삭평된 것으로 보이며, 토층 역시 표토층 아래에서 바로 풍화암반층이 드러났다. 북서쪽 사면에는 단풍나무 등을 식재하고 또한 밭과 같은 개간 및 경작을 통해 일부 토층이 삭평되어 황갈색 점질토층과 풍화암반층만이 보이기도 한다. 퇴적층 중 황갈색 점질토층에선 회색 점질이 그물망(거북등무늬)처럼 나타나는 토양짜기를 가진 고토양층이 보이며, 주변으로는 석영맥암이 확인되었다. 이미 형질 변경된 주변지역에는 석영암편들이 현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었다.

조사단에서는 조사구역 내에 고토양층과 석영맥암이 노출된 점을 감안하여 구석기 문화층의 확인과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석기의 수습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그 일대를 정밀조사한 결과 구석기 문화층과 타제석기들을 수습하게 되었다. 또한 구석기 문화층 외에 S2W4에서 토광묘 1기와 추정 숫가마 1기가 확인되었으며, S2W3에서는 회곽묘 1기, N2W5에서는 수혈유구와 기타유구가 1기씩 확인되었다.

• 구석기문화층

구석기문화층은 N8W6에서 확인되었고, 주변에서는 석영암제 밀개, 굽개, 격지, 몸돌석기 등이 수습되었다. 특히 유문암계 격지석기는 고토양층 바로 위에서 수습되어 구석기 문화층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주변은 단풍나무의 식재 및 밭과 같은 개간·경작으로 인해 삭평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 추정 숫가마

유구는 S2W4에서 확인되었다. 풍화암반층을 굴착하고 조성한 것으로 보이며,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소토부와 목탄이 함께 노출되었는데 그 규모는 길이 18m, 넓이 5m 정도이다. 유구가 확인된 층에서 昭和16年(1942)에 제작된 동전 1점을 수습하였다. 그 외에 수습된 유물은 없는데, 마을 주민

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때 사용되었던 솟가마였다'고 한다. 유구의 정확한 성격과 축조시기는 차후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 보다 정확히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④ 유물산포지 V

조사구역은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중리 380-6전 일원에 위치한다. 조사면적은 약 1,100평이다. 본 조사구역은 지석묘가 분포하는 곳으로 알려진 지역(경기도박물관, 1999, 『경기문화유적지도 I』, p.175)으로 대형석재와 소형 할석들이 지표상에서 관찰된다. 금번 조사에서는 지표면상에 노출된 유물들과 관련 유구 또는 매장유구의 부존 유무의 탐색과 지석묘로 보고된 유구의 성격확인이 주목적이었다.

조사결과 조사지역내의 토층은 '표토층→흑갈색 사질토층→명갈색 사질토층→흑갈색 사질점토층(할석 혼입)→명갈색 사질점토층'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표면에서 수습된 유물들과 관련된 유구 또는 다른 시기 매장유구의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지석묘가 위치한 주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지석묘(기보고)가 위치한 바로 하층에서 나뭇가지와 비닐 등이 매립된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10m 간격으로 구획된 시굴트렌치 내의 토층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현재 지석묘로 보고된 석재들은 이러한 토층 위에 놓여져 있으며, 인근에 집적되어 있는 석재들 역시 굴착을 통한 매립작업 이후 현재의 위치에 이동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양상으로 볼 때 지석묘로 기보고된 석재들은 주변 개간과 경작행위 등 여타의 인위적 행위에 의해 최근에 현지표상에 위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⑤ 폐고분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동백리 산43-3임 일원에 위치한다. 1차 시굴조사시 확인된 무연고 남양홍씨묘역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백현마을로 들어가면 마을이 위치한 북서쪽 구릉사면에 폐고분 1기가 노출되어 있다. 폐고분은 북동쪽에 위치한 해발 349.7m(할미성 위치)의 고준한 산지에서 남서쪽으로 뺨어 내린 가지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그 2~3부 능선에는 영동고속도로가 서에서 동으로 개설되어 산 능선을 절취하였으며, 그 아래쪽의 구릉 사면에 위치한다.

폐고분의 규모는 노출된 석재 등을 통해 볼 때 길이 570cm, 너비 230cm 정도이며, 장축방향은 능선과 평행하는 남북방향이다. 노출된 개석 1매의 규모는 길이 120cm, 너비 90cm 정도이다. 노출된 개석 1매를 제외한 폐고분의 양상은 주변에 석재들이 산재해 있고 일부 개석들은 원위치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남쪽 단벽 또한 도굴과정에서 일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폐고분의 주변에서 수습된 유물이 전혀 없어 고분의 축조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⑥ 조사결과

이번에 시굴 조사한 용인 동백지구 조사대상지는 총 8개소로서 추정절터 및 지식묘 지역, 무연고 경주백씨묘역, 유물산포지 I, 유물산포지 II, 유물산포지 III, 유물산포지 IV, 유물산포지 V, 유물산포지 VI이다. 시굴조사 결과 총 8개소 중 무연고 경주백씨묘역과 유물산포지 II에서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금번 조사대상지 이외 지역인 동백리 산43-3임에서 폐고분 1기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확인된 유구의 양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무연고 경주백씨묘역에서는 (추정)토기요지 2기가 확인되었으며, 회(청)색 경질 토기편과 호형 토기 및 발형토기 1점씩이 출토되었다. 이 일대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추정)토기요지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2. 유물산포지 II(동백리 574대, 235-4임 일원)에서는 구석기문화층과 토광묘 1기, (추정)숫가마 1기, 회곽묘 1기, 수혈유구 1기, 기타유구(성격미상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구석기문화층에서는 유문암제의 격지석기가 1점 출토되었고, 주변 표토층에서는 석영암제의 굽개, 밀개, 몸돌석기 등이 수습되었다. 구석기문화층과 연관지을 수 있는 고토양층이 본 조사지역의 전범위에 형성되어 있어 석기가 수습된 지역 외에도 문화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구석기문화층의 분포범위 및 발굴조사 대상범위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타 분묘와 (추정)숫가마, 수혈유구, 기타 유구 등은 다소 어느 정도

〈표 2〉 용인 동백지구 시굴조사 현황표

연번	유적성격	소재	확인된 유구	수습유물	비고
1	추정절터 및 지식묘	동백리 234전 일원	無	無	
2	무연고 경주백씨묘역	중리 산33-4 일원	(추정)토기요지 2기	회(청)색 경질토기편, 호형토기, 발형토기	발굴조사 필요
3	유물산포지 I	동백리 346-1전 일원	無	無	
4	유물산포지 II	동백리 574대, 235-4임 일원	구석기문화층, 토광묘, 추정 숫가마, 회곽묘, 수혈유구, 기타유구 각 1기	밀개, 굽개, 격지석기	발굴조사 필요
5	유물산포지 III	동백리 326-1전, 327전 일원	無	無	
6	유물산포지 IV	동백리 137-3전, 138-5전 일원	無	無	
7	유물산포지 V	중리 380-6전 일원	無	無	
8	유물산포지 VI	동백리 410전 일원	無	無	
9	폐고분	동백리 산43-3임 일원		無	추가확인, 발굴조사 필요

의 거리는 있지만 유구의 분포상 밀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확인된 유구 및 이들 유구가 확인된 지역 주변에 대해서 향후 발굴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3. 금번 시굴조사 대상지역을 벗어나 폐고분 1기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장유구는 입지상 독립된 구릉에 밀집 분포하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폐고분이 위치한 능선 일대에 대하여 추가조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3) 부천 고강동 선사유적 5차 발굴조사

- 위 치 : 부천시 고강동 장갯마을 뒷산 일대의 야산지역
- 조사기간 : 2002. 5. ~ 8.
- 시 대 : 청동기시대
- 조사기관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 조사내용

부천 고강동 선사유적은 한강 하류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으로 부천시 고강동 장갯마을 뒷산 일대의 야산지역에서 96~98년까지 1·2·3차 발굴조사와 경인고속도로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 상에서 실시된 제 4차 발굴조사결과 총 12기의 주거지를 비롯하여 제사유적으로 추정되는 적석환구유구, 그리고 각종 석기류와 토기류 등이 출토된 바 있다. 금번 5차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4차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진 구릉의 정상



청동기시대 주거지 노출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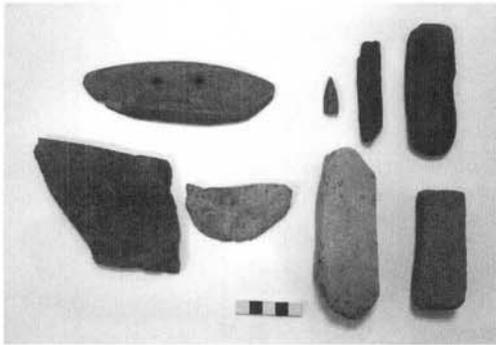
부 뿐 아니라 사면일대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유적 전체의 규모와 유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유적 내에서는 장축의 길이가 18m에 이르는 청동기시대 대형 주거지 등을 포함한 30여개 지점에서 청동기시대 유구로 추정되는 유구 및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었으며, 무문토기를 비롯한 각종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또한 점토대토기를 비롯한 흑도장경호편 등이 발견되어 이 유적이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초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것은 아직도 불확실한 한강유역의 삼한시대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와 함께

능선의 사면에서는 4, 5차 발굴조사과정에서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10기가 확인되고 있어 역사시대에 이르러서도 이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금번 5차 발굴조사의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지금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능선의 정상부 중심 뿐 아니라, 완사면 일대까지 청동기시대 관련유구 및 기타 유구들이 발견되고 있어 고강동 선사유적이 대규모의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으로 향후 충분한 조사를 거치면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는 점과 들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 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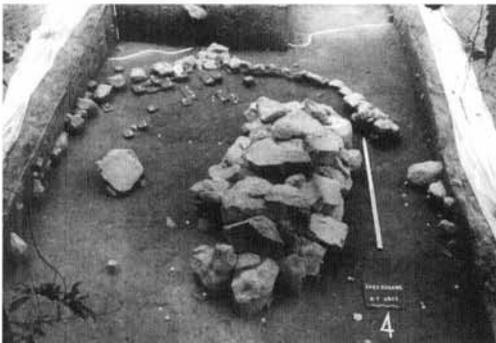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 토기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면



1호 석곽묘



1호 석곽묘 출토 유물



2호 석곽묘



2호 및 3호 석곽묘 출토 유물

째, C지구에서도 청동기시대 유적이 분포하는 점에서 서울과 부천 일대로 연결되는 능선에 유사한 유적의 부존이 예견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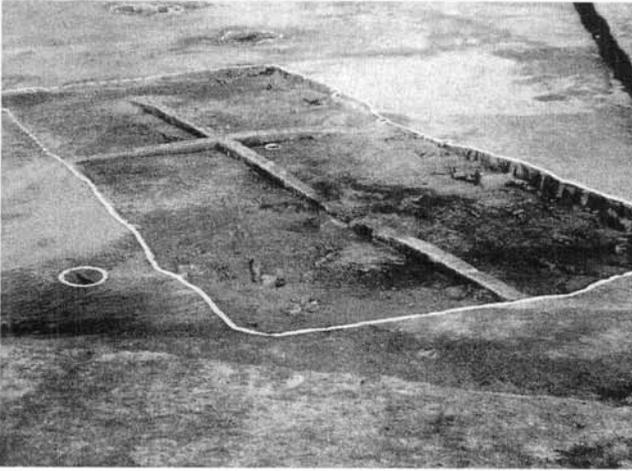
셋째, 고강동-작동 능선에는 청동기시대의 유적들 뿐 아니라 역사시대에 들어서 석곽묘가 지속적으로 널리 조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강 지역의 신라점유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표 3〉 5차 발굴조사 확인 유구

구 분	트렌치	청동기시대 주거지	추정 청동기시대 주거지	청동기시대 유물포함층	석곽묘	민묘	기타 성격미상유구	계
A지구	47	1			1		2	4
B-2지구	46		4	7	1			12
B-3지구	32		2	5	2			9
C지구	42		3			1	1	5
계	167	1	9	12	4	1	3	30

(4) 포천 길명리 유적 발굴조사

- 위 치 : 포천군 일동면 길명리 374-3·4번지
- 조사기간 : 2002. 9. 15~ 11. 30
- 시 대 : 초기철기시대
- 조사기관 : 세종대학교 박물관
- 조사내용



길명리 집터 전경



집터 북벽의 기둥 세부

이 유적 조사는 2001년도에 이루어진 일동-영중간 도로확포장 공사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시굴조사는 2002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여 건물지와 초기철기시대로 추정되는 집터 1기가 확인되어 발굴 조사를 하게 되었다. 조사는 일동-영중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중 길명리 유적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조사유적에서는 초기 철기시대로 추정되는 대형 집터 1채와 소성유구 3기, 건물지 잔존유구가 찾아졌다.

① 집터

이 집터는 조사지역의 남서쪽에 위치한다. 집터의 평면생김새는 긴 네모꼴이고, 길이가 17.5m, 너비가 8.2m, 최대 깊이 32m이다.

집터의 긴 방향은 동-서쪽이고, 벽의 가장자리를 따라 불에 탄 기둥이 박혀있다. 기둥은 수혈의 안쪽에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고, 기둥간의 간격은 80~90cm 사이이며, 지름은 15cm 정도이다. 그리고 집터의 안쪽에는 불에 탄 목재들이 흩어져 있는데, 주로 북벽을 따라 얹어져 있었

으며 동벽과 남벽쪽에도 남아 있다.

집터의 출입구 시설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지형과 자연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남쪽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집터의 가운데에는 넓직한 돌을 가지고 긴 네모꼴 형태로 만든 돌갈림시설이 있고, 동벽 주변에서 불땀 흔적이 찾아졌다.

집터에서 출토된 유물은 경질 민무늬토기와 석기, 토우이다.

이와 같은 대형 집터는 포천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길명리 집터에서 출토된 경질 민무늬토기와 격자문 토기 및 불에 탄 목재 등은 집터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 토기류

집터에서 출토된 토기는 경질 민무늬토기류와 격자문이 시문된 토기가 있으며, 주로 북벽과 동벽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토기의 기종은 목이 짧은 단경호가 대부분이다. 토기의 입술은 밖으로 약간씩 벌어졌고, 굽 없이 바닥이 편평하다. 몸통은 밑에서부터 약간 배가 불러 올라가다가 목부분에 가서 다소 지름이 줄어든다. 태토는 굵은 석영조각과 운모가 많이 섞인 찰흙을 사용하였고, 그다지 높은 온도에서 구워진 것은 아닌 것 같다.

• 석기류

석기는 돌끌 1점과 갈판 1점이 출토되었다.

돌끌은 북벽 가운데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형태가 완전하고, 날은 한쪽만 마련된 것으로 비교적 잘 만들어졌다.

돌끌의 길이는 7.5cm이고, 날부분의 너비는 3.2cm이다.

갈판은 집터의 동벽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갈판은 현무암으로 만들었고, 긴 네모꼴의 형태이지만, 끝부분이 약간 깨진 상태이다. 윗면과 아랫면에 사용된 흔적이 관찰된다.

갈판의 남은 길이는 22.5cm이고, 최대 너비는 13.0cm, 두께는 4.0~7.0cm이다.

• 토우

흙으로 만든 토우가 남벽 가까이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토우는 머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동물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나, 4개의 다리가 붙어 있고 꼬리가 짧게 달린 것으로 보아 돼지나 개로 판단된다.



토우 출토 모습

토우의 태토는 경질 민무늬토기의 것과 같이 석영과 운모조각이 많이 섞인 찰흙을 사용하였다. 몸통과 다리, 꼬리부분에는 손자국이 남아있다.

토우의 크기는 몸통의 남은 길이가 7.3cm, 꼬리 길이 2.0cm, 다리 높이 1.7cm이다.

② 소성유구

소성유구는 집터의 북서쪽 옆에서 3기가 찾아졌는데, 구덩이를 파서 조성한 것과 돌을 사용한 것이 있다. 이들 유구는 그 형태와 구조가 물의 영향으로 유실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용도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유구에서 출토되는 유물로 조선시대 백자조각이 있어 건물지와 관련된 유구로 추정된다.

• 1호 소성유구

평면 생김새가 긴 네모꼴에 가까우며, 불에 탄 작은 구덩이가 있다. 유구의 서남쪽에는 기둥구멍으로 보이는 것이 1개 있고, 동북쪽 가장자리에 불에 탄 구덩이가 있다. 유구의 크기는 345×260cm이다.

• 2호 소성유구

이 유구는 2개의 구덩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평면 생김새가 '8'자 모양이다. 각각의 구덩이 안쪽에는 돌이 깔려 있거나 가장자리에 돌이 세워져 있기도 하다. 구덩이 위쪽과 옆쪽에는 불에 탄 흔적이 있는데, 동-서쪽이 물의 영향으로 유실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태나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유구의 크기는 250×155cm이다.

• 3호 소성유구

이 유구도 2개의 구덩이가 서로 맞붙어 있다. 평면 생김새는 2호 소성유구와 비슷하지만, 돌 깔림 시설이 없는 점이 다르다.

구덩이 안에서는 출토된 유물이 없으나, 윗면에서 백자조각이 출토되었다.

구덩의 주변에서 불에 탄 흔적이 관찰된다.

유구의 크기는 210×205cm이다.

③ 건물지유구

건물지유구는 집터의 북쪽과 북동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물의 영향이 매우 컸던 관계로 남아 있는 유구의 형태가 분명하지 않고 불완전하다.

이번에 조사한 지역은 오래전에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크게 불어났던 것 같다. 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건물지에는 많은 양의 흙이 퇴적되어 있었는데, 작은 돌과 큰 돌들이 겹쳐진 상태이다. 또한 기존에 있던 건물지의 유구도 크게 파괴되어 원래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까지 조사한 건물지의 유구는 초석과 적심석의 일부분이다.

(5) 이천 설성산성 2차 발굴조사

- 위 치 :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설성산성
- 조사기간 : 2002. 6. 10 ~ 9.
- 시 대 : 삼국시대
- 조사기관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 조사내용

이번 2차 조사는 설성산성에서 가장 넓은 평탄지가 있는 건물지 5(지표조사시 부여된 명칭)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이 지역은 중앙의 평탄지를 중심으로 주변 완경사 지역에 계단식 건물지의 흔적이 보이고 있고, 주변에 수량도 풍부하여 지표조사시부터 산성의 중심적인 시설이 들어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 설성산성의 축조시기 및 변화상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을 기대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대규모의 건물터를 비롯한 산성의 중심적인 시설로 볼 수 있는 유구는 노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굴립주형 건물터를 비롯하여 저수시설, 저장시설들이 출토되어 설성산성에서 생활 모습을 추정하여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발굴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백제시대의 것들로 1차 발굴 조사(서문지 주변)에서 주로 신라 유물이 출토되었던 상황과 비교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적어도 이번 발굴 지역은 백제에 의하여 활발히 활용되었던 사정을 잘 보여주고 상대적으로 신라는 그리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 동안 설성산성에서는 백제토기가 꾸준히 출토된 바 있었지만 이와 관련되는 유구가 출토되지 않아서 초축국을 백제로 추정하는



트렌치전경(조사후)

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일종의 수혈주거지이다. 평면 형태는 교란이 심하여 짐작하기 곤란하다. 다만 주변에 둘러져 있는 기둥구멍이나 굴광선의 형태로 보아 대체로 원형이나 타원형, 육각형 등으로 추정되지만, 토층의 교란이 심하고 여러 개의 기둥 구멍이 중복되었던 관계로 분명하지 않다. 건물지 내부에는 풍화암반 위에 적갈색 점토를 다져서 만든 바닥 위로 황갈색 점토+굵은 모래층, 흑갈색점토 +모래, 부토층 순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건물터는 지표에서 최대 80cm 이상 풍화암반을 굴착하여 수혈을 조성한 후 그 위에 적갈색 점토와 모래를 섞어서 다져서 바닥을 축조하였다. 주변에는 풍화암반을 원통형으로 굴착하여 기둥구멍을 만들거나, 암반 상면을 다듬어 그 위에 그대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붕에는 풀을 사용하여 덮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나A확-1·2 건물지는 다량의 불에 탄 평기와편이 건물지 주변에 산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기와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와들은 두께가 얇아서 초석을 사용하지 않은 건물에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건물지 주변에 기와가 산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전체 건물에 기와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나A확-1·2 트렌치의 건물은 지휘소와 같은 특수한 성격의 건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각 건물지에서는 난방이나 취사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구들시설이 노출되었다. 가장 형태가 잘 남아 있는 것은 건물지 2의 것이다. 전체 형태는 '一'자형으로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다. 양 측벽은 할석을 세워서 만들고 그 위에 판석형의 석재로 덮었다. 유구를 이루는 석재는 대부분 불 먹은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내부 폭은 27cm, 깊이는 14cm 이다. 건물지가 대부분 유실되어 건물지 내부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토층으로 보아 중앙에

데 장애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 발굴조사에서 백제문화층과 더불어 백제시대의 건물터가 출토되어 초축국을 백제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축적된 것은 커다란 성과이다.

이번 조사에서 출토된 유구 중 먼저 가장 주목되는 것은 건물터이다.

모두 6개소의 건물터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암반층이나 풍화암

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위치가 아닐까 한다. 건물지 3·4·6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시설이 출토되었다. 건물지 4는 유구가 모두 유실되었으나 암반 상면에 흙을 파서 측벽을 세웠던 흔적 및 아궁이가 확인되었다. 전체형태는 ‘ㄱ’ 자형으로 남북으로 긴 ‘一’자에서 남쪽 끝이 직각으로 꺾어지면서 아궁이가 있다. 북쪽 끝에 굴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 내부에서 구들시설의 위치는 동쪽 부분에 치우쳐 있었다. 건물지 3과 건물지 6은 일부 시설이 남아 있다. 건물지 3은 토층дук에 일부가 가려져 있고, 건물지 6은 구들시설을 제외한 건물 유구가 모두 유실되었다. 대체로 ‘一’字형을 기본으로 한쪽 끝에서 ‘ㄱ’자로 꺾어져 아궁이가 있고 그 반대편에 굴뚝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할석을 세워서 측벽을 구성하고 그 위에 넓적한 돌을 덮개돌로 올려놓았다. 암반면이나 풍화암반을 정리하고 측벽석은 흙을 파서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 소토가 퇴적되어 있고 바닥의 암반면과 측벽, 덮개돌로 사용된 석재는 불에 그을린 자국이 뚜렷하였다. 아궁이 주변에서는 조리용과 배식용으로 사용되던 토기들이 출토되었다. 이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시설은 난방과 취사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여 볼 수 있다. 이 같은 구들시설은 이미 구의동유적이거나 아차산 보루에서 유사한 온돌시설이 발굴된 적이 있다.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이번에 출토된 구들시설도 이들과 연관 속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정황을 고려하면 이 건물지들은 설성산성에 주둔한 군인들의 막사로 추정된다. 이와 비교되는 비슷한 시기의 수혈건물지로 구의동 고구려유적을 들 수 있다. 구의동 유적의 건물지도 원형의 수혈주거지로 지름은 약 7.6m 정도이다. 남쪽에 방형 출입구가 있고 벽을 따라서 22개의 기둥구멍이 노출되었으며 각 기둥구멍의 간격은 70~80cm로 일정하였다. 내부에는 배수시설, 온돌시설, 저수시설이 있고, 온돌시설은 동북부에 치우쳐 남북으로 길게 설치되어 있었다. 아궁이 주변에서는 생활토기들이 출토되었다.

설성산성 수혈건물지는 각각의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름이 5m~10m 사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벽을 따라서 주공이 있으며 주공 간격은 50cm~70cm 정도로 비교적 일정하다. 내부에는 온돌시설이 중앙부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있고 주변에서 생활용 토기가 출토되는 것도 유사하다. 다만 설성산성에서는 내부에 저수시설이 없다는 것인데, 공동 저수시설이 있으므로 건물 내부에 마련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 건물지는 크기와 형태가 구의동 유적의 건물지와 비교됨으로 수용 인원도 비슷하지 않을까 한다. 구의동 유적이 10여명 내외로 추정되고, 아차산 4보루 발굴 결과 고구려 군대의 최소 단위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제도 고구려와 같은 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성산성의 건물지도 대체로 10명 내외의 병사가 수용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즉, 백제의 최소 단위 부대가 하나의 건물지를 차지하였고 이들이 모여서 상급단위의 부대를 형



토광 출토유물 모습

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굴된 건물지는 6개소이지만 그 이외에도 건물지로 볼 수 있는 유구가 있고, 시굴조사 결과 나B·나C 지역에 걸쳐서 구들유구의 흔적이나 건물지 흔적이 다수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가지구에서 나지구 전체에 걸쳐 비슷한 규모의 수혈건물지가 아직도 다수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구들은 차기 조사를 통해서 발

굴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한강 유역의 고대 산성에서 출토되었던 건물지는 기단과 초석을 갖춘 형태의 건물지들이었다. 이러한 건물지 중 가장 올라가는 것은 신라시대의 것이다. 그 동안 한강 유역에서 백제가 초축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이 수 기 조사되었고 백제 토기도 출토되었다. 하지만 백제의 건물지는 출토된 적이 없었다. 필자가 조사한 설봉산성이나 반월산성의 경우에도 많은 수의 백제토기가 출토되었지만 이것들을 제작하고 사용하였던 백제인들의 거주 흔적이 발굴되지 않아 의문이었다. 그런데 반월산성과 설봉산성에서도 신라 건물지 하부 풍화암반층에는 많은 기둥구멍이 있었다. 다만 후대의 건물 축조과정에서 되어 삭토되었던 관계로 건물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비교적 형태가 뚜렷한 백제 수혈건물지가 출토되어 의문의 일부를 풀 수 있었다. 앞으로 한강 유역의 산성조사에서 백제 수혈건물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건물지와 함께 저수시설과 토광(저장시설)의 존재도 주목된다. 특히 이번 발굴에서는 토기의 저장시설로 보이는 토광이 2기가 발굴됨으로써 나지구 일대의 공간 배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토광이 위치하는 곳은 평탄지가 아니라 가지구와 나C확 트랜치 건물지 일대 경사면에 집중되어 있다. 비교적 평탄한 곳은 건물지를 축조하고 경사면에는 저장시설을 설치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아직 조사되지 않은 나지구 경사면에는 다수의 토광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는 이번에 발굴된 나C확-1·7호 토광과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수시설도 나C확 트랜치 경사면을 활용하여 축조하였다. 이 저수시설은 나지구의 건물지와 관련하여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나C확-7호 토광 보다 후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임으로 차후에 결론을 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조사된 성벽의 특징은 성벽의 기저부와 뒤채움의 일부를 토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외벽 기저부까지 점토를 다진 것은 아니고 성벽 내부의 뒤채움 석재 하부에만 점토를 다진 것이다. 이와 같이 성벽 뒤채움이 석축부와 토축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이미 설봉산성 3차 발굴조사와 반월산성 6차 발굴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다만 이들 모두 성벽들이 백제가 축조한 성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양식을 고유한 백제의 석성 축조 방식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번 성벽 조사에서도 석축 하부 점토 다짐층에서 다수의 백제 토기편이 출토되었고 건물지와 성벽의 관계로 보아 백제가 성벽을 초축하였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결국 백제가 축조한 것으로 밝혀진 세 곳의 산성이 모두 뒤채움에 석축부와 점토부가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고대 성벽의 축조 방식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속단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신라나 고구려의 축성 방식과 비교하여 검토해 볼 문제이다.

이번 2차 조사에서 출토된 백제 유물은 설성산성의 성격 규명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나C확-1 트렌치의 7호 토광에서 출토된 완형의 기대와 대부용기는 경기도 지역의 산성에서는 출토된 적이 없는 한성시대 백제토기로 주목된다. 이와 함께 공반 출토된 기형이 거의 완전하게 보존된 많은 양의 고배와 호·옹류는 백제토기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토기 뿐만 아니라 나A확-4 트렌치의 건물지 2 북서쪽에서 출토된 기와는 토층, 제작 양식, 공반 출토된 백제토기 등으로 미루어 백제 기와로 추정된다. 한성시대 백제 평기와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등 왕성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출토된 예가 거의 없어서 매우 주목된다. 특히 그 중에는 방형의 인장이 찍힌 기와도 섞여 있다. 설성산성 출토 백제 기와류는 모두 정선된 점토로 만든 것으로 색조는 회백색이나 적갈색, 황갈색을 띤다. 대부분 두께가 매우 얇은 편이며, 와도로 정성을 들여 단면을 마무리하였다. 등에는 주로 격자문 및 사선문이 타날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연질의 기와이며, 동일한 문양의 기와도 소성온도의 차이로 인하여 각각의 경도는 차이가 있다. 인장이 찍힌 기와도 사격자문이 시문된 연질기와의와 경질기와의 두 종류가 있다.

철제류도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살포, 주조철부와 낫 등의 농기구류, 철제칼을 비롯한 투겁창, 화살촉 등 각종 무기류와 철제 가위, 솔 등의 생활 도구, 건축부재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철제유물은 당시의 무장과 산성에서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거의 완형에 가까운 살포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설성산성 출토 백제토기는 현재 알려진 백제토기 편년안과 비교하여 볼 때, 대략 4세기 후반 경~5세기 전반경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그 가운데서도 회청색 경질의 고배류, 호·옹류 등 비교적 상대편년이 용이한 유물들은 그 중심연대를 4세기 후반으로 설정할 수 있다. 기존의 몽촌토성Ⅱ기, 풍납토성Ⅳ기, 설봉산성Ⅱ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출토품이 토광에서 일괄 출토된 유물이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편년안은 앞으로 주변 유적과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출토된 백제 토기에서는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의 유물과 같은 정교한 면도 있으나, 기종은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 이러한 점은 아직 발굴이 설성산성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왕성에 비하여 군사(행정)적 거점이라는 유적의 성격과 관련될 것이다. 설성산성의 백제 토기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이후 계속 시행될 체계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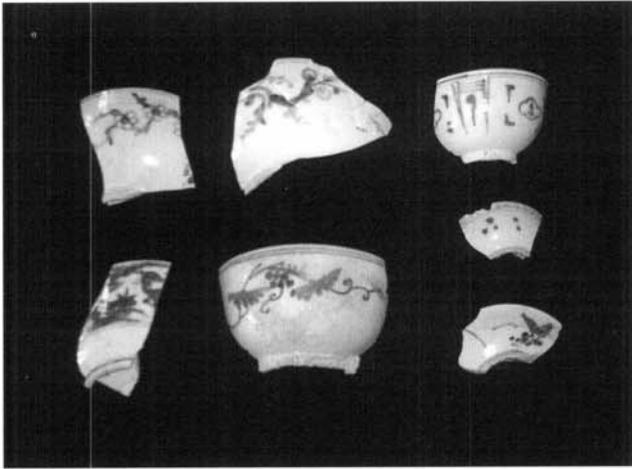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설성산성에서 기와를 엮은 건물지가 존재하고, 기대와 같은 비교적 고급품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아, 한성 백제시대의 남방진출과 지방 경영의 일개 거점일 가능성도 높다. 그 같은 정치적 이유로 이곳에 산성이 축조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산성의 축조 시기는 출토되는 토기로 보아 일단 4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이전 설봉산성과 비슷한 시기에 축조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설성산성은 설봉산성과 연관성속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성백제시대의 지방지배체제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6) 광주 분원리 조선백자 도요지 발굴조사

- 위 치 :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산5, 117-3, -5, 116번지, 113-1, 산4-6번지일원
- 조사기간 : 2002. 9. 7~ 2002. 11. 15
- 시 대 : 조선시대
- 조사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 조사내용

조사 지역은 사적 제314호 지정 구역 및 인접지역에 해당하는 구릉으로 2001년에 가마유구 및 공방지, 가마폐기물 퇴적층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분원리 유적을 복원하여 역사교육 현장 및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자료구축이 주요 목적이었다.

이번 조사는 대상지 밖으로 뻗어 나간 가마유구의 연장부를 조사하여 구조를 확인하는 것과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추정공방지 유구를 완전 노출시켜 분원요지의 구조 및 운영시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며, 인접지역의 시굴조사를 통해 분원요지의 범위를 확인하여 장기적인 유적보존



출토 백자류



가마 2호 전경(서 - 동)

및 관리에 활용코자 하는 것이다.

분원리유적은 팔당댐의 최 하류에 해당되는 지점으로 서쪽 산에서 길게 뻗어 나온 야산의 긴 능선 끝자락에 해당된다. 이 구릉의 하부에 위치한 분원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위에는 A지구, 아래는 B지구, 이 구릉의 북쪽 경사면 아래 평탄면이 C지구이다.

A지구에서는 공방유구의 완전 노출 및 유물이 출토되었고 W3S4-II의 퇴적층 확인 및 유물이 출토되었다. 분원리유적에서 변조 방법은 감발을 씌워 구운 고급의 감변과 포개굽는 방법이 주를 이루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굽 바닥에 흙물을 묻히고, 굽은 모래나 돌가루를 돌려 포개 굽는 것이 대부분으로 주로 하품의 자기퇴적층임을 보여준다. 그 외 폐교 옆의 경작지에 시굴 피트를 넣어 층위 및 유구의 잔존여부를 확인하였다. B지구에서는 가마2호의 제3 소성실 노출, 3·4호의 이전 가마인 가마 3-1호의 위치 및 4-1호의 규모가 확인되었고, 하부의 퇴적층을 확인하였다. 출토유물은 기종에 따라 반상기와 제기로 대별되며, 지통 등의 문방구류가 출토되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조사에서는 2001년도에 조사된 총 4기의 가마와 관련 퇴적의 관련성을 통해 가마들의 선후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분원요업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즉 1752년 분원 요장이 민영화된 이후에 운영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개량가마의 퇴적물을 확보함으로써 조선 후기에서 근대까지 이어지는 분원요장의 가마구조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C지구의 시굴조사를 통해 분원리유적의 범위가 현 구릉과 연관되는 주변지역까지 연계될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7) 파주 적성 우회도로 구간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 위 치 :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 조사기간 : 2002. 9. 7~ 1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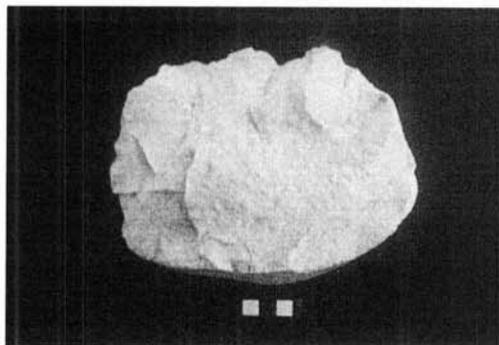
○ 시 대 : 구석기시대

○ 조사기관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서울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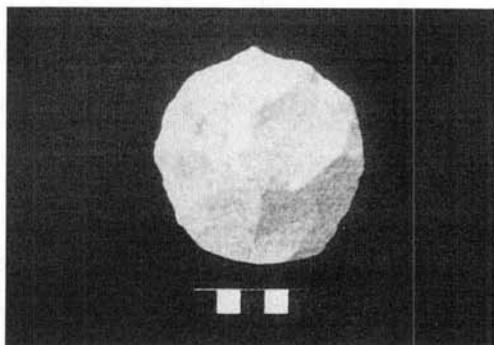
○ 조사내용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일대에서 시행중인 파주 적성 우회도로 공사 구간에 대한 문화유적 시굴조사가 9월 5일부터 두달간 실시되었다. 도로공사는 사적 제389호로 지정되어 있는 가월리-주월리 구석기유적의 바로 앞을 통과하여 임진강을 따라 총 4.8km에 걸쳐 시행되는데 이 중 약 2km에 대하여 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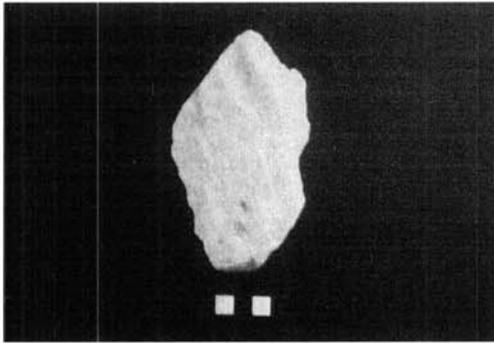
편의상 조사지역을 3개로 나누어 1·3구역은 서울대학교박물관이 담당하고, 2구역은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에서 담당하였다. 1구역은 시굴조사과정에서 점토층이 경지정리 과정 중에 상당부분 제거 및 교란되었음이 확인되었으나, 층위역전을 보이면서도 그 역전된 적색조 토양층에서는 석기가 집중적으로 출토하였으며 논 경작면과 황색 실트층의 접촉면에서도 다량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따라서 1구역은 과거 인간의 활동이 가장 빈번한 곳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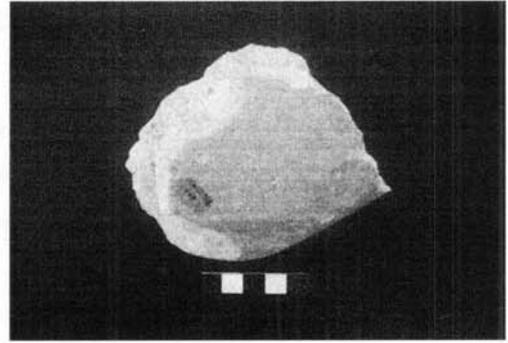
지표수습 찍개



TP19 출토 석핵



TP37 출토석기



TP37 출토 석핵

판단되어 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3구역의 A1트렌치 일대와 B2·C4트렌치 일대에서 대략 도로 중심선 좌측으로 점토층이 비교적 잘 잔존하고 있어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조사지역에서 수습된 석기류는 주로 찹개류(choppers)이며 일부 석핵과 훔날, 망치돌, 사용된 석재, 그리고 박편들이 있다. 찹개류는 양면타격, 단면타격에 의한 것이 모두 발견되나 발견된 유물 중에서는 단면타격이 더 우세한 듯하다. 전체적으로 보아 도구석기들은 많고, 정밀한 잔손질이 없이 단순한 타격에 의해 제작된 것이 우세하며 한가지 기능에 국한되기 보다는 다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특징을 가진다. 석재는 다양한 편인데 석영암 계통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규암계 석기는 드문 편이다. 규암계통은 상대적으로 더 대형의 석기를 만드는데, 석영계통은 더 소형의 석기를 만드는데 자주 이용되었던 것이라 보인다.

한양대학교에서 조사한 2구역 내에서 수습된 유물의 수는 약 400여 점에 이른다(지표수습 포함). 이번 조사의 석기 공작은 기존의 전곡리 등 임진-한탄강 유역의 구석기유적들에서 발견된 바와 성격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석영제와 규암제의 몸돌을 타격하여 얻은 박편이나 부스러기 등이며 2차 가공이 이루어진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TP 4와 TP 20의 경우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이 지역 구석기생활 연구와 석기제작 과정의 복원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TP 20은 구덩이로 추정되는 유구의 형태를 띄고 있어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그 양상을 밝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굴결과 이 지역은 과거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지 정리와 경작으로 인해 이미 많은 훼손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비교적 지대가 높은 지점에 대한 조사 결과 구석기 문화층이 확인되었으며 규암제와 석영제의 석기 유물이 다수 출토되어 임진-한탄강 유역 구석기 문화층의 특징과 유적 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8) 화성 천천리 유적

- 위 치 :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매송면 천천리
- 조사기간 : 2002. 9. 7~ 2002. 11. 15
- 시 대 : 청동기시대
- 조사기관 : 한신대학교 박물관
- 조사내용



I 구역전경

화성 천천리유적은 본오~오목 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 내 절토면에서 유구가 노출되어 있어 조사가 시작되었다. 유적이 위치하는 곳은 해발 85m 구릉의 남사면에 해당되며 소규모의 능선을 중심으로 I구역과 II구역으로 구분된다. I구역은 해발 60m 내외의 완만한 남사면이고 II구역은 그 서쪽에 위치한다. 양쪽 모두 발굴조사 실시 이전에 남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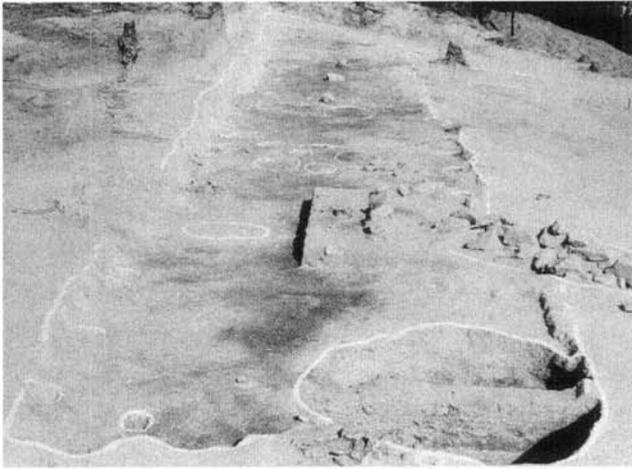
사면 대부분이 절토되어 원형을 잃었으며 잔존한 부분 역시 이장 또는 벌목에 의해 심하게 교란된 상태였다.

천천리유적에서는 총 19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유구 14기, 백제시대 2기, 통일신라시대 1기, 고려시대 1기, 시대미상 1기로 대부분 I구역에서 확인되며 II구역에서는 세장방형주거지 1기와 장방형주거지 1기만이 확인되었다.

- I 구역

지표조사 당시 절토면에서 2기의 수혈유구가 단면이 노출된 채로 확인되었으며 무문토기편이 다량 채집되어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었던 곳이다. I구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총 11기로 대형 세장방형 주거지 2기, 원형주거지 2기, 장방형주거지 7기로 상당수의 주거지가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다.

세장방형주거지(1호, 7호) 중 1호는 절토작업에 의해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반대쪽 장축의 끝부분 역시 이장구덩이에 의해 교란되어 있어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7호 주거지 전경

주공과 노지가 확인되었다. 주거지에서는 공렬토기, 공렬+구순각목토기, 합인석부, 반월형석도, 이단경식 석촉, 곰배괘이 등이 출토되었다. 7호 주거지의 경우 장축방향 남서-북동으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성되어 있다. 이중 남동쪽 벽면은 삭평되어 있지만 잔존한 주공으로 규모 추정은 가능하다. 장축 29.10m, 단축 4m로 기존에 발굴조사된 세장방향주거

지 중 최대형에 해당된다. 내부에서는 공렬토기, 공렬+구순각목토기와 함께 석도, 석촉, 석부, 다두석부형 석기, 지석, 갈돌, 방추차 등 많은 양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주거지내부시설로는 주공, 벽구, 노지, 저장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여러개가 확인되었는데 그 중 주거지의 중앙 부분에 약 7m의 등간격으로 확인되는 3기의 노지는 직경 130cm 내외, 깊이 10cm 내외, 평면 형태 원형의 굴광형태로서 이후에 점토다짐을 하였다. 내부저장시설은 주거지의 남서쪽 끝부분 모서리에 조성되어 있으며 원형의 수혈이다. 내부에서는 무문토기 1점이 출토되었으며 바닷에서는 부분적으로 불맞은 흔적이 있다.

(타)원형주거지(2호, 9-2호)는 2기가 확인되었다. 2호주거지의 경우 일부가 절토면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서벽은 삭평되어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방향으로 보이는 3호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며 내부시설로는 주공, 벽구, 구 등이 확인된다. 주거지 내부에 노지는 없다. 내부퇴적도에서는 공렬토기, 공렬+구순각목토기가, 주거지 바닥면에서는 유구석부와 저부에 투공이 뚫려 있는 토기가 출토되었다.

9-2호주거지는 방형주거지인 9-1호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 타원형으로 내부에서는 갈돌과 공렬토기, 공렬+구순각목토기가 출토되었다. 주거지 내부에서 특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장방향주거지는 총 7기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거지가 절토 또는 이장구덩이에 의해 훼손되었거나 주변의 분묘 때문에 확장조사를 할 수 없어 정확한 규모를 확인 할 수 없었다.

그 중 6호 주거지는 화재주거지로 내부에서는 공렬토기, 공렬+구순각목토기와 석촉, 석착

등이 출토되었으며 북동쪽 모서리부분에서는 대형 호 2점이 일괄로 출토되었다. 11호주거지의 경우는 510cm×300cm의 장방형 소형 주거지이다. 이 주거지에의 북서쪽 모서리 부분에서는 대형 호, 발 등의 토기가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는 적석유구가 1기 조사되었다.

백제시대 유구로는 주거지 1기(8호주거지)와 소형옹관묘 1기가 확인되었다. 8호주거지는 장축 600cm, 단축 540cm 내외의 타원형으로 깊이는 40cm 내외이다. 남동쪽 벽은 일부 삭평되었으며 나무구덩이로 인해 교란된 상태이다. 또한 북벽은 2호 석곽에 의해 교란된 상태이다. 내부에서는 무문토기편과 경질토기편이 소량 출토되었으며 바닥면에서 구연부편이 확인되었다. 내부시설로는 주공이 확인된다.

옹관묘의 경우 소형으로 토기편 일부만 확인된다. 장관형토기와 호형토기의 합구식 옹관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 석곽중 2호 석곽은 7호와 8호를 일부 파괴하고 조성되어 있다. 석곽245cm×110cm, 바닥 210cm×79cm의 규모이며 횡구식으로 추정된다. 내부에서는 병, 완, 청동제 교구 등이 출토되었다.

고려시대 묘막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4호) 1기가 확인되었다. 말각방형에 가까운 평면형태 타원형의 수혈로서 주거지 내부에서 청자편이 출토되었다. 내부시설로는 아궁이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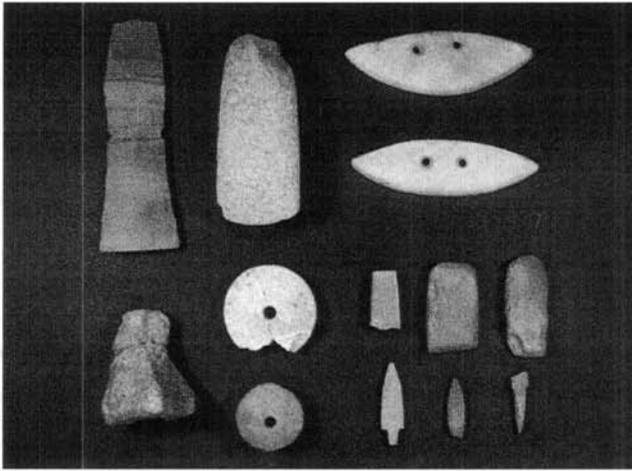
• II구역

II구역은 해발 50m 내외의 완만한 남사면으로 I구역과는 계곡을 중심으로 구분된다. 이 지



2호 석곽 출토 토기류

역은 공동묘지 또는 밭으로 사용되던 지역으로 이장구덩이 등에 의해 원지형이 대부분 훼손되었다. 확인되는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세장방형 1기, 장방형 1기) 뿐이다. 1호 주거지의 경우 남벽은 삭평되었으며 주거지의 중앙부분과 서벽 끝 부분은 이장구덩이에 의해 교란되었다. 내부에서는 주공이 확인되었으며 무문토기편 소량만이 출토되었다.



7호 주거지 출토 석기 각종

화성 천천리 유적의 성과와 의
의는 다음과 같다.

7호주거지는 지금까지 조사된
청동기시대 세장방형주거지 중
최대형에 속하는 유구이다. 또한
주거지 내부에서 주공, 내부 저장
시설, 노지 등이 확인되어 이후
주거지 축조 및 내부 공간 이용 등
의 연구에 있어 새로운 자료를 제
공하였다.

(타)원형주거지의 경우 중부지

역에서는 조사된 예가 드문 것으로, 방형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된 것으로 보아 방형주거지 보
다 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호주거지 내부에서 공렬토기, 공렬+구순각목토기와 함께 유
구석부가 출토된다는 것은 이 지역 청동기시대 편년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묘막은 최근 그 발굴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중세시대 묘장제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료이다.

(9) 하남 이성산성 10차 발굴조사

- 위 치 : 하남시 춘궁동
- 조사기간 : 2002. 10. 16~ 12. 28
- 시 대 : 삼국시대
- 조사기관 : 한양대학교 박물관
- 조사내용

이성산성은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에 위치한 석축산성으로 성벽의 총 길이는 1,665.33m, 면
적은 128,890.55㎡이다. 북쪽의 산정상부를 둘러싸고 남쪽으로 계곡을 포함하고 있는 포곡식
산성으로 한강의 남쪽 유역에 위치하면서 주변의 삼국시대 성곽 및 주변의 지형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축조되어 군사적, 행정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산성이다. 산성의 규모와
성격의 확인을 위해 한양대학교 박물관은 그 동안 9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벽,
문지, 건물지, 저수지 등 많은 유구를 확인하였다. 제10차 발굴조사는 9차 조사시 노출된 동문지
의 미확인 구조를 파악하고, 북쪽으로 46m를 확장, 조사하여 성벽과 북쪽 회절부에 대한 구조



동북쪽 성벽 전경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초사된 남벽의 조사결과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성산성 성벽의 구조, 형태 및 축성법과 사용연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 H지구에서 I지구에 걸친 평탄면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건물지의 존재유무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금번 10차 조사는 9차 조사시 노출된 동문지의 북쪽으로 연장

조사를 실시하여 성벽의 구조, 축성방법 및 북쪽 회절부의 시설유무를 확인하고 I지구 평탄면의 건물지 존재여부를 조사하였다.

• 성벽 관련 유구

등성시설

등성시설은 9차 조사시에 처음으로 노출되었다. 1차 성벽에서 6m 떨어진 전면에 위치하며 성벽과 직삼각형 형태로 맞닿아 있어서 이번 조사에서 상부의 흙을 제거하고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등성시설의 하단부는 원래 장방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북쪽으로 연결된 구간은 1, 2단만 잔존하여 끝선이 명확하지 않아 현 상태는 ‘L’자형으로 볼 수 있다. 총 길이는 10.1m



추정 등성시설

이고, 다짐층에 기반부 없이 전면만 일부 치석한 석재를 이용하여 높이 6단, 120cm까지 쌓았다. 석재는 장방형 형태의 돌을 이용하고 중간에 잔돌을 끼워넣었다. 등성시설의 내부는 폭 230cm의 범위까지 할석으로 속채움을 하고, 그 뒷부분부터 문지 아래 성벽까지 암반 위를 다짐하였다. 성벽까지 계단식으로 축조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상부에서 아래로 일부가 무너져 버린 상태여서 정확한 형태를 알기 어렵다.

석렬유구 1

9차 조사시 문지 아래 성벽에 연결되어 호형으로 돌아가고 있어, 호형 구조물이라 칭했던 유구이다. 현재 동문지 아래 1차 성벽에서 북쪽으로 면적이 7.2m까지 노출되어 있고 뒤채움돌만 남아있는 석렬이 9.2m까지 노출된다. 이 유구와 2차 성벽 기단석 사이 약 4m가 유실되어 있는데 원래의 연결선은 2차 성벽과 일렬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구조물은 성문이나 성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문 좌우로 돌출시켜 쌓은 일종의 적대 역할을 했거나 원래 2차 성벽이 있던 구간이 후대에 무너져 이를 보강하기 위해 새로 쌓은 것으로 생각된다.

등성시설의 면적보다는 조금더 다듬어진 면적을 기단부 위에 최고 6단, 1.2m 높이로 쌓았다. 내부는 뒤채움을 하고, 그 위로 바닥을 깔아서 정리하였다.

• 성벽조사 구간 (I-1 구간)

1차 성벽

대부분이 부식토와 무너져 내린 할석으로 덮여있던 성벽은 조사결과 수직벽과 연결된 구간과 치사이로 기단석이 노출되었다. 동문지에서 치 연접부까지의 거리는 39m, 성벽의 폭은 약 8m, 잔존높이는 약 6m이다. 기단석은 암반을 정지하여 시설하였고 가장 큰 기단석의 크기는 110×60cm이다. 동문지 아래 성벽의 경우 면적이 최고 17단까지 남아 있고, 성벽구간은 부분적으로 2단까지 남아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유실되었다. 기단석 뒤로 채워진 뒤채움돌은 약 6m 높이로 남아있다. 기단석 8~30cm 앞에는 주공 9개가 노출되었다. 주공간의 간격은 약 2m이고 주공의 지름은 평균 67cm이다. 암반을 굴토하여, 내부에 나무기둥을 세운 후 암반부스러기로 다졌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노출된 기둥의 평균지름은 30cm로 판단되며, 바닥시설은 판판한 돌을 깔 것과 암반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 있다. 주공 내부에서는 기형을 확인할 수 없는 경질토기 동체부편과 선조문의 두꺼운 경질기와편 등 3점이 출토되었다.

2차 성벽

2차 성벽은 1차 성벽 앞의 무너진 할석들을 정리하는 중 노출되었다. 2차 성벽은 뒤를 길게 다듬고 면적 앞부분이 둥글게 배가 나오게 다듬은 소위 '옥수수알 성돌'로 쌓았다. 2차 성벽은 1차 성벽에서 약 4.3m정도 떨어져 암반을 굴토하여 기단석을 놓고 채움돌로 1차 성벽과 2차 성벽의 사이를 채웠다. 기단석의 평균크기는 71×52×27cm이다.

석렬유구 2

2차 성벽의 다짐층 바로 아래 부분에 축조된 구조이다. 규모는 약 2.3×8.4m의 크기로 중간에 배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잔존높이는 1.16m이다. 석렬유구의 북쪽으로 2차 성벽의 외곽을 따라 연속적으로 석렬유구가 나타나는데, 경사면을 따라 암반층 위에 흙을 다지고 그 위에 돌들을 깔아놓은 것으로 보아 성벽을 보강하는 시설물로 생각된다.

석렬유구 3

성벽 시설부의 최하단에 위치한 유구이다. 석렬유구 1로부터 4.4m 하단부 다짐층 경사면이 끝나는 아래에서 확인되었다. 남북 방향 ‘—’ 자형으로 길이는 약 4.3m이며, 서쪽으로 약 60cm정도 위에 평행으로 석재가 노출되었다. 경사면을 따라 다짐을 하고 돌을 일렬로 깔아놓은 것으로 보아 경사면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석렬의 아래쪽으로는 두께 10~20cm의 와적층이 노출되었다. 대부분 굽고 진한 선문의 와편들로 다른 유구에서 출토되는 선문들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 치

1차 성벽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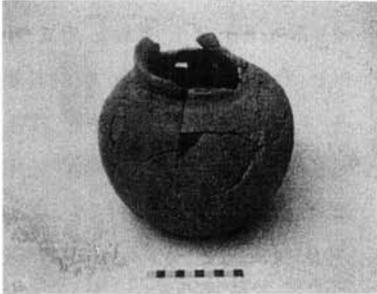
치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보아 장방형이며, 크기는 2m×13.2m×2.1m로 일반적인 치보다 규모가 크다. 1차 성벽 치의 전면부는 기단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 뒤채움돌의 시작 부분에 부분적으로 기단석을 놓았던 형태대로 할석이 깔려있어서 기단석의 크기는 약 90×60cm, 90×70cm, 55×70cm, 110×75cm로 판단된다.

2차 성벽 치

TR-A의 정리 중에 1차 성벽 치 3.2m 외곽에서 노출되었다. 2차 성벽 치는 대부분 기단석만 잔존하고 옥수수알 모양의 성돌이 한 단씩 7매가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2차 성벽 치의 기단석 또한 2차 성벽과 마찬가지로 덜 다듬어진 장대석을 이용하였고, 정면의 기단부 중 3매의 기단석은 1차 성벽 치의 기단석을 재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으로 회절하는 구간은 경사면을 따라 심하게 아래로 떨어져서 기단석이 아래로 밀려나오거나 빠져나갔다. 기단석의 크기는 평균 80×75×32cm이다. 1차 치는 경사면을 따라서 계단식으로 축조하였지만, 2차 치의 북쪽 면은 경사면을 따라 밀려 내려와 축성 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태이다. 2차 성벽 치의 규모는 3.43×24.5×5.1m다.

성벽조사 구간에서는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이 와편이며, 기타 유물로는 토기편, 철기류, 석기류 등이 있다.

토기류를 보면 성벽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고 2차 성벽 아래 경사면을 보완하고 있는 석렬의 끝단 사이에서 대부분 출토되었다. 인화문토기편, 단각고배, 호, 대부합, 완, 뚜껑, 무문토기편, 우각형과수, 옹편 등이 출토되었다. 대부분의 토기편은 파손되어 그 기형을 구분할 수 없는 동체부편이 주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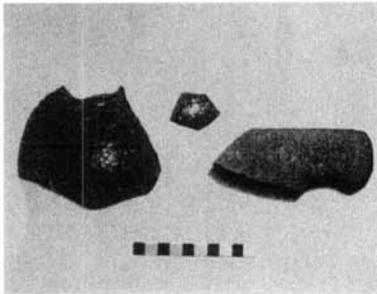


석기류를 보면 2차 성벽 앞 할석 사이에서 석촉이 출토되었고, 등성시설 위 퇴적층에서 일부 파손된 유구석부가 출토되었다.

철기류로는 철정과 철촉 등이 수습되었으며, 마름쇠가 2차 성벽 치에서 출토되었다.



기와류는 금번 조사에서도 유구 전체에 걸쳐 압도적으로 출토량이 많다. 성벽구간에서는 대부분 선문을 시문한 기와가 출토되고 있다. 수키와는 대부분 가늘고 긴 선문이 타날되었고, 암키와는 비교적 굵은 선문이 타날되었다. 동문지와 그 아래 성벽부분에서는 격자문과 당초문, 승문 기와도 출토되나, 승선문의 경우는 그 수가 매우 적다.



• [지구 평탄지

유구

TR-E에서는 성의 내벽으로부터 3.2m 지점에 2×3.3m 범위로 강돌이 쌓여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강돌의 크기는 대략 20cm 내외다.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유구의 규모와 성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사시 투석전에 이용하기 위해 강돌을 성벽 인접부에 쌓아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성의 내벽으로부터 10.1m 떨어진 지점부터 2.4×5.8m의 규모로 적석유구가 노출되는데 정확한 유구의 성격은 현재 확인 중이다.

트렌치의 가장 동쪽지점에서는 암반을 굴토한 구덩이가 노출되었는데 저장공의 일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지름 130cm, 깊이 60cm까지 확인되었고, 내부는 흑갈색

이성산성 출토유물 각종

모래로 채워져 있었다. 성벽의 내벽은 아직 완전히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지표아래로 2m정도 암반을 경사지게 굴토하여 5단 정도 석렬을 쌓고 외벽과의 사이는 할석으로 뒤채움을 한 내외협축으로 쌓은 것으로 보인다. 기저부는 기단석을 따로 시설하지는 않았으며 면석이 보이지 않는데 성의 안쪽으로 밀려서 일부 무너지고 빠져 나간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물

TR-E에서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우선 내벽 노출부에서는 표토를 제거하자마자 1/4 잔존한 연화문화당이 출토되었고, 남으로 확장한 구간에서도 표토층 제거 후 유구석부가 노출되었다. 또한 평탄지 북쪽 회절부로 돌아가는 지점서는 표토에서 연질호가 출토되었는데, 등산로 상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을 수습하여 복원하였다.

전체적인 유물 출토 현황을 살펴보면 토기편은 투창이 뚫린 단각고배와 인화문토기편, 우각형과수 등이 출토되었고, 기와는 격자와 선문, 당초문 기와까지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으나 소량이다.

• 조사성과

10차 발굴조사 결과 이성산성의 성벽은 초축 성벽과 소위 옥수수 성돌을 사용하여 축성한 2차 성벽 등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조사시 소위 2차 성벽이라 지칭했던 구조물은 시기를 달리하여 축성된 성벽이 아니고 체성을 보강하기 위해 개보축한 구조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두 차례에 걸쳐 축조된 치의 구조로 명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기초사된 남벽의 경우도 3차에 걸쳐 축성된 것이 아니고 2차에 걸쳐 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내벽의 경우 이미 남벽에 대한 조사와 9차조사시에 일부 노출된 동벽의 내벽 조사를 통해 내외협축으로 쌓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번 10차 조사에서도 I지구 평탄지에서 동벽으로 연결된 구간에서 내벽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결과 역시 내벽을 축조하고 외벽 사이에는 뒤채움을 한 내외협축으로 쌓은 것으로 판단된다.

동문지는 9차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 개보수된 현문식의 문지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성벽이 2차에 걸쳐 축조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1차 문지가 조성될 때는 성벽 하단부에 별다른 시설없이 바로 문지로 올라오는 현문식의 구조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차 문지가 축조되면서 등성시설과 체성을 연결한 구조물이 축조되고 동문지의 급격한 경사면을 따라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벽외곽으로 개보축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차 성벽 바깥에 나타나는 석렬의 구조물과 다짐층은 급격한 경사로 인해 성벽과 경사면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쪽으로 회절하는 구간에서는 1,2차 성벽과 연결되어 돌아가는 치가 노출되었다. 1차 치는 1차 성벽과 마찬가지로 장방향으로 잘 다듬어진 석재를 이용하여 성벽과 맞물려 직각으로 축조하였고, 2차 치는 전면만 다듬어진 석재로 기단부를 조성하였다. 2차 치는 성벽과 각지게 돌아가는 부분이 맞물려 있지 않고 약 15cm 정도 벌어진 틈을 다짐으로 채워 직각으로 돌아간다. 1차 치의 규모는 2m×13.2m×2m, 2차 치는 3.43m×24.5m×5.1m의 규모로, 1,2차 치 모두 북벽으로 회절하는 부분의 모든 면을 다 보완하고 있는 형태이다. 치의 규모는 한강유역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보기 힘든 대형의 구조물이다. 치와 동문지 사이는 급격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어서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반면에 치가 설치된 동북사면은 비교적 완만한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로 사람들의 통행이 이 지역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올라오는 적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한강유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이 지점에 치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 동안의 발굴조사는 주로 건물지 위주로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보수, 복원사업이 진행되어 삼국시대 말과 통일신라기에 이르는 시기에 대한 시민들의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번 10차 발굴조사 결과 이성산성은 건물지 뿐만 아니라 성벽의 구조도 비교적 잘 남아 있으며 시기를 달리하는 축성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생각된다. 그러나 성벽의 경우 동절기와 춘절기를 거치면 성벽의 훼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 산성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성벽에 대한 보존, 정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벽에 대한 복원사업은 재정적인 뒷받침은 물론 철저한 고증이 필요하므로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현재 1차 성벽의 경우 동문지 앞의 성벽이 최고 17단까지 남아 있고 성벽의 잔존 높이가 약 6m에 달하는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의 복원이 가능하겠지만 2차 성벽의 경우 성벽의 실제 높이는 물론 어떠한 형태로 1차 성벽과 연결되어 있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존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3. 간행물

1) 각종 조사 보고서

서 명	기 관
漣川 三巨里遺蹟	경기도박물관
奉業寺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3대하천유역종합학술조사II - 한 강 -	경기도박물관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I	경기도박물관
양주 회암사지 종합정비계획	기전문화재연구원 명지대학교부설한국건축학연구소
파주 해음원지 1·2차 발굴조사 완료 약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이천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 주변지역 발굴 조사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6차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이천 설봉산성 3차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오이도 뒷살막패총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아차산 시루봉 보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지 시굴조사보고서	서울역사박물관
해강토탈리조트 조성사업 지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연세대학교박물관
파주 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연세대학교 박물관
덕적군도 종합학술조사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경북궁 태원전권역 조사보고서	중앙문화재연구원
강화 선두포 선두리 배수개선 사업부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인하대학교박물관
수인선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인하대학교박물관
강화의 문화유적 - 강화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서 명	기 관
서울 - 동두천(포천)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용인 동백지구 주변도로 예정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인운하 건설사업 예정구간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하남 천왕사지 2차 시굴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南漢山城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여주 상리 유적	한림대학교박물관
양주 대모산성	한림대학교박물관
花山古墳群	한신대학교박물관
丹陽 斜只院里 태장이墓 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한양대학교박물관
安山 大阜島 六谷 高麗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한양대학교박물관
二聖山城-9次 發掘調査報告書	한양대학교박물관
안산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양대학교박물관
파주 임진강의 적벽과 문화	한양대학교박물관

2) 도록 및 학술대회기념 논문집

보 고 서 명	간 행 기 관
되살아나는 조선 최대의 국찰 叡岩寺	경기도
한·중·일 대표 유물이 한자리에 同과異	경기도박물관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한·중·일의 미술	경기도박물관
고고학 I	서울경기고고학회
風納土城 -잃어버린 王都를 찾아서-	서울역사박물관
東아시아에서 溟沙里遺蹟의 位置	세종대학교 하남시
고려·조선시대 질그릇과 사기그릇	연세대학교박물관
우리나라의 구석기 문화	연세대학교박물관
삼국의 성립과 발전기의 남부지방	한국상고사학회
삼국의 접점을 찾아서	한국상고사학회
2002 전국리 구석기유적 기념국제학술세미나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4. 학회모임 및 각종 소식

1) 파주 칠중성 사적 지정

문화재청(청장 노태섭·盧太燮)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주 칠중성(坡州 七重城)」을 사적 제437호로 지정하였다.

2) 2002년도 한국신석기연구회 학술발표회

(1) 일시 : 2002년 1월 26일(토)

-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유물(고성 문암리, 연평도패총) 실견회
- 연구발표회
- 총회

(2) 장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회의실

(3) 논문발표

- 안면도 신석기문화 연구 - 소상영 (기전문화재연구원)
- 서해안 신석기문화 일 연구 - 양상혁 (서울대학교박물관)
- 서해안 생계경제 양식의 변화 (가도패총을 중심으로) - 이준정 (서울대학교박물관)

(4) 유적사례발표

- 진안 갈머리 유적 집석유구의 지방산 분석
 - 유혜선·안승모 (국립중앙박물관·원광대학교)
- 연평도 패총 발굴 성과 - 이종훈(국립문화재연구소)
- 부산 범방유적 발굴 개요 - 하인수(부산광역시립박물관)
- 제주도 신석기유적 신자료 소개 - 강창화 (제주문화예술재단)
- 옥천 대천리유적 개요 - 한창균, 김근완, 전일용, 구자진 (한남대학교박물관)

(5) 정기총회 - 회장 선출, 정관 개정

3) 2002년 하남 미사동 국제 학술 심포지엄

- (1) 주제 : 동아시아에서 미사동 유적의 위치
- (2) 일시 : 2002년 2월 26일(화)
- (3) 장소 : 하남시청 대회의실
- (4) 주최 : 세종대학교 박물관
- (5) 학술대회일정
 - 개회사 - 최정필(세종대학교 박물관장)
 - 환영사 - 박우량(하남시 부시장)
 - 축사 - 이교범(하남시의회 의장)
 - 기조강연 - 임효재(서울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2001년 조사성과와 의의 - 하문식(세종대학교 교수)
 - 미사동 유적의 선사문화 - 신숙정(연세대학교 원주 박물관 학예실장)
 - 미사동 백제취락의 구조와 성격 - 최종택(고려대학교 교수)
 - 동북아시아의 신석기 문화 查海文化의 사회경제형태 - 方殿春, 李勇軍(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 동북아시아속의 미사동 취락의 특성 (온돌구조를 중심으로) - 中山清隆(東京 誠女子大學)
 - 서양학자가 본 미사동 유적의 연구방향 - Bale.M.(한국문화재보호재단)
 - 특별초청 - 松浦宥一郎(東京國立博物館 學藝室長)

4) 제15회 한국고대사학회 합동토론회

- (1) 주제 : 고대 한일관계사의 새로운 조명
- (2) 일시 : 2002년 2월 21일(목) ~ 2월 22일(금)
- (3) 장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2층 제1회의실
- (4) 후원 : 한국교육개발원, (주)시공테크, 호림박물관

〈2002년 2월 21일(목)〉

- 개회사 및 기조강연
- 개 회 사 : 최광식(한국고대사학회)
- 기조강연 : 고대 한일관계사의 새로운 조명을 위하여 - 이기동(동국대)
 - 논문발표 및 토론 I
 - 사 회 : 권오영(한신대)
 - 고대 한일관계 연구사(임나 문제를 중심으로)
 - 발표자 : 김태식(홍익대), 토론자 : 김은숙(한국교원대), 백승충(부산대)
 - 고고학에서 본 고대한일관계사
 - 발표자 : 박천수(경북대), 토론자 : 박순발(충남대), 김세기(경산대)
 - 불교사에서 본 고대 한일관계사
 - 발표자 : 정병삼(숙명여대), 토론자 : 김상현(동국대), 최연식(일본학술진흥회)
 - 고대 한일관계 관련사료의 존재 양태와 문제점
 - 발표자 : 이영식(인제대), 토론자 : 이근우(부경대), 백승옥(부산대)
- 평의원회

〈2002년 2월 22일(금)〉

- 논문 발표 및 토론 II
- 사 회 : 공석구(한밭대)
- 고대 한일 외교사 (삼국과 왜를 중심으로)
 - 발표자 : 연민수(동국대)
 - 토론자 : 정효운(동의대), 이용현(고려대)
- 고대 한일 미술 교섭사
 - 발표자 : 김리나(홍익대)
 - 토론자 : 안휘준(서울대), 임남수(와세다대)
- 체질 인류학에서 본 고대한일관계사
 - 발표자 : 김재현(동아대)
 - 토론자 : 박선주(충북대)
- 종합토론 - 사회자 : 이기동(동국대)
 - 참여자 :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정기총회

5) 양양 오산리 선사문화 국제학술회의

(1) 주제 : 양양 오산리 선사문화의 제문제

(2) 일시 : 2002년 3월 29일(금)

(3) 장소 : 양양문화원 대강당

(4) 주관 : 양양문화원 · 한국선사고고학회

· 개 회 : 사회 이근만(양양문화원사무국장)

· 개 회 사 : 임효재(한국선사고고학회장)

· 환 영 사 : 오인택(양양군수), 고경재(양양문화원장)

· 기조강연

- 동아시아 속에서의 오산리 선사문화의 중요성

☞ 사라 넬슨(미국 덴버대 교수), 통역 : 최정필(세종대 교수)

· 주제발표

- 사회 : 이상균(전주대 교수)

- 오산리 선사문화와 유적공원의 활용전망 : 임효재(서울대 교수)

- 중국 신석기문화와 오산리 선사문화와의 관계

☞ 왕웨이(중국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 부소장), 통역 : 金英熙(중국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

· 종합토론

- 사회 최복규(강원대 교수) 고경재(양양문화원장) 백흥기(강릉대 명예교수) 정정원(부산대 교수) 최무장(건국대 교수) 안승모(원광대 교수) 송은숙(서울대박물관 연구원)

6) 시흥 오이도 유적 사적 지정

문화재청(청장 노태섭 · 盧太燮)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흥 오이도 유적」을 사적 제441호로 지정하였다.

(1) 지정 종별 및 번호 : 사적 제441호

(2) 문화재명 : 시흥 오이도 유적(始興烏耳島遺蹟)

(3)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안말마을) 183 외

(4) 지정면적 : 4,349,817㎡

(5) 시대 : 신석기, 초기철기, 백제시대, 통일신라

(6) 지정사유

이 유적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오이도 추가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내에 위치하며, 지표조사(1988년) 및 발굴조사('88, '94, '99, 2000, 2001)결과, 신석기 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가 지 계속 거주가 이루어졌던 지역으로, 확인된 집자리, 온돌유구 등과 출토된 토기편, 석기, 어망추 등 유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해안지역 주민의 생활상과 서해안 도서지방의 문화를 연구 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7) 서울경기고고학회 창립 및 발기인대회

고고학 연구와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에 앞장서고자 하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고고학자 모임인 서울경기고고학회가 2002년 4월 12일(금) 한국외교협회에서 창립 발기인대회를 갖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창립총회에서는 학계 원로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서울·경기 지역의 고고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초대 회장 선출(한양대학교 배기동교수), 상임위원 선출 및 회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 하고 본격적인 학회 활동에 들어갔다.

8) 제27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대회

(1) 주 제 : 삼국의 성립과 발전기의 남부지방

(2) 일 시 : 2002년 4월 26일(금)

(3) 장 소 : 경기문화재단 6층 다산홀

(4) 주 관 : 경기도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5) 후 원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6) 기조발표

· 21세기 한국고고학의 새로운 조류와 전망 - 최몽룡(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7) 주제발표

· 한강유역 : 百濟形成과 發展期에 있어서 漢江流域 樣相 - 김무중(기전문화재연구원)

· 금강유역 : 백제의 성립과 발전기의 금강유역 - 최완규(원광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 영산강유역 : 삼국의 성립과 발전기의 영산강유역 - 최성락(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 낙동강유역 : 三國의 成立과 發展期의 낙동강유역 - 박광춘(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8) 종합토론

9) 한·러 발해유적 공동발굴 결과 보고회

- (1) 일시 : 2002년 3월 20일(수)
- (2)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 (3) 주최 : 한국 - (사) 고구려연구회 · 강남대학교
러시아 - 러시아 과학원 · 극동역사고고민족학연구소
- (4) 발굴결과보고
 - 크라스키노 발해 성터 발굴사 - 이블리에프(극동역사고고민족학연구소)
 - 크라스키노 발해 성터 출토 유물 - 볼딘(극동역사고고민족학연구소)
 - 2001년 크라스키노 발굴 결과 보고 - 서길수(서경대, 고구려연구회 회장)

10)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몽골의 국립역사박물관과 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5년 동안 몽골에서 이루어진 한-몽 공동유적조사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2002.4.22-5.19)과 강연회를 마련하였다.

〈특별강연회〉

- (1) 일시 : 2002년 4월 22일(월)
- (2)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강당
- (3) 내용 및 강사
 - 몽골의 전통가옥 게르에 대하여 - 친노로보(몽골국립역사박물관장)
 - 몽골의 고고학 (1990년이후 외국과의 공동조사) - 축트바타르(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 부소장)

11) 漢陽 考古 세미나

(1) 제6회 4월 23일(화)

· 베트남의 청동기 시대

- Lam Thi My Dzung (베트남 국립대, 現 한양대 문화재연구소 객원연구원)

(2) 제7회 4월 30일(화) 13:30-14:30

· 임진 · 한탄강 유역의 흑요석기 연구

- 김대일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12) 2002년 연세대학교박물관 특별기획전시 23

연세대학교 창립 117주년을 기념하는 박물관 특별기획전시 23으로 고려 · 조선시대 질그릇과 사기그릇 전시 개최되었다. 연세대 박물관의 특별전시를 통해 주목받았던 우리나라의 질그릇, 녹갈유, 흑갈유, 석간주 등을 입힌 도자류와 옹기, 이들의 위치와 의미를 우리나라 도자사의 흐름 속에서 다시금 조망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고려, 조선시대의 질그릇과 사기그릇의 모습을 통해 오래 전 조상들의 슬기와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1) 전시기간 : 2002년 5월 9일 ~ 상설전시

(2) 장소 : 연세대학교 박물관 3층 - 고려 · 조선시대 질그릇과 사기그릇실

(3) 교양강좌 : 우리나라와 중국 도자의 흐름

· 일시 : 2002년 5월 10일(금)

· 장소 : 연세대학교박물관 시청각실

- 고려 · 조선시대 질그릇 : 윤용이(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

- 고려시대 도자 : 장남원(이화여대 박물관 연구원)

- 조선시대 도자기 : 김영원(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중국도자2000년 : 방병선(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4) 고려 · 조선시대 질그릇 제작 실연 - 박병택(경주 사로국유)

· 일시 : 2002년 5월 9일 ~ 11일

· 장소 : 연세대학교 박물관 3층 - 고려 · 조선시대 질그릇과 사기그릇실

13) 전곡리 구석기유적 기념 국제학술세미나

(1) 일시 : 2002년 5월 3일(금)

(2) 장소 : 연천군 문화체육센터 3층 대강당

(3) 주최 : 경기도 연천군

(4) 주관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 한국구석기학회

(5) 일정

- 개회사 : 배기동(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장)
- 환영사 : 이중익(연천군수)
- 축사 : 이용조(한국구석기학회장)
- 오전 주제발표 : 사회 - 안신원(한양대학교 교수)
 - 한국 구석기연구의 현황과 과제 : 정영화(영남대학교 교수)
 - Les premiers peuplements Paleolithiques en Afrique et hors d'Afrique.
 - : Henry de Lumley(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 교수)
 - The Earliest Archaeological Assemblages in Africa : Implications for Asian Archaeology
 - : J. W. Harris(미국 Rutgers 대학교 교수)
- 오후 주제발표 : 사회 - 최무장(건국대학교 교수)
 - 在中國出土の手斧 The handaxes unearthed in China
 - : 李超榮 리 차오롱(중국과학원 고척추동물 · 고인류연구소)
 - 전곡리 구석기유적 조사성과와 문제점 : 배기동(한양대학교 교수)
 - 日本列島最古の舊石器文化:
 - : 松藤和人 마쓰후지 가쓰토(일본 同志社대학교 교수)
 - What's the real age of the Chongokni Paleolithic site? : a new approach by FT, K-Ar dating & tephra analysis. : 檀原 徹 단하라 토루(일본 교토 Fission Track co. LTD)
 - 전곡리 E55S20-IV Pit 퇴적물 분석결과
 - : 김주용(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4기지질팀장)
- 구석기유적 조사 약보
 - 진천 장관리유적 발굴조사 개보 : 이용조(충북대학교 교수)
 - 대전 용호동 구석기유적 : 한창균(한남대학교 교수)

- 長山里-臨津江 流域의 플라이스토世 前期~中期初 舊石器遺蹟 豫報 : 이선복(서울대학교 교수)
- 나주 당가유적의 발굴조사 개보 : 이현중(목포대학교 교수)
- 순천 월평 후기구석기유적 : 이기길(조선대학교 교수)
- 주제 종합토론 : 사회 - 박영철(부산대학교 교수)

14) 고구려연구회 정기 학술발표회

- (1) 일시 : 2002년 5월 4일(토)
- (2) 장소 : 고구려연구회 회의실
- (3) 발표내용
 - 고구려 철기 유물의 미세조직 연구 : 정광용(대전보건대)
토론 : 노태천(충남대학교) · 유재은(국립문화재연구소)
 - 고구려의 고조선 계승성 연구 : 윤명철(동국대학교)
토론 : 복기대(단국대학교) · 김성환(경기도박물관)
 - 2002년 고구려 산성 조사보고 (슬라이드 상영) : 서길수(서경대학교)

15) 제 45회 전국역사학대회

- (1) 주제 : 문명간의 상호 인식
- (2) 일시 : 2002년 5월 31일(금) ~ 6월 1일(토)
- (3) 장소 : 건국대학교
- (4) 주최 : 전국역사학대회조직위원회
- (5) 주관 : 역사학회
 - 〈고고학부〉
 - 오이도 안말지역 발굴조사 개요 - 임상택 · 우정연 · 이준정(서울대학교 박물관)
 - 아산 명암리유적의 발굴조사 성과 - 나건주(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 춘천 거두리 청동기 시대 취락유적 조사개보 - 최종모(강원문화재연구소)
 - 이천 설봉산성 발굴조사의 성과와 의의 - 박경식(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 나주 당가가마유적 - 박철원(동신대학교 박물관)

- 대구 옥수동 · 경산 옥산동 토기가마유적 조사성과-김창억 · 김재철(영남문화재연구원)
- 안산 대부도 육골 고분군 - 배기동 · 이화중(한양대학교 박물관)
- 양주 회암사지 발굴조사 개보 - 송만영(경기도박물관)

16) 제5회 전국박물관인대회 및 박물관 학술대회

- (1) 일시 : 2002년 5월 20일(월)
- (2)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강당
- (3) 행사
 - 박물관인대회 : 자랑스런 박물관인상 시상, 박물관 · 미술관인 결의문 낭독 등
 - 박물관학 학술대회 : 북한의 박물관과 문화유산 - 유흥준(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

17) 암사동 국제학술회의

- (1) 주제 : 5000년전의 대동강문화와 암사동유적
- (2) 일시 : 2002년 6월 24일(월)
- (3) 장소 : 암사동 선사주거지 원시생활관
- (4) 주관 : 강동구청 · 한국선사고고학회
 - 개 회 : 사회 - 박명호(암사동 선사주거지)
 - 개 회 사 : 최무장(한국선사고고학회장)
 - 환 영 사 : 김충환(강동구청장)
 - 축 사 : 지건길(국립중앙박물관장)
 - 기조강연 : 대동강과 한강유역의 선사문화 - 임효재(서울대학교)
 - 주제발표 : 사회 - 이상균(전주대학교)
 - 중국과 대동강 선사문화의 관계 : 金英熙(중국사회과학원)
 - 동북아시아에서의 한반도 靛形磨臼 : 西谷正(九州大), 통역: 최종혁(경남문화재연구원)
 - 스웨덴 야외유적박물관과 암사동 유적공원의 활용
 - F.S.K Magnass(스웨덴 동아시아 박물관), 통역: 최정필(세종대학교)
 - 종합토론 : 안승모(원광대학교) · 임상택(서울대학교박물관) · 송은숙(전남대학교)
 - 최복규(강원대학교) · 이준정(서울대학교 박물관) · 하인수(부산시립박물관)

18) 한국암각화학회 2002년 춘계학술대회

- (1) 주제 : 암각화의 조사연구방법과 보존방안
 (2) 일시 : 2002년 6월 29일(토)
 (3) 장소 : 국민대학교 박물관(멀티미디어정보실)
 (4) 주최 : 한국암각화학회 · 국민대학교박물관
 (5) 제1부 암각화의 조사연구방법 : 사회 - 박희현(서울시립대)
 · 유럽에서의 암각화 조사방법 - 박영희(부산기독신학교), 토론 : 홍미영(기전문화재연구원)
 · 암각화 조사기록 방법의 새로운 모색 - 임세권(안동대), 토론 : 이상길(경남대)
 · 암각화 연구를 위한 고고학적 접근방법 - 박정근(중앙대), 토론 : 하문식(세종대)
 (6) 제2부 암각화 자료보고 : 사회 - 송화섭(원광대)
 · 남한지역의 바위구멍 조사연구 - 박창범(서울대) · 양진홍(경북대) · 김일권(정신문화연구원)
 · 이진민(서울대) · 임효재(서울대) · 손부영(서울대)
 · 임충환(서울대) · 이인성(서울대) *공동발표*
 (7) 제3부 암각화의 보존문제 : 사회 - 송화섭(원광대)
 · 문화재 인식과 암각화의 보존 - 장명수(국민대), 토론 : 장호수(문화재청)
 · 국내 암각화의 훼손양상과 지질학적 보존대책 - 이상현(강원대), 토론 : 이하우(선린대)
 (8) 제4부 종합토론 : 사회 - 이청규(영남대)
 · 최정필(세종대) · 노혁진(한림대) · 서영대(인하대) · 박종기(국민대)

19) 여주 고달사지 부도(국보 제4호) 훼손 긴급조사 실시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여주 고달사지(高達寺址 : 사적 382호, 여주군 북대면 상교리 411-1) 내에 있는 부도(浮屠 : 국보 4호)의 상륜부(相輪部) 일부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7월 20일 직원 3명을 긴급 현지에 파견하여 현황 파악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훼손된 부도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바닥의 형태가 8각을 이루고 있는 이른바 '팔각원당형(八角圓堂型)' 부도 가운데 수작(秀作)으로 꼽히는 것이다. 다만, 상륜부의 일부인 보륜(寶輪)이 없을 뿐, 다른 각 부분이 잘 남아있어 부도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상륜부의 일부인 보주(寶珠), 보개(寶蓋)가 땅에 떨어져 몇 조각으로 훼손되었으며, 이로 인해 옥개석에 있던 귀퉁 한 개도 훼손되었다. 훼손된 사실은 암자 스님에 의해 7월 20일 발견

되어 관할 여주군청에 신고하였으며, 군 관계자가 1차 현장 조사 후 문화재청에 보고하였다. 훼손된 탑 부재 조각들은 수습되어 여주군에 보관되었다.

문화재청에서는 여주군 관계자 등과 함께 긴급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과 조치를 취하였다. 이번 훼손 사건은 내부에 유물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 도굴꾼들이 옥개석을 나무로 받쳐서 들어 올리려고 하다가 상륜부의 보주와 보개가 떨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도굴은 미수에 그치고 부도의 일부 부재만 손상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부도는 1962년 국보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도굴을 당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보륜이 없어진 채 현 상태로 복원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정황을 모르는 도굴꾼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청에서는 현지에서 곧 바로 관할기관 및 경찰서 등에 훼손자 색출을 위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주변에 대한 순찰 등 경계를 강화토록 하였다.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직원이 전문가의 자문 하에 보수 및 복원 방안을 마련, 긴급 복구 처리토록 조치하였다.

20) 역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역사학 국제회의

- (1) 주제 : 역사 속의 한국과 세계
- (2) 일시 : 2002년 8월 15일 ~ 18일
- (3)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관 컨벤션 센타 및 연구공원 본관

21)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고려·조선의 대외교류”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은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대외교섭의 역사를 살펴보는 “고려, 조선의 대외교류”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 (1) 전시기간 : 2002년 8월27일(화) ~ 10월 13일(일)
- (2) 전시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22) 제3회 한국구석기학회 학술대회

- (1) 주제 : 한강유역 구석기문화의 최근 연구성과
- (2) 일시 : 2002년 8월 23일

(3) 장소 : 한양대학교 박물관 세미나실(서울캠퍼스)

(4) 주최 : 한양대학교 박물관

(5) 주관 : 한국구석기학회

- 사회(진행) : 이형우(전북대)
- 개회사 : 이용조(한국구석기학회 회장)
- 환영사 : 배기동(한양대박물관장)
- 주제발표
 - 한강유역 구석기유적의 연구성과 : 이용조(충북대)
 - 한강유역의 구석기 유적과 제4기 지질 : 김주용 · 양동윤(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전곡리 구석기유적의 최근 연구 성과 : 배기동(한양대)
 - 경기도 광주 삼리유적의 구석기 문화
: 김기태(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 홍미영(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 한창균(한남대)
- 유적발굴사례
 - 홍천 하화계리Ⅲ 작은 솔밭 구 · 중석기 유적 조사연구 : 최복규(강원대)
 - 진주~집현 도로건설구간 월평유적 'A' 구역 출토유물의 검토 : 박영철(부산대) · 서영남(부산대박물관)
 - 익산 신막유적 : 최미노(호남문화재연구원)
- 토론
 - 강지영(영남대박물관), 박희현(서울시립대), 손기연(연세대 원주박물관), 우종윤(충북대), 윤용현(국립중앙과학관), 이선복(서울대), 이재경(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정영화(영남대), 최삼용(연세대박물관), 최무장(건국대) (가나다순)

23) 한 · 불 보존과학의 만남

경기도박물관에서 2002년 10월 25일 프랑스의 저명한 보존과학전문가를 초청하여 "한불 보존과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제학술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학술강연회는 문화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후원하고 경기도박물관과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주한프랑스대사관의 공동주최로 열려 프랑스 보존과학의 현황과 과제를 소개함으로써 선진 보존과학기술의 교류와 더불어 향후 한국 보존과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1) 일 시 : 2002년 10월 25일

(2) 강연회명 : 한불 보존과학의 만남

(3) 장 소 : 경기도박물관 강당

(4) 내 용

- 종이 보존에 대한 기술과 예방대책 - Bertrand Lavedrine (고문서 보존과학 센터관장)
- 부여 가탑리 유적 토기, 기와의 산지연구 : 정광용(대전보건대학 박물관과 교수)
- 유기적 유물(나무, 가죽)의 보존 기술 : Jacques Duchene (ARC-Nucleart 관장)
- 궁남지 출토 목재의 수종과 분해양태 : 김익주(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학예연구사)
- 서양화의 색채와 기법 - Michel Menu (프랑스 문화재 연구·보존 센터 연구실장)
- X-선을 이용한 김중현작 <농약>의 상태조사
: 김주삼(호암미술관 문화재보존연구소 수석연구원)
- 납동위분석을 통한 유물 분석 : 김규호(호암미술관 문화재보존연구소 연구원)

24) 서울역사박물관 풍납토성 발굴유물특별전 개최

(1) 전시기간 : 2002년 10월 29일(화) ~ 12월 8일(일)

(2) 전시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1층)

(3) 시민강좌 : 풍납토성의 발굴성과와 의의

· 일 시 : 2002년 12월 6일(금)

· 장 소 :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 내 용

경당지구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풍납토성의 풍경 - 권오영(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풍납토성 발굴조사 성과와 의의 - 신희권(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25) 강연 - 關東Loam층과 구석기문화

‘관동Loam층과 구석기문화’에 대한 小田靜夫(오다 시즈오)선생의 강연이 열렸다.

(1) 일 시 : 2002년 11월 25일(월)

(2) 장 소 : 연세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

26) 서울경기고고학 학술대회 개최

- (1) 주 제 : 서울경기지역 고고학 발굴조사와 연구의 현황과 과제
- (2) 주 최 : 서울경기고고학회 · 기전문화재연구원
- (3) 주 관 : 서울경기고고학회
- (4) 후 원 : 중앙문화재연구원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 (5) 일 시 : 2002년 12월 6일(금)
- (6)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원 강당
- (7) 학술대회 일정
 - 개회식 : 사회 - 김권구(국립중앙박물관)
 - 개회사 : 배기동(서울경기고고학회 회장)
 - 환영사 : 지건길(국립중앙박물관 관장)
 - 축 사 : 정징원(한국고고학회 회장), 송태호(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선사고고학 - 사회 : 김권구(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 경기지역 구석기연구의 현황과 과제 - 김기태(기전문화재연구원)
 - 서울 · 경기지역 신석기연구의 현황과 전망 - 신숙정(연세대학교)
 - 서울 · 경기지역의 청동기시대 연구현황 - 하문식(세종대학교)
 - 역사고고학 - 사회 : 김성태(기전문화재연구원)
 - 서울 · 경기지역의 신라 분묘와 출토유물 - 윤형원(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 경기지역의 삼국시대 연구현황과 과제 - 심광주(토지박물관)
 - 서울 · 경기지역 건물지 조사현황과 과제 - 류형균(중앙문화재연구원)
 - 유적발굴조사 사례발표 - 사회 : 김성태(기전문화재연구원)
 - 하남 교산동 건물지 발굴조사 : 고재용(기전문화재연구원)
 - 여주 중암리 고려 백자요지 : 백종오(경기도박물관) · 구분만(여주군청)
 - 평택 칠원동 가마유적 - 황보경(세종대학교)
 - 광주 분원리 조선왕실백자 도요지 발굴조사 개보 - 임영옥(이화여자대학교)
 - 종합토론 - 사회 : 이영훈(국립중앙박물관)
 - 토론자 : 최삼용(연세대학교박물관) · 임상택(서울대학교박물관) · 송만영(경기도박물관)
 - 조상기(중앙문화재연구원) · 서영일(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 이상준(국립문화재연구소)

27) 사진화보전시 “인류 진화 과정 2,000만년의 역사”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조상이 남쪽 원숭사람(Australopithecus sp.)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최근 케냐 루케이노 지역에서 발견된 오로렝(Orrorin tugenensis) 인류화석에 의해 인류가 약 600만년 전에 이미 서서 걸을 수 있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인류화석은 100~200만년 전의 매우 진화된 형태의 화석인류들과 남쪽 원숭사람과의 불분명하였던 연결고리를 풀어 주었다. 다시 말해 남쪽 원숭사람(Australopithecus sp.)은 사람과(科) 진화과정에서 결가지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사진화보전시 자료는 2000년 10월 발견된 인류화석 오로렝 투게넨시스(Orrorin tugenensis)의 중요성과 인류화 과정의 계보문제를 홍보시키고자 제작되었다.

- (1) 제작 :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 · 프랑스 외무성
- (2) 배포 : 주한 프랑스 문화원
- (3) 기간 : 2002년 12월 5일 ~ 12월 31일
- (4) 장소 : 연세대학교 박물관 1층 다용도전시실

28) 故 韓永熙 국립중앙박물관 考古部長 논문집 출판기념회

故 韓永熙部長論文集發刊準備모임에서는 故 韓永熙 국립중앙박물관 考古部長 의 3주기를 맞아 한영희 부장이 남긴 글을 모은 "韓國新石器文化研究"를 발간하였다. 故人을 기리며 가진 출판기념회에 많은 사람이 모여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 (1) 일시 : 2002년 12월 9일(월)
- (2)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2층 로비

29) 서울경기고고학회 월례발표회 6회 개최

서울경기고고학회에서는 서울 경기지역에서 실시되는 각종 발굴조사 현황과 중요 사안에 대해 정 보고료를 위하여 월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2년도에 개최된 월례발표회는 아래와 같다.

- (1) 제1회 서울경기고고학회 월례발표회
 - 일시 : 2002년 6월 15일 토요일 오후 4시
 - 장소 : 국립 문화재연구소 회의실

- 주제
 - ① 풍납토성 발굴의 최신현황과 문제점 : 신희권(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 ② 유라시아 대륙 초기 인류의 연대 : 배기동(한양대학교)
 - ③ Some Archaeological Aspects of Southeast Asia
: Prof. Lam Thi My Dzung (국립 베트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 (2) 제2회 서울경기고고학회 월례발표회
 - 일시 : 2002년 7월 19일 오후 4시
 - 장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회의실(3층)
 - 주제
 - ① 中國 古代의 陶器窯址 : 오세연(국립중앙박물관)
 - ② 용인 죽전지구 발굴조사 약보 : 유병린(기전문화재연구원)
- (3) 제3회 서울경기고고학회 월례발표회
 - 일시 : 2002년 8월 30일 금요일 오후 4시
 - 장소 : 한양대학교(서울) 박물관 세미나실
 - 주제
 - ① 남양주시 호평동 구석기유적 발굴조사 현황 : 홍미영(기전문화재연구원)
 - ② 몽골 발굴조사 약보 : 황은순(국립중앙박물관)
- (4) 제4회 서울경기고고학회 월례발표회
 - 일시 : 2002년 9월 30일 월요일 오후 4시
 - 장소 : 한양대학교(서울) 박물관 세미나실
 - 주제
 - ① 조립식동검 칼집 연구 : 구문경(강원문화재연구소)
 - ② 남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 현황 : 윤우준(토지박물관)
- (5) 제5회 서울경기고고학회 월례발표회 안내
 - 일시 : 2002년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4시
 - 장소 : 서울대학교 14동(인문관) 301호 원탁회의실
 - 주제
 - ① 유적지에서 지구물리탐사 : 오현덕(국립문화재연구소)
 - ② 인천 용유도 신석기유적 발굴조사 보고 : 홍은경(서울대학교 박물관)
 - ③ 수원 울전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 : 서길덕(기전문화재연구원)

(6) 제6회 서울경기고고학회 월례발표회 안내

· 일시 : 2002년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4시

· 장소 : 세종대학교 군자관 6층(집현전)

· 주제

① 북녘의 문화유적 답사 : 하문식(세종대학교)

② 멕시코 고고학의 최근 연구 : 정혜주(한양대학교 강사)

③ 연천 학곡리 고분 발굴조사 약보 : 이미란(기전문화재연구원)

IV. 연구노트

1. 서울·京畿地域의 최근 考古學的 成果에 의해 부각된 古代史의 爭點 / 권오영
2. 百濟積石塚의 歷史考古學的 性格과 그 意味 / 김성태
3. 『三國遺事』의 王曆第一과 紀異篇 / 하정용
4. 驪州地域 陶磁遺蹟의 現況과 性格 / 백종오·조주연
5. 1910년대 초반 日帝의 朝鮮 文化財 政策 / 박익수

서울 · 京畿地域의 최근 考古學的 成果에 의해 부각된 古代史의 爭點

권오영 *

- I. 머리말
- II. 원시사회의 구조에 대한 인식
- III. 삼국 및 통일신라 유적에 대한 조사와 주요 쟁점
 - 1. 고구려
 - 2. 백제
 - 3. 신라
- IV. 최근 몇가지 爭點에 대한 소감

I. 머리말

고고학적 조사와 연구에 의해 고대사 연구의 방향이 새로이 설정되거나 수년간 지속되어 오던 통설적 견해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들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1980년대에 가히 폭발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활기를 띠었던 伽倻古墳에 대한 조사가 가야사와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에 끼친 영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고고학적 조사가 부진한 편이었던 서울·경기지역은 급증하는 신도시 개발과 이에 수반된 救濟發掘의 증가,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의 설립과 지역 고고학회의 창설 등으로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롭게 확인되는 유적의 폭증과 발굴조사 건수의 증가, 연구인원과 논문 및 보고서의 증가는 괄목할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¹⁾ 이 글은 최근 1~2년 사이에 이루어진 고고학적 연구성과로 인해 새롭게 수정되거나 부각되는 고대사 관련 주제들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구체적인 서술은 자제하고 쟁점 위주로 정리하고자 한다.

*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1) 심광주, 2002, 「서울·경기지역의 삼국시대 연구현황과 과제」 『고고학』 1, 서울경기고고학회.

II. 원시사회의 구조에 대한 인식

서울·경기지역은 원시 취락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일찍부터 이루어진 지역이었으나, 개별 주거지에 대한 관심이 취락 전체로 확대되는 1990년대 이후의 전국적 추세에 부합하지 못하였다. 하남 미사리유적을 제외하고는 취락의 전모는 아니더라도 개별 주거지의 차원을 뛰어 넘는 조사나 연구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 결과 취락의 경관, 취락과 취락의 관계, 墓地·생산시설 등과의 연관 등 주요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룬 연구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런 점에서 2002년에는 의미 있는 발굴조사가 2건 이루어졌다.

우선 環濠聚落의 조사이다. 지금까지 서울·경기지역에서 확인된 환호취락은 서울 풍납동의 중도식토기 관련 三重環濠가 유일한 예였지만 水原 栗田洞에서 粘土帶土器가 출토되는 환호가 발견된 것이다.²⁾ 비록 취락의 많은 부분이 이미 파괴되었고 조사범위도 넓지 못하여 전모를 밝히지는 못하였으나 경기지역에서 점토대토기와 관련된 환호의 발견은 방어취락의 발전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시굴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華城 東鶴山유적³⁾에 대한 발굴조사가 본격화되면 점토대토기 관련 취락의 방어적 측면과 그 사회적 動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도로확장 공사과정에서 발견되어 긴급 발굴조사된 華城 泉川里유적⁴⁾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장축의 길이가 30m에 달하는 세장방형 주거지의 발견이다. 세장방형 주거지는 경기지역에서 발견례가 점증하여 최근에는 安養 冠陽洞과⁵⁾ 龍仁 竹田地區에서⁶⁾ 조사된 예가 있는데 천천리의 예는 규모면에서 남한 최대급이다. 세장한 평면과 複數의 爐址를 특징으로 하는 이러한 유형의 주거지는 일종의 複室住居로서 여러 世代가 주거를 함께 하는 世代複合體가 당시 사회의 기본단위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배경에는 생업경제, 특히 농업생산력의 한계가 개재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松菊里形 주거지의 발견이다. 이 유적 역시 조사범위가 협소하여 취락의 변천과정과 전모를 밝힐 수는 없었으나 세장방형 주거지를 파괴하며 축조된 평면(타)원형의 송국리형 주거지의 존재는

2)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2002. 9, 「수원 울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 발굴조사 2차 지도위원회의 자료」.

3) 한신대학교 박물관, 2000, 「華城地方産業團地內 東鶴山遺蹟試掘調査 指導委員會議 資料集」.

4) 한신대학교 박물관, 2002. 11, 「華城 泉川里遺蹟 현장설명회 자료」.

5)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2002. 9, 「안양시 관양동 선사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자료」.

6) 畿甸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公社, 2001. 12, 「龍仁 竹田 宅地開發豫定地區內遺蹟 追加發掘調査 現場 指導委員會議 資料」.

서울·경기지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송국리형 주거지란 점에서도 주목되며 중부지방 무문토기문화의 연대와 계통, 稻作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Ⅲ. 삼국 및 통일신라 유적에 대한 조사와 주요 쟁점

서울·경기지역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삼국의 유적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이런 조건은 삼국의 문화를 상호비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지만 때로는 유적, 유물의 귀속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다. 게다가 유적의 사용기간이 길고 사용주체가 복수인 경우 초축세력의 정체를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 고구려

임진강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북부지역은 4세기 백제의 북진과 고구려의 남정, 5세기 후반 한성 함락과 고구려세력의 남하, 6세기 중반 신라의 진출, 7세기 후반 통일전쟁의 진행과 唐軍의 축출 등 다양한 역사적 사실에 걸맞게 다종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임진강유역에서 서울에 이르는 주요 교통로에 자리잡은 성곽들은 삼국의 각축양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지표조사 과정에서 많은 유적이 발견되었으나⁷⁾ 정식 발굴조사를 거친 유적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漣川 瓠蘆古壘⁸⁾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구려의 방어체계, 성곽축조기술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천 점에 달하는 고구려 기와는 삼국시대 기와연구에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峨嵯山 제4堡壘⁹⁾에 이어 시루봉보루에 대한 조사결과가 공표됨으로써⁹⁾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의 시기와 지배방식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게다가 이 일대의 보루유적에서는 문자자료가 자주 나타나는데 시루봉보루 출토 甕의 胴體에 刻書된 “大夫井大夫井”銘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루봉의 對岸인 風納土城 경당지구 9호 유구(祭祀坑으로 추정됨)에서 출토된 直口短頸壺 2점은 형태상 동일하며 각기 肩部에 “大夫”와 “井”자가 각서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

7)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1995, 『京畿道 漣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연천군의 문화유적」.

8) 심광주·김주홍·정나리, 1999, 『漣川 瓠蘆古壘 精密地表調査報告書』.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2000,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9) 임효재·최종택·임상택·윤상덕·양시은·장은정, 2002, 『아차산 시루봉 보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한 해석이 몇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¹⁰⁾ 하지만 공교롭게도 한강을 마주한 고구려와 백제의 유적에서 동일한 내용의 문자자료가 확인된 만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 잠정적으로는 “大夫”라는 것이 관직이기보다는 모종의 祭儀, 혹은 정신세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자 한다.

고구려 고분에 대한 조사는 남한에서는 좀처럼 얻기 어려운 기회였지만 漣川 薪畚里에서 2기의 고구려 고분이 조사되었다.¹¹⁾ 파괴가 심하여 정확한 구조와 부장양상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임진강 일대의 고구려 關防유적과 연결하여 고찰하면 경기 북부지방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방식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비록 원형을 알 수는 없었지만 고분 부장품으로서 출토된 고구려토기는 호로그루 등 임진강유역과 아차산일대의 보루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 목적은 토기의 제작과 보급에 이르는 유통망의 문제나 가마(窯)의 운영, 工人의 정제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이다. 과연 백제로부터 탈취한 지역에 축조된 고구려의 각종 시설에서 사용된 물품(특히 토기류와 기와)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보급되었는가 하는 점을 규명하는 작업은 신 점령지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방식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2. 백제

漣川 鶴谷里에서는 石槨形의 복수 매장주체를 갖춘, 강돌로 된 無基壇式 積石墓가 조사되었다.¹²⁾ 비교적 산존상태가 양호하여 三串里와 三巨里(舊 仙谷里)¹³⁾ 적석묘 조사에서 미진하거나 해결되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한 해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강변의 층적 구릉의 자연퇴적면 위에 입힌 얇은 積石層, 복수의 매장주체 등은 1980년대 이후 북한강과 남한강유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無基壇式(혹은 葺石式) 적석묘와 상통하지만 개개 매장 주체의 축조순서가 밝혀졌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이다.

출토유물면에서는 낙랑계, 혹은 고구려계로 여겨지는 일부 토기류의 존재, 金箔 샌드위치 유리구슬의 존재가 이채롭다. 후자는 한반도 밖에서 제작되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까지 주로 백

10) 권오영, 2001, 「풍납토성 경당지구 발굴조사의 성과」, 「풍납토성의 발굴과 그 성과」, 한밭대학교 개교 74주년 기념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문동석, 2002, 「풍납토성 출토 “大夫”銘에 대하여」, 『百濟研究』36.

11)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1, 「연천 신탐리고분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12)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硏究院·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2. 10, 「연천 학곡제 개수공사지역내 학곡리 적석총 발굴조사」.

1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1. 8, 「연천 군남제 개수공사지역 문화재시굴조사 및 삼거리 고분 발굴조사 약보고」.

제 고분에서 출토되었다.¹⁴⁾ 시간적으로 가장 이른 단계의 것은 천안 청당동유적 출토품이다. 학곡리에 이 장신구가 유입된 배경과 시기가 규명된다면 경기 북부와 충청지역 마한 정치체의 존재양태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경기지역은 백제의 발상지인 만큼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고대유적에 대한 조사는 백제에 대한 조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현재도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華城 旗安리유적에서는 철기제작과 관련된 시설들과 함께 送風管이 출토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¹⁵⁾ 흥미로운 점은 송풍관의 제작방식이 점토피성형, 외면 縱方向의 繩文打捺, 내면 橫方向의 繩文打捺이란 점에서 낙랑 기와의 제작방식을 충실히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유적은 북으로는 생활유적인 古琴山遺蹟과¹⁶⁾ 연결하고 남으로는 墓地인 花山古墳群과¹⁷⁾ 연결하고 있어서 단일한 세력집단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주거와 생산, 매장이 세트를 이루는 보기 드문 복합유적으로서 앞으로 화성 지역 단위정치체의 존재양태, 한성 백제와의 관련성 등을 연구할 때 매우 주목되는 지역이다.

이밖에 龍仁 竹田地區·舊葛地區, 華城 發安地區 등에서 백제 유적이 조사되었다. 죽전지구에서는 주거지 내부의 부뚜막을 장식한 평면 ‘ㄷ’ 자형의 토제품이 출토되어 이목을 끌었다.¹⁸⁾ 국내에서는 서울 풍납토성 내부에서 이와 유사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¹⁹⁾ 光州 月田洞유적에서는 평면이 ‘U’ 자형인 점만 다를 뿐 유사한 형태의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²⁰⁾ 이러한 형태의 유물은 일본 畿內지역의 韓半島系 渡來人 관련 유적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다.²¹⁾ 풍납토성·죽전지구 출토레보다 월전동유적 출토품이 畿內 출토품과 유사함을 고려할 때 5세기 이후 일본으로 이주해 간 한반도출신 주민들의 出自문제와 관련하여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셈이다.

이밖에도 죽전지구에서는 木棺墓가 소수 조사되었으며²²⁾ 평면 원형, 단면 복주머니(혹은 플라스

-
- 14) 백제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출토된 예로서는 낙랑토성과 부산 북천동 80호분 출토품(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북천분관, 1996, 『부산의 역사와 북천동고분군』) 과 山淸 玉山里 79호 목곽묘 출토품(韓國道路公社·慶尙大學校博物館, 2002, 『山淸 玉山里遺蹟 -木槨墓-』)이 있다. 이 중 영남지방 출토품은 백제를 경유한 것으로 여겨진다.
- 15)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株)豊盛住宅, 2002. 12, 『華城 旗安里 豊盛아파트 新築工事敷地內 發掘調査 第1次 指導委員會議 資料』.
- 16) 任孝幸·金成南·李眞旼, 2002, 『華城 古琴山遺蹟』, 서울대학교 박물관.
- 17) 權五榮·權度希, 2002, 『華城 花山古墳群』, 한신대학교 박물관.
- 18) 韓國土地公社 土地博物館, 2002. 2, 『龍仁 竹田地區 試掘調査(2地點) 指導委員會議資料』.
- 19) 韓國土地公社 土地博物館, 2002. 2, 『龍仁 竹田地區 試掘調査(2地點) 指導委員會議資料』.
- 19)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風納土城 I』; 서울역사박물관, 2002, 『風納土城 -잃어버린 ‘王都’ 를 찾아서-』.
- 20) 全南大學校博物館·光州廣域市, 1996, 『光州 月田洞遺蹟』.
- 21) 大阪府教育委員會, 1991, 『讚良郡條里遺跡發掘調査概要·Ⅱ』, 寢屋川市教育委員會, 1993, 『長保寺遺蹟』, 濱田延充, 2001, 『用途不明板狀土製品について』 『韓式土器研究』VII, 大阪府教育委員會, 2002, 『讚良郡條里遺跡(屋北遺跡)發掘調査概要·Ⅳ』. 이상의 자료를 제공해준 田中清美(大阪市 文化財協會), 宮崎泰史(大阪府 教育委員會) 2인에게 감사드린다.
- 22) 畿甸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公社, 2001. 6, 『龍仁 竹田 宅地開發豫定地區內 竹田里 대덕굴 및 陶器가마 I 遺蹟 發掘調査 現場說明會資料』.

크)형의 貯藏庫가 다수 발견되었다.²³⁾ 이러한 저장고는 인근의 舊葛地區나²⁴⁾ 華城 堂下里유적에서도 자주 보이고 있다.

강변의 충적대지 위에 형성된 대규모 취락인 발안유적은²⁵⁾ 현재도 발굴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전모를 파악하기는 시기상조이지만 주거지의 구조나 토기의 내용면에서 원삼국에서 삼국, 마한에서 백제로 넘어가는 과정의 고고학적 물질문화의 양상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최근에 이루어진 백제고고학의 최대 성과는 성곽유적의 조사이다. 宏大的 규모로 인해 고분이나 취락에 비해 조사기간이 길고 몇 차례의 조사만으로는 성격을 규명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닌 성곽에 대한 조사가 연차적으로 전개되면서 새로운 자료와 정보가 많이 축적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에 대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발굴과 시굴조사를 들 수 있으며,²⁶⁾ 그 성과에 힘입어 특별전시가 개최되기도 하였다.²⁷⁾

경기지역에 대한 성곽조사는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와 기전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정력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단국대학교에 의한 利川 雪峰山城과²⁸⁾ 雪城山城,²⁹⁾ 安城 望夷山城,³⁰⁾ 抱川 半月山城³¹⁾ · 古毛里山城³²⁾ 坡州 七重城³³⁾ 등에 대한 조사는 한성기 백제고고학의 지평을 크게 열어 놓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3. 신라

驪州일대의 橫口式石槨墓와 橫穴式石室墳의 축조주체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백제토기와 신라토기의 변별이 용이하지 않았던 당시의 학문수준에서 기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 이제 더 이상의

- 23) 土地博物館·韓國土地公社, 2002, 5, 「龍仁 竹田地區 4區域 文化遺蹟 精密試掘調査 指導委員會議 資料」, 土地博物館·韓國土地公社, 2002, 7, 「龍仁 竹田地區 4區域 文化遺蹟 精密試掘調査 指導委員會議 資料」.
- 24) 金武重·丁海得·俞炳隣, 2000, 「器興 舊葛(3) 宅地開發豫定地區內 遺蹟 緊急試掘調査 報告書」, 畿甸文化財研究院 學術調査報告書 12冊.
畿甸文化財研究院·京畿地方公社, 2001, 6, 「器興 舊葛(3) 宅地開發豫定地區內 舊葛里遺蹟 發掘調査 現場說明會資料」.
- 25)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2001, 11, 「華城 發安宅地開發地區內 遺蹟 追加 및 精密試掘調査 指導委員會議 資料」.
- 26) 현재까지 이루어진 10여차에 걸친 시굴과 발굴조사성과 중 일부는 이미 공개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風納土城」I.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風納土城」II.
- 27) 서울역사박물관, 2002, 「風納土城 -잃어버린 '王都' 를 찾아서-」.
- 28)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이천시, 2001, 「이천 설봉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 29)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이천시, 2000, 「이천 설봉산성지표·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이천시, 2002, 「이천 설봉산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이천시, 2002, 9, 「이천 설봉산성 2차 발굴조사 지도위원 회의자료」.
- 30) 경기도 안성군·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6, 「망이산성 발굴조사 보고서(1)」.
- 31)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포천군, 2001, 「포천 반월산성 5차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포천군, 2002, 「포천 반월산성 6차 발굴조사 보고서」.
- 32)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포천군, 2001, 「포천 고모리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 33)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파주시, 2001, 「파주 칠중성 지표조사 보고서」.

논의는 불필요하다.³⁴⁾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신라의 서울·경기지역에 대한 지배방식을 입체적으로 설명해내는 일이다.

사실 이 시기는 금석문이나 문헌자료가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한국 고대사의 어떠한 시기보다도 유리한 형편이기 때문에 고고학적 발굴성과를 넓은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매우 유익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金銅冠이나 金銅帶가 부장된 坡州 城東里와 法興里, 驪州 梅龍里 고분의 피장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적, 유물의 편년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괄목할 만한 연구물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 동안 경기도 지역의 신라유적에 대해서는 삼국시대의 신라와 통일신라를 구분짓는 인식조차 미미한 형편이었고 최근에 들어서야 이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기에 이르렀다.³⁵⁾

이런 점에서 현재도 조사가 진행중인 龍仁 寶亭리고분군이 주목된다. 그동안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신라 고분에 대한 조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많은 경우 1~2기가 발견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보정리고분군은 규모면에서 여주 대룡리고분군에 필적하거나, 혹은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사되고 있는 지점의 남측에는 아직 본격적인 분포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대형 봉토를 지닌 횡혈식석실분 수십 기와 소형의 횡구식석곽묘 수십 기가 확인된 바 있다. 삼국시대 용인의 중심지역은 현재의 용인시내가 아니라 보정리와 죽전리를 중심으로 한 수지읍-구성면 일대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유적은 용인지역의 중심 고분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의 峨嵯山城, 驪州의 娑娑城과 河南 二聖山城, 이천의 설봉산성과 설성산성, 포천의 반월산성 등은 모두 신라에 의해 사용된 성곽으로서 6세기 중반 이후 서울-경기지역에 대한 신라의 지배방식을 이해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다.

IV. 최근 몇 가지 爭點에 대한 소감

서울·경기지역은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유적의 소속에 대한 논란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산성의 경우가 심각한데 최근 활발히 진행된 산성조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진 하남 이성산성은 초축세력이 백제인지의 여부와 고구려의 점유를

34) 畿甸文化財研究院·驪州郡, 2000, 『驪州 上里·梅龍里 古墳群 精密地表調査報告書』.

35) 윤형원, 2002, 「서울·경기지역의 신라 분묘와 출토유물」, 『고고학』 1, 서울경기고고학회.

증명할 고구려 유물의 존부 여부 등을 둘러싼 논쟁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 아차산성은 漢城이 함락될 때 蓋鹵王이 참살당한 백제사 최대의 비극의 현장으로서 당연히 백제에 의해 축조되었을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실제 발굴조사에서 명확한 백제유물이 확인되지 않음으로서³⁶⁾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에도 불구하고 백제토기로 인정할 자료가 출토되지 않고 있는 이성산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쟁이 불필요하다. 아차산성의 경우는 조사구역이 그다지 넓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유동적이며 앞으로의 조사가 기대된다.

문제는 다량의 백제토기가 출토되고 있는 산성들이다. 이전의 설성산성과 설봉산성, 안성의 망이산성, 포천의 반월산성 등은 내부에서 백제유물과 신라유물이 모두 출토됨으로써 이 산성을 축조한 주체에 대해 백제설과 신라설로 양립된 상태이다.

이 경우 백제의 방어체계의 특징과 성곽축조기술을 거시적 시각에서 웅진·사비기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백제 중앙세력의 지방진출과 지배구조의 완성, 그 표징으로서 웅장한 석성 축조 등의 과정을 한성기라는 제한된 시기 내에 모두 배치하려는 시도는 자칫 웅진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흘시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공주·부여·대전지역에서도 백제가 축조하였다고 확언할 수 있는 석성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³⁷⁾ 과연 한성기에 백제 중앙세력이 지방지배의 거점으로서, 혹은 방위체계의 구축을 위해 곳곳에 석축의 산성을 축조하였는지 회의적이다.

역사학계에서 그리고 있는 4세기 근초고왕대 백제의 웅장한 이미지는 고고학적 자료의 뒷받침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 점에서 결정적 한계를 안고 있다. 『日本書紀』神功紀에 대한 사료비판과 영산강 유역의 고고학적 조사 성과가 축적되면서 4세기 근초고왕대의 백제가 진정 전체 마한지역을 통합하였는지 회의가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근초고왕대의 마한통합을 전제로 하여 경기지역 백제 유적·유물의 연대를 결정하는 것은 자칫 순환논리에 빠질 수 있다. 즉 4세기 후반 근초고왕의 영역확장을 근거로 경기지역 출토 백제토기를 늦어도 4세기 후반이라고 편년하고, 다시 이 연대관을 기초로 근초고왕대의 대팽창을 입증하는 논리적 오류의 위험이 있는 것이다.

토기의 경우, 신라의 생활용 토기를 백제토기로 오인하던 초보적 수준은 이미 극복되었으나 기와에 대해서는 아직도 취약하다.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 등에서 출토된 다량의 백제기와가 漢城瓦의 표준이 되어야지 두께가 얇고 연질소성된 기와라고 백제 기와는 아니다.

현재까지의 자료를 볼 때 신라유물이 출토되지 않고 순수하게 백제유물만 출토되는 성곽은 예외

36) 임효재·최종택·윤상덕·장은정, 2000, 『阿且山城 -시굴조사보고서-』.

37) 이 점에서 백제설과 신라설로 양립되어 있는 大田 鶴足山城의 조축세력에 대한 논쟁은 강건너 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 충청지역 성곽조사 현황에 대한 서울-경기지역 연구자들의 관심은 미미한 것 같다.

없이 토성이다. 抱川 古毛里山城, 坡州 六溪土城, 서울의 夢村土城과 風納土城, 儀旺 慕洛山城, 華城 吉城里土城, 利川 孝養山城 등이 그 예이다. 이 중에서 본격적인 판축토성인 풍납토성은 예외적인 존재이며,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며 削土하거나 盛土하는 방식의 土城築造術이 한성기 백제의 전형이었다고 판단된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으나 하남의 이성산성을 백제의 漢山城에 비정하거나 河南慰禮城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1980년대에는 가능하였으나 10회에 걸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는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 되어 버렸다. 주변의 校山洞 건물지는 한성 백제와의 관련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발굴조사가 주도되었으나 출토유물과 층위상에서 9세기 이전으로 소급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³⁸⁾

이렇듯 하남시 일대의 고대유적이 백제와 무관하고 대부분 신라 이후에 축조되었음이 밝혀져가는 상황에서 올해 초 하나의 해프닝이 발생하였다. 하남시 일대를 백제 도성으로 물고 가려는 일부 아마추어 사학자들과 언론이 중심이 되어 춘궁동 고골에서 봉토 길이 70m, 폭 50m에 이르는 고분이 확인되었으며 내부 2기의 석실에서 금동관과 금제 허리띠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백제 초기 왕릉임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고분이라면 규모나 매장주체의 구조, 부장품 등에서 절대로 백제 초기 왕릉은 될 수 없다. 백제지역에서 황혈식석실분의 도입은 4세기 이전으로 올라갈 수 없으며 백제 왕릉의 봉토길이가 70m나 되는 예는 없다. 게다가 금동관과 금제 허리띠가 실제로 출토된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4세기를 소급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 摘記해 두고자 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진 향토사학자들의 활약은 강단 학계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 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또 권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헌에 대한 자유분방한 해석의 수준을 넘어선 고고학적 유적, 유물의 연대와 성격에 대한 규정 행위는 제한되어야 한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의 목숨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듯이 정규 고고학적 교육을 받지 못한 아마추어들에 의한 유적, 유물의 조사는 문화재의 생명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몇 년 전 일본 고고학계와 역사학계를 초토화시킨 구석기유적 조작사건은 한 아마추어 고고학자의 도를 넘어선 명예욕과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학계, 언론,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문화재 담당 부서의 대응도 현명치 못하다. 일부 여론을 등에 업은 주장에 대

38) 畿甸文化財研究院·河南省, 2000, 『河南 校山洞 建物址 發掘調査 中間 報告書(‘99)』.

해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겠지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대대적인 정밀조사를 준비중이라는 모 일간지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일부 아마추어 사학자의 비논리적인 주장과 무책임한 언론의 장단에 춤추는 국가기관의 민망한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된다면 문화재조사를 담당하는 국립기관들은 본연의 업무를 중지한 채 향토(아마추어)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를 판명하기 위한 조사에 매몰될 것이다. 나아가 조상의 분묘나 관련 유적을 찾고 顯揚하기 위한 門中 차원의 조사 주문도 폭주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가져올 해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학계의 연구수준이 이러한 결과를 잉태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서울·경기지역의 고고학과 고대사 연구자들도 책임추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부 향토사학자들과 지방자치단체, 언론사의 연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그동안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장한 혐의조차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자기반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百濟積石塚의 歷史考古學的 性格과 그 意味

김 성 태 *

- I . 머리말
- II. 백제적석총의 성격
 - 1. 유구
 - 2. 유물
 - 3. 정리
- III. 백제초기사의 제문제와 백제적석총
 - 1. 백제 건국세력의 출자와 남하루트 및 그 시기
 - 2. 하북위례성
 - 3. 초기백제의 영역
 - 4. 백제의 지방통치
 - 5. 백제국과 마한
- IV. 맺음말

I. 머리말

초기백제사에 관한 논쟁은 결국 『삼국사기』 초기 기사에 대한 취신 문제와 직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래에 와서 이에 대한 수정론과 긍정론이 제기되면서, 백제초기 기사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런 대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정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백제의 건국자체를 3세기 후반으로 설정하는 학자들이 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들은 그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는 마한의 역사로 간주하거나, 원삼국기로 보고, 백제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들 부정론자들의 논지전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삼국사기』초기 기사를 전면적으로 불신함에 따라, 새로운 고고자료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실이다. 둘째로는 고고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부족으로 자기논리에 적합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취급하거나 왜곡 해석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는 문헌사학자들이 고고자료를 취급하면서 범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문헌사학계의 다양한 견해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가 없이, 특정 학맥의 학설에 일방적으로 의탁하여 고고자료를 도식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이다. 이는 고고학자들이 발굴자료를 정치체와 연결시켜 해석하거나 혹은 역사사실에 근거하여 유물이나 유적의 편년을 설정할 때에 자주 범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넷째로, 학술자료로서 토기에 대하여 지나친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하는 문제이다. 토기는 일상용기일 뿐이며, 더욱이 일상용기 중에서도 최고 지배층의 전용물은 아니다. 따라서 토기양식의 발전과 그 분포범위를 정치체의 발달과정 및 영역의 문제와 직결시키는 접근방식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삼국사기』 초기 기사를 취신하는 입장에 서서 전개된다. 그리고 앞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한 줄이기 위하여, 우선, 역사고고학적 입장에서 고고자료에 대하여 개략적인 정리를 전제로 백제 초기사의 제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하고자 한다. 또한, 정치체의 발전과 그 영역의 문제는 토기보다는 묘제에 근거할 때 더 적합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묘제를 논지전개의 주된 근거로 삼았으며, 토기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한편, 접근방식은 특정 유물에 대한 분석적이고 통계적인 접근보다는 총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래서 초기백제사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는 물론, 당시 고구려·백제·신라·말갈·마한 등과의 대외관계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그것들을 고고자료와 연결시켜 보거나 고고자료를 통해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한다.

II. 백제적석총의 성격

이 장에서는 남한지역에서 확인되는 백제적석총¹⁾의 기본적인 성격을 정리한다. 서술은 개별발굴 조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는 기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최근에 새롭게 확보된 발굴 및 연구자료를 소개하는 수준이다.

1) 백제적석총은 한성백제시대 한강·임진강수계에 축조된 고구려계적석총을 말한다. 이 백제적석총에 대하여 학자들은 고구려계적석총 혹은 증석식적석묘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한강·임진강유역의 적석총이 고구려적석총에 계통을 두었지만 지방양식으로서의 특징적인 속성을 지녔다는 사실과, 그 분포범위가 한성백제의 강역 내에 한정되고 있는 사실을 들어 백제적석총으로 명명코자 한다. 그리고 葦石이란 용어는 백제적석총의 한 속성에 불과한 까닭에, 초기백제의 적석총 전체를 통칭할 수 있는 용어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고구려계 적석총이란 용어 자체도 백제적석총의 계통에 대한 한정된 개념만을 포함하므로 채용하기 곤란하다.

1. 유구

1) 분포

백제 적석총은 크게 임진강 유역권, 북한강 유역권, 남한강 유역권, 한강 하류권으로 대별된다. 이외에도 공주 송산리와 청양 벽천리에서도 적석총이 보고되었으나 주요 분포권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진강 유역권에는 연천 삼곶리 1기, 연천 학곡리 1기, 연천 우정리 2기, 연천 선곡리 1기 등이 기존에 알려져 있었으나,²⁾ 최근에 연천 횡산리 1기, 연천 동이리 1기 등이 새롭게 보고되었으며,³⁾ 특히, 북한의 개성시 장풍군 장학리에서 1기가 보고되었다.⁴⁾ 이 중에서 연천 삼곶리, 연천 학곡리, 개풍 장학리 적석총은 정식발굴조사를 거쳐 그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북한강 유역권에는 화천 간척리 1기, 춘천 중도 2기, 춘천 중도 북쪽 고산 1기, 춘성 산천리 1기, 춘천 신매리 1기, 양평 문호리 1기, 양평 양수리 1기, 남양주 금남리 1기 등이 보고되었다.⁵⁾ 이 중에서 춘천 중도, 양평 문호리 적석총은 정식발굴조사를 거쳐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남한강 유역권에는 제원·중원 지역의 제원 양평리 2기, 제원 도화리 1기, 제원 교리 1기, 평창 지구의 응암리 1기, 종부리 1기, 하안미리 1기, 마지리 1기, 중리 2기, 여만리 1기가 보고되었으며,⁶⁾ 이 중에서 제원 양평리, 제원 도화리 적석총이 발굴조사되어 정식보고되었다. 한강 하류권은 서울 석촌동 적석총 고분군 일대의 4기가 발굴조사되어 알려져 있으나, 일제가 1916년에 조사한 기록에 따르면,⁷⁾ 이들 4기를 포함하여 적석총 66기가 군집하여 분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입지

백제적석총의 입지에서 가장 주목되는 특징은 대하천 유역의 段丘性 충적대지에 위치하는 사실이다. 이는 영남지방과 충청지역의 고분군이 주로 대하천의 1차 支流나 2차 支流에 해당하는 소하천 유역에 입지하며,⁸⁾ 충적대지가 아닌 구릉상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사실과 매우 대조적이다. 그리고 군집형태로 밀집분포하는 한강유역권을 제외하고는 강안의 충적대지상에 전망이 탁월한 곳을 선정하여 독립적으로 입지하는 특징이 있다.⁹⁾ 이 역시 군집묘의 형태로 묘역을 형성하는 영남지방과 충

2) 이동희, 1994, 『남한에서 발견된 고구려계 적석총에 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쪽.

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4)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6, 『조선유적유물도감』20, 166-171쪽.

5) 이동희, 주2)의 논문, 1994, 27쪽.

6) 이동희, 주2)의 논문, 1994, 27-28쪽.

7)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3책.

8) 이성주, 1998, 『신라·가야사회의 정치·경제적 기원과 성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 『연천 삼곶리 백제적석총 발굴조사보고서』, 53-61쪽.

청지역의 고분군의 분포양상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3) 형식

백제 적석총의 형식은 우선, 외형에 따라 무기단식, 기단식, 방단계단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내부구조에 따라 다곽식, 양곽식, 단곽식으로 구분된다. 외형과 내부구조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무기단식은 다곽식, 기단식은 양곽식, 방단계단식은 단곽식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발굴된 자료가 부족하므로 일반화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무기단식 : 학곡리 적석총(다곽식), 중도 동분 적석총, 양평리 1·2호분(다곽식), 도화리 적석총

기단식 : 삼곶리 적석총(양곽식), 문호리 적석총

방단계단식 : 개풍 장학리 적석총(단곽식), 석촌동 1호분 북분, 석촌동 2호분, 석촌동 3호분, 석촌동 4호분, 공주 송산리 적석총

이들 형식의 구분은 축조시기의 선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 연대는 무기단다곽식은 기원전후부터 2세기 전반까지, 기단양곽식은 2세기 후반부터 3세기 전반까지, 방단계단식은 3세기 후반부터 5세기 후반까지로 편년된다. 이런 편년설정의 근거는 유물에 대한 설명에서 보충하겠으나, 앞서 각 형식의 출현시점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무기단적석총 발생은 백제적석총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백제적석총은 고구려유이민의 남하와 함께 임진강·한강유역으로 전파하게 된다. 따라서 그 발생은 『삼국사기』백제본기 기사를 그대로 신뢰하여 기원을 전후한 시기로 파악된다. 이런 편년설정은 후술하겠지만, 백제적석총이 고구려적석총에 그 계보를 두고 있고, 기본적인 특징이나 세부적인 속성 중에서 고구려적석총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는 고고학적 검토에 기초한다. 한편, 무기단적석총이 백제지역으로 확산되는 시점은 대략 기원후 100년을 전후한 시점으로 파악되는데, 그 역사적 배경은 온조세력의 하남위례성으로의 천도와, 정치적 영향력의 확산에 있다고 본다. 이런 백제적석총의 확산은 ‘풍납동식주거지’의 확산과 그 궤를 같이 하고,¹⁰⁾ 풍납토성의 성벽이 축조되는 시점과 일치하고¹¹⁾ 있어 주목된다. 이 무기단적석총에 대한 편년설정은 Ⅲ장 1절에서 상론한다.

기단식적석총의 발생은 기원후 2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그 근거로는 2세기 후반 백제사회의 질

10) 신회권, 2001, 『한강유역 1-3세기 주거지 연구 - '풍납동식주거지'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신회권, 2002, 『풍납토성의 축조연대 시론』 『한국상고사학보』 제37호, 한국상고사학회, 31-33쪽.

적인 변화를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낙랑군의 퇴조와 함께 낙랑계 주민이 대거 백제로 유입되고, 그를 계기로 백제는 인구증가와 함께 정치제도 및 학문과 기술부문, 그리고 선진문물에 접한 바 있는 漢人系 주민들을 확보하여 국가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¹²⁾ 그 결과 백제는 성장된 국력을 배경으로 한강유역 일대에 분포하고 있던 독립적인 여러 소국세력을 백제국 중심의 연맹체에 적극적으로 흡수·병합해 나가게 된다.¹³⁾ 이런 백제의 변화는 『삼국지』 동이전의 韓滅強盛이란 말이 대변해 준다. 이런 백제의 정치적·문화적 성장은 물질문화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그 결과 토기에서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는 소위 백제토기가 출현하고¹⁴⁾ 철제무기에서 독사머리형 철촉으로 대표되는 뽕족촉이 등장하고 있다.¹⁵⁾ 그리고 토광묘에서는 법천리 9호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갈바닥의 목곽묘가 등장하고 유물상에서는 철제유물이 다종다량으로 매납되며, 적석총에서는 다곽식을 이은 양곽식 묘곽과 제의공간인 부석시설이 등장한다. 결국 백제사회의 정치·문화적 성장과 변혁이 적석총의 묘제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고 판단되며, 그를 근거로 기단양곽식 적석총의 출현시기를 2세기 후반으로 두고자 한다.

다음으로 방단계단식적석총의 축조시기이다. 우선 그 하한은 공주 송산리고분군에서 蓋鹵王의 虛墓로 추정되는 방단계단식 적석총이 확인되어¹⁶⁾ 한성백제 말기까지로 쉽게 편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한은 석촌동고분군에서 이 형식이 출현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고, 그 대상유적은 석촌동 1호분이 되겠다. 이 고분의 축조시기는 1호분 북분을 파괴하고 만든 1호 위석봉토묘의 연대를 통하여 검토될 수 있는데, 1호 위석봉토묘는 출토토기의 형식을 통해 4세기 전후로 편년되고 있다. 따라서 이 고분보다 먼저 축조된 1호적석총은 편의상 3세기 후기로 편년될 수 있다.¹⁷⁾ 한편, 석촌동 1호분은 외형은 중심부를 돌이 아닌 흙으로 채워 나간 것이 고구려적석총과 구별되어 백제식적석총으로 일컫는 무덤이다.¹⁸⁾ 그런데 무덤형태는 결국 기단식적석총이 석촌동 3호분과 같은 전형적인 방단계단식으로 발전하는 과도기적 양식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무덤양식은 기단식이 발전한 형식이며, 방단계단식의 초기형식으로 파악될 수 있다.¹⁹⁾ 이런 관점에서 석촌동 1호분은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비정되는 석촌동 3호분보다 선행하는 무덤이고, 그렇게 볼 때 앞서의 축조시기는 더욱 신뢰성을 지닐 수 있겠다.

12) 이 시기에 들어와 선진문물을 지닌 낙랑계 유이민의 대거 유입은 백제와 마한사회의 문화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그런 변화는 철기 및 토기의 제작기술에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했다고 생각된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화성기안리 유적에서 제철시설과 함께 낙랑토기가 출현하는 현상, 화성 발안유적에서 중도식무문토기와 함께 검질토기가 공반출토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근거라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화성 발안리 마을유적·기안리 제철유적 발굴조사』(현장설명회자료).

13) 양기석, 2000, 『백제초기의 부』,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학회 편, 서경문화사, 188쪽.

14) 신종국, 2002, 『백제토기의 형성과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연천 삼꽃리 적석총, 풍납토성 환호, 원주 법천리 9호 토광묘 등에서 출토된 철촉이 대표적으로, 이 때를 기하여 넓적촉에서 뽕족촉으로 변화하였다고 판단된다.

16) 조유전, 1991, 『송산리 방단계단형 무덤에 대하여』, 『무녕왕릉의 연구현황과 제문제』, 47-63쪽.

17) 임영진, 1995, 『백제한성시대 고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04-105쪽.

18) 임영진, 1995, 주17)의 논문, 51-55쪽.

4) 구조

현재까지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묘곽의 구조가 정확히 드러난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연천 학곡리 적석총, 연천 삼곶리 적석총, 개풍 장학리 적석총, 중도 동분 적석총 등에서 전혀 다듬지 않은 하천석을 이용하여 묘곽을 조성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묘곽의 벽체를 축조할 때에 중간 중간에 세운돌이 확인되는 점이 특징적이며, 학곡리 적석총의 경우에는 벽체의 하단부에 보강석을 덧대거나 세운 흔적이 확인된다.

한편, 외형구조에서는 증석과 부석시설이 주목된다. 증석은 자연사구의 전체에 걸쳐 시설되지 않고, 강쪽에 한두겹으로 천석을 깔아 돌린 점으로 미루어 수해방지용의 시설로 파악된다.²⁰⁾ 부석시설은 연천 삼곶리에서 확인된 것으로 묘곽이 바닥면과 비슷한 레벨에 한두 겹의 돌을 편평하게 깔아서 만든 시설로 특별한 행위가 이루어진 제의공간으로 파악된다.²⁰⁾ 이런 부석시설은 고구려 적석총에서도 다수 확인된 바 있다.²⁰⁾ 이런 제의공간의 존재는 적석부 주변에서 다량의 백제토기편이 수습되고, 묘곽 내부출토품보다는 형식적·기술적으로 발달한 후행양식의 토기가 출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2. 유물

1) 토기

고구려 및 백제의 적석총에는 동시기의 신라, 가야지역의 토광묘와는 달리 다량의 유물이 매납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까지 정식발굴조사를 거친 유적의 묘곽 내에서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된 예는 극히 드물다. 그런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백제 적석총의 경우, 무덤 축조 이후도 지속적으로 제의공간을 통한 제사의례가 행해졌을 개연성이 높다. 이런 사실은 동일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이라도 묘곽에서 출토된 유물과 적석부 주변에서 수습된 유물은 엄격히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적석부 출토품과 묘곽 내에서 출토된 유물이 동시기에 매납 혹은 폐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묘곽에서 출토된 유물을 주된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코자 한다.

19) 이와 관련하여, 백제식적석총을 현지장법이 고구려적석총의 요소를 채택하여 축조한 양식으로 본 후, 토광묘적 요소가 강한 북분은 토착계의 왕비의 무덤으로 파악한 임영진의 견해는(임영진, 주17의 논문, 1995, 123-125쪽.) 지나친 확대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는 석촌동고분군이 아닌 개풍군 장학리적석총에서 내부를 흙으로 채운 것으로 추정되는 방단계단식이 최근 발굴조사되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개로왕의 허묘도 방단계단식이면서 내부는 점토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20) 따라서 증석묘 혹은 증석식적석묘란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증석은 기능적인 측면이 강한, 일종의 구릉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즉 증석의 기능은 봉토분에서 잔디를 입히는 의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1)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 주9)의 보고서.

22) 이동희, 1994, 주2)의 논문, 51-52쪽.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기단의 다곽식적석층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양상이다. 이와 관련한 표지적인 유구는 연천 학곡리 적석층 1호곽이다.²³⁾ 이 1호곽은 잔존한 묘곽 4개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판단되는데, 흑색토기편을 비롯하여 적갈색연질타날문토기편, 회백색연질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이 중에서 흑색토기편은 동체부편으로 횡방향의 침선문이 동체 상단에 돌아가며 그 아래 쪽에 승석문이 종방향으로 타날되어 있다. 이 토기는 명주 안인리 2호분에서 완형으로 출토된 흑색토기 3점과 시문방식과 제작기법이 연결되는 것으로, 흔히 낙랑토기 혹은 한식토기로 인식되고 있는 특징적인 토기다.²⁴⁾ 타날문토기는 연질 소성에 적갈색을 띤 것으로 격자문에 횡선을 비교적 촘촘히 돌렸는데, 연질이면서 입술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어 타날문토기의 형태발전에서 비교적 이른시기에 속하는 형식이다. 이런 학곡리 적석층 1호곽의 토기구성은 명주 안인리 I기층 주거지와 상통할 수 있는데, 대략 박순발의 원삼국시대 1기²⁵⁾와 신중국의 원삼국시대 I-2·3기²⁶⁾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 안인리 2호분 출토 흑색토기가 동예지역에 동부교위가 설치된²⁷⁾ 낙랑군 후기라는 견해가 있고, 또 안인리 2호분이 포함된 안인리 I기층의 절대연대가 기원전 1세기 초반경-기원후 2세기말까지로 편년되어,²⁸⁾ 그 중심연대는 기원후 100년을 전후한 시점으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연천 학곡리 1호곽의 토기 역시 대략 기원후 100년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할 수 있다.

한편, 무기단의 다곽식 적석층에서 출토되는 토기에서 주목할 점은 낙랑토기가 확인되는 사실이다. 현재까지 낙랑에서 제작되어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물은 연천 학곡리 적석층의 묘역에서 수습한 원통형토기 저부편 2점이다.²⁹⁾ 이 저부편은 粘土細積으로 제작된 점, 저부의 내면에 소용돌이 모양의 녹로의 회전흔이 남아 있는 점, 바닥면에 靜止絲切의 흔적이 뚜렷한 점 등으로 미루어 낙랑의 원통형토기 속성과³⁰⁾ 완전히 일치한다. 이들 낙랑토기의 존재는 기존의 한강유역의 마장리 주거지에서 낙랑토기의 영향을 받은 평저호가 확인되었고,³¹⁾ 최근 발굴조사된 화성 기안리 제철유적에서 낙랑토기가 다량으로 발굴되는³²⁾ 사실로 미루어, 기원후 2-3세기 경에 한강·임진강 유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3) 기정문화재연구원, 2002, 「연천 학곡제 개수공사지역 내 학곡리 적석층 발굴조사」.

24) 이 흑색토기는 표면이 검은색을 띠면서 여러조의 침선문을 횡방향으로 돌린 것이 특징적인데, 이런 요소는 백제의 타날문토기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점으로, 낙랑 및 고구려토기 등 북방계 토기의 영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

25) 박순발, 2001, 「한성백제의 탄생」, 서경출판사, 76쪽 표4 참조.

26) 신중국, 2002, 주14)의 논문.

27) 심재연, 1996, 「강원 영동·영서지역의 철기문화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 지현병, 2000, 「영동지역의 철기시대 연구 -주거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9) 낙랑토기 연구자인 鄭仁盛씨가 연천 학곡리 적석층 출토유물 중에서 이 두점을 선별하여 낙랑토기라고 알려주었다. 낙랑토기에 대한 식별력이 없던 필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기존에 수습한 낙랑계 유물을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30) 鄭仁盛, 2003, 「樂浪圓筒形土器の性格」, 『紀要』18號, 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文學部考古學研究室.

31) 김원룡, 1971, 「가평 마장리 야철주거지」, 『역사학보』50·51합집, 111-137쪽.

32) 기정문화재연구원, 2003, 주12)의 발표문.

다음으로 기단양곽식 적석총에서 출토되는 토기에 관한 검토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유적은 연천 삼곶리 적석총이 유일하다. 연천 삼곶리 적석총에서는 묘곽 내에서는 토기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유사승석문이 타날된 타날문 토기호 1점과 무문양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이들 토기구성에 대하여 박순발은 그의 한강유역 원삼국 제Ⅲ기로 보고, 그 실연대를 무문양토기가 낙랑의 귀틀무덤에서 출토되는 평저 무문호와 동일한 기형인 사실을 들어 3세기 전반으로 설정하였다.³³⁾

마지막으로 방단계단식 적석총에서 출토되는 토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석촌동 고분군의 적석총이 가장 표지적인 유적이지만, 실제로 묘곽 내부와 적석부에서 안정적으로 확인된 유물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적석총이 대략 3세기 후엽에서 4세기 중엽에 걸쳐 축조된 것들이고,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석촌동고분군 중층의 토광묘계의 무덤에서 다양한 형태의 토기가 발굴되어, 당시의 토기구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이 시기의 토기는 광구호, 직구호, 회청색경질의 외반 심발형토기, 개배 등이 대표적인데³⁴⁾ 한성시대 백제토기의 발전형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단계의 토기구성과 형태적 특성은 파주 주월리 유적과 풍납토성 Ⅲ기의 토기상이 좋은 참고가 된다.³⁵⁾

2) 철기

철기로는 연천 삼곶리 적석총의 단경유엽형 철촉 2점, 제원 양평리 적석총 2호분의 무경촉과 유관직기형 철모, 중도 적석총 부근 주거지에서 출토된 도끼날 철촉이 대표적이다.

우선, 무기단다곽식 적석총인 제원 양평리 2호분에서 출토된 화살촉은 철로 만든 화살촉의 형식 중에서는 가장 선행형식인 점이 주목된다. 물론 이 철촉이 4세기 이후 영남지방의 고분에서 발견되는 예는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며, 그 중심연대는 남부지방에 목관묘가 축조되는 시기와 일치하므로 그 제작시기의 중심연대는 1-2세기로 편년될 수 있다. 한편, 이 철촉과 함께 축조된 유관직기형 철창 역시 소위 원삼국시대 철모를 대표하는 형식으로 고분시대 철모의 전형적인 형식인 유관연미형보다는 선행하는 형식이다. 아직까지 한성백제시대 철모의 출토예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비교자료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지만, 기원후 300년으로 편년되는 파주 주월리 유적에서³⁶⁾ 전형적인 유관연미형의 철모가 확인된 사실로 비추어, 그 선행형식인 이 유관직기형 철모의 제작시기는 적어도 3세기 전반이나 아니면 2세기일 가능성이 크다.

33) 박순발, 2001, 주25)의 책, 135쪽.

34) 임영진, 1995, 주17)의 논문, 84-85쪽 및 153쪽의 도면21.

35) 신종국, 2002, 주14)의 논문.

36) 이인숙 외, 1999, 『파주 주월리 유적』, 경기도박물관.

다음으로 기단양곽식 적석층인 연천 삼꽃리 적석층에서 출토된 화살촉 2점은 모두 단경의 유연형 철촉으로 촉두가 납작하고 그 단면이 다소 편평한 특징이 있으며, 목과 촉두의 구별이 가능하기는 하나 목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철촉의 형태는 단경유연형철촉 중에서도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전형적인 단경유연형의 철촉은 일반적으로 독사머리형이라 불리는 형식으로 단면이 이등변 삼각형이나 룡형, 블록렌즈형으로 되어 있어 촉두가 두텁고 무게가 나가게 고안되어 있다. 또한 목도 촉두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좀더 발전한 형태이다. 이런 사실은 연천 삼꽃리 적석층에서 확인된 2점의 철촉이 적어도 4세기대의 철촉보다는 선행하는 형식임을 분명히 하며, 그 제작시기 역시 적어도 3세기 전반 혹은 그 이전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이와 동일한 형식의 철촉이 최근 논란 속에 있는 풍납토성 환호 속의 유물포함층에서 확인되어 주목된다. 풍납토성 환호가 풍납토성의 성벽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졌고, 이 환호의 유물포함층이 성벽 축조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 철촉의 제작시기는 적어도 풍납토성 II기에 해당될 수 있으며, 그 제작연대는 2세기 후반일 가능성이 크다.³⁷⁾ 한편, 이와 동일한 형식의 철촉은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법천리 9호분에서도 3점 확인되었다. 이들 철촉이 매납된 법천리 9호분은 보고자가 법천 마한 IA기에 포함시킨 자갈바닥의 토광묘로, 보고자는 인근의 도화리적석총보다 선행하거나 병존하였던 시기로 파악하였다.³⁸⁾ 그런데, 법천리 9호분 출토 단경호는 동체가 편구형이어서 도화리에서 출토된 동체 구형의 단경호보다 이른 시기의 유물로 보고되어 있다.³⁹⁾ 이와 함께 한강유역 경질타날문 원저호의 출현시기를 3세기 전엽 혹은 후엽으로 보는 일반적인 토기편년안과,⁴⁰⁾ 영남지방 목곽묘의 발생이 2세기 후반인 사실을 감안하면, 법천리 9호분의 축조시기는 2세기 후반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출토 철촉 역시 2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중도 적석층의 주변 주거지에서 확인된 착두형철촉은 고구려의 전형적인 철촉이라는 사실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이 형식의 철촉은 장구한 시간에 걸쳐 사용된 형식이고, 시기에 따른 형태변화가 민감하지 않으므로 제작시기를 살피는 데에 적절한 유물은 아니다. 단지 중도 적석층과 주거지가 축조되었던 기원전 120년 전후에⁴¹⁾ 고구려의 전형적인 철촉인 도끼날 철촉이 북한강 상류지역에서 나타나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이런 도끼날 철촉은 2세기대로 편년되는 양평 대심리 유적에서도 발견되었다.⁴²⁾

37)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풍납토성-한대연합주택 및 I 지구 재건축부지』 I.

38) 윤형원, 2002, 『남한강 지역 마한·백제·신라의 무덤 -원주 법천리고분군을 중심으로-』 『삼국의 점점 찾아서』(제 28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요지), 한국상고사학회, 46쪽.

39) 위의 글, 46쪽.

40) 신종국, 2002, 주14)의 논문.

박순발, 2001, 주25)의 책.

41) 최복규, 1984, 『중도유적지표조사보고』, 62쪽.

42) 김원룡·정영화·최몽룡, 1974, 『양평군 대심리 유적발굴보고』 『팔당·소양담 수물지구 유적발굴종합조사보고』, 181-282쪽.

마지막으로 방단계단단곽식 단계의 철기는 현재까지 석촌동고분군 출토품이 대표적이거나, 보고서에 도면이 부실하므로, 당시 철기의 전모를 살피기에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동 시기의 유적으로 판단되는 파주 주월리 유적에서 유관연미형의 철모와 함께, 독사머리형의 철촉, 찰갑편이 확인된 사실로 미루어, 이 단계가 되면, 철제무기에 있어서 북방유목민의 영향을 받아서 찰갑이 등장하고, 살상력이 이전에 비하여 강화된 새로운 형태의 철모와 철촉이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병기체제는 고분시대 영남지방의 그것과 유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정리

이상에서 백제적석총의 기본적인 성격과 그 출토된 유물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만을 간추려서 간단히 검토해 보았다. 일단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정리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논의할 백제초기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필자의 논지를 전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핵심 부분만 간추려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정리 1: 분포는 임진강 수계와 한강수계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것도 지류가 아닌 본류에만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하류보다는 중상류에 입지하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정리 2: 한강유역권의 석촌동에서는 군집의 형태로 분포하지만, 나머지 유역권에서는 한두기만이 고립분포하는 특징이 있다.

정리 3: 형식은 무기단다곽식, 기단양곽식, 방단계단단곽식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그 축조시기는 묘제의 형태, 출토유물의 편년에 근거할 때 무기단다곽식은 기원전후부터 2세기 전반까지, 기단양곽식은 2세기 후반부터 3세기 전반까지 방단계단식은 3세기 후반부터 5세기 후반까지로 편년된다.

정리 4: 토기에서는 무문토기의 전통을 계승한 중도식무문토기와 함께 낙랑토기의 영향이 강하게 시사되는 타날문토기·흑색토기와 함께 낙랑에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낙랑토기들이 다수 확인된다.

정리 5: 중도유적에서 확인된 고구려식 철촉인 도끼날 철촉의 존재 및 연천 삼꽃리 적석총의 제의공간의 존재, 그리고 백제적석총이 고구려계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함께,⁴³⁾ 그 계통이 고구려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코자 한다.

43) 이동희, 1994, 주2)의 논문.

강현숙, 2001, 「한강유역 1-3세기대 묘제에 대한 일고찰 - 적석묘를 중심으로 -」 『동아시아 1-3세기의 주거와 고분』, 국립문화재연구소, 131-133쪽.

Ⅲ. 백제초기사의 제문제와 백제적석총

백제초기사와 관련된 문제는 결국 『삼국사기』 초기기사를 취신, 부정, 혹은 수정하느냐 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또 한편으로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기록과 『삼국사기』의 기록을 어떻게 순리적으로 연결시켜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새롭게 축적된 고고자료를 바탕으로 백제초기사와 관련된 제문제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나름대로의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주제는 백제건국세력의 출자, 하북 위례성의 비정, 초기백제의 강역, 백제의 지방통치, 백제국과 마한으로 한정한다.

1. 백제 건국세력의 출자와 남하루트 및 그 시기

1) 백제의 건국주체는 고구려 유이민

한국고대사학계에서는 백제의 건국주체를 고구려계로 보고 있으나, 일부 학자들은 부여계로 규정하고 있다.⁴⁴⁾ 그런 한편, 백제적석총의 축조집단을 『삼국사기』 백제본기 초기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鞞鞞, 즉 濊系집단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⁴⁵⁾

이런 상반된 주장들에 대하여, 이 글은 백제적석총의 계통을 고구려 적석총으로 파악하고, 그 축조세력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초기기록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고구려유이민 집단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런 주장의 고고학적, 문헌사적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리1에서와 같이 백제적석총은 유적의 입지에서 대하천의 중상류에 발달한 충적대지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즉 고구려 적석총은 압록강 중하류 및 혼강 본류와 지류에 집중분포하며, 백제적석총 역시 임진강 상류와 중류, 북한강과 남한강의 본류와 그 지류에 분포한다.⁴⁶⁾ 이런 입지적 특성은 동시기의 영남지역과 충청지역의 토광묘의 입지와는 극명히 대조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무덤의 축조재료로 나무가 아닌 강가의 돌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소위 원삼국시기로 일컬어지는 삼국시대 전기에 돌을 재료로 하여 묘곽과 봉분을 만든 묘제는 고구려적석총이 유일하다. 이런 묘제가 한반도 중부와 남부지역 중에서 중부지역에서만 나타나고, 그것도 한강·임진강 유역에서만 확인되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 역시 동 시기 낙랑의 고분이 귀틀무덤과 전축분이 기본이

44) 이도환, 1995, 『백제 고대국가연구』, 일지사.

45) 박순발, 2001, 주25)의 책, 137-139쪽.

46) 이는 고구려의 지명에 주로 등장하는 냇가 강가와 계곡에 자리잡은 지역집단을 의미한다는 언급과 무관하지 않다. 여호규, 2000, 「고구려 초기 정치체제의 성격과 성립기반」 『한국고대사연구』 17, 서경문화사, 139쪽.

고, 부어를 비롯한 신라·가야, 그리고 마한의 무덤이 목관묘와 목곽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사실과 대비할 때, 백제지역에서 적석총의 축조는 특기할 만한 사실이며, 이는 그 계통을 고구려적석총에 둘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근거가 된다.

셋째로, 매장주체부의 위치이다. 매장주체부를 지상에 두느냐, 지하에 두느냐는 기능적인 배려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축조집단의 신화와 매장풍습과도 연결되는 문제로, 일반적으로 지상식 매장풍습은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부여-고구려계의 풍습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백제적석총에 나타나는 지상식 매장주체부는 고구려의 매장풍습을 직접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축조집단의 종족적 배경이 고구려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시사해 준다.⁴⁷⁾

넷째로, 葬法에서 집단묘의 한 형태인 連接墓가 확인되는 사실이다.⁴⁸⁾ 연천 학곡리 적석총에서 적어도 최소한 4기의 묘곽이 연결하고 있는 사실은 우산하 3233호를 비롯한 고구려적석총의 묘제에서 그 아이디어를 구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존에 만들어진 묘곽의 벽체외면에 덧대어 묘곽을 조성하는 속성마저도 고구려적석총의 그것을 충실히 답습하고 있다. 이는 비교적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연천 삼곶리 적석총과 연천 학곡리 적석총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사실로, 백제적석총이 고구려적석총의 아류임을 확실히 입증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다섯째로, 厚葬보다는 薄葬을 기본으로 하고, 묘곽뿐만 아니라 적석부와 그 주변에 유물을 매납하는 방식도 고구려적석총의 그것과 동일하다. 이는 묘곽 내에만 유물을 집중 매납하고 후장을 기본으로 삼는 부여, 낙랑, 마한 및 신라·가야의 매납 풍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점이다.

여섯째로, 무덤양식의 변천과정 또한 동일한 사실이다. 즉 무기단·기단·방단체단식으로 이어지는 외형의 축조방식 역시 양 지역에서 일치한다. 이렇게 동일한 구조형식을 보인다는 사실은 백제적석총이 고구려적석총의 강한 영향을 받아서 축조되었으며, 그 아이디어의 수용 역시 지속적이었고 판단케 한다.

일곱째로, 제의공간으로 추정되는 부석시설의 존재이다. 부석시설은 연천 삼곶리 적석총에서 확인되었는데, 고구려지역에서는 자강도 초산군 운평리 제4지구 6호분을 비롯하여 송암리 제 1호분, 송암리 1지구 33호, 45호, 56호, 88호, 106호 등의 적석총에서 확인되었다.⁴⁹⁾ 이런 제의공간의 존재 역시 백제적석총이 고구려적석총의 부대시설까지 충실히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덟째로, 한 묘곽 내부와 묘역에 깨뜨린 토기나 구슬이 산발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도,⁵⁰⁾ 고구려를

47) 고구려와 동일한 예맥계에 속하는 부여지역의 묘제가 지상식이 아닌 지하식의 목곽묘인 사실은 부여가 정치·문화적으로 이미 漢문화에 동화되어, 고유의 매장풍습이 변질된 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48) 강현숙, 2000, 『고구려고분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문학박사학위논문, 38-39쪽.

49) 이동희, 1994, 주2)의 논문, 51-52쪽.

중심으로 하는 북방종족의 습속과 연결될 수 있다.⁵⁰⁾ 고구려적석총의 경우에도 유물이 묘곽 내보다는 묘역에서 발견되는 예가 일반적이고, 또 유물을 의도적으로 훼손하여 매납하는 풍습이 보고되어 있는 바, 이 역시 백제적석총의 유물부장풍습과도 연결된다.

이상의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적인 형태와 세부적인 속성에서, 백제적석총의 계통이 고구려적석총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⁵²⁾ 이와 같은 결론을 유물을 통하여 더욱 보강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물에서 고구려문물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도끼날 철촉이다. 주지하듯이 도끼날 철촉은 동아시아 병기발달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철촉은 고구려의 강역과 그 군사정치적 영향하에 있던 지역에서만 출토되는 강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즉 고구려문화를 상징하는 표지적인 유물이라 할 수 있으며, 고구려 이외의 지역에서 이 철촉의 출토는 단적으로 고구려문화의 유입을 입증하는 징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⁵³⁾ 이는 고구려의 군사적 영향력이 신라 지역에 강하게 행사되는 시점에, 이 철촉이 신라지역에 출현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라의 정치적 영향력이 낙동강 이동의 가야지역에 증가되는 시기와 궤를 같이하여 이 도끼날 철촉이 가야지역의 대형분에서 확인되는 사실로도 입증된다. 이런 도끼날 철촉이 중도 적석총의 주변 주거지와 가평 마장리 주거지에서 출토된 사실은 백제적석총이 자리하는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고구려문화가 파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장신구로서 청동환, 마노제의 구슬, 흑회색 대상파부, 갈색마연토기편 등이 적석총에서 출토되거나 그 주변에서 수습되는 사실 역시, 백제적석총이 기본적으로 고구려적석총에 그 계통을 두고 있음을 방증해 준다.⁵⁴⁾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하여, 4세기 전후의 시기로 편년되는 파주 주월리 유적에서 고구려토기인 사이호가 확인되고, 병기체제에서 음각선문이 있는 고구려계의 유관연미형의 철모와 북방계 문물인 찰감이 확인되는 사실도⁵⁵⁾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파주 주월리 유적은 임진강유역의 중심세력이 자리했던 곳으로 비정되는 곳인데,⁵⁶⁾ 이곳

50) 학곡리적석총에서는 묘곽 내에서 출토된 유물이 모두 완형이 아니었고, 묘역주변에서 구연부편들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다. 특히 이들 구연부편들이 갈색마연으로 고구려계 토기의 영향이 인정된다. 그리고 삼꽃리적석총에서는 적석부와 묘역주변에서 구슬이 산발적으로 수습되었다.

51) 김현숙, 2003, 「고고학에서 본 4·5세기 고구려와 가야의 성장(토론요지)」, 『가야와 광개토태왕』, 제9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토론요지문, 김해시, 80쪽.

52) 물론, 백제적석총이 독립적으로 분포하는 점, 단구성총적지의 모래언덕 위에 축조된 점, 그 축조재료가 자연석인 강돌인 점, 묘곽 바닥면의 위치가 기단의 상면에 있지 않고 지표면에 있는 점 등은 고구려적석총의 속성들과 차이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유이민 집단이 갖는 정치사회사적 특수한 상황, 자연환경적인 요인 등에 기인한 변형된 속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일부 속성에서의 차이가 백제적석총의 고구려적석총 기원설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53) 金吉植, 1993, 「三國時代 鐵鏃의 研究 -嶺南地方資料를 中心으로-」, 慶北大學校文學碩士學位論文.

54) 이동희, 2002, 「임진강유역 적석총의 제문제에 대한 토론요지」, 『임진강유역의 고대사회』, 인하대학교박물관 제3회 학술회의 토론요지, 76-77쪽.

55) 이인숙 외, 1999, 주36)의 보고서.

56) 정재윤, 2002, 「백제초기 지배세력과 임진강유역」, 『임진강유역의 고대사회』, 인하대학교 박물관, 25쪽.

에서 고구려계 문물이 확인되는 사실은, 임진강 유역이 낙랑문물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문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연천 학곡리 적석총에서 출토된 토기에 고구려토기의 제작기술이 반영되어 있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⁵⁷⁾

이상으로, 임진강·한강유역의 백제적석총이 고구려적석총에 그 계보를 두고 있다는 사실과 고구려의 표지적인 유물인 도끼날철촉이 백제적석총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확인되는 사실, 적석총 출토 유물중에서 토기를 제외하고는 고구려적석총에서 흔히 확인되는 청동환, 청동방울, 마노제구슬 등이 있는 점 등은 백제가 고구려와 동일한 문화기반에서 출발하였음을 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는 비류국 송양왕이 주몽과의 투쟁에서 패배한 것과 같은 정치적 갈등을 겪은 온조계집단이 졸본지역에서 남하하였다는 연구결과와 연결될 수 있다.⁵⁸⁾ 또한 『梁書』 백제조에 백제의 언어와 법속이 대체적으로 고구려와 같다는⁵⁹⁾ 문헌기록과 백제적석총이 분포하는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의 忽系地名이 많고, 이런 ‘忽’은 고구려지명의 특징적인 語尾인 사실⁶⁰⁾ 역시 백제적석총의 고구려적석총 기원론을 더욱 방증해 준다.

주지하듯이 문화요소에서 가장 보수성이 강하고 종족적 색채가 강한 것이 묘제와 언어이다. 이런 두가지 요소에서 백제적석총 분포지역이 고구려지역과 기본적으로 일치할 때, 양 지역사이의 문화적·종족적 동일성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춘천맥국설과 중도적석총과 그 주변에서 출토된 도끼날 철촉을 연계하여 춘천지역의 적석총 축조집단을 고구려유이민으로 파악한 연구도⁶¹⁾ 또 다른 근거가 된다.

따라서, 임진강·한강유역에 분포하는 적석총의 피장자는 고구려유이민이라는 견해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백제건국의 주체가 온조계집단으로 대표되는 고구려유이민이라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록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남한지역 적석총의 계보가 고구려 적석총에 있다는 확고한 결론에 도달하였을 때, 이들 적석총의 축조집단이 “靺鞨”로 표기된 濊系이고, 그들의 활동영역을 임진강유역과 한강 중상류로 파악하는 견해에⁶²⁾ 대한 비판적 검토가 수반된다.

57) 기원후 2-3세기대 고구려토기를 실견하지 못하여 단언할 수 없지만, 학곡리적석총에서 출토된 토기편 중에는 니질의 갈색마연토기편이 10여점 수습되었다. 이와 같은 토기는 소위 원삼국시기의 토기에서는 그 출토예가 없는 형태이고, 또한 낙랑토기로도 볼 수 없는 형태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오히려 파주 주월리를 비롯한 임진강·한강 유역의 4·5세기대 유적에서 발굴된 고구려토기와 계통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추후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의 견해를 수렴한 후,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겠다.

58) 노중국, 1988,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61쪽.

59) 『梁書』 卷54, 百濟條.

* 今言語服章略與高麗同

60) 金芳漢, 1983, 『한국어의 계통』, 민음사, 110-114쪽.

61) 이동희, 1994, 주2)의 논문, 85-86쪽.

62) 박순발, 2001, 주25)의 책, 137-139쪽.

우선, 무엇보다도 鞞鞫과 濊를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삼국지』에는 중국 후한대의 桓帝와 靈帝 치하에 韓과 濊가 강성해져서 낙랑군이 능히 통제할 수 없다는 기록이 있다.⁶³⁾ 즉 기원 후 146년에서 188년까지 한과 예가 낙랑군이 쇠약해 진 틈을 타서 강성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서 이 시기의 말갈은 그 군사활동이 가장 침체한 시기이다.⁶⁴⁾ 만약 예=말갈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면, 이 시기에 말갈의 군사활동은 가장 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독 이 시기에 말갈은 신라와 백제에 대한 침략을 전혀 가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적으로 鞞鞫은 濊와는 다른 실체임을 분명하게 입증한다. 오히려 상기 기록은 낙랑 주변의 한과 예가 강성해지니, 바로 말갈의 군사활동이 정지된 사실을 전한다. 따라서 『삼국지』의 濊는 말갈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정치세력으로 파악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삼국사기』에 말갈은 기동력을 지닌 군사집단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삼국지』 濊條에서 濊는 성질은 도둑질을 하지 않고 조심스럽고 진실하며 욕심이 적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보전에 능하다고 기록하고 있다.⁶⁵⁾ 이는 비호전적이며 기동력이 뛰어난 기병전에 능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그 정치체의 성격에 대한 양 기록 사이의 모순도 지적된다. 『삼국지』에 예에는 大君長이 없다고 하였으며 魏로부터 不耐濊王으로 책봉 받은 군장이 여전히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살았다고 하는데,⁶⁶⁾ 과연 예의 군장이 기리영 공격시 주도적인 위치를 지닐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⁶⁷⁾ 이런 사실 역시 예를 말갈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그리고 만약 말갈이 경기북부지역을 그들의 영역으로 삼았다고 하면, 임진강 유역으로 비정되는 七重河를⁶⁸⁾ 말갈이 공격한다는 일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다. 즉 말갈이 자기영역인 임진강 유역의 칠중하를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말갈이 예가 될 수 없고, 더욱이 그들의 활동영역을 임진강유역과 한강중상류로 볼 수 없는 사료적 근거는 세부적인 사항에서도 확인된다. 우선 예가 경기북부지역을 그들의 영역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영역이 서쪽으로는 바다(海)를 경계로 삼았다고 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⁶⁹⁾ 그리고 또 예가 경기북부지역을 차지하였다고 한다면, 『삼국지』에 한이 대방의 남에 위치한다거나

63) 『三國志』卷30, 馬韓條.

“桓靈之末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64) 말갈은 祇摩尼師今 49년(125년)부터 逸聖尼師今 9년(142년) 에 신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을 마지막으로 2세 시대에는 백제와 신라에 대한 어떤 침략도 감행하지 않고 있다.

이강래, 1985, 『『삼국사기』에 보이는 말갈의 군사활동』 『영토문제연구』 2.

65) 『삼국지』 권30 예조.

“無門戶之閉而民不爲盜…其人性慤惡 少嗜欲…作矛長三丈, 或數人共持之 能步戰”

66) 『삼국지』 권30, 예조.

“無大君長…詔更拜不耐濊王 居處雜在民間”

67) 김병곤, 2002, 『임진강유역 적석총의 제문제』 『임진강유역의 고대사회』, 57쪽.

68) 이강래, 1985, 주64)의 논문.

69) 김병곤, 2002, 주67)의 발표문, 57쪽.

『후한서』에 북으로 낙랑과 접하고 있다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예의 영역을 경기북부지역으로 획정하면, 동이전의 기본적 구도를 부정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 삭주조에 따르면, 춘천의 위치를 《古今郡國志》를 인용하여 “고구려의 동남쪽, 동예의 서쪽에 위치하며 옛날의 貊이다”고 기록하고 있다.⁷⁰⁾ 여기서 고구려의 동남쪽에 貊이라는 정치세력이 있었고, 그 영역은 濊의 서쪽이라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삼국지』에서의 예의 강역은 동해안 일대의 영동지역에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예계를 말갈로 보는 시각은 고고학적 자료에서도 부정된다. 우선, 경기북부지역의 적석총을 예계의 무덤으로 볼 때, 예의 본거지인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강원도 동해안지역에서 적석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중대한 모순이 노출된다. 더욱이 『삼국지』 예전에서 예는 珠玉을 보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는데,⁷¹⁾ 적석총에서 유일하게 확인되는 장신구는 구슬이다. 이 사실 역시 경기북부지역의 적석총을 예계의 무덤으로 볼 수 없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특히 적석총을 포함한 중도형문화를 예계의 문화로 보는 견해는 최근 발굴조사를 통하여 전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최근의 고고학적 증거들은 중도형문화를 경기북부지역으로 한정시킬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⁷²⁾

요컨대, 경기북부지역을 예의 영역으로 보고, 그 예의 구체적인 실체가 말갈이라는 견해는 전면적으로 재고를 요한다. 더욱이 경기북부지역의 적석총을 예계의 무덤양식으로 파악하는 견해는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다.

2) 남하시기는 기원후 1세기 전기

앞에서 임진강·한강 유역의 적석총이 고구려 유이민이 축조한 백제적석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그렇다면, 그들의 남하시기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무기단 적석총의 축조시기에서 우선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고고자료에서 백제적석총의 축조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나 확고한 편년안은 없는 실정이다. 특히 토기편년안이 학자에 따라 큰 이견차를 좁히지 않은 한, 당분간 이 글에서의 편년안을 수용하지 않을 학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정황 판단을⁷³⁾ 통하여 백제지역 무기단적석총의 중심연대를 기원후 100년을 전후한 시기로 보고자 한다.

70) 『삼국사기』 지리지 삭주조.
“朔州 賈耽 古今郡國志云 句麗之東南 濊之西 古貊地”

71) 『삼국지』권30 예조.
“不以珠玉爲寶.”

72) 이는 최근 기전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한 화성 발안지구 택지개발지구내 발굴조사를 통하여 쉽게 입증된다. 결국 중도형문화라는 것은 삼국시대 전기의 일반적인 문화양상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주12)의 발표문.

73) 현재까지 백제토기의 편년을 확정할 결정적인 자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학자간의 편년차가 쉽게

우선, 풍납토성의 축조연대와 그 조사성과를 원용해 보고자 한다. 풍납토성의 발굴담당자는 최근 연구발표에서 풍납토성 성벽의 축조시기를 기원후 100년 전후로 보고 있다.⁷⁴⁾ 그의 견해는 과학적 연대측정을 통한 절대연대에 근거하는 점에서 일단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의 주장을 일단 수용하기로 한다. 먼저 풍납토성이 왕성이고, 이 풍납토성을 『삼국사기』에서 온조가 천도한 하남위례성으로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지녔다는 판단 하에서,⁷⁵⁾ 『삼국사기』 백제본기 己婁王 40년 조의 기사가 주목되기 때문이다. 이 기사에서 기원후 116년 큰비가 와서 한강의 물이 넘쳐 민가를 漂毀하였다고 전한다.⁷⁶⁾ 여기서 민가의 漂毀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왕성의 피해는 없었다고 추측되는데, 이는 풍납토성의 발굴에서 대홍수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조사결과와도 부합된다. 즉 풍납토성의 조영에는 군사적인 목적 이외에 수해방지를 위한 제방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생각되며, 적어도 기원후 1세기대에는 1차 성벽이 축조되어 대홍수에도 범람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청조 고증학의 성과를 수용하여 실질적으로는 북학을 함으로써 조선 후기 청조 고증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한 李德懋(1741-1793)가 풍납토성으로 비정되는 楮子島를 온조왕의 고성지로 비정하였던 사실도 매우 주목된다.⁷⁷⁾ 이 기사를 통해 온조왕의 古城址가 섬(河中島)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하남위례성이 하중도에 입지한 평지성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언급은 하남위례성을 이성산성이나 몽촌토성으로 비정하는 견해에 反하며, 그에 비해 발굴단이 풍납토성으로 비정하고 그 축조시기를 기원후 100년 전후로 보고 있는 견해와 일치한다.

이상과 같이 풍납토성의 축조연대를 기원후 100년 전후로 보고, 그것을 『삼국사기』의 하남위례성으로 볼 때, 『삼국사기』 백제본기 초기기사는 일단 신뢰할 수 있는 기록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백제적석총의 축조 역시 기원후 1세기경에는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편년 설정은 고구려에서 무기단 적석총의 상한연대가 기원 전후 즉 고구려 건국을 전후로 한 시기인 사실과 기단적석총 및 방단계단식 적석총의 상한연대가 후한초기보다 늦지 않다고 편년한 견해도 뒷받침된다.⁷⁸⁾ 뿐만 아니라 기원후 3년 고구려가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기는데, 이 때의 정치적 변혁 속에서

중략저 통설적인 편년안이 곧 마련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따라서 묘제, 토기, 철기, 절대·상대연대, 역사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황판단을 하고자 한다. 비록 이런 편년 설정이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지 않지만, 고고자료가 지극히 부족한 현실정에서 불가피한 차선택이라 생각되며, 단편적인 자료에 기초한 고식적인 편년안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유연하다고 판단된다.

74) 신회권, 2002, 주11)의 논문, 31-33쪽.

7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주37)의 보고서.

신회권, 2002, 주11)의 논문, 46쪽.

김태식, 2001, 『풍납토성』, 김영사.

76) 『삼국사기』 백제본기 기루왕 40년조.

「四十年 夏四月 巢于都城門上 六月 大雨浹旬 漢江水漲 漂毀民屋」

77) 「峽舟記」 『靑莊館全書』 卷20.

「楮子島 有百濟溫祚王古城址」

일군의 집단이 남하하였을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 전기 중국은 新에서 후한으로 이어지는 혼란기였는데, 이 때 낙랑군에서는 王調의 난(A.D.25-30)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혼란으로 인해 낙랑은 중국 군현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못하고, 이 시기 동안에 온조세력이 남하했다는 가사는 역사적 정황 속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임진강·한강 유역은 기존에 있던 진국세력이 한사군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백산맥 이남으로 이주하게 됨에 따라, 정치세력의 공지로 남게 된 배경 역시 온조세력의 남하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⁷⁹⁾ 결국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고구려의 정치적 갈등을 피해 남하하는 고구려의 유이민 집단이 낙랑군을 우회하여 정치세력의 미담지로 남아 있던 임진강·한강 유역으로 정착하는 데에 호조건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역사적 상황과 함께, 고고자료에서도 백제적석총이 기원후 1세기 경에 초축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우선, 무기단적석총인 중도적석총의 축조시기가 기원후 120년 전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다.⁸⁰⁾ 이는 이 고분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중도주거지 1·2호분이 방형계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부석식 또는 막음돌식 평면적인 노지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어 풍납동식 주거지 I기로 보고, 기원후 1세기대로 편년한⁸¹⁾ 견해로도 뒷받침된다.

다음으로 백제적석총 중에서 묘곽 내부에서 토기가 출토된 연천 학곡리 적석총 1호곽의 연대가 기원후 100년 전후로 편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1호곽은 학곡리적석총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묘곽으로 판단되는데, 횡방향의 침선문을 돌린 흑색토기편과 적색연질타날문토기편, 회백색 연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이들 중에서 흑색토기편은 일단 명주 안인리 2호분에서 완형으로 출토된 흑색토기와 연결될 수 있어, 그 축조시기를 원용할 수 있다. 이 안인리 2호분은 경질무문토기가 출토토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여 신중국의 백제토기 I-1·2기,⁸²⁾ 박순발의 경질무문토기 단순기,⁸³⁾ 안인리 주거지 I 기층에 포함되어,⁸⁴⁾ 늦어도 기원후 1세기대에 만들어진 주거지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런 흑색토기의 추정연대와 함께 학곡리적석총 1호곽에서 출토된 나머지 토기편 2편이 타날문토기 이면서도 모두 적갈색 혹은 회백색을 띤 연질소성이고, 단순구연이면서 소형토기인 사실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 고분이 타날문심발형토기 외에도 완, 시루, 난형장경대옹 등에 시문되는 토기발전단계에 속하는 사실을 보여주며, 따라서 그 축조시기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기원후 1세기

78) 신용민 역, 1996, 『高句麗考古』, 호암미술관, 136-153쪽.

(원문은 魏存成, 『高句麗考古』, 吉林大學 出版社, 1994.)

79) 노종국, 1988, 주58)의 책, 45-49쪽.

80) 최복규, 1984, 주41)의 보고서, 62쪽.

81) 신희권, 2001, 주10)의 논문.

82) 신종국, 2002, 주14)의 논문, 67-88쪽.

83) 박순발, 2001, 주25)의 책, 76쪽.

84) 지현병, 2000, 주28)의 논문, 156-160쪽.

대에 포함될⁸⁵⁾ 가능성이 크며, 늦어도 기원후 100년을 전후한 시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백제적석총의 출현시기를 기원후 100년 전후로 보는 본고의 견해는 무기단적석총인 제원양평리 2호분에서 출토된 무경축으로 방증된다. 이 철축은 청동기시대의 삼각형석축을 모방한 형태임이 분명하고, 영남지방의 목관묘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어 그 중심연대는 기원후 1세기대로 편년된다. 즉 목관묘단계를 대표하는 철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철축의 출토는 양평리 2호분의 축조시기가 영남지방의 목관묘축조시기와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따라서 그 축조시기 역시 기원후 1세기대로 편년될 수 있다.

이상의 검토로, 백제적석총의 축조는 적어도 1세기 후반에는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삼국사기』백제본기의 기사에 언급된 온조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고구려 유이민의 남하시기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 연대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연대설정은 풍납토성 발굴조사의 결과와도 부합되며, 또한 『靑莊館全書』에서 李德懋가 풍납토성이 분명한 楸子島를 백제온조의 고성지로 간략히 언급한 것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이런 검토결과는 『삼국사기』백제본기 초기 기사를 더욱 신빙할 근거를 제공한다.

3) 남하경로

온조세력의 남하경로에 대한 견해는 강계에서 함흥으로 이르는 고대교통로로 보고, 원산만 지역으로부터 광주산맥과 마식령산맥 사이에 위치한 추가령지구대를 통한 동북지방경유설이 일반적이다.⁸⁶⁾

그러나 온조세력으로 대표되는 중심세력의 주경로는 오히려 서북지방 경로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문헌기록은 『삼국사기』백제본기 온조왕 즉위년조 전문의 세주에 비류가 온조를 데리고 패수와 대수를 건너 미추홀에 와서 살았다는 기사이다.⁸⁷⁾ 이 기사에서 일단 대수의 위치 고증이 남하경로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 대수의 위치에 대하여 임진강 유역으로 보는 견해 등 다양한 설이 있지만, 대수는 지금의 예성강으로 보는 것이⁸⁸⁾ 가장 무난한 해석이라 판단된다. 그럴 경우 패수는 자연히 지금의 임진강으로 비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백제초기 기사에는 패수와 대수는 짝을 이루어 기록되고 있는데, 관찰자의 입장에서 패수 다음에 대수가 기록하

85) 신중국 1-2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신중국, 2002, 주14)의 논문, 69-70쪽 및 85-87쪽.

86) 노중국, 1988, 주58)의 책, 51쪽.

이동희, 1994, 주2)의 논문, 75-77쪽.

87) 『삼국사기』백제본기 온조왕 즉위년조 전문의 세주

“逢與弟率黨類 渡浪帶二水 至彌那忽而居之”

88) 윤용구, 2002, 「중국군현의 남경과 임진강 유역」 『임진강유역의 고대사회』, 인하대학교 박물관.

고 있기 때문이다.⁸⁹⁾ 뿐만 아니라 온조 13년에 영역을 표시하면서 북으로는 그 경계가 패하에 이른다 고 기록하고 있는데,⁹⁰⁾ 현재까지 백제적석총이 예성강 유역보다는 임진강유역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도 패하는 임진강일 가능성이 크다.

이상과 같이 대수와 패하가 각각 예성강과 임진강으로 비정될 경우, 온조세력의 남하경로는 자연히 서북한 경로로 볼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은 온조세력의 원근거지가 고구려 영역 중에서도 서북쪽에 위치한 지금의 환인 즉 졸본지역인 사실과,⁹¹⁾ 이들이 남하하는 시점에 낙랑군 내부의 정치적 혼란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져 낙랑군 치소를 우회하여 남하하기가 용이하였던 시대적 상황 등으로도 방증된다.

물론, 북한강유역의 적석총의 존재는 원산만을 통한 동북경로를 통한 남하도 추측케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가연구조공에 해당되는 한탄강 유역에서 적석총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반면에 임진강 유역에 적석총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사실은 동북경로를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 그리고 북한강유역의 적석총 분포에서도 화천 간척리가 가장 상류에 자리하여 동해안을 통한 동북경로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와 함께 문헌기록 속에 이 경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그리고 졸본지역으로부터 지나치게 우회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서북경로에 비하여 설득력도 약하다.⁹²⁾

한편, 동북경로를 부정할 경우, 춘천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강 유역의 적석총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필자는 하남위례성으로 천도한 온조세력이 一派가 分岐하여 한강을 통해 이동한 결과로 보고 싶다. 그리고 그 일파는 온조집단과 함께 남하한 十臣의 하나로 보고자 한다. 이런 추측의 근거로는 문헌사학에서 十臣을 온조와 함께 남하한 10개의 친족집단으로 보고⁹³⁾ 그들의 존재를 烏干·馬黎 세력을 비롯하여 族父 乙昔세력, 동부의 屹于세력, 高木城의 昆優세력, 북부의 解氏세력, 眞氏세력, 서부의 肅세력으로 보는 견해에⁹⁴⁾ 일단 기초한다. 또한, 고고학적으로 육각형주거지인 ‘풍납동식 주거지’의 분포가 임진강·한강유역에 급속히 보급되는 현상을 고대국가로서의 발전의 성립과 발전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서도 착안하였다.⁹⁵⁾ 더 나아가 이런 풍납동식 주거지의 분포범

89) 37년조 한구의 동북부락에 기근이 들어 고구려로 도망해 가는 자가 일천여호나 도니 패수와 대수 사이가 비어 사는 사람이 없었다.

90)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3년조.
“八月 遣使馬韓告遷都 遂 定疆 北至淇河 南限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

91)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명성왕 원년.
“與之俱至卒本川(魏書云至紇升骨城)…但結廬於沸流水上居之 國號高句麗 因以高爲氏(一云 朱蒙至卒本扶餘 王無子 見 朱蒙 知非常人 以其女妻之 王薨 朱蒙嗣位)”

92) 물론 고구려에서 남하가 일시적이지 않고, 또 다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유이민 중에서 일부 집단은 동북경로를 거쳐를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백제건국의 주체세력으로 인정되는 비류·온조집단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북경로를 밟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된다.

93) 노태돈, 1975, 『삼국시대 부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 59쪽.

94) 신형식, 1992, 『백제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45쪽.

95) 신회권, 2001, 주10)의 논문, 61-63쪽.

위와 축조시기가 백제적석총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는 사실은 백제적석총 역시 한강하류의 중앙에서 임진강·한강 중상류로의 파급을 상정케 한다. 결국 백제적석총의 분포는 한강하류인 지금의 서울 강남지역에 정착한 온조세력의 지방에 대한 통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북한강 유역에 적석총이 출현하는 배경에는 백제 중앙권력의 침투로 파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 장의 4절에서 상론코자 한다.

2. 하북위례성

『삼국사기』백제본기에는 백제초기 도읍의 위치에 대해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온조즉위년조 전문에는 하남위례성에 바로 도읍을 정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반하여, 온조왕 13년 조에는 하북 위례성에서 하남위례성으로 천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런 모순된 기록에도 불구하고, 다산 정약용 이래 대부분 학자들은 하북위례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위치에 대해서는 한강 이북의 삼각산록 일대, 세검정 일대, 중량천 부근 등 한강 이북, 현 강북지역으로 비정하고 있다.⁹⁶⁾ 그런 한편, 일부에서는 하북위례성의 존재를 부정하고 온조집단은 처음부터 하남위례성에 정착하였다는 주장을 제시하기도 한다.⁹⁷⁾

이 글에서는 하북위례성의 존재를 긍정하는 입장에 선다. 그 이유는 온조왕 13년조에 언급된 천도의 배경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즉 천도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낙랑의 군사적 위협에서 일차적으로 벗어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군사적 위협은 백제가 낙랑과의 접경지역에 城柵을 설치함에 따라 낙랑과 4년 전에 맺은 우호관계가 끊어진 사건에 기인한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천도 이후, 백제는 마한과 일시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다가 마침내 온조왕 24년에 웅천에 웅천책을 세움으로써 마한과 정치적 갈등관계에 돌입한다는 점이다. 결국 이 때의 갈등은 백제의 천도를 전제로 할 때에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다루왕 37년을 기하여 백제의 주적은 신라로 바뀌게 된다. 천도 이전 전혀 백제와 그 어떤 교류도 언급되지 않았던 신라가, 천도 후 백제와 지속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실도 천도를 전제로 할 때,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더욱이 천도 이후 낙랑은 천도 직후인 온조왕 17년 단 한차례 위례성을 공격한 다음에는, 백제에 대한 직접적인 침공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⁹⁸⁾ 이런 사실 역시

96) 노종국, 1988, 주58)의 책, 51쪽.

97) 이홍직, 1976, 「백제건국설화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의연구』 수록, 321-327쪽.
김태식, 2001, 주75)의 책, 73-76쪽.

98) 이에 대해 말갈이 낙랑의 부흥세력으로 백제를 침공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이강래, 1985, 주64)의 논문.

천도에 따른 낙랑과 백제의 군사적 갈등관계가 해소된 데에 주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백제의 대외관계사로 미루어 하북위례성에 하남위례성으로의 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하북위례성의 위치를 비정해 보자. 앞에서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문헌사학자들은 하북위례성을 인정하면서, 그 위치를 삼각산록 일대, 세검정 일대, 중량천 부근 등과 같이 현재 서울의 강북지역에 비정하고 있다. 그런데, 백제본기에 기록된 천도의 직접적인 배경은 낙랑과 말갈의 군사적 위협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한수 이북에서 한수 이남으로 천도는 쉽게 수공이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사에서 천도는 적어도 특정의 대하천 유역원에서 또 다른 유역권으로의 공간적 이동으로 일반화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천도의 배경이 낙랑과 말갈의 군사적 위협에 있었던 자명한 사실로 미루어, 한수 이북에서 한수 이남으로의 천도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북위례성의 존재가 인정되고, 또한 그 위치가 지금의 강북지역이 아니라 한다면, 과연 하북위례성은 어떤 곳에 비정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낙랑과 접경할 수 있는 지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럴 경우 자연히 지금의 임진강유역이 비정될 수 있다. 낙랑의 치소가 예성강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백제와 낙랑의 접경은 예성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히 백제의 배후 중심지는 임진강일 수밖에 없다.⁹⁹⁾

이상과 같은 결론은 앞에서 상론한 바와 같이 임진강 유역에 고구려계 무덤인 적석총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그 중에서 연천 학곡리 적석총과 같은 가장 선형형식이 확인되는 고고학적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또한 천도 이후에도 북부 출신의 해씨와 진씨 집단이 백제 왕실과는 밀접한 정치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앙정계에 진출하고 있는 사실과 함께, 해씨집단이 백제왕실과 함께 남하한 고구려 유이민 집단인 사실도 위의 결론을 문헌적으로 입증한다. 그런 한편으로 낙랑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마한의 영도세력이 대낙랑방어를 위하여, 군사적 역량이 뛰어난 유이민집단에 임진강유역을 할애하여¹⁰⁰⁾ 북방방어를 일임하였을 가능성 역시 위의 결론을 보강한다.¹⁰¹⁾

그러면 임진강 유역의 어디가 하북위례성으로 비정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이 글에서는 일단 파주 주월리 유적이 위치한 육계토성 일대를 지목코자 한다.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

99) 아마 百濟의 모태가 되는 十濟단계는 임진강유역에 온조세력이 정착했을 때의 정치적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당시 온조세력이 정치적 영향력이 단지 임진강수계에 한정된 까닭에 百濟가 아닌 십제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100) 『삼국사기』백제본기 온조왕 24년조.

*王作熊川柵 馬韓王遣使責讓曰 王初渡河 無所容足 吾割東北一百里之地安之 其待王不爲不厚 宜思有以報之”

101) 이는 위만조선의 성립과 비견되는 바로, 고대사회에서 군사적 역량이 뛰어난 유이민 집단에 군사거점의 일부지역을 할애하고, 그곳을 자치적으로 통치케 하는 정치행위가 일반적이었던 사실을 통해 추측 가능하다. 이런 시각의 연장에서, 안악지방의 동수세력을 고구려가 대백제세력의 방어를 위하여 받아들인 귀화세력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을 들 수 있다. 우선, 육계토성의 입지적 조건이 하남 위례성이 분명한 풍납토성의 그것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①河中島에 입지하고 있는 점, ② 도강이 가장 용이한 교통로의 중심에 자리한 점, ③ 평지성인 토성이면서 청야수성을 위한 산성을 배후에 두고 있는 점 ④ 인접한 지역에 적석총이 분포하고 있는 점, ⑤ 토성 내에서 대단위의 취락유적이 확인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입지상의 특징은 고구려 集安의 공간배치와도 예외 없이 일치하고 있다. 즉 육계토성 일대의 공간배치구조는 고구려와 백제의 왕성인 국내성과 하남위례성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육계토성의 공간배치는 고구려 왕도의 그것이 반영된 한편, 하남위례성의 모범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결론적으로 육계토성을 하북위례성으로 비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런 결론은 육계토성이 이후에도 북부세력의 치소로¹⁰²⁾ 비정될 만큼 임진강유역의 정치적 중심지로 인정되고 있는 점,¹⁰³⁾ 遷都 배경이 말갈과 낙랑의 잦은 침입이라는 사실과 육계토성일대가 북방세력의 주된 침공로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잘 부합하는 점, 육계토성 내에 자리한 파주 주월리주거지에서 발굴된 유물의 성격에서 고구려계통의 토기와 철기가 다수 확인되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적 색채가 고구려에 가까운 점 등으로도 방증된다.

3. 초기백제의 영역

정리1에서 백제적석총의 분포는 임진강·한강 유역에만 분포하며, 그것도 지류가 아닌 본류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또 그 피장자의 출자는 고구려 유이민 집단인 점도 검토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는 초기백제사와 관련하여, 적석총의 분포는 초기백제의 강역이라는 도식적 결론을 이끌어 내게 한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고고자료를 통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초기백제사의 영역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고대사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인 온조왕 13년조의 백제의 세력범위에 관한 포괄적인 언급이다. 이 기사에서 초기백제의 영역을 북으로는 溟河, 남으로는 熊川, 서로는 大海, 동으로는 走壤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하였다.¹⁰⁴⁾ 그리고 그 기년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상기 기사를 3세기 중엽 고이왕대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¹⁰⁵⁾ 더 나아가 溟河는 예성강, 走壤은 춘천, 大

102) 정재윤, 2002, 주56)의 발표문, 25쪽.

103) 이는 오녀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환인지역이 국내성으로 천도한 이유에도 정치군사적으로 중시되었던 사실과도 부합한다.

104)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3년조

“八月 遣使馬韓告遷都 遂 定疆 北至溟河 南限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 九月 立城關”

105)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476-477쪽.

洋은 서해, 熊川은 안성천으로 비정하였다. 물론 온조세력이 천도와 함께 이 기록과 같은 광대한 강역을 획정하였던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¹⁰⁶⁾ 그러나 현재까지 자료를 통하여 볼 때 기원후 100년을 전후한 시점에 백제가 한강 및 임진강 본류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영역을 확보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 이유는 앞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석총의 출현이 늦어도 기원후 100년을 전후한 시점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와 함께 백제중앙의 주거양식인 '풍납동식주거지'가 임진강·한강수계로 확산한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점을 기하여 백제의 교전상대가 낙랑·마한·말갈에서 신라·말갈로 고정되어지는¹⁰⁷⁾ 역사적 사실 역시 주목되기 때문이다. 교전상대의 급격한 변화는 백제의 영역확대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며, 말갈과 신라로 교전상대가 고정되는¹⁰⁸⁾ 현상은 결국 백제가 양국과의 접경지역인 한강·임진강 수계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리고 위치비정과 관련하여 주양이 춘천임이 자명하고, 또한 춘천지방에서 적석총이 발견되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할 때, 溟河는 임진강일 가능성이 훨씬 강하다. 이는 적석총의 집중 분포지역이 임진강 유역인 사실, 낙랑·대방군의 남쪽 계선이 예성강인 사실인 점 등으로도 뒷받침된다. 또한 온조왕 37년조의 기사에서 한수의 동북부락에 흉년이 들어 고구려로 도망하여 간 자가 1천여 호에 달하고 溟水와 帶水 사이는 텅 비어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기록도¹⁰⁹⁾ 좋은 근거가 된다. 이는 38년조에 왕이 위무 차 북으로 패하까지 갔다가 돌아왔다는 기사와 함께,¹¹⁰⁾ 한수(한강)-패하(임진강)-대수(예성강)이라는 연결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다음으로 熊川에 대한 기록이다. 지금까지 백제와 마한과의 관계 속에서 熊川柵의 설치 기사로 미루어 그 남쪽 경계선을 안성천으로 보고, 그에 따라 웅천을 안성천으로 비정하는 것이 정설로 되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서 웅천은 어김없이 錦江으로 비정되어 있다. 이는 웅천이 안성천일 것이라는 막연한 비정에 대해 일말의 의구심을 생기게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웅천을 일단 남한강 상류로 비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남한강 수계의 상류인 평창과 제천지역에 적석총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적석총이 분포하는 춘천지역이 백제의 동쪽 경계인 주양으로, 또 임진

106) 이에 대해서는 온조왕대의 기사를 분해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며, 온조왕대의 기사는 초기백제사에 대한 총론적 성격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종국, 1988, 주58)의 책.

107) 신회권, 2001, 주10)의 논문.

108) 온조왕 대의 전쟁에서 교전상대는 말갈 7, 낙랑 3, 마한 2였으나, 다루왕 대가 되면 신라 6, 말갈 5로, 백제의 교전상대가 신라로 급격히 전환된다.

신형식, 1981, 『삼국사기연구』, 일조각, 121쪽의 표49 참조.

109) 『삼국사기』백제본기 온조왕 37년조.

“至六月乃雨 漢水東北部落饑荒 亡人高句麗者一千餘戶 溟帶之間空無居人”

110) 『삼국사기』백제본기 온조왕 38년조.

“至六月乃雨 漢水東北部落饑荒 亡人高句麗者一千餘戶 溟帶之間空無居人”

강이 백제의 북쪽경계인 패하로 비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그 남계는 적석총이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위치에 비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초기백제의 전쟁에서 찾을 수 있다. 『삼국사기』기사에서 백제는 북쪽과 동쪽으로는 낙랑과 말갈과의 부단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데 비하여, 남으로는 다루왕 35년 이후 신라와 지속적이고도 빈번한 전쟁을 치른다. 이 때부터 백제의 主敵은 말갈이 아닌 신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신라와 전투는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사실들을 감안할 때,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역인 소백산맥 이북의 남한강 상류에 적석총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¹¹¹⁾

한편, 웅천=남한강 상류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삼국사기 초기의 신라와 백제의 전쟁기사에 대한 취신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삼국사기 초기 기사를 부정하는 이병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고대사학자들은 3세기까지의 신라와 백제의 전쟁 기사를 부정하고 있으며, 삼국사기 초기 기사를 취신하는 千寬宇마저도 신라건국세력이 남하과정에서 펼친 전투로 취급하고 있다.¹¹²⁾ 그러나 기원후 100년 전후로 하는 파사왕대를 기점으로 신라는 주변소국에 대한 대대적인 정복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적어도 3세기 이전에는 낙동강 수계를 장악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이 당시의 정복이 영역과 인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가 아닌, 거점지역의 군사적 지배인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신라가 낙동강 상류 지역의 군사거점을 정복하고, 지배세력을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 하에 두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만약 위와 같은 전제가 성립된다면, 2세기에 남한강 상류에 진출한 백제와 낙동강 상류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친 신라가, 소백산맥을 경계로 하여, 부단한 군사적 갈등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삼국사기』에 언급된 신라와 백제의 전쟁기사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웅천을 남한강 상류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된다.

이상으로 적석총의 분포는 곧 초기백제의 강역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그 분포가 군사 거점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즉 임진강유역을 거점으로 대낙랑방어선을 구축하고, 북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대말갈방어선을 구축하였으며, 남한강상류지역을 군사거점으로하여 대신라전을 수행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패하와 웅천의 위치비정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백제의 군사적 요충지를 고려할 때, 패하는 임진강, 웅천은 남한강 상류로 비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강역의 확정 은 적어도 2세기 때에는 완결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111) 이는 6세기 대 신라가 금강 및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면서, 그 군사전략적 요충지인 청원 미천리와 파주 성동리에 신라고분군이 조성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성태, 2002, 「임진강 유역의 신라유적」, 『임진강유역의 고대사회』(인하대박물관 제3회 학술회의 발표요지).

112) 천관우, 1989, 「삼한고 제3부 -삼한의 국가형성-」,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295-287쪽.

4. 백제의 지방통치

적석총이란 어떤 묘제인가. 여기서는 적석총의 독특한 성격을 일단 규정하고 그 분포를 통하여 초기백제의 지방통치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적석총이란 고구려를 대표하는 묘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적석총은 고구려족의 정체성과 배타성, 그리고 우월성을 대변하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4세기 중엽이후 고구려에 벽화고분이라는 이질적인 묘제가 유행하는 시기에도, 고구려 왕실이 적석총을 적어도 5세기말까지 고집하는 것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¹¹³⁾ 이런 현상은 백제왕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판단된다. 바로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서 개로왕의 허묘로 추정되는 방단계단식적석총이 발굴된 사실이¹¹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결국 적석총은 고구려 종족을 대표하는 묘제이며, 고구려인은 자기정체성과 종족적 우월성을 적석총을 통하여 웅변하였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백제적석총 역시 고구려유이민이 중심을 이룬 백제왕실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묘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백제적석총이 백제왕실의 묘제라는 등식이 성립하려면, 기원후 2-3세기대 서울지역에서의 백제적석총의 존재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성백제기의 백제왕실의 묘역은 석촌동고분군 일대 임은 자명하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석촌동고분군에는 3세기 후엽 이후의 방단계단식 적석총만이 남아 있고, 그 이전단계의 무기단식적석총과 기단식적석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실정은 백제초기인 기원전후에서 3세기대까지의 백제 지배세력의 실체와 그 성격을 밝히는 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석촌동고분군에 무기단식·기단식적석총이 존재하였고, 그것도 군집의 형태로 분포하였을 개연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찍이 권오영은 『朝鮮古蹟圖譜』3冊에 石塚으로 분류된 乙塚이 66기나 있었던 사실을 중시하고, 한강수로의 변경 등과 함께 수로에 가까운 초기의 적석총들이 파괴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¹¹⁵⁾ 그리고 石塚 중에는 석촌동고분군에는 현재 남아 있는 방단계단식 적석총 이외에 2-3세기대의 무기단·기단식 적석총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朝鮮古蹟圖譜』의 해설에 葦石의 존재를 강조한 점을 들 수 있다.¹¹⁶⁾ 주지하듯이 무기단식·기단식 적석총과 기단식 적석총의 외형상의 차이는 葦石의 유무에 있는데, 층석을 한 석총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한 기록은 일단 무기단식·기단식 적석총의 존재를 가능케 한다. 둘째로는 무덤주체부의 언급에서 無

113) 장군총을 광개토태왕의 무덤으로 보건, 아니면 장수왕의 무덤으로 보건 평양 천도 이전까지 고구려 왕실은 고유의 묘제인 적석총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114) 조유전, 1991, 주16의 논문, 47-63쪽.

115) 권오영, 1986, 「초기백제의 성장과정에 관한 일고찰」 『한국사론』15, 71쪽.

116) 조선총독부, 1916, 주7의 보고서, 7쪽.

柳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여기서 괄이 없다는 의미는 고구려의 방단계단식 적석총에서 확인되는 정형화된 묘곽 혹은 묘실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무기단식·기단식 적석총의 수혈식 묘곽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로, 이들 석총의 연대에 대하여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고 백제초기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 역시 古塚의 존재를 언급하는 사실로 파악된다. 넷째로, 『朝鮮古蹟圖譜』에서 積石塚 이 아닌 石塚 이라 언급한 사실이 매우 주목된다. 이는 동시기의 조사보고서인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에서는¹¹⁷⁾ 석촌동고분군의 고분을 분류하면서 土塚과 積石塚으로 대별하고 있는데, 여기서 ‘적석총’이란 고구려 적석총과 같은 전형화된 형태를 지닌 할석조의 방단계단식 적석총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그 석재들이 남한산의 巖石과 같은 석질이라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石塚’을 언급하면서 오직 川石의 존재만을 언급한 기술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외에도 ‘적석총’을 언급하면서 원형인지 방형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기단의 존재를 언급한 점, 기단하부에 屏石이 있음도 지적한 점, 그리고 무덤축조에 사용된 석재를 민가담장을 만들기 위해 盜用했기 때문에 적석총의 모양이 작은 봉우리 모양이라고 한 점, 등등은 ‘적석총’은 곧 방단계단식 적석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섯째로 증석봉토분의 존재이다. 이 증석봉토분은 석촌동고분군 발굴조사의 층위상 방단계단식적석총보다는 선행하는 묘제임이 분명하고, 증석의 아이디어는 무기단적석총의 증석시설을 모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발생시기는 3-4세기경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¹¹⁸⁾ 이런 사실은 증석봉토분의 조형이 되는 무기단·기단식 적석총이 적어도 3세기에 석촌동고분군에 존재하였을 개연성을 매우 높게 한다. 왜냐하면, 층위상 증석봉토분이 방형계단식 적석총보다 분명히 하층에 있어, 그것보다는 선행함이 분명하고, 그에 비해 증석이라는 백제적석총의 기본적인 특징을 채용하고 있어 그 조형으로 무기단·기단식 적석총의 동시대 공존을 충분히 상정케 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1910년대까지 석촌동고분군에는 토총과 석총이 있었고, 그 중에서 石塚은 무려 66기나 존재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돌로 만든 무덤인 석총 중에는 무기단식, 기단식, 방단계단식 등의 형식이 존재하였는데, 일인학자들은 방단계단식 적석총을 전형적인 고구려적석총과 형태가 흡사한 까닭에 積石塚 이라 명명한 반면에, 무기단·기단식의 백제적석총에 대해서는 川石으로 이루어진 葦石을 강조하면서 그냥 石塚 이라고만 지칭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과거 석촌동고분군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방단계단식 적석총 이외에도 무기단·기단식 적석총이 밀집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석촌동고분군에는 소위 ‘증석식적석총’이라고 하는 무기단·기단식 적석

117) 朝鮮總督府, 1916,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84-87쪽.

118) 임영진, 1995, 주17)의 논문, 109쪽.

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주장을 재고케 한다. 마지막으로 풍납토성의 존재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풍납토성은 하남위례성이 유력하고, 그 축조시기는 발굴단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할 때, 적어도 2세기 대에는 1차 성벽이 완료되었다. 그렇다면, 王城과 짝을 이룰 고분군이 인접해야 마땅하고, 현재까지 그에 상응하는 고분군은 석촌동고분군이 유일하다.

그러면 백제적석총의 분포양상, 즉 왕도인 하남위례성 주변에 집중적으로 밀집 분포하고, 그에 비해 임진강·북한강·남한강의 군사거점지역에 한정적으로 분포하고, 또 한두기씩 고립분포하는 양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에 대한 해답은 다소 위협스러운 접근이라 생각되지만, 담로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 『梁書』백제전에는 담로제를 소개하면서, 전국 22개 담로에 왕족출신의 자제종족을 分據하였다고 기록하였다.¹¹⁹⁾ 그리고 그 설치시기는 백제에서 중앙집권화가 정비되는 근초고왕대로 보는 견해 등¹²⁰⁾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담로제의 연원은 백제건국 초부터 전승하여 온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¹²¹⁾ 그 원초적인 형태는 백제건국과 궤를 같이 할 가능성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담로제의 기본적인 성격은 백제적석총의 독특한 분포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백제사회에서 적석총은 백제왕실의 정체성과 우월성을 상징하는 무덤이다. 이는 곧 적석총을 축조할 수 있는 고구려유민집단이 배타적 선민의식을 그들의 독특한 묘제양식을 통하여 표현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적석총이 중앙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데에 비하여, 지방의 군사적 거점지역에 매우 제한적으로 확인되는 특징은¹²²⁾ 왕실과 동일한 출자의 자제종족 혹은 친족집단을 군사적 거점에 보내어 분치하였을 가능성이 제시된다. 이런 사실은 온조세력의 남하 이전 임진강과 한강유역은 중심세력이 없는 정치적 공지였던 사실과 함께, 온조세력이 우월한 군사력을 지녔고¹²³⁾ 十臣이라는 친족집단을 거느렸던 사실을 통하여 추측 가능하다. 즉 당시의 역사적 상황으로 볼 때, 온조의 주변지역의 병합과 정복은 백제본기 초기기사의 기록과 같이 급속히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고,¹²⁴⁾ 정복지역에 대한 통치는 『梁書』에 표현된 자제종족 즉 백제왕실과 동일한 출자의 친족집

119) 『梁書』百濟傳.

“號所治城曰固麻，謂邑曰魯，如中國之言郡縣也。其國土有二十二魯，皆以子弟宗族分據之”

120) 노종국, 1988, 주58)의 책, 240-247쪽.

121) 이병도, 1959, 『한국사』고대편, 을유문화사, 547쪽.

122) 이는 초기백제의 지방통치제도인 部制가 일종의 군관구적 성격을 띤 지방구획이라는 양기석의 견해와, 또 部는 지방통치구획으로서 군사행동과 役의 단위였다는 박현숙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양기석, 2000, 주13)의 논문, 190-195쪽.

박현숙, 1996, 『백제 지방통치체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2-52쪽.

123) 이도학, 1995, 『백제 고대국가 연구』, 일지사, 39쪽.

124) 온조세력의 군사적 우월성은 삼국지 위지동이전의 기록에서 쉽게 확인된다. 북방계로 대표되는 고구려는 기마전에 능하여 그 기질이 협약하고 전투에 단련되어 있으며 전쟁하기를 좋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마한은 보전에 능하고 싸우기를 꺼려하며 기마전을 펼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온조세력은 마한의 토착세력에 비하여 월등한 군사력을 지녔던 것으로 파악된다.

단을 파견하여 分置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여기서 초기백제의 지방제도를 담로제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초기백제에 담로제도에 의한 지방관의 파견과 그것을 통한 집권국가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더욱 아니다. 단지 군사거점지역의 지배세력은 왕실과 동일한 출자의 친족집단이었고, 그들과 왕실과는 긴밀한 정치적 유대관계를 지녔던 것으로 파악할 뿐이다. 한편 이 글에서는 초기백제의 지방제도와 관련해서, 그 기본을 部체제로 보는데 동의한다.¹²⁵⁾ 그리고 그 정치적 발전단계는 연맹단계로 파악하고, 그 지배방식은 간접지배로 보고자 한다. 단지, 部 지배세력과 왕실과의 관계는 재지토착세력과 중앙왕실세력이라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양자가 동일한 출자를 지닌 친족집단일 가능성이 크고, 이런 관계가 담로제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할 뿐이다.

한편, 백제적석총은 4세기대 백제의 지방지배방식에 대한 일고의 자료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근초고왕대를 기하여 백제왕실은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방에 대해서는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지배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고 있다.¹²⁶⁾ 그러나 王都와 炭川으로 직접 연결되는 용인 마북리에서 주구목곽묘가 확인되고,¹²⁷⁾ 또 개풍군 장학리에서 방단계단식 적석총이 확인되며,¹²⁸⁾ 원주 법천리에서 횡구식석실분이 발굴조사되고 있어,¹²⁹⁾ 상기의 견해를 전적으로 수용하기 곤란케 한다. 무엇보다도 이들 지방거점의 대형고분의 존재는 4세기 대에도 백제왕실은 재지세력을 완전히 지배하지도 못했고, 지방에 대한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해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케 한다. 즉 복속된 전체 지역에 대한 지방관 파견에 의한 직접지배를 달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개풍 장학리 방단계단식 적석총의 존재로 미루어, 주요 거점지역에 대해서는 친족집단을 파견하여 지배력을 강화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개풍지역이 근초고왕 대에 대고구려방어의 중요한 군사거점지역임을 상기할 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4세기대 백제의 지방지배는 지역적인 편차가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

125) 최근의 연구에서 부체제는 늦어도 2세기 후반 이전에는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어 주목되며, 이 견해를 따를 경우, 초기백제의 지방제도를 부체제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양기석, 2000, 주13)의 논문.

126) 노중국, 1995, 「2. 지방·군사제도」 『한국사-삼국의 정치와 사회 II-백제-』 6, 국사편찬위원회, 181쪽.

127) 최근 백제의 滅島로 비정되는 구성읍 소재지에서 4세기 대의 주구목곽묘가 발굴되었는데, 금장세환이식과 환두대도, 철검, 철부 등의 금속유물과 함께, 직구유견호, 승문타날대형용 등이 부장되었다. 이런 무덤의 존재는 중앙집권력이 강화된 4세기 대에도 백제왕실이 토착의 재지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이룩되지 못하였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5, 「서울 EMSE테크센타 부지내 유적발굴조사」(현장지도위원회의 자료).

128)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6, 주4)의 보고문, 166-171쪽.

129) 송의정·윤형원, 2000, 「法泉里 1」, 국립중앙박물관.

5. 백제국과 마한

주지하듯이 백제본기에는 백제가 이미 1세기 경에 고대국가의 틀을 확립하고 현재의 경기도 충청도 지역을 지배하는 영역국가에 도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에 비해 동이전에는 마한 54개국의 일개의 소국인 伯濟國으로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반된 기록은 초기백제사에 대한 첨예한 의견대립을 야기하고 있으며, 고고유적의 편년에도 심대한 의견차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민감하고도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삼국지』의 기록을 부정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우선, 동이전에 기록된 韓濊强盛이라는 언급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¹³⁰⁾ 마한에 대한 기록에서 곧이 濊를 포함시켜 韓濊强盛이라고 한 것은 韓세력권 속에 예맥계의 또 다른 세력권이¹³¹⁾ 있음을 암시한다. 즉, 마한 속에는 재지세력인 마한세력권과 함께, 또 다른 구심체로서 고구려유이민 세력인 예맥계세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¹³²⁾ 이런 추정은 한수이남과 금강수계에서 한계인 토광묘가 축조되고, 임진강과 한강 수계에서 적석총이 축조되는 사실로 쉽게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토광묘 축조집단은 마한연맹체를, 적석총 축조집단은 백제연맹체를 형성하였고, 각 연맹체의 영도세력은 마한연맹체는 목지국의 진왕, 백제연맹체는 伯濟國의 臣智로 파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삼국시대 전기에 중부지방에는 韓族을 대표하는 마한과 예맥계의 일파인 백제라는 중심세력이 양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성과에 의거할 때, 마한세력은 금강유역의 수계를 중심으로 세력권을 형성하였으며, 백제세력은 임진강·한강수계를 거점으로 세력권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세력권의 획정은 토광묘문화권과 적석총문화권으로 대별할 때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면 왜 동이전 마한조에는 백제국을 마한의 54개 소국 중의 하나로만 기록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韓條에서 소국에 대한 언급은 당시 존재했던 소국들에 대한 병열적 서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기록 속에서 백제연맹체의 영도세력인 백제국에 정치적으로 예속된 소국(지역집단)¹³³⁾도 동일한 별개의 정치집단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동이전에서는 54개국 사이의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런 기록상의 문제점은 백제국을 비롯한 54개국이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한 것으로 오해케 한다. 그러나 3세기 중엽의 기리영전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미 당시에 54개국 사이에도 중심세력과 종속세력이라는 누층적 지배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이전의 백제국은 결코 일개 소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130) 『三國志』 卷30 韓條.

“桓·靈之末 韓濊强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131) 천관우가 말한 바와 같이 여기서 한은 고조선계로 파악되며, 예는 예맥계로 볼 수 있다. 천관우, 1989, 주112)의 책.

132) 위의 책.

133) 원주 법천리 고분군의 축조집단이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백제국이 일개 소국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알아보자. 우선, 동이전의 백제국의 존재에 대한 문제이다. 여기서의 백제국은 기리영 전투를 주도할 만큼 여타의 소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국이었던 사실은 분명하다. 그리고 동이전의 기사에서 대국은 10,000호 이상이라고 언급한 기사는 중요한 키워드라 생각된다.¹³⁴⁾ 『世宗實錄地理志』에 나타난 조선초기 군현의 대소를 보면, 경도 漢城이 17,015호, 평양이 8,125호, 경기가 20,882호에 불과하고, 경기도 중에서 광주목 1,436호, 양주도호부 1,481호 정도이다. 이렇게 10,000호 이상의 지방행정단위는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道 정도의 범위에 해당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³⁵⁾ 이런 사실로 미루어, 3세기 대 백제국의 영역은 결코 지금의 市郡 정도의 소국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적고, 조선시대 경기의 1/2정도의 규모인 사실로 미루어 적어도 지금의 경기북부 지역을 그 영역으로 삼을 정도의 대국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은 고구려의 1나부의 인구는 3-4만명에 불과하고 3세기 대 고구려의 인구가 3만호에 불과한 연구결과와도¹³⁶⁾ 잘 부합된다. 3세기경에 10,000호 규모의 인구를 지닌 국가는 고구려 국력의 1/3정도의 세력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辰韓條에서 대국을 4-5,000家라고 한 사실과도 좋은 대조를 이룬다.¹³⁷⁾ 즉 마한조의 백제국을 대국으로 상정할 때, 삼한을 통털어서 가장 큰 정치세력임을 인식케 한다.

결국, 백제국은 소국일 수 없으며, 10,000호의 호수를 가진 고대국가로 인식될 수 있겠고,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할 경우, 백제본기의 기사 역시 긍정적으로 해석·수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다시 말해, 백제본기의 기록을 쉽게 불신하고, 그 기록 자체를 무시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한강·임진강 유역원 소국의 연맹세력을 영도하는 주체로서, 또 기리영전투를 주도하는¹³⁸⁾ 연맹국가로서의 백제국의 존재는 충분히 상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소국들이 대부분은 왕제왕실과 동일한 출자인 예맥계로 판단되는데, 이들 지역의 중심세력이 백제본기에서는 동부, 서부, 북부, 남부 등으로 기록되었고, 동이전에는 일개 소국으로 기록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백제는 別條로 기록되지 않고, 馬韓條에 일개 소국으로만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것은 백제국 왕실이 고구려유이민인 온조세력과 그 친족집단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파악된다.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확보한 강역이 과거 마한지역에 포함되었고, 그 기층문화가 韓族으로 구성되었고, 토광묘, 타날문토기, 草屋土室(수혈주거)을 기본으로 하는 마한문화권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결국 적석총축조집단은 상층지배집단을 형성하였고, 그들의

134) 『삼국지』권30 한조.

“凡五十餘國。大國萬餘家，小國數千家，總十餘萬戶”

13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2, 『세종장현대왕 실록 24 -지리지1-』.

136) 余昊奎, 『高句麗 初期 那部統治體制的 성립과 운영』, 『韓國史論』27, 45-46쪽.

137) 『삼국지』권30 진한조.

“辰韓 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138) 기리영전투의 주체세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대세론적 입장에서 백제로 보는 견해에 동의한다. 정재윤, 2002, 주56)의 발표문, 18-21쪽.

문화는 외래문화, 특별한 문화인 까닭에 특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삼국지』의 기본적인 서술이 기층문화, 일반화된 문화만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과, 『晉書』에서도 百濟를 別條로 취급하지 않고 여전히 마한조에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로도 방증된다.

IV. 맺음말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초기백제사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온조세력을 위시한 고구려의 남하세력은 졸본지역에서 주몽세력과의 정치적 대립에서 밀려나,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남하를 시작한다. 그들이 쉽게 중부지역으로 도래할 수 있었던 것은 대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국이 전후한의 정권교체의 혼란기였기 때문이며, 토착세력과의 관계는 임진강과 한강 유역이 정치세력의 공지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온조세력의 남하에는 고구려 내에서의 정치적 알력, 중국의 정치적 혼란, 토착세력의 미약 이라는 세가지 요건이 적절히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남하경로는 동해안쪽으로 우회하는 경로보다는 낙랑군의 치소를 우회하면서 예성강을 거치는 서북경로를 택하였으며, 초기정착은 임진강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하북위례성의 존재를 통해서 추측이 가능하며, 임진강유역에 고구려계 무덤인 적석총이 집중 분포하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이렇게 적어도 2세기 이전에 임진강유역에 정착한 온조집단은 낙랑과 말갈의 군사적 위협을 피하여 하남위례성으로 천도하게 된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급격한 영역 팽창을 기하여 적어도 2세기 후반에는 북한강 상류지역과 남한강 상류지역을 점령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정리 1의 적석총 분포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온조왕 13년조의 기록으로도 뒷받침된다. 특히 웅천으로 비정되는 남한강 상류지역의 점령은 신라와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시켜, 이후 부단한 백제와 신라 간 전투의 원인이 된다. 이 역시 삼국사기 초기기사의 신라와 백제간의 전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이렇게 2세기대에 영역국가를 이룬 백제는 점령한 군사거점지역에 자체 종족을 보내어 분치케 하는 봉건적·군관구적 지방지배를 확립하는 동시에, 주변 소국에 대해서는 정치적 복속을 이루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적석총이 한강과 임진강의 본류에만 집중되는 사실과 원주 법천리 고분군으로 대표되는 지역집단의 존재를 통하여 추측되어진다. 그리고 상기의 지방 세력에 대하여 백제본기에는 부로 표현하고 있고, 동이전에선 소국으로 표현하였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남하세력인 백제왕실과 토착세력인 마한세력과의 관계이다. 월등한 군사력을 지닌 온조세력의 남하에 대하여 토착세력은 임진강유역을 할애함으로써 미온적인 평화관계를 유지했으나, 온조세력이 한강이남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그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차령산맥 이남

의 금강유역으로 물러나게 되었다고 파악된다. 이 과정에서 중부지역은 토광묘를 축조하는 집단이 결합한 한세력권과 적석총을 축조하는 집단이 결합한 예맥세력권으로 이분되었으며, 한세력권의 중심세력은 목지국이었고 예맥세력권의 중심세력은 백제국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의 백제국은 임진강 유역의 소국들을 영도하는 세력으로서 왕실의 자제종속이 파견하여 다스리는 4부를 비롯하여 정치적으로 예측된 주변 소국들의 정치군사적 구심점이었다. 그런데 이들 소국과 4부는 동이전의 기록에는 독자적인 정치력을 지닌 독립국으로 백제국과 병렬하고 있지만, 사실은 백제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 하에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백제본기와 동이전의 상치된 기록이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이 글은 임진강·한강 유역에 분포하는 적석총이 백제건국의 주체인 고구려계 남하인의 무덤이라는 확고한 믿음 위에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들 적석총의 분포와 형식, 그리고 축조시기를 검토한 결과, 이들 결론을 초기백제사와 접목시킬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초기백제사와 관련된 제문제를 나름대로 검토해 보았다.

연구결과,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초기기사는 고고학자료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삼국지』 위지동이전의 기록 역시 허상을 전하는 것은 결국 아니었다. 단지 한쪽은 묘비명과 같이 자신들의 선조에 대하여 과대하게 찬양하였고, 다른 한쪽은 19세기 민족지와 같이 특정사회의 역학적이고 구체적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초기백제사와 관련된 문제는 획기적인 문헌자료나 금석문 자료가 등장하지 않는 한, 고고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고고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망되어, 그런 결과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각에서 문헌사와 접목시켜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본고는 연천 학곡리 발굴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초작업으로 작성되었다. 발굴조사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당시 역사상의 복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소박한 소신에서이다. 즉 초기백제사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런 총체적인 시각이 마련될 때에, 고고자료에 대한 해석도 좀 더 정확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였다. 그런 까닭에 고고자료에 대하여 정치한 분석을 게을리 하였다. 또한 문헌사와의 접목에 있어서도 비약과 확대해석이 심하였다. 이 점은 향후 본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구체화시키고 보완 수정할 생각이다. 그리고 제한된 자료를 針小棒大한 점, 역시 인정한다. 그러나 특정유적의 발굴담당자가 그 유적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소견을 피력할 때, 해당유적에 대한 다른 연구자의 이해도 제고하고, 또한 앞으로 학문적 논쟁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고고자료를 통하여 초기백제사와 관련된 매우 미묘한 문제들에 대하여 다소 무모할 정도의 소견을 피력하였다. 이 역시 초기백제사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방식과 다양한 견해가 필요하다는 학문적 입장에서 비롯하였다.

『三國遺事』의 王曆第一과 紀異篇

하 정 용 *

- I. 머리말
- II. 卷第一의 王曆第一과 紀異卷第一
- III. 紀異卷第一과 卷第二의 구분
- IV. 紀異卷第一의 序와 諸篇目
- V. 慶州司首戶長行案과 紀異卷第一

I. 머리말**

『三國遺事』의 原典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板本, 對校, 校勘, 索引 등에 대한 形態的研究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는 典據, 讚, 共有記事 등의 내용적 연구를 들 수 있다. 전자는 형태서지학적인 연구의 성격이 강하며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판본에 대한 검토를 뜻한다. 이에 반해 후자는 내용서지학적인 연구의 성격이 강하며 전거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서책에 인용된 제 사료에 대한 검토를 의미한다. 보통 역사학에서는 후자를 주요대상으로 다루며 엄밀한 의미에서는 역사학이 사료를 다루는 학문으로 사료학이라고 한다면 전자 후자 모두 역사학의 범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삼국사기』 등의 제사서에 대한 형태적, 내용적인 서지학적 검토는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이뤄졌으며, 서지학계에서는 전자의 영역 가운데서 판본에 대한 조사 및 해제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판본에 대한 이해없이 교감학적 연구는 불가능하며 판본에 남아 있는 문헌적 제약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없이 해당 사서의 편집과 간행과정은 밝히기 어려워진다. 이와 같이 서지학이란 제학문의 선도역할을 하지만 서지학이 역사학과 별개의 학문이 아니라는 사실은 극명히 드러난다. 특히 고

* 松廣寺 聖寶博物館 先任研究員

** 본고는 『三國遺事』의 紀異篇について(『佛敎史學研究』45-2, 日本 佛敎史學會, 2002)의 내용을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대사에서 문헌의 부족을 메꿔주는 고고학을 비롯한 민속학 등의 광의의 인류학과 마찬가지로 서지학은 역사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료학으로서 문헌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이와 같은 두가지 연구이외에도 두 개의 영역의 속하지 않는 몇몇 연구테마들 역시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형태적인 연구와 내용적인 연구 공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연구주제 역시 존재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삼국유사』의 제권과 제편목의 구성 즉 체제구성에 대한 연구가 바로 그것일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권과 책은 간행과 관련된 것으로 편목 및 조목은 편집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는 서책의 편집과 간행과정을 알려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진다.

『삼국유사』는 권차로는 권제일에서 권제오까지 편제되어 있다. 그리고 편목으로는 王曆第一로부터 孝善第九까지 편제되어 있어 나름대로 정연한 체제와 성격을 뚜렷이 지니고 있다고 한다.¹⁾ 나아가 그것은 도식적인 틀이 아니라 다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면서도 하나의 주제 의식으로 통합하기 위한 장치의 역할을 한다는 견해마저 제기된 바 있다.²⁾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논의된 체제상의 문제를 일별해보더라도 『三國遺事』를 하나의 정체된 체제하에서 具足하게 撰述된 完書는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는 최남선의 견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三國遺事』를 高僧傳이 아닌 本史에 대한 遺事³⁾ 즉 史書로서의 이해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그 가운데서 史書의 성격으로 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타 高僧傳과는 달리 古朝鮮부터 駕洛國에 이르는 광범위한 歷史的 사건 등을 다루고 있는 紀異라는 篇目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三國遺事』가 지금 우리가 史料로서의 가치를 높게 부여하는 서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三國史記』와는 달리 『三國遺事』가 처음부터 꼭 歷史冊로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견해는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위의 견해가 직접적으로 『三國遺事』의 篇目的 보입과정을 논한 것은 아닐 지라도 『三國遺事』의 史書로의 성격을 紀異가 담보하고 있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紀異의 보입 등을 상정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三國遺事』 篇目구성과 그 보입과정에 대해서는 王曆第一이 보입되었다는 견해와 함께⁵⁾ 溟州五臺山寶賈徒太子傳記條, 五臺山文殊寺石塔記條, 駕洛國記條, 東京興輪寺金堂十聖條 역시 누군가가 참

1) 金煥泰, 1974, 「『三國遺事』의 體制와 그 性格」, 『동국대논문집』 13 ; 1986, 『三國遺事研究論叢集』 I, 白山資料院, 203쪽.

2) 尹柱弼, 1989, 「『三國遺事』의 體制와 主題-「感通」篇의 體制와 구성원리를 中心으로 -」, 『韓國學論集』 15, 漢陽大, 154쪽.

3) 李康來, 1998.12, 「本史와 遺事」 『月雲스님古稀紀念 佛敎學論叢』, 同論叢刊行委員會.

4) 李佑成, 1973, 「討論」, 『한국고전심포지움-三國遺事 研究의 방향과 문제-』 1, 一潮閣, 26쪽.

5) 金相鉉, 1987, 「『三國遺事』의 書誌學的 考察」,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1쪽.

고삼아 적어 놓은 것이 어느덧 본문 속에 편입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견해⁶⁾ 등이 제기된 바 있다. 현단계에 있어서 溟州五臺山寶吡徒太子傳記條 이외의 조목의 경우에는 과연 보입되었는지의 여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보입이라면 결국 撰述 이후에 첨가된 것을 말하는데 그러한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後註 등의 적극적인 증거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전고에서⁷⁾ 위의 몇 개 조목 가운데서 溟州五臺山寶吡徒太子傳記條가 이후에 첨가된 것임이 확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구체적인 검토는 차치하고서라도, 紀異篇 이외의 諸篇目 가운데 어떤 條目的 후대의 편입 가능성을 상정했다는 것만으로도 研究史的으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근래 王曆第一과 紀異卷第一의 鐵圓의 용례의 분석을 통해서 이들의 撰述시기 역시 1310년 이후로 一然과 무관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⁸⁾ 역시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無極이라는 호가 사용된 것은 적어도 一然의 비명이 세워진 1295년 이후의 일로 보인다. 왜냐하면 一然의 비명의 음기에 적힌 淸玠이라는 호는 無極으로 칭하기 전의 舊名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密陽瑩源寺寶鑑國師妙應峇肆에 보이는 바와 같이 無極이라는 自號는 中吳의 異蒙山禪師가 일찍이 「無極兌」을 지어 선박편에 부쳐왔었는데, 국사가 묵묵히 그 의미를 터득하여 스스로 호를 「無極老人」이라 한데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선왕대(1308-1313)에 兩街都僧統에 제수되었으며 大師子王法寶藏海國

6) 李基白, 1987, 「三國遺事의 篇目構成」, 『佛教와 諸科學』, 東國大 出版部, 988쪽.

7) 아래는 필자가 발표한 논문 가운데 「삼국유사」 관련 논저이다.

河廷龍, 1995.11, 「『三國遺事』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條 譯註」, 『普照思想』 9, 普照思想研究院.

河廷龍, 1996.8, 「普覺國師碑銘」, 『普覺國師 一然聖師와 銀海寺』, 銀海寺 一然學研究院.

河廷龍, 1996.12, 「『三國遺事』 校勘에 對한 書誌學的 考察」, 『韓國傳統文化研究』 11,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韓國傳統文化研究所.

河廷龍, 1997.2, 「『三國遺事』 神呪第六 校勘 研究」, 『國學論叢』 2, 慶山大學校 國學研究院.

河廷龍, 1997, 「『三國遺事』 校勘의 意義」, 『三國遺事』 校勘 研究, 新書苑.

河廷龍, 1997.12, 「『三國遺事』의 校勘과 索引」, 『韓國傳統文化研究』 12,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韓國傳統文化研究所.

河廷龍, 1998.3, 「『三國遺事』 古板本の 書誌學的 考察 - 鶴山李仁榮舊藏古板本과 그 筆寫本の 校勘을 中心으로 -」, 『白山學報』 50, 白山學會.

河廷龍, 1998.3, 「『三國遺事』 鶴山李仁榮舊藏古板筆寫本の 書誌學的 考察」, 『白山學報』 50, 白山學會.

河廷龍, 1998.6, 「『三國遺事』 最高本の 刊行時期 - 鶴山趙鍾業所藏古板本을 통한 接近 -」, 『史學研究』 55·56, 韓國史學會.

河廷龍, 1998.12, 「『三國遺事』 某氏所藏古板本考」, 『大藏經의 世界(月雲스님古稀紀念 佛敎學論叢)』, 東國譯經院.

河廷龍, 1998.12, 「『三國遺事』의 編纂과 刊行」, 『先史와 古代』 11, 韓國古代學會.

河廷龍, 1999.12, 「『三國遺事』 所引「古記」考」, 『書誌學報』 23, 韓國書誌學會.

河廷龍, 2001.3, 「『三國遺事』의 讀에 對する 一考察」, 『古代文化』 53-3, 日本(財)古代學協會.

河廷龍, 2001.9, 「『三國遺事』 條目間 有機的 關係」, 『韓國史學史學報』 4, 韓國史學史學會.

河廷龍, 2002.3, 「『三國遺事』의 無極記와 後註」, 『朝鮮古代研究』 3, 日本 朝鮮古代研究刊行會.

河廷龍, 2002.5, 「『三國遺事』 所載 龍의 名稱變化와 그 意味- 密敎의 傳來와 關連해서 -」, 『第1回 韓國佛敎學大會 資料集』, 第1回 韓國佛敎學結集大會.

河廷龍, 2002.6, 「『三國遺事』 神呪第六 惠通降龍條와 新羅密敎」, 『梅堂學報』 7, 梅堂學會, 193~220쪽.

河廷龍, 2002.6, 「『三國遺事』의 編纂과 刊行에 對한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1~196쪽.

河廷龍, 2002.10, 「蓬佐文庫所藏壬申本『三國遺事』と列邑分刊」, 『高麗美術館研究所紀要』 3, 日本京都 高麗美術館研究所.

河廷龍, 2002.12, 「『三國遺事』 所載 山神關係記事의 一考察」, 『韓國의 山岳崇拜와 智異山 聖母天王』, 南原市·全北傳統文化研究所.

8) 李根直, 1998, 「삼국유사 왕력의 편찬성격과 시기」, 『한국사연구』 101집, 한국사연구회.

—이라는 호를 받은 그 즈음에 중국에까지 無極이 이름을 떨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三國遺事』에 보이는 無極記의 존재의 상한시기는 비명이 세워진 1295년의 이후의 일로 아마도 1308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입장에 선다면 『三國遺事』는 적어도 一然에 의해서 撰述된 以後에 無極에 의해서 보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밝힌 바와 같이 無極이후에 부가된 後註의 존재를 고려해 본다면 『三國遺事』내에는 세 개 이상의 서술단층이 존재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장에서는 『三國遺事』 諸篇目の 보입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세 개의 서술단층이 있다면 비록 후대에 편입된 條目이 아니라 篇目は 없었을까에 대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자는 『三國遺事』 諸篇目 및 諸條目の 보입과정의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이는 체재구성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재고찰의 필요가 컸던 卷第一 王曆第一과 紀異卷第一, 紀異卷第一과 卷第二, 紀異卷第一의 序와 紀異篇이라는 세가지 연구주제를 紀異의 序와 古板本과 壬申本の 刊記를 통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卷第一의 王曆第一과 紀異卷第一

『三國遺事』의 卷第一과 王曆第一의 보입의 문제는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기존의 연구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王曆에 대해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시된 견해는 王曆은 원래 독립된 책이었던 것이었는데 편이상 『三國遺事』의 일부분으로 넣은 것이라는 견해일 것이다.⁹⁾ 그 보입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一然의 撰述 이후에 부가된 것으로 본 것이 아닌가 싶다.

이와는 달리 『三國史記』의 編纂年代인 1145년 이전에 이미 王曆第一이 編纂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특히 脫解王의 葬法和 葬地에 대해서 王曆第一과 『三國史記』는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王曆이 一然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으며 뒷사람에 의해서 추가되었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¹⁰⁾ 즉 一然이 『三國史記』를 참고한 흔적은 제편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 즉 본사에 대한 遺事이므로 『三國史記』의 내용과 다른 王曆第一을 一然이 첨가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9) 村上四男, 1975, 「三國遺事解題」 『三國遺事考證上』, 15~16쪽.

10) 강인규, 1987, 「新羅王陵의 再檢討」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03~404쪽.

아마도 이전의 연구대로 一然의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졌던 王曆第一이¹¹⁾ 『三國史記』가 의거한 것과는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編纂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여졌던 때문이¹²⁾ 아닌가 싶다. 다시 말해서 『三國史記』보다 후대에 나왔다면 『三國史記』를 참고했을 것이 분명한데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三國史記』보다 앞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논지전개상 반드시 그렇다고는 기필할 수 없는 점이 노정된다.¹³⁾ 즉 비록 『三國史記』 이후에 王曆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三國史記』를 참고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뿐만아니라 王曆의 경우 『三國遺事』의 諸篇目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더욱 그러하다.

한편 王曆第一의 완성시기는 1310년 이전이며 제편과 王曆을 비교·검토한 후 史料의 표기방법이나 내용, 그리고 史料를 기록하는 撰者의 인식면에서 懸隔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一然이 『三國遺事』를 編纂할 당시에는 王曆이 없었고 紀異篇으로부터 『三國遺事』가 시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즉 王曆第一이 一然 이후에 첨가되었거나 혹은 一然이 王曆을 『三國遺事』의 부록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¹⁴⁾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당사자에 의해서 약간 수정되었다. 즉 王曆第一은 一然과는 무관한 독립된 史書였으나 『三國遺事』의 初刊時에 부록의 성격으로 첨가되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無極에 의하여 첨가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一然에 의하여 수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는 언뜻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견해가 제시된 것이다.¹⁵⁾ 아마도 『三國遺事』와는 무관한 책이지만 一然이 『三國遺事』를 初刊할 때에 집어 넣은 것이라는 식의 도식을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설명해보려고 노력하던 가운데 빚어진 오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제편과 성격을 달리하는 왕력제일을 아무런 설명없이 一然이 보입했을 이유는 찾아지지 않는다. 즉 일연이 역대연표와도 전혀 다른 왕력을 『三國遺事』에 그리고 제편과도 내용이 다른 왕력을 일부러 보입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이점에 있어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기이권제일에 1310년 이후에 사용된 용어의 흔적이 보이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즉 일연 사후인 1310년대의 용어가 왕력제일에 보인다는 것은 왕력제일의 보입시기와 관련하여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위의 견해는 결국 『三國遺事』가 一然의 의해서 初刊되었다는 것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無極의 칭호가 1308년 이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해당 연구자의 다른 견해

11) 崔南善, 1927, 앞의 글.

12) 이기백, 1985, 앞의 글.

13) 고려시대 사화사라는 측면에서 현재 남은 것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대표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삼국유사』가 『삼국사기』를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이라고 하는데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14) 金相鉉, 1985, 「三國遺事 王曆篇의 검토」 『동양학』15, 단국대.

15) 金相鉉, 1987, 「三國遺事의 書誌學的 考察」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1쪽.

와는 약간 상충되어 보인다.¹⁶⁾ 왜냐하면 『三國遺事』는 未刊行되다가 一然 사후에 제자 無極에 의해 初刊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일찍부터 제시된 바 있으며,¹⁷⁾ 無極이 『三國遺事』를 검토하여 刊行한 時期는¹⁸⁾ 一然이 入寂한 지 20년 정도가 지난 1308년 경으로부터 無極이 入寂하는 1322년 사이에 해당하며 대략 1310年代라 할 수 있다는 보다 구체적인 時期設定을 당사자가 개진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결국 『三國遺事』가 初刊된 시기가 一然의 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상당히 모순적인 견해가 하나의 논문안에서 다르게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지원연간에 仁興社에서 刊行된 『歷代年表』가 王曆을 撰述하기 위한 전단계 작업이었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歷代年表』가 包山の 仁興社에서 一然과 그의 門徒들에 의해 완성되는 1278년 이후, 즉 一然의 나이 73~76세 때에 一然이 雲門寺에 주석하면서 서부터 『三國遺事』가 본격적으로 撰述된 것이다.¹⁹⁾ 그러나 필자도 검토한 바, 『歷代年表』와²⁰⁾ 王曆은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²¹⁾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의 주장 모두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견해 가운데 단지 연대연표와 王曆第一과의 관계만을 부인한 것일뿐, 一然과 그의 門徒에 의해 一然이 雲門寺에 주석한 이후에 撰述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부정된 바 없다. 즉 三國遺事 卷第五에 보이는 撰者名인 國尊曹溪宗迦智山下麟角寺住持圓鏡 언 槐渣 菴迂燈 淸; 사명으로서의 인각사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撰述시기의 시작이 인각사라고는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一然 혼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一然의 門徒들이 『三國遺事』의 찬술에 참여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며 실제로 無極記의 주인공인 無極 역시 一然의 門徒 가운데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비록 門徒의인 사업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길은 없으나 적어도 一然 혼자의 작품이 아니라고 본 것은 研究史的인 의의가 크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여러 주장들을 고려해 볼 때, 『三國遺事』의 王曆第一은 보일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상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다 높여주는 것은 다음에 보이는 紀異卷第一의 서일 것이다.

“차례를 정하여 말한다. 대저 옛 성인은 예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베푸는데 있

16) 金相鉉, 1987, 앞의 글.

17) 高橋亨, 1955, 『三國遺事의 註 및 檀君傳說의 發展』 『朝鮮學報』 7, 66~67쪽.

18) 柳鐸一은 一然이 卷子本이나 折帖本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제자 無極이 一然의 堅碑가 끝난 1295년에서 入寂한 1322년 사이에 등재본을 만들어 初刊이 이루어 졌으며, 『三國史記』가 중간될 즈음(1394)에 『三國遺事』가 중간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板本이 아닌 跋文에 대한 확대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셈이다. (柳鐸一, 앞의 글, 270쪽)

19) 蔡尙植, 1986, 「至元 15年(1278) 仁興社刊 『歷代年表』와 三國遺事」 『高麗史의 諸問題』(邊太燮編著), 三英社, 682~692쪽; 1991, 『高麗後期佛敎史研究』 一潮閣, 154~180쪽에 재수록.

20) 이 과정에서 검토한 역대연표는 당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박상국 실장의 호의를 통해서 입수한 것이다.

21) 金相鉉, 1985, 앞의 글, 229~231쪽.

李根直, 1997, 『三國遺事의 피휘례 연구』 『三國遺事校勘研究』, 신서원, 539쪽.

어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나는데 있어서는 부명에 응하거나 도록을 받아 반드시 남보다 신이함이 있는 연후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고 대기를 잡고 대업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黃河에서 도를 내고 洛水에서 서를 내어 성인이 일어났다. 무지개이 신모를 휘어감아 복희를 낳았으며 용이 여등과 감응하여 염제를 낳았으며 황아가 궁상의 들에서 놀다가 자칭 百濟의 아들이라는 신동과 교통하여 소호를 낳았다. 간적이 알을 삼켜서 설을 낳았으며 강원이 발자국을 밟아 기를 낳았다. 잉태된지 십사개월만에 요를 낳았으며 용이 대택에서 교합하여 패공을 낳았다. 이후의 일들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三國의 시조가 모두 신이에서 나타난 것이 어찌 괴이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紀異가 제편의 앞에 나온 것은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²²⁾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此紀異之所以漸諸篇也’이라는 대목은 적어도 紀異篇이 『三國遺事』의 첫 篇目임을 말하고 있다.²³⁾ 그렇다면 적어도 紀異篇을 제일 첫 번째 篇目으로 할 경우 王曆第一이 그 앞에 올 것을 몰랐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現存하는 『三國遺事』에는 王曆第一이 紀異卷第一의 앞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王曆第一은 하나의 篇目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王曆第一을 부록으로 본 견해도 제시된 바가 없지는 않으나 상식적으로 부록은 본문의 앞에 나오지 않는다. 또한 부록이라면 본문의 내용을 보충해 주는 내용이지 본문의 내용과 상충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王曆第一의 내용은 『三國遺事』의 여타 諸篇目과 여러 측면에서 서술상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王曆第一을 부록정도로 보는 데는 재고를 요하고 싶다. 또한 王曆第一은 목차라고도 할 수 없다. 『三國遺事』의 諸條目이 나열된 것도 아니고 그 내용에 안보이는 『三國遺事』의 諸條目的 명칭을 셀 수조차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三國遺事』의 刊行에 있어서 王曆第一은 엄연히 하나의 篇目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즉 적어도 王曆第一이라는 명칭으로 볼 때 후대의 編纂者 또는 刊行者가 하나의 篇目으로 인정하여 넣은 것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입장에 선다면 編纂상의 문제인지 간행상의 문제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즉 編纂시 왕력이 보임된 것인지 간행시

22) 叙曰 大抵古之聖人，方其禮樂興邦，仁義設教，則怪力亂神，在所不語，然而帝王之將興也，膺符命受圖，必有以異於人者，然後能乘大變，握大器，成大業也，故河出圖洛出書而聖人作，以至虹繞神母而誕羲，龍感女登而注炎，皇娥遊窮桑之野，有神童自稱白帝子，交通而生小昊，簡狄吞卵而生契，姜嫄履跡而生，胎孕十四月而生堯，龍交大澤而生沛公，自此而降，豈可記！然則三國之始祖，皆發乎神異，何足怪哉！此紀異之所以漸諸篇也，意在斯焉。

23) 紀異卷第一 앞에 서명이 없는 것은 그가 권수가 아님을 말한다는 해석도 제시된 바 있다.(崔南善, 1927, 앞의 글.)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명의 존재는 刊行상의 문제일 뿐이다. 즉 刊行에 앞서 王曆第一이 보임되었다면 당연히 王曆第一앞에 서명이 적히는 것은 재고의 여지도 없는 사실이다.

보입된 것인지에 대해서 고찰해봐야 한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왕력의 編纂과 刊行에 門徒들이 과연 간여했는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王曆과 紀異篇의 後百濟甄萱條에서 鐵原이 확인되고 있음은 『三國遺事』의 初刊本이 완성된 시점은 1310년 이후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王曆을 포함하는 『三國遺事』의 제편은 一然이 생존하던 1289년 이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一然과 無極으로 대표되는 그의 門徒들의 노력에 의해 1310년 이후에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상정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²⁴⁾ 그러므로 이미 현대에서 『三國遺事』가 一然이라는 단지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여겨진다. 문제는 門徒들이 어느정도 간여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梁高僧傳』, 『唐高僧傳』 그리고 『宋高僧傳』 이른바 三高僧傳의 편재에도²⁵⁾ 없는 것이 바로 王曆第一이다. 물론 부록으로도 목차로도 王曆第一과 같은 篇目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歷代年表와 王曆第一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一然門徒에 의해 歷代年表가 改版된 것이 1278년으로 一然이 雲門寺로 옮겨간 뒤 1년 뒤의 일이 된다. 만약 雲門寺로 가면서부터 『三國遺事』의 撰述이 시작되었다면 그리고 『三國遺事』의 예비작업으로 歷代年表가 작성되었다면 『三國遺事』에는 歷代年表가 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三國遺事』에는 王曆第一이 실려 있으며 王曆第一의 내용이 歷代年表와 다르다는 것은 王曆을 一然의 門徒가 쓰지 않았다는 것을 내용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²⁶⁾

이와 같이 歷代年表와 一然門徒가 관계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三國遺事』에 실리지 않았다는 것은 적어도 王曆의 編纂 및 『三國遺事』의 刊行에 一然의 門徒가 간여되지 않은 증거가 된다. 一然의 門徒가 『三國遺事』를 一然 또는 無極의 대에 刊行했다고 한다면 王曆第一과 같은 연표를 실으면서 歷代年表를 실지 않고 『三國遺事』와는 내용도 같지 않은 王曆第一을 실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三國遺事』에 歷代年表를 참고한 듯한 흔적이 여러군데서 보인다는 견해가 사실이라면²⁷⁾ 一然 사후 刊行된 『三國遺事』에 門徒들이 간여했을 경우 歷代年表를 실었을 것이 확실하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諸篇目과 많은 부분에서 불일치하고 있는 王曆을 일부러 함께 편재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王曆第一은 一然門徒와는 무관할 듯이 보이며, 王曆

24) 이근직, 1998, 「삼국유사 왕력의 편찬성격과 시기」 『한국사연구』 101집, 한국사연구회.

25) 梁高僧傳 譯經 義解 神異 習禪 明律 亡身 誦經 興福 經師 唱導
唐高僧傳 譯經 義解 習禪 明律 護法 感通 遺身 讀誦 興福 雜科聲德
宋高僧傳 譯經 義解 習禪 明律 護法 感通 遺身 讀誦 興福 雜科聲德

26) 金相鉉, 1985, 「三國遺事 王曆篇 檢討-王曆 撰者에 대한 疑問-」 『東洋學』 15, 檀國大, 321쪽.

27) 金相鉉, 앞의 글, 319쪽.

이 刊行에 즈음하여 보입되었다면 그러한 『三國遺事』의 刊行 역시 一然의 門徒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三國遺事』의 판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三國遺事卷第一 王曆第一의 끝에는 여타권차와는 달리 ‘三國遺事卷第一’로 끝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三國遺事卷第二의 맨 마지막에는 三國遺事卷第二라는 卷號가 적혀 있다. 물론 이러한 원칙은 卷第五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다만 卷第一만은 예외이며 卷第一의 권호는 紀異卷第一의 뒤에 보인다. 즉 권차는 刊行상의 문제이므로 刊行시 王曆第一은 일단 卷第一에 포함된 듯하다. 다시말해서 간행시에 있어서 왕력은 판심으로 볼 때는 卷第一의 한 篇目으로 인정되어 보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王曆第一과 紀異卷第一의 판심의 차수는 다른 篇目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卷第三의 興法第三과 塔像의 경우 판심의 차수는 그대로 연속된다. 또한 卷第五의 神呪第六 및 感通第七의 경우 역시 판심의 차수는 그대로 연속된다. 즉 신주제육의 마지막 엽수에 대해서 판심은 5라는 차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 감통제칠의 첫 엽수에 대해서는 판심은 6이라는 차수를 기록하고 있어 한 권에서 비록 편목은 다르더라도 판심의 차수는 연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三國遺事』의 권제이부터 권제오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같은 卷第一 안에서 王曆第一과 紀異卷第一만은 연속되지 않고 紀異卷第一이 시작되면서 판심의 차수가 리넘버링된다. 즉 왕력제일의 경우 권제일의 15이지만 같은 권제일의 기이권제일의 경우는 권제일의 1로 다시 판심의 차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序文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紀異卷第一로부터 시작되는 『三國遺事』의 刊行에 즈음하여 王曆第一이 갑작스럽게 보입된 것이 아닌가 싶다. 원래부터 卷第一에 王曆第一이 紀異卷第一 앞에 있었다면 紀異卷第一부터 새롭게 차수를 매길 이유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王曆第一을 엽두에 두지 않은 紀異卷第一의 序文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이권제일의 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왕력제일은 보입되지도 않았으며 보입될 예정도 아니었다.

이제 王曆의 보입이 編纂時인지 刊行時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編纂時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編輯計劃에 王曆第一이 들어 있었던 것을 말한다. 물론 編纂의 시점이라는 것은 『三國遺事』의 서술단층을 고려해 볼 때 一然의 생시라고 고집할 수는 없다. 한편 刊行時라고 하는 것은 編輯과는 무관하게 刊行에 즈음하여 보입된 것을 말한다. 어느 쪽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의 네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編纂時 王曆第一과 紀異卷第一이 함께 있었을 것을 경우이다. 이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王曆은 부록도 아니며 본문과도 내용이 상충된다. 그러므로 王曆第一을 엽두에 두지 않은 紀異卷第一의 서와 모순되므로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둘째, 編纂時에 王曆第一이 있었고 刊行시에 紀異卷第一이 보입되었을 경우이다. 이 경우 역시 紀異卷第一의 서를 고려해 볼 때 王曆第一의 다음에 紀異卷第一을 집어 넣는 것은 모순되므로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셋째, 編纂時에 紀異卷第一이 있었고 刊行시에 王曆第一이 보입되었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개연성이 상정된다.

마지막으로 編纂時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가 王曆第一과 紀異卷第一을 함께번에 보입했을 경우이다. 이 경우라면 王曆第一의 뒤에 나오는 紀異卷第一에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紀異卷第一의 서를 붙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²⁸⁾

정리하자면 결국 編纂상으로는 篇目이 되지 못한 王曆第一이 刊行시에는 篇目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紀異卷第一의 판심의 차수를 고려하여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編纂과정과 무관하게 刊行에 즈음하여 王曆第一이 급작스럽게 보입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紀異卷第一과 卷第二의 구분

『三國遺事』의 篇目상에 있어서 紀異卷第一이라고 한 것은 紀異가 제이에 해당되면서도 그 분량이 많아서 2권으로 나누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紀異篇 중에서 제1권이 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붙인 것이 아닌가 한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²⁹⁾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표제상에 있어서 三國遺事卷第二 역시 紀異卷第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 紀異篇은 紀異卷第一과 卷第二로 나뉘어 있다. 결국 『三國遺事』에 있어서 紀異卷第一이라는 篇目名 자체가 매우 독특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게 된다.

분량으로 볼 때 王曆第一은 30葉, 紀異卷第一은 110葉, 卷第二는 98엽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王曆第一과 紀異卷第一은 三國遺事卷第一로 보고 이를 三國遺事卷第二와 비교해 본다면 140 : 98이 된다. 거의 42葉의 커다란 분량상의 차이가 보여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권차는 刊行에 있어서 분량상의 구분을 의미한다. 그러한 입장에서 역시 42葉이라는 차이는 적지 않은 차이라고 여겨진다. 다른 권과는 달리 기이권제일과 권제이의 경우는 내용상 기이편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

28) 물론 刊行에 즈음하여 紀異卷第一을 보입하고 그 이후에 王曆第一을 추가로 보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세 번째 경우의 순서와는 일치하며, 나아가 『三國遺事』의 서술단층이 적어도 세 개 이상 존재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어느 서술단계에서 보입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상 세 번째 경우와 구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9) 金煥泰, 1974, 『三國遺事の體制와 그性格』 『동국대논문집』 13, 동국대학교; 1986, 『三國遺事研究論選集』 I, 白山資料院, 200쪽.

므로 다른 편목의 다른 권과는 달리 같은 기이편의 두권의 분량상의 차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권 자체가 분량상의 차이로 나뉘지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 선다면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王曆第一은 후대에 卷第一에 보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王曆第一은 제외한다면 紀異卷第一과 卷第二의 분량은 110 : 98이 되며 거의 비슷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분량으로 볼 때도 王曆第一은 간행에 즈음하여 卷第一의 한 篇目으로 보입되었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王曆第一이 후대에 보입된 것이라고 할 때 紀異卷第一과 卷第二는 원래 卷第一紀異제일, 卷第二紀異第二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王曆의 보입에 즈음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이 요구되었고 卷第三 興法第三 이후와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卷第一王曆第一이라고 했을 것이다. 다음 紀異를 卷第二로 해서 紀異第二로 했어야 했으나 분량이 적은 王曆第一과 紀異를 같은 卷第一에 넣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三國遺事卷第一紀異第二가 아닌 紀異卷第一이라는 篇目명이 된 것이다. 처음부터 王曆第一이 있었다면 紀異卷第一이라는 특이한 篇目名은 『三國遺事』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三國遺事 王曆第一에는 新羅史를 시기구분하는 용어로서 上古, 中古(法興王부터), 下古라는 용어가 보인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마지막 시기라고 할 수 있는 下古는 太宗武烈王 즉 春秋公代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卷第二는 太宗武烈王이 아닌 文虎王法敏으로부터 시작된다. 결국 王曆第一의 시대구분이 紀異篇에 반영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역시 王曆第一과 紀異의 무관함을 밝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싶다.

이제 어떠한 기준으로 紀異卷第一과 卷第二를 나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紀異卷第一과 卷第二는 異의 종교사상적 성격을 달리하고 歷史的으로 三國통일을 기점으로 구분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시된 바 있다. 즉 도가의 초월적 의미로서의 이와 유가의 神氣사상을 바탕으로한 이번(조짐)의 이로 그 篇目이 구별된다는 것이다.³⁰⁾ 같은 紀異篇 안에 두 권이 그 紀異의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접근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러한 다른 성격의 기이가 그다지 쉽게 양별되지 못하고 있기에 그러한 의견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 또한 梁會稽嘉祥寺沙門釋慧皎撰의 梁高僧傳 등의 諸高僧傳의 篇目들을 고려해 보더라도,³¹⁾ 권차는 역시 刊行상의 문제로서 단지 분량에 의해서 나뉘진 것일 뿐이기 더욱 그러하다.

30) 조수학, 1995.12, 「三國遺事(紀異)卷第二의 설정이유」 『대동한문화』 31, 131쪽.

31) 高僧傳卷第一 譯經上, 高僧傳卷第二 譯經中, 高僧傳卷第三 譯經下, 高僧傳卷第四 義解一, 高僧傳卷第五 義解二, 高僧傳卷第九 神異上.....

한편 『삼국유사』에서는 삼국통일을 기점으로 기이를 구분한 것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물론 문무왕으로부터 三國의 통일이 이뤄졌으므로 그 구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조차 배제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문무왕 즉 문호왕법민조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문무왕의 三國통일에 대한 의의 등은 전혀 강조되지 않았으며, 명랑, 천왕사, 거득공의 얘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三國遺事』의 기이편이 三國통일을 중심으로 구분되었다는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新羅以前 또는 以外	新 羅	新羅以外 또는 以後
紀異卷第一	古朝鮮「王儉朝鮮, 衛滿朝鮮, 馬韓, 二府, 七十八國, 樂浪國, 北帶方, 南帶方, 靺鞨, 渤海, 伊西國, 五伽耶, 北扶餘, 東扶餘, 高句麗, 卞韓, 百濟, 辰韓, 又四節遊宅	新羅始祖赫居世王, 第二南解王, 第三訶禮王, 第四脫解王, 金閼智, 脫解王代, 延烏郎, 細烏女, 未鄒王, 竹葉軍, 奈勿王, 朴堤上, 第十八實聖王, 射琴匣, 智哲老王, 眞興王, 桃花女, 鼻荊郎, 天賜玉帶, 善德女王, 知幾三事, 眞德王, 金庾信, 太宗春秋公, 長春郎, 罷郎,	
卷第二		文虎王, 法敏, 万波息笛, 孝昭王, 代竹旨郎, 聖德王, 水路夫人, 孝成王, 景德王, 忠談師, 表訓, 大德, 惠恭王, 元聖大王, 早雪, 興德王, 鸚鵡, 神武大王, 閻長, 弓巴, 第四十八景文大王, 處容郎, 望海寺, 眞聖女, 大王, 居陀知, 孝恭王, 景明王, 景哀王, 金傳大王,	南扶餘, 前百濟, 武王, 後百濟, 甄萱, 駕洛國記

또한 紀異卷第一과 卷第二의 條目명들을 조사해보면, 紀異篇은 대략적으로는 시대순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 위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은 약간의 논의가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권제이의 뒷부분은 후대에 급조된 듯한 느낌마저 들게 된다. 여하튼 앞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紀異篇의 諸條目등은 세계의 층위 즉 新羅이외 또는 이전, 新羅, 新羅以外 또는 이후로 이뤄져 있다. 어느 정도 일관성이 보이는 듯하나 條目명만을 보더라도 분명 미완성적인 모습이 보인다. 예를 들어, 전왕이 모두 소개된 것도 아니며, 왕대와는 다른 명칭이 제목이 된 바도 있으며, 新羅를 중심으로 한 앞뒤의 부분의 분량이 新羅의 그것과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외에도 각 條目的 분량의 차이도 상당하다.

결국 『三國遺事』의 紀異篇은 분량상의 이유로 紀異卷第一과 卷第二로 나뉘었으며, 후대의 王曆第一의 보입에 따라 紀異卷第一이라는 독특한 篇目名과 함께 서가 紀異卷第一의 앞에만 존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IV. 紀異卷第一의 序와 諸篇目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紀異卷第一의 序를 자세히 읽어보면 現存하는 『三國遺事』 아니 紀異篇의 撰述 당시에 세상에는 三國의 시조가 모두 신이롭게 나투신 것에 대하여 괴이하다는 평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화에 대한 이해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유교적인 인식론 위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와 같은 평가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紀異는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으며 그 결과 『三國遺事』에는 紀異篇을 실었으며 그것도 맨 앞에 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紀異卷第一의 序는 『三國遺事』 전체의 序文이 아니다. 즉 『三國遺事』의 編纂목적 등을 밝힌 『三國遺事』 전체에 대한 序文이 아니라 단지 紀異篇을 왜 실었으며 그리고 왜 제편의 맨앞에 편재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紀異篇의 序文의 성격이 강하다. 紀異卷第一의 序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紀異篇이 제편의 앞으로 나온 것은 紀異篇과 제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紀異卷第一의 序가 王曆第一은 제외한 것이라고 할 때, 紀異를 興法, 塔像 등의 諸篇目の 앞에 두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 바로 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王曆과 紀異를 제외한 諸篇目を 살펴볼 때 흥미로운 것은 과연 제편에는 기이편의 서에서 말한 신이적 성격이 없는가라는 점이다. 굳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없이 紀異뿐만 아니라 『三國遺事』의 諸篇目은 분명히 신이적 요소가 가득하다. 결국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紀異의 서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신이적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편보다 紀異篇이 신이적 요소가 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三國遺事』의 二冊에는 一冊보다 神異事가 만재하다.

결국 篇目으로서의 紀異가 二冊의 제편 즉 興法第三, 塔像, 義解第五, 神呪第六, 感通第七, 避隱第八, 孝善第九와는 다른 성격의 신이적 요소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前攷에서 밝힌 바와 같이, 二冊이 가지고 있는 佛敎的 요소와는 다른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결국 紀異편의 신이의 성격은 이미 제시된 바와 같이, 道敎적이나 유교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佛敎의인 성격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문화적인 내용이 강한 二冊에 비해서는 그 성격이 덜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紀異의 序는 紀異篇과 二冊의 여타 篇目を 이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이편에만 神異事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편에도 神異事가 있는 것은 확실하므로 기이편의 서에서 말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篇目으로서의 紀異만을 염두에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가지 의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편에도 신이사가 있는데 왜 紀異篇에만 서가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다시말해서 다른 篇目에는 없는 서가 왜 紀異篇의 앞에만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는 佛敎的 신이를 담은 二冊의 諸篇目보다 앞서 특별히 紀異篇을 편재하는 그러한 編輯과정이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여겨진다. 그렇지 않고서야 紀異에만 서가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紀異篇의 撰述연대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王曆第一의 보입에 앞서 편재되어 있던 紀異篇의 後百濟甄萱條가 1310년 이후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³²⁾ 물론 紀異篇의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확언할 수 없다. 그렇지만 紀異篇의 한 條目이나마 1310年代 이후의 모습이 발견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것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얼마 안되는 분량에 대한 내적인 史料 批判을 통해서 撰述연대를 파악해 낼 수 있는 문헌적인 양상은 극히 일부분에 속하다. 그리고 그러한 문헌적인 양상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지난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단계에서 비록 한 예에 지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의의는 매우 크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비록 그러한 의의는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紀異篇 전체가 1310年代 이후에 撰述되었다고는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특히 『三國遺事』 내에 발견되는 後註의 존재를 살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즉 일연 단계의 『三國遺事』에 없던 조목이 후대에 보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現存하는 『三國遺事』 紀異篇의 撰述은 적어도 無極대 이전에는 완수된 것으로 일단은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의 조목을 비롯한 몇개의 條目的 보입과정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별다른 용례가 추가발견되지 않는 한 一然에 의해서 기이편이 거의 완성되었고 이후에 無極 또는 기타 인물에 의해서 일부 篇目이 삽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추론이 될 것이다.

3장에서 상론되었지만, 천사옥대조의 찬은 황룡사탑조에서 옮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견해가 맞는 것이라면 紀異에는 찬이 없었다는 것을 말한다. 찬이 없는 紀異는 여타 條目과는 분명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거의 대부분의 條目に 찬이 존재하는 卷第三 興法第三으로부터 『三國遺事』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안한 바 있다. 만약 이가 맞는다면 紀異의 序의 의미는 보다 명확해 진다. 아마도 一然에 의해서 卷第三부터 卷第五에 이르는 現存하는 『三國遺事』의 二冊 부분이 대개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佛敎的인 신이 뿐만아니라 불교적이지 않은 신이사 역시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一然 또는 『三國遺事』의 기타 撰述자들이³³⁾

32) 李根直, 앞의 글.

33) 물론 無極이나 기타 一然의 門徒들에 의해서 紀異의 序가 작성되거나 紀異의 일부분이 撰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無極의 경우 반드시인지는 몰라도 “無極記粹述 附記가 분명 적혀 있었을 것이므로 가능성은 적어진다. 卷第五에만 一然이라는 撰者名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紀異篇은 一然대에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

기이편의 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당시에 팽배해있던 사대부들의 신화적 내용에 대한 인식 또는 정서에 맞추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歷史를 잘 모르는 승려들을 위하여 중국적인 神異事들을 추려내어 紀異篇을 구성했을 것이다. 물론 前攷에서 밝힌 바와 같이, 皇龍寺九層塔條와 같이, 『三國遺事』의 여타 篇目 또는 條目에서 紀異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려내기한 것도 없지 않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三國遺事』가 史書的인 編纂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紀異篇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歷史的인 소양이 부족하다고 여겨졌을지도 모르는 승려들을 위해서 一然이 여타 高僧傳에도 없는 紀異篇을 만들면서까지 우리나라 三國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켜주려고 했을 것이다. 물론 三國遺事 卷第三부터 卷第五까지 이르는 부분에 대한 간략하나마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新羅史를 중심으로하는 우리나라 三國의 歷史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바로 『三國遺事』의 紀異라고 여겨진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一然의 생전에 現存하는 紀異篇 전부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이를 無極을 비롯한 후대의 누군가가 천사옥대조 등을 再編輯하고 후백제견원조 등을 보입하여 결국 紀異篇을 완성시킨 것이 아닌가 싶다.

한편 『三國遺事』의 編纂 배경에 대해서 다음의 기사 즉 『三國遺事』 壬申本에 말미에 있는 李繼福의 跋文이 참고가 된다.

“우리 동방 三國의 본사·遺事의 두 책은 다른 곳에서는 새겨진 일이 없고, 다만 본 부에서만 새겨졌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 문드러지고 떨어져나가 한 줄에서 겨우 네 다섯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내 생각컨대 선비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歷史책을 두루 읽어 천하의 치란 흥망과 여러 신이 한 자취까지도 오히려 널리 알고자 하는데 하물며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 일을 몰라야 되겠는가? 그리하여 다시 刊行하고자 하여 원본을 널리 구하였으나 몇 년이 지나도 얻지 못했다. 그 책이 일찍이 세상에 돌아 다닌 것이 드물고, 사람들이 쉽게 얻어 볼 수 없으니 만약 지금 다시 刊行하지 않으면 장차 전해지지 않아 후학들이 마침내 우리나라의 옛 일을 알 수 없게 될 것임을 가히 알 수 있으니 이는 한탄할 일이다. 다행히 우리 유학자 성주 목사 권주께서 내가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원본을 구하여 나에게 보내 주었다. 나는 이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 이 사실을 감사 안당 대감 도사 박전후에게 고하였더니 모두 좋다고 하였다. 이에 여러 읍에 나누어 새기게 하여 본부에서 거두어 간직

다. 다만 門徒를 비롯한 기타 撰者들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바 본고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명확해지기 전단계로서 一然의 編纂설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고자 한다. 물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紀異卷第一에 撰者名이 없는 점에 주목한다면 적어도 卷第一에서부터 卷第四까지는 비록 一然이 기획하고 부분적으로 기술하였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撰述한 사람은 一然만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卷第三부터 卷第四까지의 二冊의 부분은 一然보다 僧階가 낮은 僧侶들에 의해서 작성되고 그에 대한 撰述이 一然 생시에 이뤄지지 못했던 바, 無極에 의한 附記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여진다.

하게 하였다. 아아! 물건이 오래되면 반드시 폐해짐이 있고, 폐해지면 반드시 일어남이 있으니 일어났다가 폐해지고, 폐해졌다가 일어남은 이치의 상도이니, 이치의 상도를 알아 때로 일으키어 그 전함을 영원하게 하며, 또한 후에 오는 지혜로운 학자들에게 바람이 있는 바이다. 명 나라 정덕 임신년(1512) 12월에 부윤 추성정난공신 가선대부 경주진병마절제사 전평군 李繼福이 삼가 跋文을 쓴다.”³⁴⁾

주지하는 바와 같이, 序文이나 跋文이 없는 『三國遺事』의 編纂 및 刊行배경은 紀異의 序文과 刊記 등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 또한 서책의 編纂배경과 刊行배경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결국 그 서책의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대국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하다는데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위의 刊記의 내용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위의 내용 가운데 밑줄 친 부분을 다시 새겨보면 선비가 되어서 중국의 신이한 歷史까지도 두루 알고자 하면서 정작 우리의 歷史를 몰라서야 되겠는가라는 식으로 해석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위에서 말하는 우리의 歷史란 신이한 부분을 포함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즉 사대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歷史 가운데 紀異한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앞에서 거론한 紀異의 서와 비슷한 감이 없지 않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李繼福이 紀異를 보입했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李繼福의 刊記와 紀異卷第一의 서가 내용적으로 상통한다는 것은 紀異篇의 보입배경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결국 紀異를 보입한 이유는 歷史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 三國의 紀異내용을 알아야 하며 이에선 선비들도 예외일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은 一然, 無極 그리고 그의 門徒를 포함한 여러 승려들에게도 유효했을 것이다.

V. 慶州司首戶長行案과 紀異卷第一

高麗 恭愍王 10년(1361)에 작성된 다음의 慶州司首戶長行案³⁵⁾에는 『삼국유사』의 내용이 일부 인용되고 있다.

34) 吾東方三國本史·遺事兩本 他無所刊 而只在本府 歲久 缺一行可解僅四十五字 余推上生斯世 屢觀諸史 其於天下治亂興亡 與諸異跡 尚欲博識 況居是邦 不知其國事 可乎 因欲改刊 竊求完本 閱數載不得焉 其曾幸行于世 人未易得見 可知若今不改刊 則將爲失傳 東方往事 後學竟莫聞知 可歎也已 幸吾斯文星州牧使權公軫 聞余之求 求得完本 遂余 余喜受 具告 監司安相國·都事林侯佺 僉曰善 於是 分刊列邑 令還藏于本府 嗚呼 物久則必有廢 廢則必有興 興而廢 廢而興 是理之常 知理之常 而有時興 以永其傳 亦有望於後來之忠學者云 皇明正德壬申 李冬 府尹 推誠定難功臣 嘉善大夫 慶州鎮兵馬節制使全平君 李繼福 謹跋

35) 亞細亞文化社 影印, 1982, 『慶州先生案』, 311~314쪽.
盧明鎬 外, 2000.8,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 上 - 校勘譯註篇, 서울大出版部.

① 至正二十一年辛丑 正月日 慶州司首戶長行案 ② 州叱段 三國遺事內 開闢已來 辰韓之地 古有六部一 ③ 日中興 二日南山 三日長福 四日通仙 五日加德 六日臨川 ④ 等叱六部祖 前漢宣帝地節元年壬子三月朔, 各率子 ⑤ 弟, 俱會於關川岸上, 議曰: 「我輩上無君主 民皆放逸, 盍 ⑥ 覓有德人爲君主, 建邦設都 時有一紫卵 從天垂地, 剖 ⑦ 其卵得童男, 形儀端美. 卵如瓠 故姓朴 卵生之時 日月 ⑧ 清明, 故因名赫居世王 年至十三歲, 以五鳳元年甲子, 立國爲 ⑨ 王 國號徐羅 或斯羅, 或鷄林 或新羅³⁶⁾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慶州司首戶長行案 가운데는 명확하게 『삼국유사』를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약간 축약되었지만, 다음과 같이 『삼국유사』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전하고 있다.³⁷⁾

辰韓之地古有六村: 一曰關川楊山村, 南今曇嚴寺, 長日謁平, 初降于瓢崑峰, 是爲及梁部李氏祖攻礼王九年置, 名及梁部, 本朝大祖天福五年庚子, 改名中興部, 波替·東山·彼上·東村屬焉; 二曰突山高墟村, 長日蘇伐都利, 初降于兄山, 是爲沙梁部「梁」讀云「道」, 或作「涿」, 亦音「道」鄭氏祖, 今日南山部, 仇良伐·麻等烏·道北·廻德等南村屬焉稱「今日」者, 大祖所置也 下例知: 三曰茂山大樹村, 長日俱一作仇禮馬, 初降于伊山一作皆比山, 是爲漸梁一作涿部又牟梁部孫氏之祖, 今云長福部朴谷村等西村屬焉; 四曰鶻山玆支村作賓之, 又賓子, 又氷之, 長日智伯虎, 初降于花山, 是爲本彼部崔氏祖, 今日通仙部, 柴巴等東南村屬焉, 致遠乃本彼部人也, 今皇龍寺南味吞寺南有古墟, 云是崔侯古宅也, 殆明矣; 五曰金山加利村今金剛山栢栗寺之北山也, 長日祗沱一作只他, 初降于明活山, 是爲漢歧部又作韓歧部裴氏祖, 今云加德部, 上下西知乃兒等東村屬焉; 六曰明佺山高耶村, 長日虎玆, 初降于金剛山, 是爲習比部薛氏祖, 今臨川部, 勿伊村·仍仇玆村·關谷一作葛谷等東北村屬焉. 按上文, 此六部之祖, 似皆從天而降. 弩禮王九年始改六部名, 又賜六姓. 令俗中興部爲母, 長福部爲父, 臨川部爲子, 加德部爲女, 其實未詳. 前漢地節元年壬子 古本云建元年, 又云建元三年等, 皆誤三月朔, 六部祖各率子弟, 俱會於關川岸上, 議曰: 「我輩上無君主臨理蒸民, 民皆放逸, 自從所欲, 盍覓有德人, 爲之君主, 立邦設都乎!」於時, 乘高南望, 楊山下蘿井傍, 異氣如電光垂地, 有一白馬跪拜之狀. 尋撿之, 有一紫卵一云青大卵, 馬見人長嘶上天, 剖其卵得童男, 形儀端美. 驚異之, 俗於東泉東泉寺在詞羅野北, 身生光彩, 鳥獸率舞, 天地振動, 日月清明, 因名赫居世王蓋鄉言也. 或作弗矩內王, 言光明理世也. 說者云, 是西述聖母之所誕也. 故中華人讚龔桃聖母, 有「娠賢肇邦」之語, 是也. 乃至雞龍現瑞產關英, 又焉知非西述聖母之現耶!

36) 본문가운데 숫자는 행수를 말한다. 즉 ①은 1행을 말한다.

37) 아래 『삼국유사』의 내용 가운데 고문서와 일치되는 내용에 대하여 편의상 음영처리를 하였다.

位號曰居瑟邯 或作居西干, 初開口之時, 自稱云「關智居西干」一起, 因其言稱之, 自後爲王者之尊稱, 時人爭賀曰: 「今天子已降, 宜覓有德女君配之。」是日, 沙梁里關英井一作娥利英井邊, 有雞龍現而左脇誕生童女一云龍現死, 而剖其腹得之, 姿容殊麗, 然而唇似雞觜, 將浴於月城北川, 其觜撥落, 因名其川曰撥川, 營宮室於南山西麓今昌林寺, 奉養二聖兒, 男以卵生, 卵如瓠, 鄉人以瓠爲「朴」, 故因姓朴; 女以所出井名名之, 二聖年至十三歲, 以五鳳元年甲子, 男立爲王, 仍以女爲后, 國號徐羅伐, 又徐伐今俗訓京字云徐伐, 以此故也, 或云斯羅, 又斯盧, 初王生於雞井, 故或云雞林國以其雞龍現瑞也, 一說, 脫解王時得金關智而雞鳴於林中, 乃改國號爲雞林, 後世遂定新羅之號, 理國六十一年, 王升于天, 七日後, 遺體散落于地, 后亦云亡, 國人欲合而葬之, 有大蛇逐禁, 各葬五體爲五陵, 亦名蛇陵, 曇嚴寺北陵是也, 太子南解王繼位.³⁸⁾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慶州司首戶長行案과 『삼국유사』는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만약 慶州司首戶長行案이 1361년에 집필되었고 간행된 것이라면 필자가 논한 1394년 초간본설은 일면 근거를 잃는 듯이 보일른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필자는 1394년 초간이전에 『삼국유사』에 남겨진 문헌적 양상을 고려해 볼 때, 간행된 바가 없었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전에 『삼국유사』가 없었다고 한 것은 아니다. 명확하게 밝힌 바와 같이, 필사본으로서 『삼국유사』는 일연에 의해서 왕력과 몇 개 조목을 제외한 부분의 기술이 이뤄진채로 유전되고 있었으며, 그러한 유전되었던 양상이 고판본에 그대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1361년에 위의 慶州司首戶長行案가 작성된 것이 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그것이 현존하는 『삼국유사』의 고판본이 최고본으로서 초간본일 가능성을 낮게 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뿐만아니라 오히려 제편목의 편집과정에 있어서 기이권제일의 내용이 인용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慶州司首戶長行案이 기이권제일 가운데 新羅始祖赫居世王條의 편입의 하한시기가 1361년으로 고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둘째, 지지하는 바와 같이 慶州司首戶長行案이 수록된 『慶州先生案』은 中宗 18년(1523)에 安逸戶長 金多慶 등이 편찬했으며, 哲宗 10년(1859)에 다시 편찬되었다. 작성연대는 1361년이지만 그것이 당시에 편찬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이 안된다. 오히려 정확하게 알려진 편찬연대가 1523년으로 소위 임신본이 편찬된 1512년이후라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新羅始祖赫居世王條 가운데 육부의 명을 인용함에 있어서 고려시대의 명칭만을 인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적어도 慶州司首戶長行案이 新羅始祖赫居世王條를 그대로 인용하고

38) 『三國遺事』紀異卷第一 新羅始祖赫居世王條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나아가 어느정도의 부분적인 인용은 찬자에 의한 편집 가능성을 말해준다. 이러한 가능성을 인지해 볼 때 동문서의 피휘관계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는 전제하지 않았지만 동문서 가운데는 고려의 태조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왕건의 이름인 '건' (위의 동문서 가운데 음영처리한 곳)을 전혀 피휘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비록 고려 후기 피휘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종의 공문서라고도 볼 수 있는 동문서에서 고려의 태조를 다른 부분에서 인용 하면서도 태조의 이름인 '건' 을 피휘하지 않는 것은 앞의 찬자에 의한 재편집 가능성을 인지해 볼 때, 의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1523년에 이 文書가 재편집되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³⁹⁾ 물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慶州司首戶長行案을 통해서 경주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함에 있어서 『삼국유사』를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에 필사본 『삼국유사』가 경주와 관련된 서책으로서 어느 정도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삼국유사』가 신라 및 경주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책임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인지되었을 가능성을 알려준다. 즉 경주와 신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요구가 존재했고 그러한 필요에 응한 서책으로서 『삼국유사』가 인지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김거두를 비롯한 경주 관계자에 의해서 1394년에 목판본으로서 간행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즉 慶州司首戶長行案의 존재는 『삼국유사』의 간행배경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앞서 제기한 논쟁점의 근거로서 주목되어 왔던 왕력제일과 기이권제일의 서, 그리고 기이편과 왕력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두 편의 보입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현단계에서 가능한 몇가지 언급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일연 생전에는 완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 몇가지 단서의 의미에 대해서도 재조명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사를 돌이켜 볼 때, 『三國遺事』의 王曆第一은 보입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상정되며, 이러한 가능성을 보다 높여주는 것이 紀異卷第一의 서일 것이다. 적어도 紀異篇을 제일 첫 번째 篇目으로 할 경우 王曆第一이 그 앞에 올 것을 몰랐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歷代年表』와 一然門徒가 관계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三國遺事』에 실리지 않았다는 것은 적어도 王曆의 編纂 및 『三國遺事』의 刊行에 一然의 門徒가 간여되지 않은 증거가 된다.

39) 물론 이 시대에 와서 동문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셋째, 『三國遺事』에 歷代年表를 참고한 듯한 흔적이 여러군데서 보인다는 견해가 사실이라면 一然 사후 刊行된 『三國遺事』에 門徒들이 간여했을 경우 歷代年表를 실었을 것이 확실하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諸篇目과 많은 부분에서 불일치하고 있는 王曆을 일부러 함께 편재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王曆第一은 一然門徒와는 무관할 듯이 보이며, 판심의 차수 등을 고려해 볼 때, 編纂上으로는 篇目이 되지 못한 王曆第一이 刊行시에는 篇目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넷째, 분량상으로 볼 때, 王曆第一은 제외한다면 紀異卷第一과 卷第二의 분량비율은 거의 비슷해 지므로 王曆第一은 卷第一의 한 篇目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분량이 적은 王曆第一과 紀異를 같은 卷第一에 넣으면서 三國遺事卷第一紀異第二가 아닌 紀異卷第一이라는 篇目명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王曆第一에는 新羅사를 시기구분하는 용어로서 상고, 중고, 하고라는 용어가 보인다. 특히 하고는 太宗武烈王 즉 春秋公대부터 시작되나 卷第二는 文虎王法敏으로부터 시작된다. 결국 王曆第一의 시대구분이 紀異篇에 반영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역시 王曆第一과 紀異의 무관함을 밝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싶다. 또한 紀異篇에서 三國통일은 그다지 강조된 느낌이 보이지 않으므로 기존의 연구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여섯째, 급조된 듯이 보이는 紀異篇 전체를 볼 때, 紀異篇 역시 분량상의 이유로 紀異卷第一과 卷第二로 나뉘었으며, 후대의 王曆第一의 보입에 따라 紀異卷第一이라는 독특한 篇目명과 함께 서가 紀異卷第一의 앞에만 존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紀異卷第一의 序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紀異篇이 제편의 앞으로 나온 것은 紀異篇과 제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紀異뿐만 아니라 『三國遺事』의 諸篇目은 분명히 신이적 요소가 가득하다. 그러므로 서에서 가리키는 紀異는 내용으로서의 紀異가 아니라 篇目으로서의 紀異만을 염두에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덟째, 다른 篇目에는 없는 서가 왜 紀異篇의 앞에만 있는 점에 주목하여 佛敎的 신이를 담은 二冊의 諸篇目 앞에 그와는 다른 紀異를 편재하는 編輯과정이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여겨진다. 셋째, 編輯의 주체 및 紀異의 서의 撰述자는 一然일 가능성이 크나 생전에 紀異篇이 완성되지는 않았으며, 이후에 無極 또는 기타 인물에 의해서 일부 篇目이 삽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홉째, 紀異篇의 撰述 및 보입배경은 서와 刊記등을 고려해 볼 때, 一然 또는 『三國遺事』의 기타 撰述者들이 당시에 팽배해있던 사대부들의 정서에 맞추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歷史를 잘 모르는 승려들을 위하여 紀異事들을 추려내어 紀異篇을 구성했을 것이다. 즉 포교용 설화집으로 유효한 三國遺事 卷第三부터 卷第五까지 이르는 부분에 대한 간략하나마 전체적인 歷史이해를 위해서 新羅史를

중심으로하는 우리나라 三國의 歷史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바로 『三國遺事』의 紀異라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慶州司首戶長行案에 인용된 『삼국유사』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기이 편이 완성된 시기의 하한이 1361년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필사본으로 전해지던 『삼국유사』가 경주 및 신라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지식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1394년에 목판본으로 간행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驪州地域 陶磁遺蹟의 現況과 性格

백종오* · 조주연**

- I. 머리말
- II. 驪州地域 陶磁遺蹟의 現況
 - 1. 康川面
 - 2. 北內面
 - 3. 其他地域
- III. 驪州地域 陶磁遺蹟의 性格
 - 1. 立地條件
 - 2. 編年과 變遷
- IV. 맺는말

I.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도자기의 고장”이라 불리는 지역은 경기도 광주와 여주 그리고 전라도 부안과 강진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광주는 조선시대 관요가 운영되면서 남긴 360여개소의 도자유적이 분포하고,¹⁾ 부안과 강진은 고려시대 청자를 중심으로 생산한 230여개소의 도자유적이 알려져 있다.²⁾ 이처럼 다른 지역은 도자유적의 분포나 현황이 어느정도 밝혀져 있으나 유독 여주만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이를 극복하는 계기가 경기도박물관의 여주 중암리 고려백자요지에 대한 두 차례의 발굴조사였다.³⁾ 이 과정에서 여주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도요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고려초기부

* 京畿道博物館 학예연구사 / ** 경기도박물관 연구원

1)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1998·2000, 『京畿道廣州中央官窯』, 해강도자미술관, 1992, 『광주의 백자요지』.

2) 國立全州博物館, 1997, 『全北의 朝鮮時代 陶窯址』.

3) 京畿道博物館, 2001·2002, 『驪州 中岩里 高麗白磁窯址 發掘調査 現場說明會 資料』, 具本萬, 『驪州 中岩里 가마터 出土 高麗白磁 研究』, 檀國大學敎 碩士學位論文, 2002.

백종오·이헌재·김병희, 2001, 『驪州 中岩里 高麗白磁窯址 發掘의 成果와 意義』, 『京畿道博物館年報』5.

백종오·구본만, 2002, 『여주 중암리 고려백자요지』, 『고고학』창간호, 서울·경기고고학회.

터 조선후기에 이르는 70여기의 도자유적을 새롭게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주지역의 도자유적에 대해서는 『世宗實錄地理志』에 ‘中品 陶器所 하나가 여주 관청의 북쪽 串山에 있다’라는 기록이 최초의 자료이다.⁴⁾ 이후 문헌인 『東國輿地勝覽』에도 磁器와 陶器를 여주의 특산물로 꼽고 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간행된 『朝鮮産業誌』에는 조선초기에 조성된 금사면 궁리, 북내면 오금리, 강천면 가야리 등의 도요지가 언급되었으며⁵⁾ 淺川伯教가 작성한 『李朝陶磁窯跡一覽表』에는 북내면 운촌리·석우리·상교리, 가남면 맹골리, 산북면 상품리, 여주읍 읍내리, 능서면 번도리 등에 모두 18기를 수록하였다.⁶⁾ 이중 반정도인 8기가 상교리에 밀집된 양상을 보인다.

정양모 선생은 「高麗·朝鮮時代 磁器窯址 分布現況表」에 기존자료를 재정리하였고⁷⁾ 윤용이 선생은 청자, 분청자, 백자요지를 중심으로 작성한 「韓國 陶磁窯址 一覽表」에 맹골리, 상품리, 상교리, 운촌리, 석우리, 향도리 등 15기의 도요지를 소개하면서 운영시기를 15~17세기로 추정한 바 있다.⁸⁾ 최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은 운촌리, 중암리, 상교리, 석우리, 도전리, 번도리 등에서 28기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자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⁹⁾ 한편 경기도박물관은 금당천 유역의 중암리, 운촌리, 상교리, 장암리 등 4개리에 모두 32기의 도요지를 보고하였는데 하천의 水系를 중심으로 검토한 점이 주목된다.¹⁰⁾

본고에서는 여주지역에서 새롭게 확인된 도자유적의 현황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도자유적의 입지조건 및 시기에 따른 변천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도자유적은 강천면과 북내면과 같은 산간 지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낮은 구릉지대나 평야지대에는 1~2개소 정도 산포하고 있다. 그러면 산간 지대의 도자유적이 선호하는 입지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이것이 수습유물의 편년설정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 『世宗實錄』卷148, 地理誌(京畿道), 驪興都護府.
“陶器所 一在 府北 串山 中品”

5) 한미라, 2001, 「여주지역 도자문화의 변천에 관한 고찰」 『한국공예논총』, 234쪽 재인용.

6) 여주군, 1995, 「여주도자기발전계획」, 21쪽 재인용.

7) 정양모, 1991, 『한국의 도자기』, 문예출판사, 505쪽.

8) 윤용이, 1993, 『한국도자사연구』, 문예출판사, 495~496쪽.

9) 국립중앙박물관, 1999, 「박물관신문」, 334.

10) 백종오·구본만·조주연, 2002, 「驪州地域의 陶磁遺蹟에 대한 檢討」 『博物館誌』, 11, 忠淸大學博物館.

〈표 1〉 여주지역 도자유적의 현황

(2003. 2. 현재)

조 사 지 역		조 사 내 용	비 고
여주군	강천면	도전리	고려백자요지 1기 고려청자요지 1기 조선백자요지 15기 옹기요지 1기
		부평리	고려백자요지 2기 고려청자요지 2기 조선백자요지 4기
		가야리	옹기요지 1기
	북내면	중암리	고려백자요지 3기 고려청자요지 6기 조선백자요지 4기 도기요지 3기
		운촌리	고려청자요지 1기 조선백자요지 2기
		장암리	고려청자요지 3기 조선백자요지 1기
		상교리	고려청자요지 1기 조선백자요지 13기 도기요지 1기
		석우리	조선백자요지 1기 도기요지 1기
		오학리	근대백자요지 1기
		천송리	기와요지 1기
		외룡리	근대백자요지 1기
	산북면	상품리	조선백자요지 1기
	능서면	번도리	조선백자요지 1기
	점동면	현수리	도기요지 1기
	가남면	삼군리	조선백자요지 1기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조선백자요지 1기
	지제면	일신리	조선백자요지 2기
합 계		여주지역 74기 양평지역 3기	

(여주군과 지근거리로 인접하고 금당천 수계상의 양평군 도자유적도 포함함)

II. 驪州地域 陶磁遺蹟의 現況

여주지역의 도자유적은 강천면, 북내면, 산북면, 능서면, 가남면 등 5개 면을 중심으로 모두 74기가 분포한다. 이들 유적의 현황을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보면 강천면 도전리 18기·부평리 8기·가야리 1기, 북내면 중암리 16기·운촌리 3기·장암리 4기·상교리 15기·석우리에 2기와 오학리·천송리·외룡리에 각 1기씩이 확인되며 이외에 상품리, 번도리, 현수리, 삼군리에도 각 1기씩이 남아있다. 또 여주군과 인접한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에 1기, 지제면 일신리에 2기가 분포한다. 앞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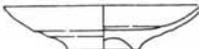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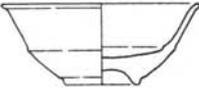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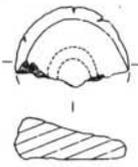
1. 康川面

강천면에서는 도전리, 부평리, 가야리 등에서 총 27기가 확인되었다. 이중 고려백자요지는 3기, 고려청자요지는 3기, 조선백자요지는 20기, 옹기요지는 1기이다.

도전리도요지는 원심천을 따라 중평동, 다랑고개골, 탑전동 등에서 모두 18기가 조사되었다. 고려백자요지 1기, 고려청자요지 1기, 조선백자요지 15기, 옹기요지 1기이다. 먼저 중평동과 다랑고개골에서는 17~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조선백자요지 4기가 확인되었다. 발, 접시, 잔, 도지미 등이 수습되었다. 발은 담청백색을 띠고 몸체가 완만한 구형을 이루다가 구연부에서 외반된 기형이다. 접시는 담갈색, 담청백색을 띠고 기형은 발과 비슷하며 오목굽에 흠몰과 굽은 모래를 받쳐 포개 구웠다. 요도구는 도지미가 수습되었는데 한쪽 방향이 기울어진 경사진 형태로 가마바닥의 경사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강천면 도전리 3호요지 수습유물

<축척부동>

종 류	조선백자			
기 종	발	접 시	잔	도 지 미
기 형				
장식문양	無			
굽 받침	굽은 모래받침			
특 징	담청백색을 띠며, 구연부가 외반된 기형, 오목굽.			

다랑고개골에서 원심천을 따라 남동방향으로 가다보면 도전교가 나오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동서로 조선백자요지 6기가 남아있다. 현재 계곡으로 인해 가마가 심하게 훼손되었고 발 경작이 이루어지면서 가마의 유구가 손상된 것으로 여겨진다. 발, 접시, 잔, 호 이외에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제기 가다랑 채집되었다. 대부분 굽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예번하였다. 제작시기는 17~18세기로 추정된다.

탑전등에서는 고려백자요지 1기, 고려청자요지 1기, 조선백자요지 4기가 조사되었다. 이중 고려백자요지는 퇴적구가 경작지로 인해 이미 훼손된 상태였다. 담청색을 띠며 병렬이 관찰된다. 기형은 몸체에서 부드럽게 이어진 후 몸체가 사선으로 이어진 형태이다. 번조방법은 굽접지면에 내화토와 가는 모래가 섞인 비집을 3~4곳 정도 받쳤다. 제작시기는 11세기로 편년된다. 고려청자요지는 고려백자요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5m 내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유물의 기형 및 번조방법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외에 원심동과 새말에는 옹기요지와 조선백자요지가 1기씩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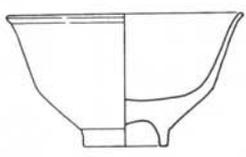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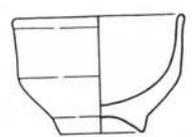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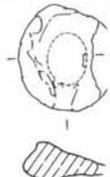
부평리도요지는 모두 8기로 옷점, 성지골, 옛벌, 수령거리, 새말림 등에 위치하는데 고려백자요지 2기, 고려청자요지 2기, 조선백자요지 4기이다.

옷점의 조선백자요지 2기에서는 발, 접시, 도지미 등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오목굽에 흙물과 굽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웠다. 도지미는 한쪽 방향이 기울어진 경사진 형태로 굽은 사립과 점토로 성형되었다. 17~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성지골과 옛벌에서는 17~18세기로 추정되는 조선백자요지 1기가 조사되었으며 발, 접시, 제기, 호 등 다양한 기종이 수습되었다. 발, 접시의 기형은 대부분 몸체에서 완만한 곡선을 이루다가 구연부에서 외반된 형태이다. 제기는 크기와 기형이 다양하며 굽모양이 대부분 팔각이다. 유색은 담회청색이며 오목굽에 흙물과 굽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웠다.

〈표 3〉 강천면 부평리 3호요지 수습유물

〈축척부동〉

종 류	조선백자		
기 종	발	잔	도 지 미
기 형			
장식문양	無		
굽 받침	굽은 모래받침		
특 징	담회청색을 띠며, 오목굽이고 굽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움.		

수령거리와 새말림에서는 고려백자와 청자요지가 각 2기씩 확인되었다. 이들 요지에서는 발, 접시 등이 수습되었는데 암록색, 연갈색을 띠며 내화토와 가는 모래가 섞인 비짐을 접지면에 4곳 정도 받쳐 번조하였다. 제작시기는 11세기로 생각된다.

점촌의 옹기가마 1기는 발 경작으로 거의 훼손된 상태였다. 구연부, 동체부, 도지마 등이 채집되었고 대부분 대형기종이다. 외면은 적갈색, 내면은 회흑색을 띤다. 도지미는 원반형이고 높이가 약 9.5cm로 높은 편이며 굽은 사립과 점토로 성형되었다.

2. 北內面

북내면의 중암리, 운촌리, 장암리, 상교리, 석우리, 오학리, 천송리, 외룡리 등에는 여주군에서 가장 많은 수인 43기가 분포하고 있다. 이들 요지는 고려백자요지 3기, 고려청자요지 11기, 조선백자요지 21기, 근대백자요지 2기, 도기요지 5기, 기와요지 1기이다.

중암리도요지는 16기로 녹수골, 깊은 안재이골, 큰골 등에 위치하고 고려백자요지 3기, 고려청자요지 6기, 조선백자요지 4기, 도기요지 3기이다.

먼저 여주지역 도자유적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중암리 고려백자요지¹¹⁾에서는 해무리굽 완, 발, 화형 접시, 잔, 잔탁, 호, 대반 등으로 다종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물은 층위에 따라 태토의 질과 유약의 시유상태, 굽접지면 폭 등을 달리하며 나타난다. 즉 아래층일수록 기벽이 얇고 태토와 유약이 정선되고 담갈색과 담청색 유조로 광택이 강하게 나는 것이 많다. 반면 위층으로 갈수록 태토가 거칠고 유층이 일정하지 않고 대형기종들이 나타난다. 기형은 굽에서 부드럽게 몸체로 이어져 사선을 그리며 구연과 이어진다. 번조방법은 갑발에 넣어 굽는 갑번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으나 극소수는 원통형의 도지미 위에 예번하기도 하였다. 또한 갑발 내에서 포개구운 경우도 일부 관찰된다.

녹수골에는 3기의 고려청자요지가 자리한다 이곳에서는 발, 접시, 호, 도지미 등이 수습되었는데 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 암록색을 띠며 굽에서 몸체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이어진다. 내면에는 내저원각이 있고 굽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접시는 암록색을 띠고 몸체가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저부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굽은 내경하였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장식 문양은 크게 두 종류로 살펴볼 수 있다. 첫번째는 내면은 바닥에 구획선을 둔 후 상단에 如意頭文帶를 정성스럽게 白象嵌하였다. 외면은 저부에 2조의 구획선을 두고 그 상단 원권 내에 백상감된 국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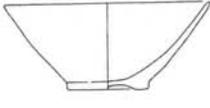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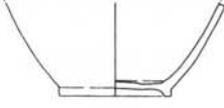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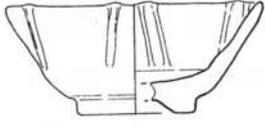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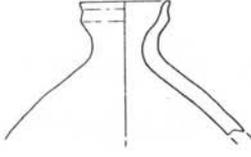
11) 具本萬, 2002, 앞의 글.

백종오·구분만, 2002, 앞의 글.

백종오·이현재·김병희, 2001,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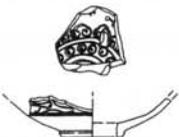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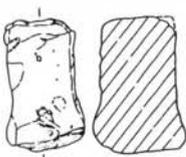
〈표 4〉 북내면 중암리 고려백자요지 출토유물

〈축척부동〉

종 류	고려백자		
기 종	해무리굽 완	발	화형 접시
기 형			
기 종	연판문 잔탁	병	갑발
기 형			
장식문양	연판문, 화형		
굽 받침	가는 백색 내화토		
특 징	연갈색·담청색 등 다양한 유색을 띠고 전면시유됨.		

〈표 5〉 북내면 중암리 3호요지 수습유물

〈축척부동〉

종 류	고려청자		
기 종	발	호	도 지 미
기 형			
장식문양	여의두문, 화문, 초문		
굽 받침	가는 모래받침		
특 징	암록색을 띠. 구연부가 내만한 기형. 내면에 여의두문이 백상감 됨.		

이 포치되었다. 두 번째는 내면에 0.1cm의 얇은 2조 구획선이 있고 그 위로 흑상감이 된 연주문대가 촘촘하게 시문되었다. 이러한 유물의 특징을 통해 13~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깊은안재이골에는 7기의 도요지가 파악되었는데 그 중 고려백자와 청자요지가 각 1기씩이고 조선 백자요지 3기, 도기요지가 2기이다. 고려청자의 상감문양을 살펴보면 내면 바닥에 2조 가는 선이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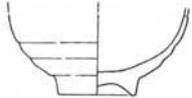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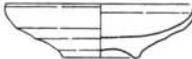
아가고 그 위로 여의두문이 백상감되었다. 시기는 13세기에서 14세기로 추정된다. 고려백자요지는 앞에서 살펴본 중암리 고려백자요지와 인접지역으로 완과 갑발 등이 수습되었다. 조선백자요지는 모두 17~18세기로 추정되는데 발, 접시 등이 수습되었다. 대부분 담회청색을 띠며 오목굽에 흠물을 묻히고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큰골에서는 고려백자요지 1기, 고려청자요지 2기, 조선백자요지와 도기요지가 각 1기씩이 확인되었다. 큰골요지는 대부분 경작으로 유구가 유실되어 소량의 자기편과 소토, 요도구 등을 통해 가마터로 확인되었다. 고려백자요지는 발으로 경작되어 퇴적구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으며 완, 갑발편이 수습되었다. 청자요지에서는 발, 소토 등이 수습되었고 13~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도기요지에서는 내·외면 모두 회청색을 띠며 대부분 경질의 동체부편이 채집되었다.

운촌리도요지는 양지마을, 사기덤불 등에서 총 3기가 분포하는데 고려청자요지 1기와 조선백자요지 2기이다. 양지마을과 사기덤불에는 17~18세기에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조선백자요지 2기가 남아 있다. 발, 접시, 잔, 도지미 등이 산포되어있다. 발은 대부분 회청색을 띠고 내면에 내저원각이 있다. 기형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굽으로 이어진다. 굽은 오목굽으로 흠물을 묻히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고려청자요지는 발과 소토편이 소량 수습되었고 가마 유구는 유실되어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표 6〉 북내면 운촌리 2호요지 수습유물

〈축척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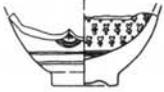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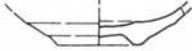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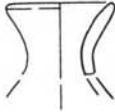
종 류	조선백자			
기 종	발	접 시	잔	도 지 미
기 형				
장식문양	無			
굽 받침	흠물을 묻히고 굽은 모래받침			
특 징	담회청색을 띠며, 오목굽이고 전면시유됨.			

북내면에서 가장 많은 수가 분포하는 상교리도요지는 점골, 즈말, 사기전골에 15기가 자리한다. 이들 요지는 고려청자와 도기가 1기씩이고 나머지는 조선백자이다.

점골은 조선백자요지 5기가 남아있는데 발, 접시, 잔, 도지미 등이 수습되었다. 이중 발은 담회청색을 띠고 내면에 내저원각이 있다. 굽형태는 굽바닥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오목굽이고 바닥에 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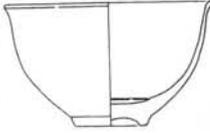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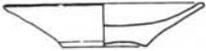
〈표 7〉 북내면 상교리 2호요지 수습유물

〈축척부동〉

종 류	조선백자			
기 종	발	접시	병	도 지 미
기 형				
장식문양	無			
굽 받침	굽다리 바깥쪽에 태토비짐을 3~4곳 정도 받침.			
특 징	연갈색을 띤 조질백자. 죽절굽이고 태토비짐을 받쳐 포개구움.			

〈표 8〉 북내면 상교리 8호요지 수습유물

〈축척부동〉

종 류	조선백자			
기 종	발	접 시	도 지 미	갓 모
기 형				
장식문양	無			
굽 받침	흙물을 묻히고 굽은 모래받침.			
특 징	담회청색을 띤, 오목굽. 경사진 형태의 도지미.			

을 묻힌 후 굽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웠다. 요도구는 갓모와 경사진 형태의 원반형 도지미가 관찰된다. 제작시기는 17~18세기로 추정된다.

ضمام에는 조선백자요지 4기와 도기요지 1기가 남아있다. 조선백자요지에서는 발, 접시, 잔, 원통형 도지미 등이 출토되었다. 기종은 발이 주류를 이루는데 대체로 담록백색과 연갈색을 띤다. 기형은 굽에서 부드럽게 몸체로 이어져 완만한 곡선을 이루다가 구연부에서 외반되는 형태이다. 굽은 대부분 죽절굽이고 태토비짐을 사용하였으나 기존의 조선백자에서 굽 안쪽에 붙여 받치던 것과는 달리 대부분 굽다리 바깥쪽에 붙였다. 이러한 특징은 충남 보령군 미산면 용수리와 평라리의 분청사기요지에서¹²⁾ 굽 다리 바깥쪽 즉 그릇의 외저부에 태토비짐을 붙이는 예가 발견된 바 있다. 이것은 일본

12)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1996, 『陶窯址發掘調査報告—保寧郡 水沒地域發掘調査報告③』.

구주지방에서 흔히 발견되는 굽받침¹³⁾으로 조선전기의 기술이 임진왜란기에 일본 구주로 이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라고 할 수 있다.¹⁴⁾ 도기요지에서는 대부분 동체부편이 채집되었다. 경질도기편으로 내·외면이 회청색을 띤다.

사기전골에는 4기의 백자요지가 위치한다. 유물은 발, 접시, 잔, 원반형 도지미가 수습되었다. 발이 주류를 이루며 기형과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색은 담청회백색이 주류를 이루며 유약을 전면시유하였다. 내저원각이 있으며 외면에는 장식이 없다. 기형은 몸체에서 완만한 호를 그리다가 구연부에서 살짝 외반되었다. 굽은 오목굽이 주류이며 흙물을 묻히고 굽은 모래를 받쳐 포개어 번조하였다. 시기는 17~18세기로 추정된다.

장암리도요지에는 고려청자요지 3기와 조선백자요지 1기가 남아있다. 고려청자요지에서 수습된 유물은 발, 접시, 호, 원반형과 원통형 도지미 등이다. 발은 암록색을 띠며 굽에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몸체로 이어지다가 구연부에서 살짝 내경하였다. 굽은 내경하였고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문양은 화문, 여의두문 등이 시문되었다. 화문은 상하단에 2조의 선을 두고 백상감하여 배치하였다. 여의두문은 내면 안바닥에 2조의 구획선을 두고 상단에 구연부를 향해 여의두문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백상감되었다. 요도구는 원통형 도지미와 원반형 도지미가 함께 관찰된다.¹⁵⁾

〈표 9〉 북내면 장암리 2호요지 수습유물

〈축척부동〉

종 류	고려청자		
기 종	발	접 시	도 지 미
기 형			 
장식문양	여의두문, 초화문		
굽 받 침	가는 모래받침		
특 징	암록색을 띤, 구연부가 내만한 기형.		

석우리도요지는 조선백자와 도기가 각 1기씩 분포하고 있다. 석우2리에 위치한 조선백자요지에서는 발, 접시, 잔, 원반형 도지미가 수습되었다. 담청회백색을 띠며 유약을 전면시유하였다. 내면에는

13) 村上伸之, 1997, 『研究紀要』6, 有田歴史民俗資料館, 재인용.

14) 羅善華, 2001, 『發掘에 의한 窠業技術의 확인과 그 意義』, 『陶磁史 研究方法으로서의 '發掘』, 35쪽.

15) 백종오·구본만·조주연, 2002, 앞의 글, 42~44쪽.

내저원각이 있고 외면에는 장식문양이 없다. 기형은 몸체에서 완만한 호를 그리다가 구연부에서 외반되었다. 굽은 오목굽이고 흙물을 묻힌 후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이런 특징으로 보아 17~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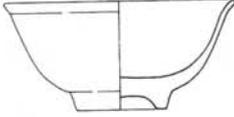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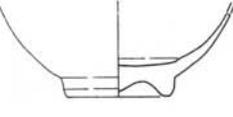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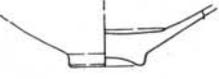
이외에 오하리와 외룡리에 근대백자요지, 천송리에 기와요지 등이 남아 있다.

3. 其他地域

앞에서 살펴본 강천면, 북내면 외에 산북면, 능서면, 점동면, 가남면에 총 4기의 가마가 분포한다. 산북면 상품리에는 15~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백자요지 1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발, 접시, 도지미, 소토편 등이다. 대부분 담청백색 띠고 구연부가 외반한 형태이다. 죽절굽에 태토비 짐을 4곳 정도 받쳐 포개구웠다. 도지미는 원반형이고 도지미 3~4개 정도를 포개어서 높게 사용된 것도 있다. 또한 능서면 번도리의 조선백자요지는 이미 가마와 퇴적구가 유실된 상태로 발, 접시 등 소량이 수습되었다. 그 외에 점동면 현수리의 도기요지와 가남면 삼군리에 조선백자요지가 조사되었다.

〈표 10〉 산북면 상품리요지 수습유물

〈축척부동〉

종 류	조선백자		
기 종	발	접 시	
기 형			
장식문양	無		
굽 받침	태토비짐		
특 징	담청백색을 띠. 구연부가 외반한 기형. 죽절굽이며 포개구움.		

그리고 여주군과 인접한 양평군에서는 양동면 단석리에 조선백자요지 1기, 지제면 일신리에 조선백자요지 2기가 확인되었다. 단석리 조선백자요지에서는 발, 접시, 잔, 도지미 등이 채집되었다. 담회청색을 띠며 몸체가 구형을 이루다가 구연부가 외반되었다. 굽은 오목굽이며 굽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웠다. 도지미는 도전리 중평동과 다량고개골에서 보이는 경사진 형태이다. 일신리 조선백자요지의 유물은 발, 접시, 도지미 등으로 대부분 담회청색을 띠고 오목굽에 흙물을 묻힌 후 굽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었다. 모두 17~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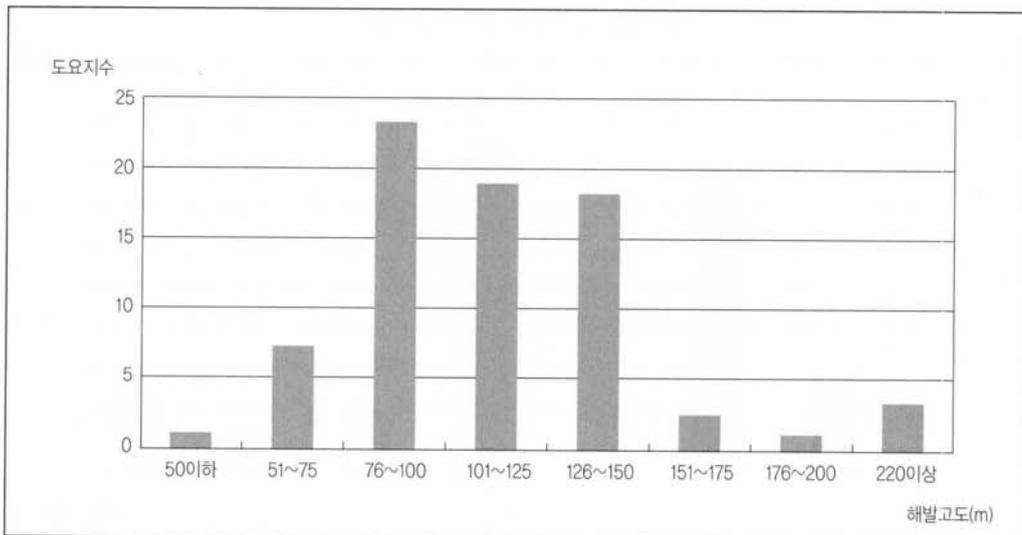
Ⅲ. 驪州地域 陶磁遺蹟의 性格

지금까지 여주지역 도자유적의 현황을 북내면과 강천면을 중심으로 소개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들 유적의 해발고도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입지조건을 선호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수습된 유물의 시기구분을 바탕으로 고려초기부터 조선후기에 걸치는 여주지역의 도자유적의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1. 立地條件

도자유적이 밀집하는 동북부지역은 해발 200~400m의 옥녀봉, 보금산, 소달산, 우두산, 고래산 등이 솟아있는 산간지대에 해당한다. 이곳의 입지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해발고도를 25m 간격으로 분류해 보면 <표 11>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입지는 최소 해발 20m(오학리요지)에서 최고 해발 220m(도전리 2~4호요지)에 이르는 넓은 범위를 나타낸다. 점유율은 해발 76~150m 범위에서 80% 이상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준다. 예컨대 해발 76~100m는 중암리도요지와 상교리 사기전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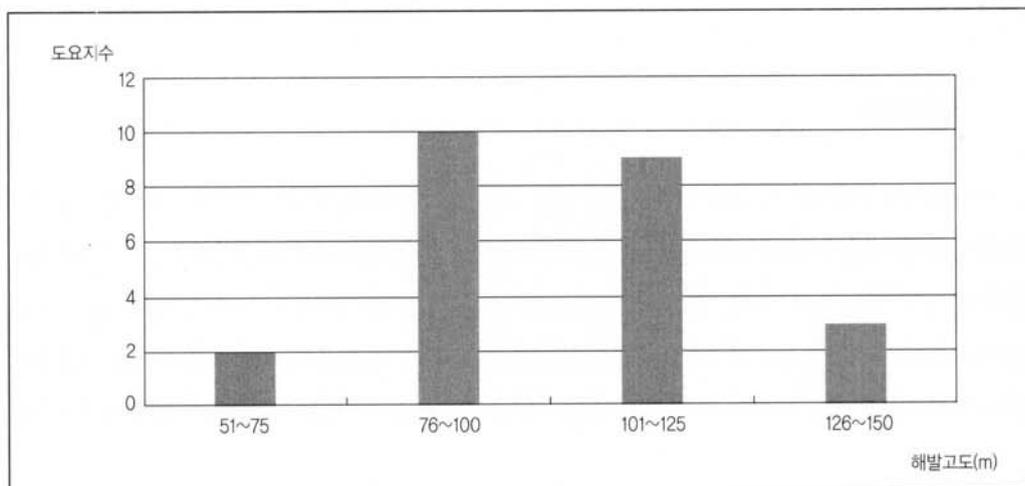
<표 11> 여주지역 도자유적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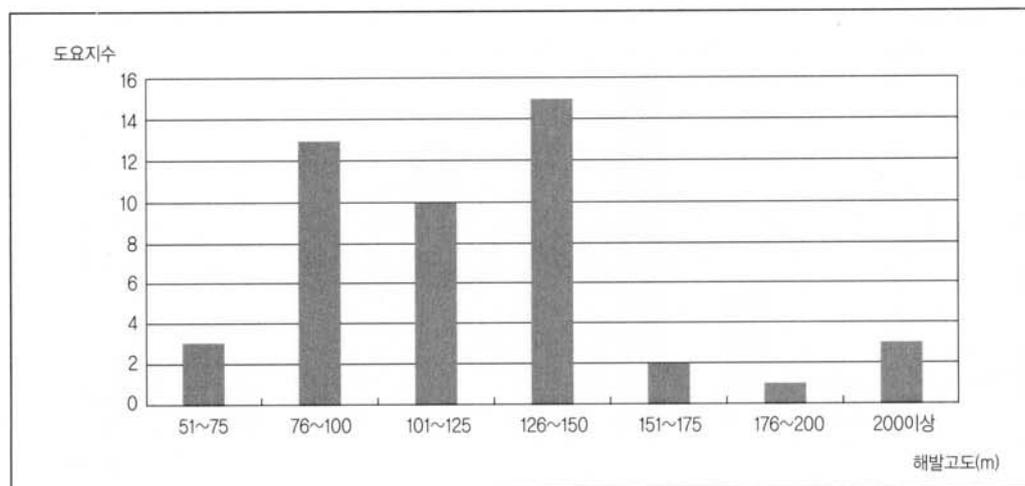
도요지가 70%이상을 차지한다. 해발 101~125m는 26%로 도전리, 부평리, 석우리도요지가 분포한다. 해발 126~150m는 24%를 차지하는데 상교리 점골과 즈말의 조선백자요지와 상품리 조선백자요지 등이 포함된다.

한편 가장 낮은 50m이하의 도요지는 근대백자요지인 오학리요지가 있으며, 51~75m에는 장암리 고려청자요지, 외룡리, 가야리 등으로 9%를 차지한다. 151~175m에는 부평리 성지골 조선백자요지, 176~200m에는 도전리 1호요지가 위치한다. 마지막으로 해발 201~225m 이상은 4%를 점유하는데 도전리 2~4호가 해당된다.

〈표 12〉 고려시대 도자유적 입지



〈표 13〉 조선시대 도자유적 입지



다음으로 해발고도를 고려와 조선시대로 나누어 비교하면 <표 12, 13>과 같다. <표12>와 같이 고려시대는 최소 해발 75m(장암리 2·3호)에서 최고 해발 150m(상교리 10·11호)이다. 해발 75m의 장암리 2·3호는 8%를 점유하며, 해발 75~100m는 중암리 1~6·9·16호, 운촌리 3호, 장암리 1호 등으로 41%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해발 101~125m는 38%로 중암리 11~13·15호, 도전리 14호, 부평리 4~7호이다. 마지막으로 해발 126~150m에는 도전리 13호, 상교리 10·11호가 위치하는데 13%를 차지한다. 이상의 점유율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려시대의 도자유적은 해발 76~125m를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는 <표13>에서 보듯이 최소 해발 55m(번도리요지)에서 최고 해발 220m(도전리 2~4호)로 높은 고도차이를 보인다. 가장 낮은 해발고도인 51~75m는 6%로 번도리, 삼군리, 장암리 4호가 분포한다. 해발 76~100m는 28%로 부평리 8, 중암리 7·8·10호, 운촌리 1·2호, 상교리 12~15호 등이 위치한다. 해발 101~125m에는 중암리 14호, 석우리 1호, 도전리 7~9·15~17호 등이 있는데 21%를 차지한다. 해발 126~150m의 도요지는 상교리 1~5·8·9호, 도전리 10~12호, 상품리요지, 부평리 3호 등이며 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해발 151~175m는 4%로 부평리 1·2호가 위치하는데 고려시대에는 확인되지 않는 해발고도이다. 해발 176~200m는 2%이고 도전리 1호가 해당하며 마지막으로 해발 201~225m는 6%로 도전리 2~4호이다.

이상의 조선시대 도자유적의 입지는 전체 해발고도에서 보이는 해발 76~150m의 범위에 집중된다. 이와 관련해 광주 중앙관요¹⁶⁾가 해발고도 50~185m 사이에 집중 분포하는 양상과도 좋은 비교가 된다. 이것은 땀감의 공급과 태토 및 자기 운반의 편리성을 도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려시대에 위치하지 않았던 해발 151m 이상의 높은 고도에 위치한 조선가마는 지형적 요인과 땀감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해발 151m이상의 도요지는 강천면 도전리와 부평리요지로 이들 요지가 자리한 강천면은 강원도와 가장 인접 지역으로 해발고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간지대이다. 이러한 지형적인 요인으로 조선시대 가마터가 220m의 높은 해발고도에 입지한 것으로 여겨진다.

도자유적의 입지조건 중 水系는 도자기의 성형시 태토의 수비 및 유약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여주지역은 북내면을 가로질러 흐르는 金塘川과 그 지류인 完長川, 曲水川, 五畝川 등의 하천이 흐르고 있다. 이곳의 도자유적은 금당천과 같은 큰 수계를 중심으로 위치하기보다는 대부분 그 지류인 작은 수계나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 주변에 위치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계는 90% 이상이 가마 주변에 흐르고 그 거리는 5~50m내외의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다. 특히

16) 國立中央博物館·京機道博物館, 2000, 『京畿道廣州中央官窯』, 318쪽.

20m내에 포함되는 것이 가장 많은데 이는 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⁷⁾

2. 編年과 變遷

여주지역의 도자유적에서 수습된 유물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4>와 같다. 이를 시대순으로 열거하면 고려백자요지 6기, 고려청자요지 13기, 조선백자요지 44기, 근대백자요지 2기, 도기요지 6기, 옹기요지 2기, 기와요지 1기 등이 분포한다.

고려백자요지는 가장 이른 10세기의 중암리 고려백자요지를 비롯하여 강천면 도전리와 부평리에 위치한다. 중암리 고려백자요지는 갑발을 씌워 정성스럽게 구웠지만 도전리와 부평리에서는 굽 접지면에 가는 내화토와 모래가 혼입된 비짐을 받쳐 포개구웠다. 제작시기는 중암리 고려백자요지보다 늦은 11세기에 운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청자요지는 강천면 도전리·부평리, 북내면 중암리·운촌리·장암리·상교리에 자리한다. 강천면 도전리와 부평리요지의 경우 고려백자요지와 약 10m내외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유물의 기형 및 번조방법 등이 유사하며 제작시기는 11세기로 추정된다. 북내면 중암리·운촌리·장암리의 고려청자요지는 13~14세기로 편년되는데 내·외면에 장식문양이 있어 주목된다. 장식문양은 여의두문, 초화문, 원권문 등을 정성스럽게 백상감하였다. 유색은 암록색을 띠고 굽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조선백자요지는 강천면 도전리·부평리, 북내면 중암리·운촌리·장암리·상교리·석우리, 산북면 상품리, 능서면 번도리, 가남면 삼군리 등에서 모두 44기가 확인된다. 강천면 도전리와 부평리의 조선백자요지는 15~18세기까지 폭 넓게 분포하는데 이중 임진왜란을 전후한 15~16세기 도요지로 강천면 도전리, 북내면 상교리, 산북면 상품리, 능서면 번도리, 가남면 삼군리 등이 있다. 대부분 내저에 원각이 있고 굽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포개구웠지만, 상교리 조선백자요지의 경우 굽다리 바깥쪽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한 점이 특징적이다. 17~18세기에 운영되었던 도요지는 강천면 도전리·부평리, 북내면 중암리·운촌리·장암리·상교리·석우리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 담청백색과 담회청색을 띠고 오목굽에 흙물을 묻힌 후 굽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웠다.

이외에 근대백자요지는 북내면 오하리와 외룡리에 남아있는데 개발로 인해 이미 파괴된 상태이다. 도기요지는 북내면 중암리·상교리·석우리, 점동면 현수리 등에 있고 옹기요지는 강천면 도전리와 가야리에 자리한다.

17) 또한 가마 입지로 능선이나 비탈진 산사면 등 자연경사면을 이용하여 가마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열의 효율과 전달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14〉 여주지역 도자유적 수습유물 일람표

NO	도요 지명	수 습 유 물						급 받 침				요 도 구		비 고
		청 자	분 청 사 기	백 자	도 기	옹 기	기 와	내 화 토	태 토 비 집	가 는 모 래	굵 은 모 래	갑 발	도 지 미	
1	강천면 도전리 1호			○							○			
2	강천면 도전리 2호			○							○			
3	강천면 도전리 3호			○							○		○	
4	강천면 도전리 4호			○							○			
5	강천면 도전리 5호					○					○			
6	강천면 도전리 6호			○							○			
7	강천면 도전리 7호			○							○			
8	강천면 도전리 8호			○					○				○	
9	강천면 도전리 9호			○				○						
10	강천면 도전리 10호			○							○		○	
11	강천면 도전리 11호			○					○				○	
12	강천면 도전리 12호			○							○		○	
13	강천면 도전리 13호	○						○						
14	강천면 도전리 14호			○				○					○	
15	강천면 도전리 15호			○							○			
16	강천면 도전리 16호			○							○			
17	강천면 도전리 17호			○							○		○	
18	강천면 도전리 18호			○							○			
19	강천면 부평리 1호			○							○		○	
20	강천면 부평리 2호			○							○		○	
21	강천면 부평리 3호			○							○			
22	강천면 부평리 4호			○				○						
23	강천면 부평리 5호	○						○						
24	강천면 부평리 6호			○				○						
25	강천면 부평리 7호	○						○						
26	강천면 부평리 8호			○							○		○	
27	강천면 가야리 1호					○					○		○	
28	북내면 중암리 1호			○				○				○	○	발굴
29	북내면 중암리 2호	○								○			○	
30	북내면 중암리 3호	○								○			○	
31	북내면 중암리 4호	○								○			○	
32	북내면 중암리 5호					○					○			
33	북내면 중암리 6호			○				○						
34	북내면 중암리 7호			○							○			
35	북내면 중암리 8호			○							○			
36	북내면 중암리 9호					○					○			
37	북내면 중암리 10호			○							○			
38	북내면 중암리 11호	○									○			
39	북내면 중암리 12호			○				○				○		
40	북내면 중암리 13호	○								○				

NO	도요지명	수습유물					굽받침				요도구		비고
		청 자	분청사기	백 자	도 기	옹 기	기 와	내 화 토	태 토 비 짐	가 는 모 래	굽 인 모 래	갑 발	
41	북내면 중암리 14호			○						○			
42	북내면 중암리 15호				○					○			
43	북내면 중암리 16호	○								○			
44	북내면 운촌리 1호			○						○		○	
45	북내면 운촌리 2호			○						○		○	
46	북내면 운촌리 3호	○								○			
47	북내면 장암리 1호	○								○			
48	북내면 장암리 2호	○								○			
49	북내면 장암리 3호	○								○			
50	북내면 장암리 4호			○						○			
51	북내면 상교리 1호			○						○			
52	북내면 상교리 2호			○						○			
53	북내면 상교리 3호			○						○			
54	북내면 상교리 4호			○						○			
55	북내면 상교리 5호			○						○			
56	북내면 상교리 6호			○					○				
57	북내면 상교리 7호			○					○				
58	북내면 상교리 8호			○					○				
59	북내면 상교리 9호			○				○	○				
60	북내면 상교리 10호				○					○			
61	북내면 상교리 11호	○								○			
62	북내면 상교리 12호			○						○		○	
63	북내면 상교리 13호			○						○			
64	북내면 상교리 14호			○						○			
65	북내면 상교리 15호			○						○		○	
66	북내면 오학리 요지			○						○			
67	북내면 외룡리 요지			○						○		○	
68	북내면 석우리 1호			○						○			
69	북내면 석우리 2호				○					○			
70	북내면 천송리 요지							○					발굴
71	산북면 상품리 요지			○					○			○	
72	능서면 번도리 요지			○					○			○	
73	가남면 삼군리 요지			○					○				
74	점동면 현수리 요지				○					○			
75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1호			○						○			
76	양평군 지제면 일신리 1호			○						○		○	
77	양평군 지제면 일신리 2호			○						○			

IV. 맺는말

이상과 같이 여주지역의 도자유적을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그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각 도요지의 해발고도와 수계의 분석을 통해 시기에 따라 선호하는 입지와 공통입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수습 유물의 편년설정에 따른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앞의 내용을 정리하며 맺는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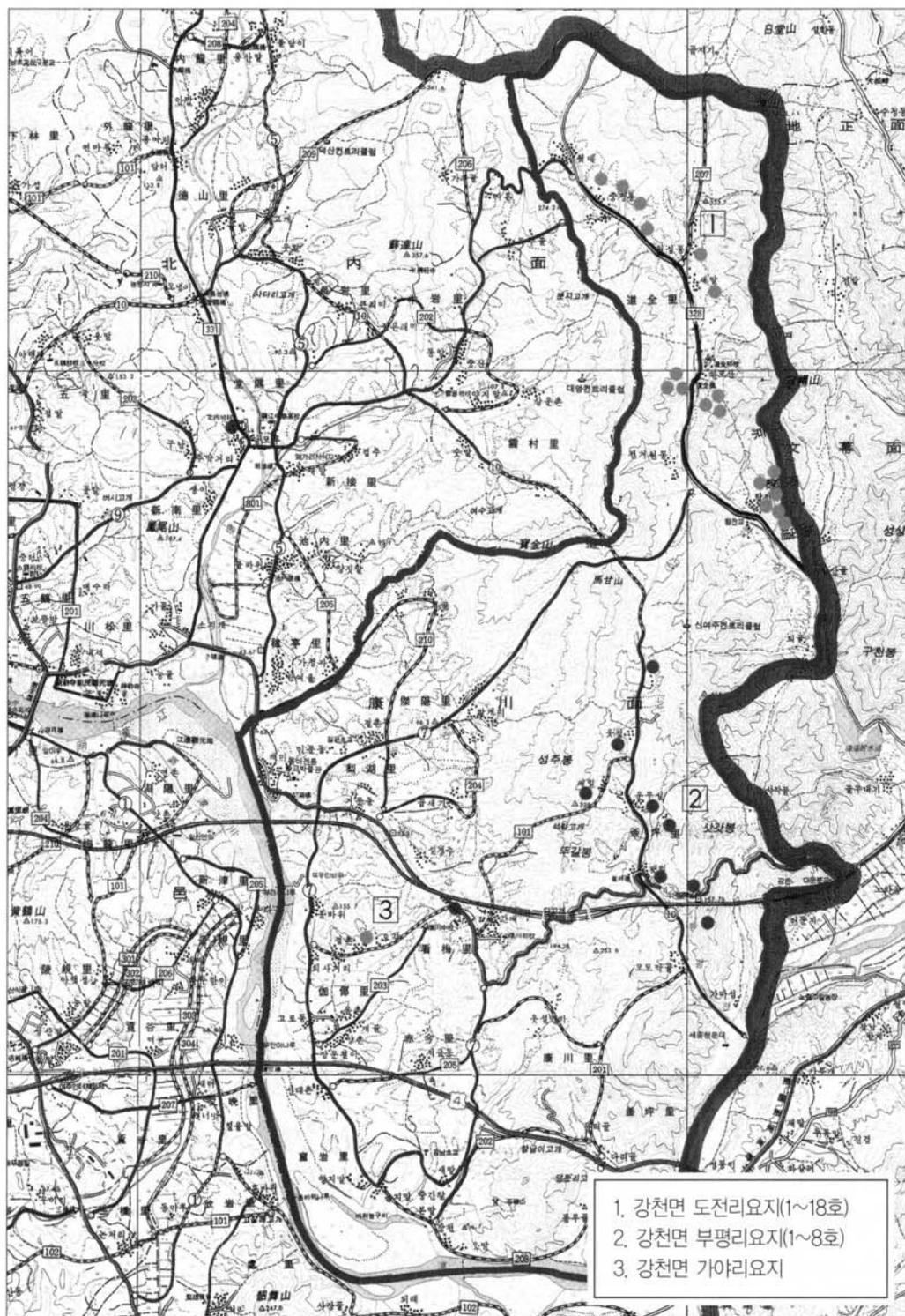
첫째, 여주지역 도자유적은 강천면, 북내면, 산북면, 능서면 등 5개 면을 중심으로 모두 74기가 분포하는데 대체로 강천면과 북내면 등의 동북 산간지대에 집중되어있다. 예컨대 고려백자요지 6기, 고려청자요지 14기, 조선백자요지 43기, 근대백자요지 2기, 도기요지 6기, 용기요지 2기, 기와요지 1기 등이 있다.

둘째, 해발고도는 최소 20m(오학리요지)에서 최고 220m(도전리 2~4호요지)에 이르는 다양한 범위를 보인다. 고려시대는 해발 75~125m(중암리 1~6·11~13호, 부평리 4~7호 등)에 80% 이상이 밀집되었으며 해발 150m 이상의 높은 고도에 위치한 가마는 보이지 않는다. 조선시대에는 해발 75~150m(도전리 7~9·15~17호, 상교리 1~5·8~9호, 상품리 등)에 집중되는데 이것은 광주 중앙 관요의 해발고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마의 땀감 공급과 태토 및 자기 운반의 편리성을 배려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위치하지 않았던 해발 151m(도전리 1~4, 부평리 1·2호) 이상의 해발고도가 강천면의 요지에서 나타난다. 이 역시 강천면이 강원도와 인접지역으로 산간지대인 지형적 요인과 땀감 공급 등 요업활동을 원활히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수계는 금당천과 같은 큰 수계보다는 그 지류인 작은 수계나 계곡의 5~50m 내에 위치하며 대체로 20m 내에 위치함으로써 용수를 편리하게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고려백자요지는 도자유적 중 가장 이른 시기인 10세기대의 중암리에서 11세기대의 도전리와 부평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고려청자요지는 11~14세기까지 운영되었는데 특히 13~14세기의 청자요지가 북내면에 집중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조선백자요지는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부터 후기까지 꾸준히 분포하며 역시 강천면과 북내면에 밀집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여주지역의 도자유적에 대한 연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서서히 그 실체가 밝혀지려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개발이라는 단어에 가리워져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훼손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보존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 “도자기의 고장”에 걸맞는 문화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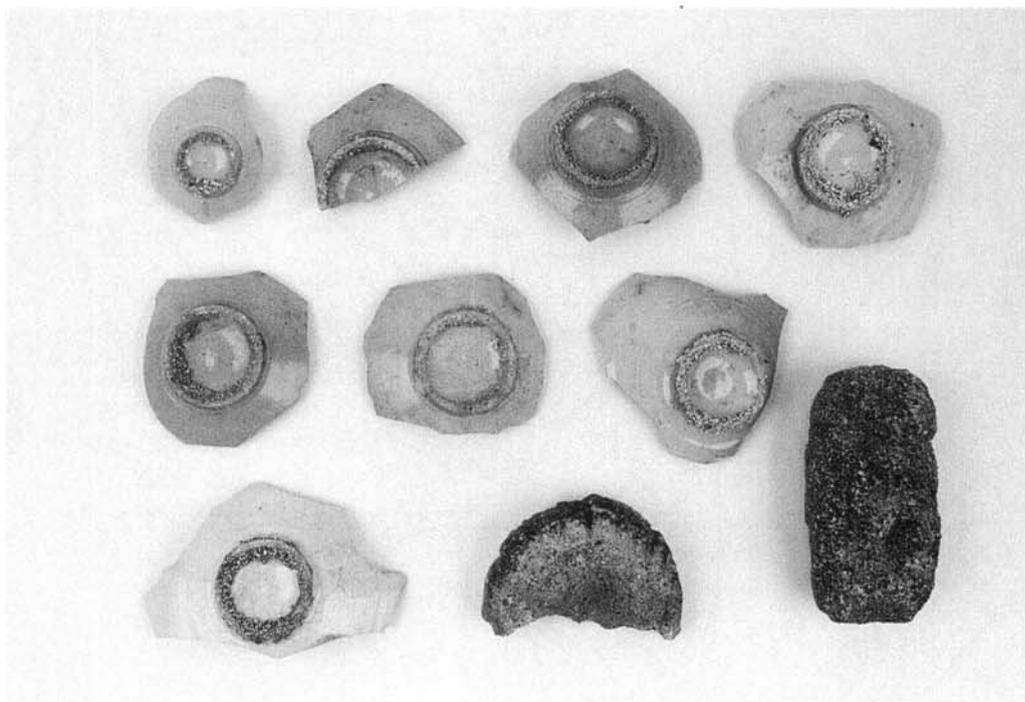
〈지도 2〉 강천면 도요지 분포도



(지도 3) 북내면 도요지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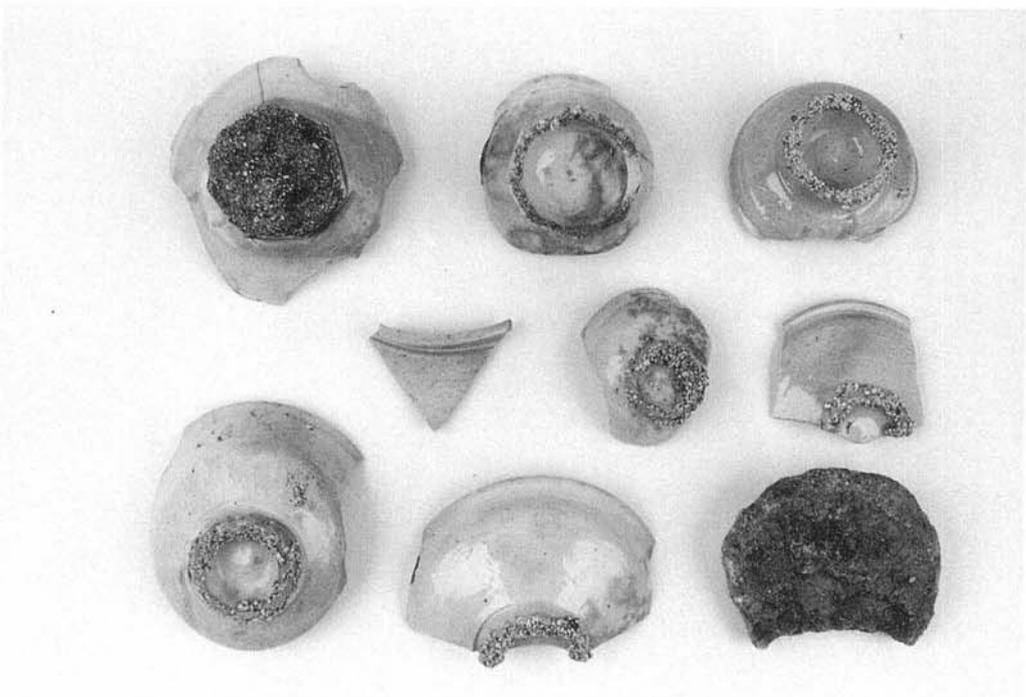
〈사진 1〉 강천면 도전리 3호요지 전경



〈사진 2〉 강천면 도전리 3호요지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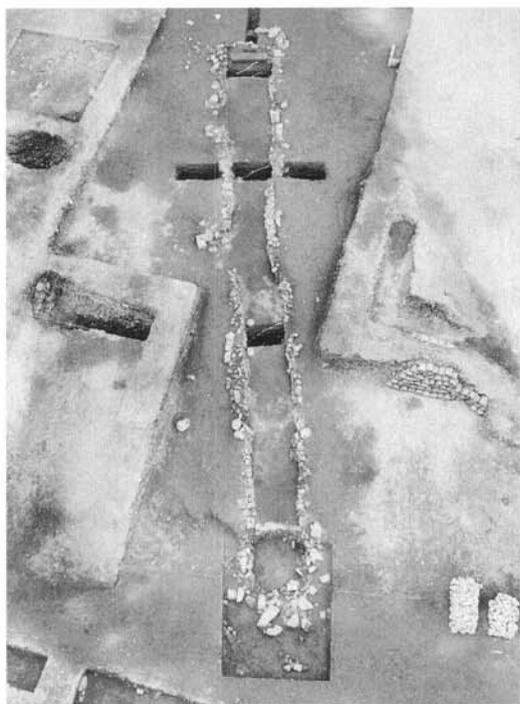
〈사진 3〉 강천면 부평리 3호요지 전경



〈사진 4〉 강천면 부평리 3호요지 수습유물



〈사진 5〉 북내면 중암리 고려백자요지 전경



〈사진 6〉 북내면 중암리 고려백자요지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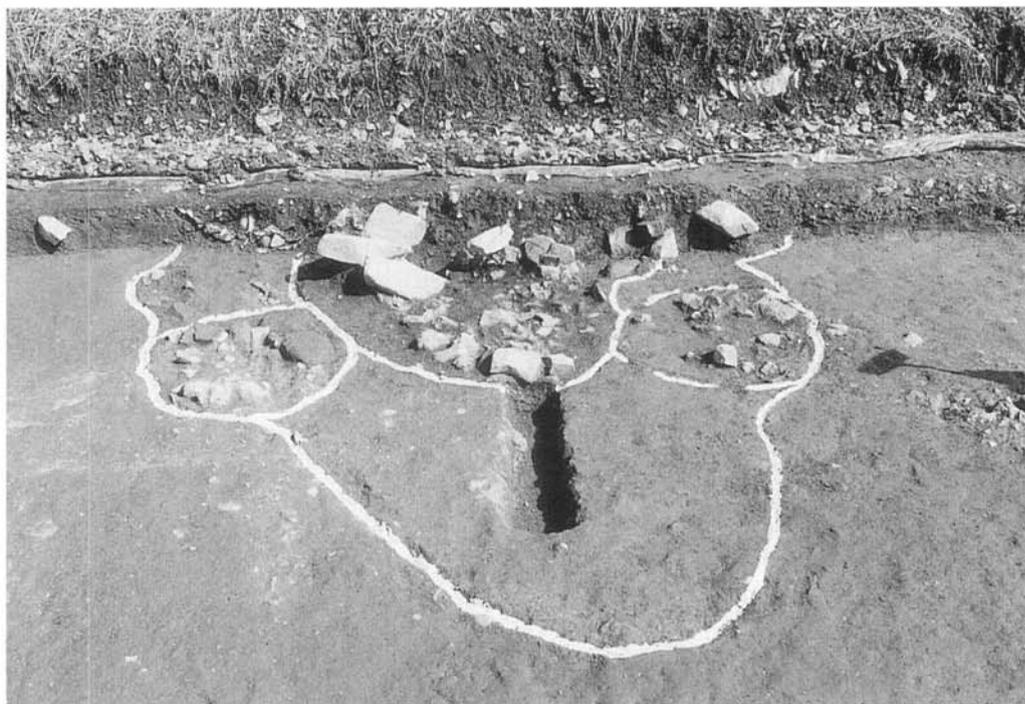
〈사진 7〉 북내면 중암리 고려백자요지 아궁이 전경(1차)



〈사진 8〉 북내면 중암리 고려백자요지 굴뚝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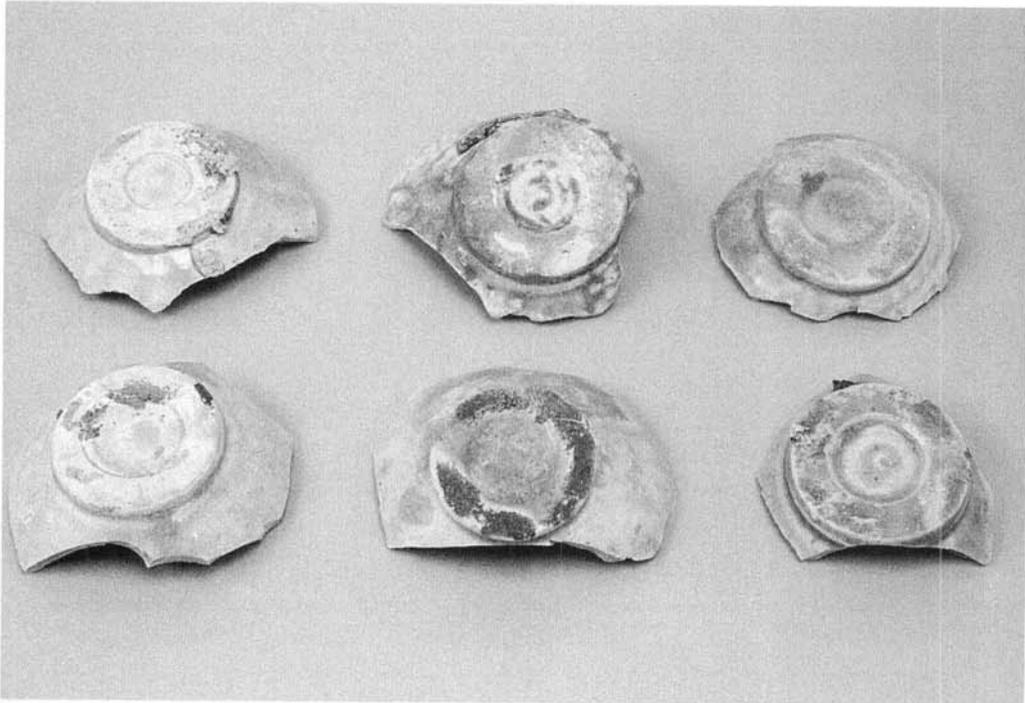
〈사진 9〉 북내면 중암리 고려백자요지 퇴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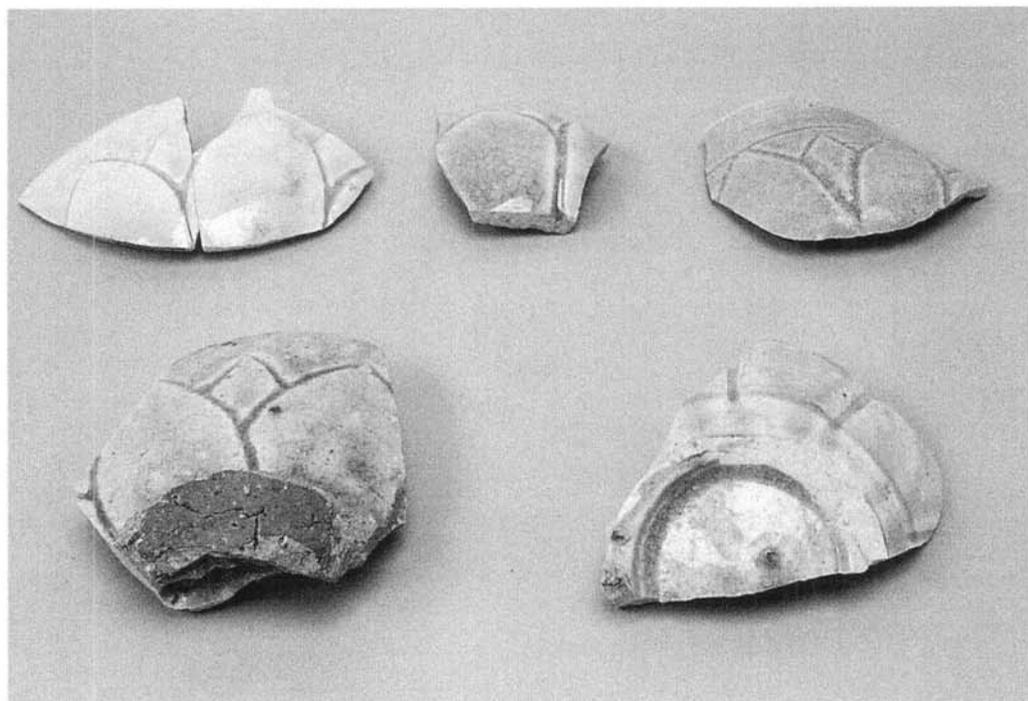
〈사진 10〉 북내면 중암리 고려백자요지 아궁이 전경(2차)



〈사진 11〉 북내면 중암리 고려백자요지 공방지



〈사진 12〉 북내면 중암리 고려백자요지 출토 해무리굽 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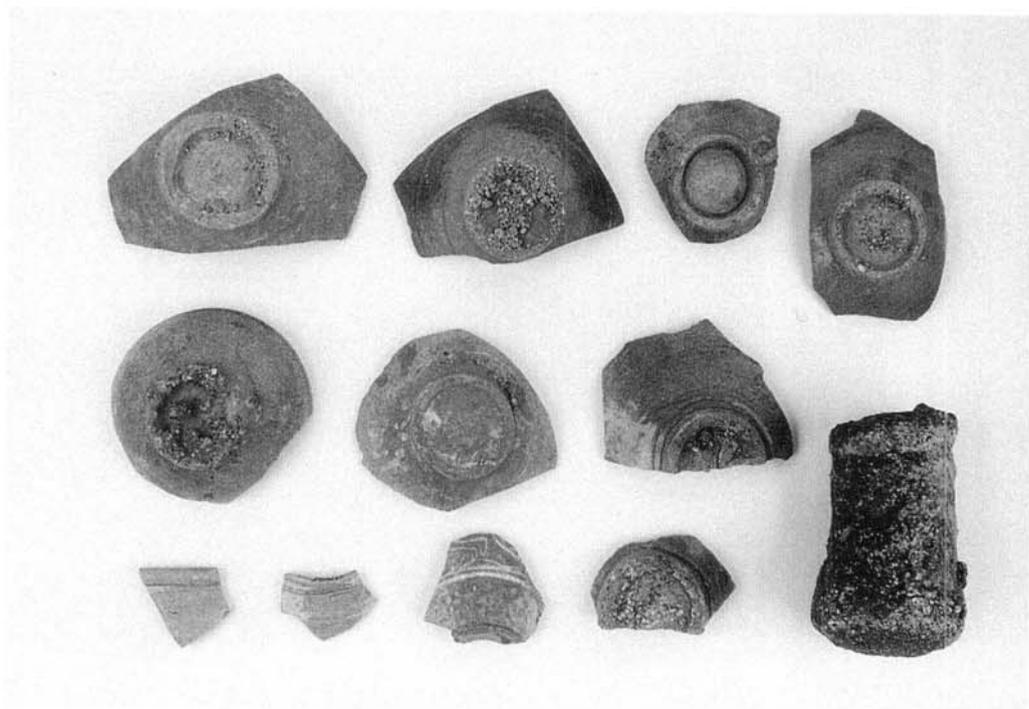
〈사진 13〉 북내면 중암리 고려백자요지 출토 연판문 자기류



〈사진 14〉 북내면 중암리 고려백자요지 출토 갑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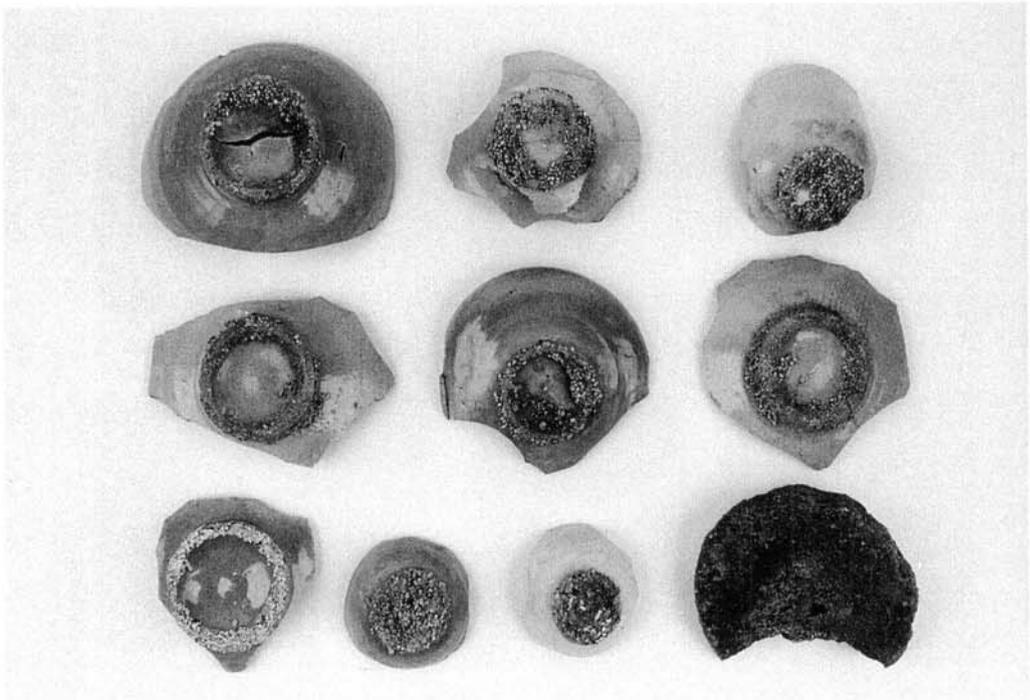
〈사진 15〉 북내면 중암리 3호요지 전경



〈사진 16〉 북내면 중암리 3호요지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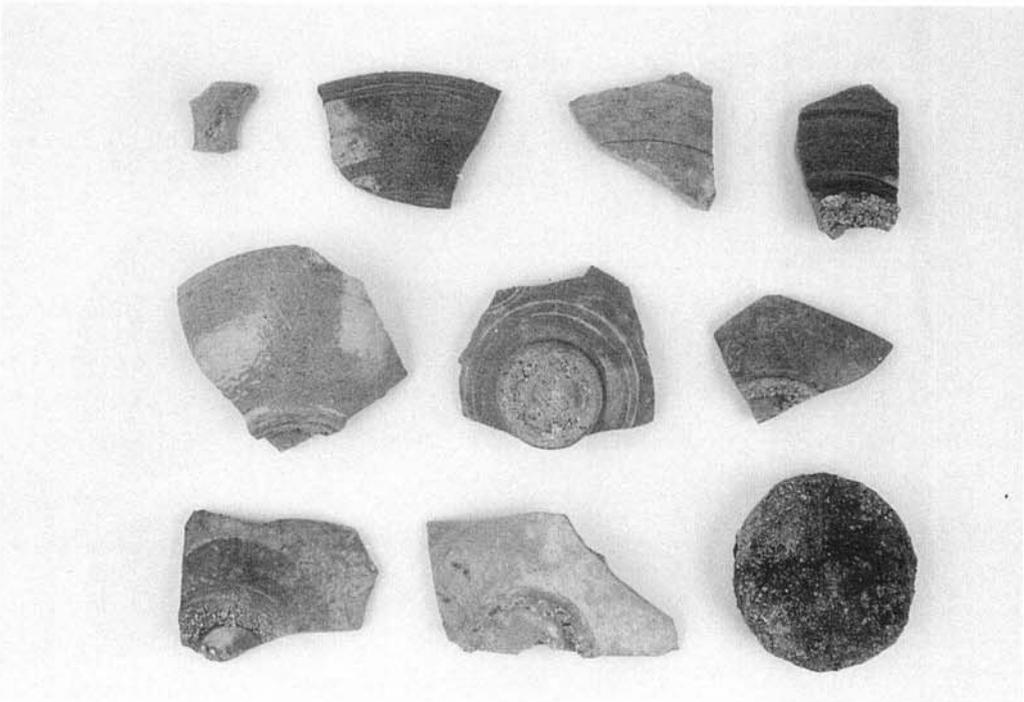
〈사진 17〉 북내면 윤촌리 2호요지 전경



〈사진 18〉 북내면 윤촌리 2호요지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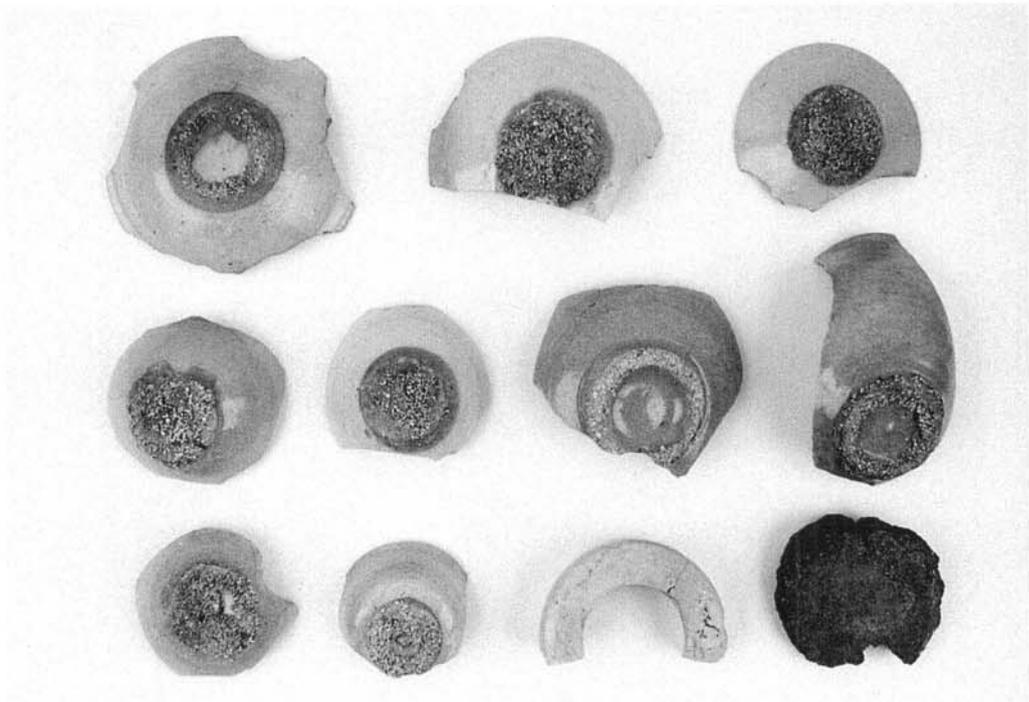
〈사진 19〉 북내면 장암리 2호요지 전경



〈사진 20〉 북내면 장암리 2호요지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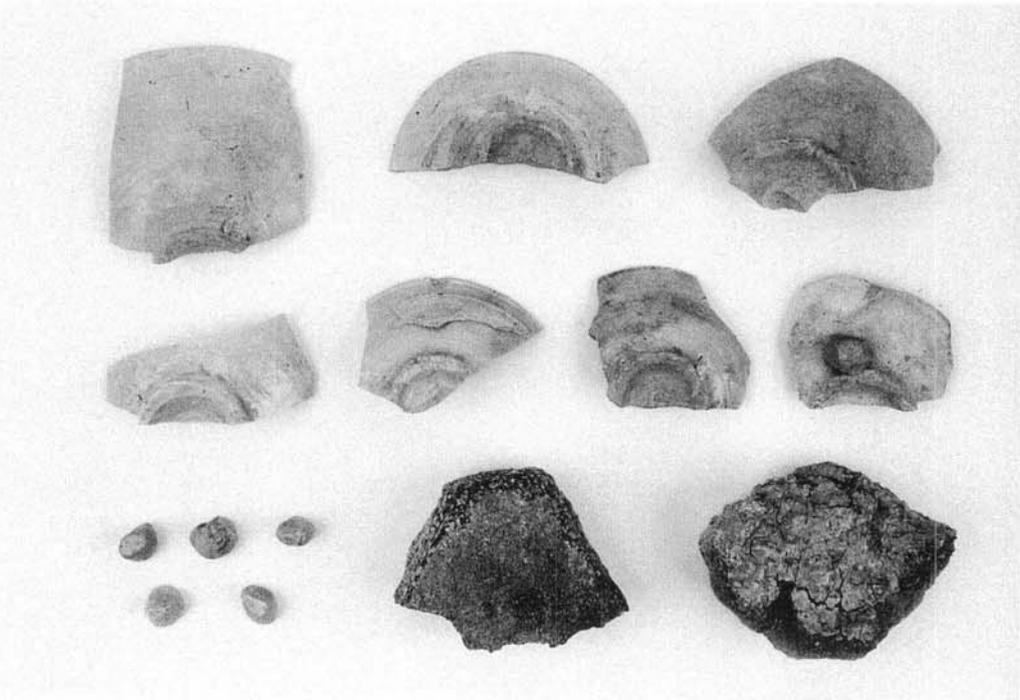
〈사진 21〉 북내면 상교리 2호묘지 전경



〈사진 22〉 북내면 상교리 2호묘지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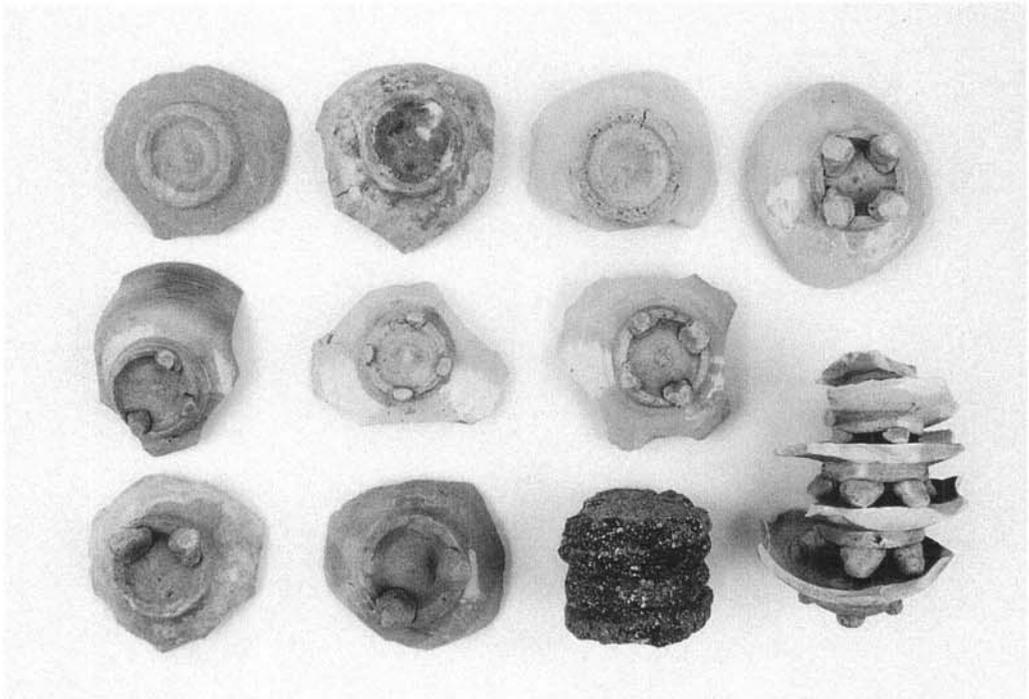
〈사진 23〉 북내면 상교리 8호요지 전경



〈사진 24〉 북내면 상교리 8호요지 수습유물



〈사진 25〉 산북면 상품리요지 전경



〈사진 26〉 산북면 상품리요지 수습유물

1910년대 초반 日帝의 朝鮮 文化財 政策

- 「每日新報」 기사를 中心으로 -

박 익 수 *

- I. 글을 시작하며
- II. 일제의 문화재정책
 - 1. 문화재 조사
 - 2. 개발과 보존
- III. 글을 마치며

I. 글을 시작하며

1910년 8월 29일 조선을 강제 합병하여 식민지로 만든 일제는 1910년대를 통하여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기반 구축작업을 전개하였다.¹⁾

칙령 제319호의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²⁾ 및 칙령 제354호로 공포한 〈조선총독부 관제〉³⁾ 등으로 중앙관제를 정비하고, 칙령 제357호의 〈조선총독부 지방관관제〉⁴⁾ 등으로 지방통치기구를 재정비하였다.⁵⁾ 그밖에도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군사 등 전반에 관한 법과 제도가 일제의 식민통치에 맞게 재정비되었다.

법과 제도의 재정비를 위해 일제는 아주 오랫동안 조선의 舊慣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한 구관조사사업은 통감부시대 부동산법조사회를 효시로 하여 조선총독부 참사관에서 담당하다가 1915년 5월 총독부관제 개정으로 중추원에서 담당하게 되었다.⁶⁾

* 경기도 문화정책과장

1) 김운태, 1999,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2) 『조선총독부관보』 제1호, 1910년 8월 29일자.
 3) 『조선총독부관보』 제28호, 1910년 9월 30일자.
 4) 『조선총독부관보』 제28호, 1910년 9월 30일자.
 5) 손정목, 1992,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 상, 일지사, 116쪽.
 6) 박현수, 1998, 「일제의 식민지 조사기구와 조사자」 『정신문화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6-17쪽.

1910년대는 이렇게 구관조사사업과 함께 법과 제도가 개편되는 시기였다. 조선총독부의 식민정책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총독부 시정연보』,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등 총독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자료를 제외하고, 그러한 공식자료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은 1910년대 유일한 신문이자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가 있다.

이 글에서는 『매일신보』에 게재된 기사를 통하여 총독부의 조선문화재에 대한 정책을 파악하고자 한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공식기록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그 공식기록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그 배경 등을 알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글은 신문 기사를 통하여 1910년대 초기 일제의 조선문화재에 대한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과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⁷⁾

『매일신보』에서 1910년 8월 30일부터 1913년 4월 30일까지 2년 8개월 동안 문화재 관련기사는 87건이다(첨부 참조). 그 가운데 사설은 9건으로 거의 10%이고, 나머지는 잡보이다. 사설의 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날 짜	사 설 제 목
1911년 2월 14일	고물보관의 방법
1911년 3월 3일	고서적에 대하여
1911년 4월 19일	명승보관의 필요
1911년 10월 6일	고건축물 보호
1911년 10월 27일	성문훼손론
1911년 11월 30일	고물보존의 통첩
1912년 2월 25일	고물보존의 필요
1912년 5월 1일	미술사상의 배양
1912년 9월 6일	경주의 부흥

위에서 본 사설 9개 가운데 6개는 고건축물 등 조선 문화재의 보존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 내용도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912년 2월 25일자 사설(고물보존의 필요)을 예로 들어보면,

조선은 4천년 古域이라 관유 및 사찰에 전래하던 건축물, 서화, 석물 기타 각종 고물 중에 귀중품이 다한 즉 불가불 내지의 국보와 동양으로 취급함이 지당하다하여 목하 내무부 및 영성과에서 보존 방법을 입안중...

문명열방은 고물을 애하는 癖이 특심하여 고물에 속하는 자는 비록 무용품이라도 중보와 여히 보

7) 그러나 그 시기가 1910년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필자의 사정으로 1913년 4월말까지로 한정되었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같은 시기 일제 총독부 측의 공식 기록을 풍부히 참조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한 점도 한계이다.

존하며...

조선은 백유년래로 인민의 정도가 저하하여 고물이 하물인지 부지하고 徒히 口腹에 役役하여 비록 여하한 세수고물이라도 若 錢金을 見하면 擲之不惜하니 況 관유 및 공동보물이야 하등의 애호가 有하였으리오...

... 금회 국보조사에 대하여 다시 동포에게 경고하노니 我洞我郡에 고유한 물을 하필 당국의 力を 待하여 보존하리오. 각기 고물을 애하는 觀念을 발하여 郡 혹 洞에 존재한 고물을 공동애지하며 공동호지하는 동시에 제군 가중에 사유한 고물도 役위애호할지이다⁸⁾

라고 하여 첫 번째 부분에서는 조선의 역사가 유구하여 여러 문화재가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호정신이 각별하다는 것을 서술하였으며 세 번째 부분에서는 조선은 백여 년 이래로 정치가 문란해지고 경제도 꺾박되어 인심이 황폐화되어 그 결과 문화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극히 낮다고 질타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에서 문화재 애호정신을 함양하고 발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결국 이 사설들은 '우매한 민중'들에 대한 계몽성 글인 것이다.

II. 일제의 문화재정책

1. 문화재 조사

1) 關野貞의 조사

일제는 한일합방을 이룬 다음 달에 일본의 공학박사 關野貞을 초빙하여 조선 각지의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關野는 安井, 栗原 등을 대동하고 경성에 왔다.⁹⁾ 이 일에는 寺內 통감(총독부 관제가 10월 1일자로 실시됨에 따라 9월 말일까지는 총독이 아니라 통감이었음)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 많은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다.¹⁰⁾

關野 일행은 1차로 경성·개성·평양 부근의 고적을 조사한 후 귀경하였다가 10월 12일에 다시 충청·전라·경상 등 삼남지방에 대한 2차 조사에 나섰다. 그 조사결과는 총독부 당국에 보고되었을

8) 《매일신보》1912년 2월 25(사설), '고물보존의 필요'.

9) 《매일신보》1910년 9월 24일(2면), '關野工學士 渡來'.

10) 《매일신보》1910년 9월 29일(1면), '고대의 건축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결과에 대한 개요가 12월에 『매일신보』에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關野 일행은 경상도의 고령·창녕·영산·함안·진주 및 가야산 일대, 전라도의 광주·나주·창평·능주·영암·해남·익산·김제 및 지리산 일대, 충청도의 속리산 일대를 답사하면서 伽羅시대의 古址, 山城址 기타 陵基, 마한시대의 궁지, 산성지 기타 고분, 그리고 속리산 법성사와 지리산 화엄사, 익산의 미륵사지, 지리산 쌍계사, 영암의 도갑사, 해남의 대둔사 등에서 석탑, 석등, 석불상, 석비 등을 발견하였다.¹¹⁾

關野 일행의 이 조사와 그 결과보고는 1911년 1월 초에 총독부에서 추진하였던 '조선명소구적보존법'¹²⁾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關野는 그해 7월 일본 천황에게 조선의 고대유물에 대하여 上奏하였다.¹³⁾

1911년에도 關野 일행의 조선 문화재 조사가 실시되었고, 시기는 9월이었다.¹⁴⁾ 이때 關野일행은 개성지방을 조사하였고, 개성을 조사한 후에는 경주와 울산으로 갈 계획이었다.¹⁵⁾ 1년 전에 關野가 처음 의뢰를 받고 조선에 왔을 때 경성·개성·평양 등지를 1차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개략적인 것이었고, 1년 후인 이때 하였던 조사는 보다 정밀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關野 일행의 조사활동에 대하여 총독부에서는 다음해인 1912년도 예산에 수만원을 계상하여 그 활동을 지원하였다.¹⁶⁾

1912년에도 9월에 關野 일행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때 關野는 평양방면을 조사하였고, 경기도 광주군 송파는 栗山, 황해도 사리원은 谷井이 분담하여 조사하였다.¹⁷⁾ 이때 關野는 강서군 우현리에 있는 3대 고분의 발굴조사에 착수하였고, 谷井 일행은 봉산군 미산면 오동에 있는 都塚을 조사하였는데, 백제전성시대 건안 연간에 만들어진 고분으로 추측하였다.¹⁸⁾ 건안은 중국 후한말 한제대의 연호로 백제의 초고왕 재위기간(166~214)에 해당한다.

이후 10월 5일 關野 일행은 강원도 지방의 고적조사를 실시하였다.¹⁹⁾ 1912년 가을에 이루어진 關野 일행의 조사에 대하여 『매일신보』는 1913년 1월 1일자 특집호에서 그 결과를 실었다.²⁰⁾ 이 결과도 공식적으로 총독부 당국에 보고된 내용일 것으로 생각된다. 『매일신보』는 먼저 9월 16일 동경을 출

11) 《매일신보》1910년 12월 14(3면), '반도고대의 유적(關野박사 답)'.

12) 《매일신보》1911년 1월 12일(2면), '名所舊蹟보존법'.

13) 《매일신보》1911년 7월 16일(2면), '조선고물 天覽'.

14) 《매일신보》1911년 9월 24일(2면), '關野박사의 북행'.

15) 《매일신보》1911년 10월 4일(2면), '고건축물 보호'.

16) 《매일신보》1911년 10월 4일(2면), '고건축물 보호'.

17) 《매일신보》1912년 9월 21일(2면), '고적조사의 여정'.

18) 《매일신보》1912년 9월 29일(3면), '고분조사'.

19) 《매일신보》1912년 10월 6일(2면), '관야박사의 시찰'.

20) 《매일신보》1913년 1월 1일(제4)(1면), '조선최고의 보물'.

발하여 조선의 사적조사로 강원도로부터 충북, 경북에 涉하여 전후 69일간 약 5백리²¹⁾ 程의 산하를 답사한 關野貞씨는' 이라고 서두를 꺼낸 뒤 다음과 같은 關野貞의 말을 인용하였다.

자가 조선에 대한 사적조사의 여행은 전후 4회인데 본년의 여행은 多히 발견하고 흥미가 有한 事는 희소하였으니 도선후 경성 및 강서 부근의 사적을 조사하였는데 강서에서는 고려시대의 3개의 고분을 발굴하였는데 2간 4방 및 고 2간의 고분으로 석곽을 화강석으로써 成하고 그 중 2개는 석곽에 繪具로서 회화를 描하고 他는 漆喰으로써 석곽을 塗하고 同히 회화를 施한 자인데 3개가 皆 약 천삼백오십년경의 物품으로 중국 남북조식을 表한 자인바 아 足利시대의 양식과 일치한 점이 有함을 認하고 그중 1개의 고분에는 (중략) 4신을 描하고 천장에는 당초모양, 天人, 연화모양 등을 描한 화려한 자이니 일본, 조선, 중국을 통하여 최고의 美術品이라 또 사리원역 부근에서는 대방태수의 고분을 조사하고 남한산록에서는 백제초기에 대한 다수한 고분을 발굴하여 다소 得한 바가 有하였고 10월 5일 경성을 출발하여 5백리의 산천을 69일간에 跋涉하였는데 此行의 특히 記할 것은 춘천에서 맥국의 유적을 探하고 去하여 금강산巔을 窺하여 장안사, 정양사, 마하사, 유점사, 신계사 등의 건축보물을 탐사한 중 유점사에서 신라시대의 제작에 係한 44체의 小銅佛을 발견하고 다시 금강산의 풍광에 친히 路를 동해안으로 취하여 건봉사, 낙산사 등을 經하여 濊國의 고도 강릉에 착하여 다시 대관령을 扨하여 오대산에 登하여 유명한 史庫를 조사하였는데, 상원사에서는 개원 13년의 銘이 有한 古鐘을 연구하였노니 此鐘은 조선최고의 제작하여 고유의 特色을 認할 진품이오 원주에서는 신라 고려 양 시대의 석탑, 석불, 철불, 석비, 석부도 등 다수를 조사하고 여주로부터 충주에 나가 우수한 고대의 유물을 발견하고 죽령을 넘어 소백산 대백산의 古寺를 역방하였는데 소백산의 부석사에서 고려 시대의 목조건축 2동을 발견하였노니 유래 조선에서는 이조 이전의 목조건축은 미증유한 處로 건축사상의 大發見이라. 동시에 在한 고려시대의 제작에 係한 勝景 제1로 爲할 地는 금강산으로 주는 외금강 및 내금강을 窺하였는데 특히 외금강의 風光은 鴻濶장대 암석이 重첩하여 기봉이 究凡한 절경은 도저히 妙義耶馬溪의 比가 아니요 강릉에 至하면 도처에 翠微가 宗횡하여 畫趣橫溢함을 覺하겠더라 운운.

關野 일행의 3년에 걸친 조사는 총독부 당국의 문화재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21) 이 5백리는 조선의 5천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1리는 조선의 10리에 해당한다(손정목, 앞의 책, 156쪽 각주 112 참조).

2) 총독부 당국의 조사

위와 같은 關野 일행의 조사와 별도로 총독부 당국의 행정계통을 이용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먼저 1910년 11월 오대산 사고에 관한 사무를 강릉군수가 관할하도록 결정하고, 그 상황을 총독부 내무부로 보고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²²⁾ 이로써 지방관리와는 별도로 임명되어 사고를 관리하던 관행이 바뀌어 지방관리가 그 업무를 이관받게 되었다. 사고에 보관중인 서적에 대하여는 적상산 사고가 있는 전라북도에도 내무부의 통첩이 내려졌는데, '내무부에서 일전에 전라북도 장관 이두황씨에게 통첩하되 관하 무주군 적상산 사고에 저장한 각종 책자를 신속히 인계하여 보관하라 하였다'²³⁾는 기사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사고의 서적에 대한 조사보고방침은 총독부 내무부에서 각 도에 내려보낸 도내 문화재 조사보고방침의 일환으로 보인다. 즉 '내무부에서 각도장관에게 훈령하고 각기 관하 각 군 사찰에 재한 고물 고서적 기타 보물을 일일이 조사하여 신속 修報하라 하였다'²⁴⁾는 기사를 통해서 볼 때 고서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문화재에 대해서도 조사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무부의 지시를 받은 각 도에서는 관하 각 부군에 같은 내용을 통첩하였다. 경기도청에서는 관하 각 부윤군수에게 각 사찰에 소재한 보물목록을 조사한 후 修報하도록 통첩하였고,²⁵⁾ 전북도청 大久保 내무부장은 사찰의 실물목록조제의 건에 관하여 관하 부윤군수에게 통첩하기를 '각 관하 사찰에 소장한 고문서, 고서화, 고기물 등으로 역사에 考徵이 되고 문예학술 및 미술의 진보에 裨益될 자료가 不少함으로 기 散逸을 防하고 監守를 엄중히 하여 각사에서 영존의 방법을 설정할 것은 물론이니 각 사찰로 하여금 고물목록의 正副本 2건을 조제하여 참고' 케 하라 하였다.²⁶⁾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 도내의 문화재를 파악한 각 도장관은 그 조사내용을 다시 내무부에 보고하였다. 함북장관 武井友貞은 社寺에 관한 참고로 관하 각 군 사찰에 있는 고서 등을 일일이 조사하여 내무부르 보고하였다.²⁷⁾ 또한 檜垣 경기도장관도 관하 각 군의 사찰에 재한 각종 보물을 일일 조사하여 내무부로 수보하였다.²⁸⁾

이들 문화재 가운데 고서와 관련하여 취조국에서는 이왕직으로부터 인계한 서적 1만 부에 대한 해제 작업을 하였다.²⁹⁾

22) 《매일신보》1910년 11월 16일(2면), '오대산사고'.
 23) 《매일신보》1911년 2월 2일(2면), '사고책보관통첩'.
 24) 《매일신보》1911년 2월 11일(3면), '각 사찰 고물조사'.
 25) 《매일신보》1911년 2월 19일(2면), '사찰보물조사'.
 26) 《매일신보》1911년 3월 1일(2면), '사찰고물보존'.
 27) 《매일신보》1910년 12월 2일(2면), '사찰고서조사'.
 28) 《매일신보》1911년 8월 9일(2면), '사찰보물 조사'.
 29) 《매일신보》1911년 8월 8일(2면), '조선서적 해제'.

그밖에 총독부 당국의 조사와 별도로 김윤식·조희연·장석주·조중응 등 친일 거두들은 사적 구
관연구회를 조직하여³⁰⁾ 총독부 방침에 협력하였다. 또한 1912년 12월 박영효·민병석·박기양·윤
치오 등이 고적조사로 경주에 갔다가 고적보존법 등에 관하여 강구하기로 하고 돌아와서 윤택영·
윤덕영·민영찬 등과 제1회 모임을 가졌다.³¹⁾

2. 개발과 보존

關野 일행의 3년에 걸친 조사와 총독부 당국의 행정계통을 이용한 조사 결과는 총독부 당국의 문
화재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1913년 2월 초 총독부에서는 조선의 문화재 정책
과 관련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옛 건축물은 자유 재산이요 관유 재산으로 인정
할 수 없으므로 보존법을 제정할 성질이 아니라 매년 약간의 보조비를 총독부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
할 것이며, 당장은 다른 곳에 예산을 필요로 하는 급선무가 많으므로 예산 잉여금으로 두 세 군데의
건축물을 선정하여 수선하려는 것이었다.³²⁾

조선의 문화재 가운데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 수 있는 곳은 관람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개
발’에 착수하였다. 먼저 창덕궁 일대의 동식물원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조선의 문화재 조사와
는 무관한 정치적인 결정이었던 것 같다.³³⁾ 이 사업을 위해 조정사에게 설계를 맡기고 성벽을 따라
동소문(혜화문)까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세웠다.³⁴⁾ 이로써 창경궁과 종묘사이에 도로가 개
설되었다.

그밖에 이 시기에 개발된 대표적인 곳은 개성이었다. 그리고 개성의 ‘개발’을 앞장서서 추진한 곳
은 ‘개성 보승회’였다. ‘명승사적지의 보존’을 표방한 개성보승회는 개성 군수, 경찰서장 기타 유지
들의 발기로 1912년 2월 3일 개성 군아에서 발기인회를 열고 발족되었다.³⁵⁾ 이 모임은 ‘보존’ 외에
植樹 및 도로 修築을 또 다른 사업목적으로 삼았는데, 여기서 ‘개발’에 대한 그 성격을 잘 드러내준
다. 이에 앞서 1911년 8월에는 개성군 북부 城架里 및 서부 館前里 사이의 궐문교를, 부근 인민과 거
류 일본인이 협의하고 3백원을 각출하여 수리 가설한 후 준공식을 거행하였다.³⁶⁾ 또한 개성의 남대

30) 《매일신보》1910년 12월 11일(2면), ‘史蹟舊慣研究會’.

31) 《매일신보》1912년 12월 25일(2면), ‘귀족의 고적조사’.

32) 《매일신보》1913년 2월 9일(1면), ‘고물보존에 就 矣’.

33) 순종의 거처인 창덕궁과 가까운 곳에 동물원을 설치한 것에 대해 일제가 함방으로 대한제국 황제에서 이왕으로 격하
되어 할 일이 없어진 순종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과 조선의 궁궐을 격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이 있다.

34) 《매일신보》1910년 10월 6일(2면), ‘동식물원 확장’.

35) 《매일신보》1912년 2월 7일(2면), ‘개성보승회 설립’.

36) 《매일신보》1911년 8월 17일(2면), ‘개성 關門橋 수리’.

문과 만월대에 대하여 만월대는 개성농회에서, 남대문은 총독부 영선과에서 보호방법을 강구할 것인데, 關野박사의 來鮮을 계기로 하여 보존방법의 지시를 청하려고 하였다.³⁷⁾

이렇게 설립된 개성 보승회에서는 이후 1912년 5월 철도를 통해 복사꽃 관람에 나선 유람객을 접대하기 위해 채하동·선죽교·만월대 등에 휴게소를 설치하였다.³⁸⁾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개성 보승회의 이러한 노력에 경성 용산면의 관민유지 등 천여 명의 개성관광단은 개성 보승회에 금화 백원을 기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³⁹⁾

또한 만월대, 선죽교, 채하동 도로를 확장 수축하기 위하여 같은 해 7월 25일에 개성 보승회를 발족시키는 데 주축이 되었던 군수 박우현과 경찰서장 齋藤金祐이 군서기 마문규와 통역생 김헌제를 각각 대동하고 출장시찰하였는데, 齋藤 서장은 돌아오는 길에 오물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도로에 버리는 것을 보고 이후부터는 청결과 위생을 주의하라고 훈유하기도 하였다.⁴⁰⁾

이듬해인 1913년 개성 보승회에서는 각 명승지의 도로와 기타 대로변에 미국 버들 약 만여 주를 재배할 계획⁴¹⁾과 고려자기의 진열장을 만월대에 설치하고 또 명승구적으로 통하는 도로에 이정표를 건설하며 벚나무 등의 나무를 심을 계획을 세웠다.⁴²⁾ 이러한 계획에 따라 남대문으로부터 선죽교에 이르는 9정 및 남대문으로부터 만월대 사이의 19정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벚나무(櫻) 220본, 버드나무(柳) 150본을 심었다.⁴³⁾ 이것을 통하여 '개발'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심었던 나무는 조선 고유의 수종보다는 일본의 국화인 벚꽃나무와 미국산 버드나무 등 외래종이었음을 알 수 있고, 조선의 풍경과 어울리는 나무보다는 일본인들의 취향에 맞는 나무가 우선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성 외에 평양에도 이와 유사한 단체가 만들어졌다. 즉 1912년 8월 15일 일본인 거류민단역소에서 松永 평남도장관 등이 모여 평양 명승보호방법을 협의하고,⁴⁴⁾ 곧이어 평양의 관민 유지가 평양명소보존회를 조직하였는데, 회장은 松永 도장관, 부회장은 熊谷 거류민단장, 기타 橫山 이사, 本田 평의원 등이었다. 이들은 같은 달 23일에 민단역소에 모여 오후 2시부터 보통문, 만수대, 칠성문, 기사능, 을밀대, 모란봉, 현무문, 부벽루, 영명사, 관제묘, 연광정, 대동문, 종각, 승인전, 崇靈殿, 箕宮, 箕子井, 선교리 등지의 각 명승지를 답사하였다.⁴⁵⁾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개발'은 위에서 열거한 조선의 도움지였던 경성, 고려의 도움지였던 개성,

37) 《매일신보》1911년 9월 22일(2면), '개성 고건축 보호'.

38) 《매일신보》1912년 5월 1일(2면), '개성보승회의 설비'.

39) 《매일신보》1912년 6월 2일(2면), '보승회에 기부'.

40) 《매일신보》1912년 7월 28일(3면), '명승지 도로 확장'.

41) 《매일신보》1913년 3월 2일(3면), '개성보승회의 계획'.

42) 《매일신보》1913년 3월 16일(1면, 개성통신), '보승회계획'.

43) 《매일신보》1913년 4월 24일(2면), '개성보승회 植樹'.

44) 《매일신보》1912년 8월 17일(2면), '평양명승보존회'.

45) 《매일신보》1912년 8월 29일(1면), '명승보존회'(평양통신 25일 지국 발).

고구려의 도읍지였던 평양뿐만 아니라 신라의 고도 경주에까지 파급되었다. 총독부에서 영선과장을 파견하여 대략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장래 크게 수선을 행하고 경편 철도를 부설하여 일본의 나라(奈良)와 같은 유람지를 만들기로 하였다.⁴⁶⁾ 이러한 총독부의 계획과 관련하여 다보탑 및 석굴암의 불적 등을 총독부에서 경성으로 이전 보관한다는 유언비어가 퍼져 경주지방의 조선인들이 크게 동요하였던 것 같다. 그리하여 총독부에서는 경성으로 이전할 의지가 전혀 없고, 단지 그 보존 및 수리만 추진할 것이라는 해명을 하게 되었다.⁴⁷⁾ 寺內총독도 같은 해 11월 불국사, 석굴암 등 경주의 유적을 답사하여 관심을 나타내었다.⁴⁸⁾

이를 통해 볼 때 조선 문화재에 대한 일제의 정책은 문화재 자체에 대한 '보존' 과 그 문화재의 관람객을 위한 '개발' 등 양 축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양 축이 양립될 수 없을 때는 '보존' 대신 '개발' 을 택하였다. 교통통행의 편의를 위해 경성의 성곽 가운데 남대문과 동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훼손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총독부 당국의 정책에 대하여 매일신보는 적극 지지하였음은 물론이다. 앞에서 언급한 사설 9개 가운데 6개의 사설에서는 고건축물 등 문화재 보존에 대하여 여러 번 강조하여 피력하였으나, '성문훼손론' 이란 사설에서는 '문명 열방은 도회를 사통하여 1분의 장애가 無함으로 운수가 輕便하고 물화가 풍부하여 동서에 제1, 제2의 大道도 擧皆 如是하니 我 조선도 소위 성문은 일병 훼손하여 도로의 장애가 無케함이 금일의 급무가 될지라'⁴⁹⁾ 라고 하여 교통의 편의를 위한 문화재 파괴를 지지하였다.

문화재 보존과 관련하여 박물관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왕직 사무관 末松熊彦는 각 지방사찰에 있는 불상과 기타 각종 물품을 다수 매입하여 창덕궁 안 박물관에 진열하기를 계획하기도 하였고,⁵⁰⁾ 창덕궁 안에 신축하던 박물관은 공사가 1911년 11월말에 거의 준공되어 귀중 서화류를 박물관에 진열하려고 하였다.⁵¹⁾

46) 《매일신보》1912년 9월 6일(사설), '경주의 부흥'.

47) 《매일신보》1912년 10월 30일(2면), '경주 古寶와 流說'.

48) 《매일신보》1912년 11월 14일(2면), '사내총독경주행(3)'.

49) 《매일신보》1911년 10월 27일(사설), '성문훼손론'.

50) 《매일신보》1911년 2월 4일(2면), '박물관의 불상매입'.

51) 《매일신보》1911년 10월 20일(2면), '박물관 준공기'.

Ⅲ. 글을 마치며

일제는 을사조약으로부터 1910년대 이르는 기간동안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를 위하여 그들의 이해에 맞게 법과 제도 등을 재편하였다. 그리고 그 재편작업의 바탕에는 오랜 기간동안 조선의 '舊慣'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1910년대 일제의 조선 문화재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일제는 먼저 조사작업을 실시하여 그들의 정책결정에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 조사작업에는 동경제국대학 교수 關野貞이 투입되었다. 그는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지 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초빙되어 조선의 문화재에 대한 조사작업을 벌였다. 關野貞 일행의 조사작업은 1910년부터 3년간 매년 9월에 시작하여 연말까지 계속되었다. 關野貞 일행의 이러한 조사작업은 총독부에 그대로 보고되어 1913년 초 총독부에서 조선 문화재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문화재에 대한 조사작업은 關野貞 일행 이외에 총독부 행정계통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1910년 11월 오대산 사고에 대한 관리 변경 및 조사보고를 시작으로 각 도에 있는 문화재 전반에 대하여 조사 보고하라는 통첩이 총독부 내무부로부터 각 도장관 앞으로 내려졌다. 이 통첩에 따라 각 도에서는 관하 각 부군에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고, 보고를 받은 후에는 다시 내무부로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파악된 조선 문화재에 대한 상황도 총독부 당국의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친일 거두들에 의한 조선 문화재의 조사 및 답사도 이루어졌다. 이 역시 총독부의 방침에 적극 협력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총독부 당국은 조선 문화재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였다. 그 방침에서는 먼저 일본인이나 외국인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발'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개발은 문화재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개설이나 휴게시설, 주위경관 꾸미기 등에 집중되었다. 古鄣의 이름을 지니고 있었던 경성, 개성, 평양, 경주 등이 그 대상이 되었다. 아울러 문화재 자체에 대해서는 보존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 예산은 한정되어 점차적으로 소수의 몇 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과 '보존'이 상충할 때에는 총독부에서는 '개발'을 택하였다. 경성 내 성곽 가운데 남대문과 동대문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훼손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교통의 편의제공을 위한 도로수축 때문이었다.

이상이 『매일신보』 기사를 통해서 파악한 1910년대 초반 일제의 문화재정책의 개요이다. 그러나 『매일신보』기사에만 의존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그 시기도 1910년대 초반에 한정되었다는 점도 한계이다.

【첨부】

1910년대 초반 『매일신보』의 문화재 관련 기사
(1910.8.30~1913.4.30)

19100924(2) 關野工學博士 渡來

關野공학박사는 궁내부로부터 조선 전도의 고건축미술조사를 촉탁하여 安井, 栗原 양 문학과와 동반하여 경부선으로 재작야에 입성하여 파성관에 투숙하였는데 당야 남대문 정거장에는 小宮씨 박물관 관원 및 탁지부 관원이 다수 출영하였다더라

19100929(1) 고대의 건축물

寺內통감이 조선고대건축에 대한 관념은 頗深하여 금회 關野박사의 조사에 대하여는 지대한 감흥을 屬하여 다대히 조사상 편리를 與하였는데 동 박사의 조사도 금회 완성을 고할 터인데 未發한 귀중유물이 예술상 위대한 공헌을 성하겠더라

19101006(2) 동식물원 확장

창덕궁 비원을 중심으로 하여 松林 일대지의 위치든지 풍치든지 欠節이 少無하니 此에 적의한 인공을 가하면 가히 일대조원으로 이상적 공원이 될 터인고로 확장할 계획이라는데 금번은 出費의 다소를 불구하고 愈愈실행할 터인데 이미 某 조원사에게 설계를 명하였고 해 설계의 내용은 성벽에 沿하여 동소문에 至하기까지 신도를 開하고 永禧殿下園內를 圍하고 출입구를 朝鮮醫院 表문으로 行케하여 일반공중이 편리하도록 한다더라

19101014(2) 사직단 규칙제정

내무부에서는 각 지방에 在한 사직단관리규칙을 제정하여 昨日에 조선총독부로 送交하였다더라

19101016(2) 각황사 금불봉안

중부 磚洞 覺皇寺에서는 강원도 금강산 乾峯庵에 안치하였던 금불 1좌를 일전에 運來하였다더라

19101108(2) 古器발굴

진주군 玉峯(일명 水晶峯) 위에 數三의 古塚이 有한데 何시대 何人의 所葬인지 不知하더니 金년 夏間에 何許人이 발굴하여 其中에서 奇怪한 古器物 등을 다수 발견하였는지라 日전 該 도청에서 餘塚양 처를 파악하여 역시 기괴한 古器物을 다수 발견한 고로 장차 該郡人의 유식자와 兼且 關野박사의 鑑辨품평에 附하리라더라

19101116(2) 오대산사고

강원도 강릉군 오대산에 在한 사고에 관한 사무는 海軍 軍수가 句管하기로 결정하고 日 상황을 내무부로 수정보고 하였다더라

19101116(2) 경북공관람료

경북공 관람료는 자래로 대인에 10전이오 소아에 5전이더니 金일부터는 대인에 5전, 소아에 3전으로 저감하였다더라

19101117(2) 벽제관 보존청원

고양군에 居留하는 내지인 등은 고전장으로 유명한 海軍 碧蹄館이 頽廢無餘하였다 하고 此를 수리보존하기로 주창하여 수리비의 보조를 모처에 청구하기로 現금 협의하는 중이라더라

19101202(2) 사찰고서조사

함북장관 武井友貞씨는 社寺에 관한 참고로 관하 각군 사찰에 在한 고서 등을 일일이 조사하여 日昨에 내무부로 보고하였다더라

19101210(2) 麗陵의 賊警

개성군 소재 여릉에는 本월 3일 오전 3시경에 적한이 범입하여 장 6척, 광 7척, 심 6척 가량을 竊奪하였다고 本릉 참봉 왕한규씨가 本도청으로 修報하였다더라

19101211(2) 史蹟舊慣연구회

김윤식, 조희연, 장석주, 조중응 등 제씨가 발기하여 金회에 日鮮사적 및 古慣연구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고 일간 제1회의 총회를 開할터이라더라

19101214(3) 반도고대의 유적(關野 박사 담)

9월 20일에 동경을 출발하여 경성에 도착하여 경성 개성 평양 부근의 고적을 조사한 후 1차 귀경하였다가 10월 12일에 다시 삼남 각지로 향하였는데 마차, 승선, 도보의 행정을 합하여 수천리를 답파하고 근일에 입경하여 파성관에서 체재하는 關野박사는 고적조사에 관하여 담화하여 월 경상남도의 고령 창녕 영산 함안 진주 각지에는 伽羅시대의 古址, 山城址 기타 陵基를 다수 발견하였는데 익산에는 거금 2천년전 마한시대의 궁지, 산성지 기타 고분이 다수 산재함을 見하였고 신라시대의 최우수한 유물을 발견함은 즉 충남의 속리산 법성사인데 석탑, 석등, 석불상 등이 유하고 지리산(고명 地理山)의 화엄사에는 진귀한 석탑 석등 石經 등의 단편이 유하며 익산의 폐미륵사 석탑은 규모의 장대함과 수공의 우수함이 반도유물의 제1위를 점하였으니 신라초기의 유물로는 가장 진귀하다 할지오.

전남 창평군 서15리허의 산중에는 신라시대의 미려한 석등이 유하고 지리산 쌍계사에는 유명한 학자 최치원의 서문 및 수필을 鑄한 석비가 유하고 신라말의 유물로는 전북 금구 금산사가 是也니 후백제의 견훤이 창립한 바라 석탑 불상 석등 등의 우수한 유물이 유하고 更히 고려시대의 古蹟舊址에 재하여는 능주의 다탑봉에 대소형의 석탑 20여종과 석불 20여구가 田中 谷間에 산재하니 고려초기의 유물이오 나주의 시중에는 고려초기의 석등이 유하며 광주부근에도 고려시대의 석탑 이삼이 상존하고 영암의 도갑사, 해남의 대둔사 및 기타에도 고려시대의 석탑이 유하며 해남의 城門上에 재한 弔鐘은 頗히 진귀한 者이오.

가야산 해인사에 장한 고려판의 대장경은 일반이 숙지한 바어니와 고려시대의 유물로는 대개 右와 如하고 조선시대에 至하여는 가견할 자 별무한데 3백년전의 건축으로는 근히 3개처뿐이오 1은 해인사의 經庫 2동이라 420년전에 건축한 자이오 1은 해남군 도갑사의 누문인데 현금 퇴폐막심하나 420년전에 건축한 자이오 1은 고령군의 객사니 약 4백여년을 경한 자이라 기타 1백년 이상 전의 건축물에 속한 자로 다소 별견하기 족한 자는 속리산의 5층전(捌相殿 5층탑과 유사함) 동 2층 불전(대웅전, 해인사의 대적광전, 화암사의 각황전, 대웅전, 금산사의 3층 미륵전, 대적광전 등이 要之컨대 조선반도의 예술이 최근대에 至하여 현저히 추락됨을 가히 推知할 자라 운운

19110112(2) 名所舊蹟보존법

내무부 지방국에서 조선명소구적보존법과 신사령 및 사원령을 제정하였는데 장차 각부장관 정례회에 제의취결한 후 반포할 터이라더라

19110202(2) 사고책보관통첩

내무부에서 일전에 전라북도 장관 이두항씨에게 통첩하되 관하 무주군 적상산사고에 저장한 각종

책자를 신속히 인계하여 보관하라 하였다더라

19110202(2) 麗陵城警과 전말서

작년 12월경에 何許적한이 개성군에 재한 여릉을 파굴할 제에 해릉참봉이 발견하고 기 사실을 해도 장관 檜垣直右씨에게 보고하였으므로 동도 장관은 기 능참봉의 전말서를 일전 내무부로 송부하였다더라

19110204(2) 박물관의 불상매입

이왕직 사무관 末松熊彦씨는 각 지방사찰에 재한 불상과 기타 신구 각종 물품을 다수 매입하여 창덕궁내 박물관에 진열하기를 계획하는 중이라더라

19110211(2) 조선의 도서정리

구한 궁정 및 동 정부에 속한 도서는 약 12만권의 다수에 달하였으나 당시는 궁중 부중의 구별이 無한 고로 전 규장각 및 강화도 무주 및 기타 2개소의 사고에 보관한지라 사고에 藏置한 분은 약 2만권 인 고로 5천권씩 4개소에 분치하였는데 기 도서는 중요한 자가 多하고 4개소의 사고사 개 동일한 도서니 이는 화재 기타 재해에 罹하여 전멸될 우려가 유함으로 특히 동일 종류를 4개소에 분치함이라 然이나 寺內총독은 특히 차를 영구히 보존할 필요가 유함을 認하고 약 차를 종전과 여히 방지할진대 산일될 염려가 불무하므로써 총독은 통감으로 착임하였을 시에 조속히 해 도서정리에 대하여 적당히 처치할 旨를 명한 고로 모처에서 즉시 정리에 착수하되 위선 제1착수로 무주의 분은 규장각에 수용하고 강화도의 분은 구 한국정부로부터 통감부에 인계를 료하여 過日來로 문서과에서 정리중이오 기타 2개소의 사고에 장치한 분은 의구존치하였더라 규장각의 도서는 현금 11만 1천여원 중에 구한 국황실에 속한 분 2만 2천원은 이왕가에 인계하고 기타 구한국정부에 속한 분은 즉시 취조국에서 정리하여 장래에 완전한 도서관을 설립하여 안전한 보존방법을 강구한다는데 기 종류에 의하여는 일반의 열람도 허하게 하리라더라

19110211(3) 각 사찰 고물조사

내무부에서 각도장관에게 훈령하고 각기 관하 각군 사찰에 재한 고물 고서적 기타 보물을 일일이 조사하여 신속 修報하라 하였다더라

19110214(1 사설) 고물보관의 방법

(전략) 오호라 아 조선은 동양추요에 재하여 수천년 문명을 擅發하던 古址인즉 기 전래의 고물이 족

히 기가 기군 및 그국에 誇耀할 자가 어찌 手目으로 可量하리오

연하나 挽近 人志가 박약하여 我가 衣하며 我가 食하는 이외에는 일개의 귀중물이 무하여 세세상전 하던 古氣를 棄物로 知하고 動者는 或賣 或失하고 不動者는 혹 파괴 혹 頽棄하여 一物의 완전한 자가 무하니 차로 由하여 관찰진대 아 민족의 정도가 과연 하여히 타락하였느뇨

(중략) 오호라 제군은 雖 의식의 경제가 여하히 곤란할지라도 세세상전하던 사유 및 공유의 고물을 일체보관하여 아 민족 수천년 문명의 古氣를 勿墮할지어다

19110214(2) 원구단 위패매안

원구단에 봉안하였던 위패는 수일전에 매안하였고 사직단의 위패는 燒火하였다더라

19110219(2) 사찰보물조사

경기도청에서 관하 각 부윤군수에게 통첩하되 각 사찰에 소재 보물목록을 조사후 修報하되 조사시에 각 寺僧으로 하여금 오해함이 무케 간독히 설명하라 하였다더라

19110224(3) 影植見失

포천군 내북면 신평리 서원촌에 재한 용연서원에는 조용연 이한음 양 碩儒의 영정을 보관하였는데 기 영정을 근일에 하허적한이 절취이거하였으므로 기 후예와 유림이 합동발기하여 수색차로 기 부근군에 통문을 발송하였다더라

19110301(2) 사찰고물보존

전북도청 大久保 내무부장은 사찰의 실물목록조제의 건에 관하여 관하 부윤군수에게 통첩하되 각 관하 사찰에 소장한 고문서, 고서화, 고기물 등으로 역사에 考徵이 되고 문예학술 및 미술의 진보에 裨益될 자료가 不少함으로 기 散逸을 防하고 監守를 엄중히 하여 각사에서 영존의 방법을 설정할 것은 물론이니 각 사찰로 하여금 고물목록의 正副本 2건을 조제하여 참고케 하라 하였다더라

19110302(2) 벽제관 보존회

근일에 기 준비가 정돈된 고로 금회에 사무소를 고양군청에 설치하고 보존비의 기부를 모집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고양군수 최항석 동 서기 宮坂重郎 양씨가 기부금모집을 인허하라고 총독부에 청원하였다더라

19110303(1) 사설) 고서적에 대하여

(전략) 아 조선에는 서관이 미비하여 기왕의 간행한 자는 부가에서 자수발행한 문집 기종에 불과하고 기타 천만 서적은 저자의 지위가 卑하여도 간행치 못하며 저자의 가세가 빈하여도 간행치 못하였으니 무수한 명유재사의 鳳尾龍鱗의 塵案에 零在한 자를 어찌 可量하리오

연하나 차를 애하는 자가 희소하더니 況今은 세계의 신서적이 일출하매 서적을 貯하는 자가 언필칭 고서적은 무용이라 하여 牛溲馬潑로 視하며 悖子惡孫은 선인의 전래하던 古紙를 혹 塗壁하며 혹 覆瓶하여 漸滅殆盡하니 오호 痛矣라 어찌 인정의 悖戾가 此에 至하노

(중략) 오희라 서적을 貯置한 자는 차를 鑑하며 차를 惜하여 祖先 혹 타인의 상전하던 고목을 是愛하여 胼자악손을 면할지어다

19110304(2) 사직단 가옥 공매

사직단의 소속 가옥은 장차 공매하기로 결정하였다더라

19110316(3) 麗陵修補更請

개성군 居 왕덕흥씨가 해군에 재한 고려태조의 능소를 수보하기 위하여 작년 추에 내무부로 청원하였는데 해부에서 경무총감부로 하여금 기 수보의 여부를 조사케 하였으나 우금까지 수보하라는 승인을 未承하였으므로 해부에 대하여 일전에 갱히 청원하였다더라

19110401(2) 벽제관 보존과 기부

해회에서 비용을 支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차로 경기도청에 청원하였다더라

19110419(1) 사설) 명승보관의 필요

(전략) 아 조선의 고래명승이 백천으로 계기 難하니 차를 보관하려면 共力만 待할 바 아니라 불가불 부근인사의 애호정신이 유하여 此亭을 증건하여야 아 居人에게 광휘가 생한다 此樓를 증축하여야 아 居人에게 명예가 전한다 하여 각기 所近 명승을 一心보관하여 荒垣頽少에 勿歸할지어라

19110422(2) 고건축물의 보존

조선내지에 재한 社寺, 관청 등 고건축물 중에는 상당한 연대를 경한 자도 불소할 뿐 아니라 기 구조 설계 등이 금세의 모범을 作할 공예가 多하여 고대의 미술을 연구할 자 多함으로써 연전에 탁지부에서는 제국대학의 關野박사를 빙하여 조선내지의 고적건축물 등의 조사를 촉탁함은 일반이 이위 속

지하는 바어니와 동 박사의 목적은 전혀 건축물에만 재치 아니한 고로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사사, 관청 등의 고건축물에 관하여도 갱히 상당한 학자에게 촉탁하여 보존할 자를 상세히 조사케 하고 보존경비를 계상하여 보존할 계획을 확립할 터이라더라

19110709(2) 사찰령 시행세칙

작일 관보로써 사찰령시행세칙을 발표하였는데 동법에 의한 즉 경기도 광주군 봉은사 외 전도를 통하여 29개사의 주지가 취직할 시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기타의 사찰에 대하여는 지방장관의 인가를 수하고 주지는 취직후 5개월 이내에 사찰에 관한 토지, 삼림, 건물, 불상, 석물, 고문서, 고서화, 범종, 불기 기타 귀중품의 목록을 조선총독에게 제출하되 만일 신고치 아니하는 시에는 50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함이다더라

19110716(2) 조선고물 天覽

공학박사 關野貞씨는 고대 조선의 유물에 대하여 奏上한 바 유하였다더라

19110808(2) 조선서적 해제

취조국에서는 이왕직으로부터 인계한 서적을 정리하는 중인데 殆히 1만부에 及하는 고로 용이한 업무라 謂기 難하며 목록뿐으로는 내용을 知기 難함으로써 조선서적 전부의 해제를 작제코자 하여 목하 착착 진행하는 중이로되 1만부 이상의 서적인 즉 완결은 조속하여도 來春에나 畢了하리라더라

19110809(2) 사찰보물 조사

檜垣경기도장관은 관하 각군의 사찰에 재한 각종 보물을 일일 조사하여 내무부로 수보하였다더라

19110817(2) 개성 關門橋 수리

경기도 개성군 북부 城架里 및 서부 館前里間의 靑문교는 5백여년 전에 가설함인데 年久 頽圯하여 河水의 유해를 당하면 靑의 불편이 다함으로 부근 인민과 거류하는 내지인이 협의한 후 금 3백원을 釀出하여 수리가설하던 바 해 공역이 준성되었음으로 거 9일 준교식을 거행하였더라

19110910(2) 사찰령 시행방법

사찰령 시행에 관한 처무방법의 건(정무총감이 각 도장관에게 발한 통첩)

19110914(2) 총독의 헌상하는 高麗燒 화병

조선총독부 공업전습소에서는 고려소의 원료 및 도약의 연구를 위하여 청자 고려소를 제작하였는데 극히 교묘한지라 거 7월 29일 寺內총독이 동소를 참관할 시에 동 화병을 견하고 고려소와 무임함을 찬양하고 총독은 갱히 성상폐하게 헌상코자 하여 정제함을 伊藤소장에게 위촉하였는데 동소의 직원 생도는 정세히 연구하여 즉시 제조한 바 모형은 박물관에서 6백원이라하는 청자고려소와 동하고 원료는 여주 및 밀양산의 백토와 경성 동대문 외의 적토를 조합한 坏土로써 謹製하여 12일에 준공하였는데 그 중에 완전한 자 1쌍을 선하여 총독에게 송하였다더라

19110922(2) 개성 고건축 보호

개성의 남대문은 경성 남대문과 여히 고대 건축물에 속하고 만월대도 유명한 고적인데 皆 보존의 道가 無함으로써 만월대는 현금 개성농회에서, 남대문은 총독부 영선과에서 하등 보호방법을 강구할 자라 고로 금회에 關野박사의 來鮮을 爲機하여 보존방법의 지시를 청할 터이라더라

19110924(2) 關野박사의 북행

총독부의 촉탁에 의하여 입경한 關野박사일행은 재작일에 경성을 발하여 개성으로 前往하였다더라

19111004(2) 고건축물 보호

조선의 고건축물 보호에 관하여는 총독부에서 關野박사 및 그 일행의 학사에게 촉탁하였는데 현금 박사일행은 개성방면에 재한지라. 전혀 평양 및 경성으로 중심을 삼아 조사하고 갱히 경주 울산에 及할터이라 하며 총독부에서는 본 사업에 관하여 명년도에 수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고로 필연 상당한 설비를 見함에 至하리라는데 關野박사의 答화를 得聞한 즉 조선의 고건축물은 대개 4, 5백년래의 건축에 관함인 즉 금일에 즉시 그 보호공사를 가할 필요가 무함은 도로혀 다행하고 석불 및 석탑류는 천여년을 경과한 귀중품인데 왕왕 각 사원에서 보존의 道를 강구치 아니하고 내지인의 간상 등에 害 妨매하는 등 事가 유함은 실로 유감불이하는 바라 하더라

19111006(1) 사설) 고건축물 보호

(전략) 此가 당국에 입문하여 금회에 각도에 재한 고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一邊으로 조사원을 파 송하며 명년도에는 수만원의 경비를 投하여 보호에 착수한다하니 일반인민이 此 舉?對하여 고건축물의 소중함을 가히 了解할지라 연한 즉 왕일의 소행한 事이 필연 자기희생을 불승하리рода 오호라 자금으로 고건축물을 애하는 사상을 발휘하여 각기 자기 면동내에 재한 고물을 일체보호하여

아 조선 수천년의 靈蹟奇觀으로 하여금 水流雲空에 歸게 勿할지어다

19111020(2) 고건축물 훼손에 대하여

근래 건물 기타 공작물의 훼손처분을 신청하는 자 다하나 그 중 역사상 또는 학술상에 특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총독부에서 일체 조사중인데 그에 대하여 각 도청 및 일반관청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할 함로 정무총감의 통첩이 유하였다더라

19111020(2) 박물관 준공기

창덕궁내에 신건축하던 박물관은 공사가 크게 진보되어 내 25일에 거의 전부를 준성할 터라는데 귀 중서화류는 해 관내에 진열한다더라

19111025(2) 關野박사의 일행

고건물 및 사적 등을 조사하는 關野박사의 일행은 2, 3일 후에 개성군으로 下往하였다가 즉시 경주 방면으로 發向한다더라

19111027(1) 사설) 성문훼손론

(전략) 현금 문명 열방은 도회를 사통하여 1분의 장애가 무함으로 운수가 경편하고 물화가 풍부하여 동서에 제1, 제2의 대도도 거개 여시하니 아 조선도 소위 성문은 일병훼손하여 도로의 장애가 무케 함이 금일의 급무가 될지라

(중략) 고건물을 誰가 불애하리오마는 족히 천년의 휘요할 가치가 無하고 徒히 행로에만 불편한 자는 宜히 진취할지오 가령 경성내에 재한 동남 2성문과 如한 자는 족히 영구 완상물을 作할만 하니 此는 불가불 보존하려니와 기타 矮簾短棟으로 一毫의 미관적이 無한 者는 일병훼손하여 행로의 편이를 與함이 可하다 하노라

19111130(2) 고물보존의 통첩

근래 각 지방에 산재한 황폐 사찰의 基址, 古碑, 석탑, 석불, 석재조각의 건축물 등을 費買(매매?) 또는 이전하는 자 왕왕 有之한 바 이는 고대로부터 전래하는 역사의 고증 혹은 미술의 모범으로 영구 보존할 국가귀중의 보물이오 인민의 사유물이 아님을 물론이라 연이나 지방인민이 간활한 자의 유혹에 迷하여 陳貴重의 국유물을 冒認하여 매매의 계약을 위하고 또는 타로 이전하여 사적의 상실을 不顧함과 같은 비행을 敢爲하는 자 왕왕 有之하다하니 이는 실로 無嚴을 극하는 지이라 당해 관헌은

엄중감시하라는 지로 작일에 山縣정무총감으로부터 각 도장관 부윤군수에게 엄절한 통첩이 유하였다더라

19111130(1 사설) 고물보존의 통첩

(전략) 고물 소재지 인민은 往?의 우매를 자각하여 自洞自里의 수천백년의 精彩를 勿失할지이다

19111203(2) 古碑고탑 등 취체

폐사 및 기타 지방에 존재한 고비, 고탑, 석불 기타 석재에 조각한 건설물 매매 및 이전 등의 방지에 관하여 정무총감이 각 도장관에게 엄절한 통첩을 발하였다함은 기보하였거니와 경무총감부에서도 직할 본, 분서장 헌병대장 및 경무부장에게 대하여 엄중히 취체할 지로 통첩이 유하였다더라

19120207(2) 개성보승회 설립

만월대 이외 명승사적지가 파다하되 다년 황폐에 委하였음을 유감으로 하여 일로전역중 당시 동지 병참사령관으로 在하던 高友岡소좌는 일선인과 상모하고 만월대에 一大木標를 建하여 점차 식수코자 하다가 동시가 전임한 후 차등계획도 중절되었더니 금회에 박군수 齋藤 경찰서장 기타 유지자의 발기로 개성보승회를 조직코자 하여 거3일 군아에서 발기인회를 開하고 설치의 결의를 爲하고 불일기 인가를 출원할 터이러는데 該會는 명승사적지의 보존 식수 도로수축 등을 목적으로 하고 普히 기부금을 모집한다는데 既히 수백원의 기부신청이 有하여 本年부터 3년간으로 만월대 선죽교 등지에 櫻楓 등을 植하고 기타 유람자에게 대하여 각종의 편의를 與하기로 하였다더라

19120224(2) 국보편입의 조사

조선의 관유재산 및 사찰 등에 기 건물 및 서화 석기 등에 귀중한 品이 不少한 즉 내지의 국보 同樣으로 취급함이 지당한 고로 내무부 및 영선과에서 海 保存方의 조사를 입안중이라더라

19120225(사설) 고물보존의 필요

조선은 4천년 고역이라 관유 및 사찰에 전래하던 건축물, 서화, 석물 기타 각종 고물 중에 귀중품이 다한 즉 불가불 내지의 국보와 동양으로 취급함이 지당하다하여 목하 내무부 및 영성과에서 보존방법을 입안중...

문명열방은 고물을 애하는 癖이 특심하여 고물에 속하는 자는 비록 무용품이라도 중보와 여히 보존하며...

조선은 백유년래로 인민의 정도가 저하하여 고물이 하물인지 부지하고 徒히 口腹에 役役하여 비록 여하한 세수고물이라도 若 천금을 見하면 擲之不惜하니 況 관유 및 공동보물이야 하등의 애호가 하하였으리오...

...금회 국보조사에 대하여 다시 동포에게 경고하노니 我洞我郡에 고유한 물을 하필 당국의 力을 待하여 보존하리오. 각기 고물을 애하는 관념을 발하여 郡 혹 洞에 존재한 고물을 공동애지하며 공동 호지하는 동시에 제군 가운데 사유한 고물도 역위애호할지어다

19120225(3) 5천년전의 石斧(인천 花島嶼에서 발견)

인천 송림산록에서 先年에 인천관측소 香川 기수가 소형의 석부를 발견하여 和田관측소장에게 증명하였더니 동씨는 인류학상 好個의 자료라 하여 동경제국대학에 기증한 事이 有하였고 기 후에 동 관측소 구내 및 화전 소장관저 부근에서는 석기류와 흡사한 자를 다수 발견한 事이 有하였고 去9일에 석부 2개를 인천 山根정에 거주하는 大田與吉씨가 소유지구되는 인천부 다소면 수유동 인천피병원의 남2丁여를 격리한 元화도진 서측에서 발견하여 고기물 감정에 就하여 다대의 취미와 경험이 有한 화전기사에게 감정을 乞하였는데, 기 大한 자는 重量은 137匁, 長 4척 4분, 폭 (두부) 1촌 3분 (저부) 2촌 3분, 厚는 9분인데 양면 粗磨製로 毫末도 결손이 無한 完全한 품이오 기 小한 자는 저부 즉 刃端에 少결손이 有한데 重量은 65匁이오 장은 3촌 폭은 1분(두부) 후는 1촌 1분이오 환형양면 滑磨제라 동 기사의 감정에 의하건데 석질은 인천지방에 희유한 사암인데 琉球 石垣 등에서 屢屢 발견한 석부와 흡사하여 少하여도 5천년 이전의 원시인종이 제작하여 육류의 조리 등에 사용한 자이라 하였는데 해 석부는 필연 태고 원시인종이 해안에 거주하여 築한 패총에서 발굴한 자인듯하다 云하더라

19120313(3) 백제시대의 古陵

조선고대의 건축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부여군 관내를 순시한 관아박사의 말을 거한즉 부여군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 이삼십리안에는 반드시 고대 제왕의 능침이 있으리라하여 분주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더니 근래 부여군 대방면 동산리에서 백제시대의 능침인가 의심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부여현병분대에서 보존방법을 전력 연구하고 모처에 조사하기를 요구할 계획인데 그 근처 조선인의 말을 들은 즉 수년전에 강경포 방면으로 내지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대략 방한간 노이 되는 석관과 같은 것을 파낸 것이 사오십개 이상에 달하였다 하니 그 자세함은 아직 알 수 없으나 혹은 백제시대의 제왕능침이 아닌가 하고 전력 연구중이라더라

19120316(2) 박물관 낙성연

창덕궁에의 신건축하던 박물관 본관이 낙성되었으므로 이왕전하께서는 재작일에 해원에 행계하셔 오찬회 겸 낙성연을 설행하셨는데 이왕직 민장관 이하 기타 귀족 및 왕족 제씨와 회원 경기도 장관 이 참회하였다더라

19120403(2) 고고학자의 방문

고고학자 英人 세-후씨는 작일 오후 2시경에 관저로 사내총독을 방문

19120412(1) 고물의 蠹賊

근일 한성내 각 亭館을 見하면 석탑 및 석불이 花庭槐園에 列立하니 그 내력을 물으면 알 모 조사의 건축인데 모지에 재하다가 모 頑漢에 偷賣하였다, 알 비구의 초상인데 모사에 재하다가 모 패승이 竊賣하였다 하며 또 狎狽細盜사찰에 잠입하여 수천년 유전하던 고물을 종종 도거하니 어찌 인심의 악착함이 차에 지하뇨 일반승려 및 부근인사는 십분 주의하여 고물유실의 폐가 무케할지이다.

19120429(1) 고서화류의 必惜

…근일에 혹 飢寒의 所驅를 인하여 비록 선대유묵이라도 무난매각하여 호구를 시도할뿐더러 부랑자 제는 차의 대금으로 주색도박의 費를 充하니 당인의 몰각은 足責할 바이 무하거니와 고적의 산망함는 개탄을 不禁할지라 현금 서화를 蓄한 人은 고인묵적의 진귀함을 是思하여 隻字片墨이라도 유기 치 말고 극력 보존하여 野味에 自墮함을 면할지이다

19120501(1) 사설) 미술사상의 배양

…이로 말미암아 보면 조선의 고유하던 제반미술을 쇠퇴부전함이 어찌 상류자의 죄가 아니리오 현 하 당국에서 조선고대미술의 부전함을 애석하여 일반공업을 장려한 결과로 남녀의 수예품이 기려를 日程하여 족히 타인으로 하여금 팔목케 할지나 尙히 유지한 규모로 교습법에 의할 뿐이오 능히 一分의 新意匠이 無하니 이는 그 수예가 他에 불급함이라 평소에 미술사상을 배양치 못함에서 출함이니 일반공업에 有志한 자는 수예의 민활함 보다 미술의 사상을 배양할지이다.

19120501(2) 개성보승회의 설비

개성보승회에서는 5월 5일의 鐵道觀桃열차의 유람객을 접대할 計로 채하동, 선죽교, 만월대 등에 휴게소를 設하여 접대한다더라

19120505(3) 옥천고불의 被盜

거월 27일 밤에 어떤 적한이 고성군 개천면 옥천사에 돌입하여 그 절에서 자래로 보존하던 부처 하나를 빼앗아 갔으므로 그 절 중들은 소관 경찰서로 신고하고 그 종적을 지금 수색중

19120602(2) 보승회에 기부

철도국 주최에 係한 경성 용산면의 관민유지 천여명이 개성관광단을 조직하여 該郡 도착시에 보승회로서 금화 백원을 投하고 환영의 절차를 준비하고 그 상당의 편의를 與한 事에 關하여 해 관광단 일동은 금화 백원을 해 보승회로 기부하고 감사한 意를 표하였다더라

19120608(2) 고대석기의 진열

鳥居축탁이 북선방면에서 채취이래한 조선의 고대석기류는 금회 총독실에 진열하기로 하였는데 각 사진 및 선인 고대의 체격표 통계 등도 완성하여 차례로 진열한다더라

19120728(3) 명승지 도로 확장

개성군에서는 만월대, 선죽교, 채하동 도로를 확장수축하기 위하여 지난 25일 오전 8시에 그 고을군수 박우현, 경찰서장 齋藤金祐 양씨가 동군서기 마문규, 동서통역생 김헌제 양씨를 대동하고 출장시찰하였는데, 재등서장은 돌아오는 길에 우매한 인민이 오예물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아니하고 방방곡곡이 도로에 버리는 것을 훈유하고 일후부터는 청결과 위생을 주의하라 하였다더라

19120817(2) 평양명승보존회

15일 민단역소에서 松永회장 이하 실행위원이 집합하여 평양명승보호방법을 협의하였다

19120829(1) 명승보존회(평양통신 25일 지국 발)

금회에 평양관민간 유지 유력한 제씨가 평양명소보존회를 조직하였는데 회장은 송영 도장관, 부회장은 熊谷민단장, 기타 橫山 이사, 本田평의원 등인데,本月 23일에 당지 민단역소 누상에 회집하였다가 오후 2시부터 각 명승지를 실시답사하였는데, ... 답사한 명소는 보통문, 만수대, 칠성문, 기사능, 을밀대, 모란봉, 현무문, 부벽루, 영명사, 관제묘, 연광정, 대동문, 종각, 송인전, 崇靈殿, 箕宮, 箕子井, 선교리 등지.

19120906(사설) 경주의 부흥

...향일 총독부에서 영선과장을 파송하여 대략 조사하였는데 장래 대수선을 행하고 경편철도를 부설하여 내지의 奈良일반으로 내외여객의 유람지를 작하기로 擬議한다함을 漏聞하였도다.....각지방 인사는 부근에 在한 諸種 고물을 심분 애호함이 가하도다

19120921(2) 고적조사의 여정

관아박사 일행은 평양방면에는 관아박사, 광주군 송파에는 栗山박사, 사리원에는 谷井학사의 分記으로 약 1주일간의 예정으로 조사하고 更히 십월 1일부터 일행이 합동하여 강원도 금강산 및 원주, 충주, 경북 상주 등을 조사하고 즉시 동경으로 향하여 귀동한다더라

19120929(3) 고분조사

관아정씨는 본월 22일에 평양에서 출발하여 강서군 우현리에 있는 3대 고분을 발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고고학상에 특저한 표본물이 될터이오 更히 谷井문학사 일행의 조사지는 봉산군 미산면 오동에 있는 都塚인데 이는 백제전성시대 건안년간에 成한 고분이라고 추측한다더라

19121004(2) 관아박사의 관람

관아정씨는 본월 2일 오전 1시 경의선 열차로 개성에 도착하여 각 명승지를 관람

19121005(1) 평양통신) 명적보존

대흥면 2리 경상동 현금 동아연초주식회사 평양분공장 西隣에 粉牆畫棟이 巍然히 立하고 의열사라는 간판을 게한 것은 임진년역에 평양명기 계월항이가 김경서를 도와 위공을 세운 일을 후인이 사모하여 사우를 세우고 향화를 봉하던 바인데 금에 평원신로가 동사의 정중을 관통하게 된 고로 부득이 樞철의 운에 이르렀는데 토목국에서 여차한 명적이 민멸함을 애석하여 의열사의 토목 石瓦의 건축재를 이운하여 구 관찰부 후 五詢亭 동측에 의전 모양으로 건축하고 계월항의 畫幀을 본월 2일에 이안하는데 이는 당시 賞花室조합에서 주최하여 이안의 勞를 執하였다더라

19121006(2) 관아박사의 시찰

체재중이던 관아박사의 일행은 작5일 당지를 발하여 강원도 지방의 고적조사하기 위하여 출장하였다더라

19121030(2) 경주 古寶와 流說

다보탑 및 석굴암의 불적 등을 총독부에서 경성으로 이전보관한다는 유설을 전한 결과로 경주지방의 선민 등은 크게 소요한 일이 있으나 이는 하등의 오보인지 절대적 경성으로 이전할 의지가 없고 단 그 보존 및 수리에 관하여는 현상과 같이 방기키 불능하니 그 수리비도 거액을 요하여 지출의 방법으로 총독부에서 보관할 필요도 있고 혹은 이들 수리보존의 방법에 관하여 이와 같은 허보를 전함인 듯

19121103(1) 古碑의 보호

…(고비가) 虛滅에 自歸하여도… 부근인사가 보호에 용의치 아니함에서 출함이라.

19121114(2) 사내총독경주행(3)

사내총독은 8일 불국사의 관람을 마친 후 즉시 석굴암에 赴하였는데, …사내총독은 자세히 석상을 觀하고 50원을 출하여 庵에 기부하고 그 보존에 就하여 심히 사승에게 주의한 바가 有하였는데, …

19121205(2) 고려소 기타발굴

평강 현내면 신성리의 철도공사장에서 6월 및 10월중 갈색 素燒皿 1, 황색 素燒皿 1, 唐色製의 鈴 12 천년 이상인 것)

19121206(1) 희귀한 보물(사진)

근일 북부 재동 29통 1호 사는 오모는 중국 원나라 시대에 황제가 사용하던 옥보 1매를 발견하였는데, 이 寶는 거금 6백년전 중국 원 영종시에 고려인 성대용의 녀가 원궁의 시녀가 되고 대용이 원정에 입사하였다가 원 영종 지치 3년 계해 8월에 어사대부 鐵失이 弑帝於宮中하니 성씨 시녀가 그 옥새를 수습하여 대용에게 秘授하였다가 대용이 고려에 봉환하였는데 복원이 망하고 명이 흥한지라 …

19121225(2) 귀족의 고적조사

박영효, 민병석, 박기양, 윤치오 등이 고적조사로 경주에 赴하여 … 고적보존법 등에 관하여 강구하기로 하고 귀래하여 …윤택영, 윤덕영, 민영찬 등과 제1회 집회

19130101(제4)(1) 조선최고의 보물

9월 16일 동경을 출발하여 조선의 사적조사로 강원도로부터 충북, 경북에 涉하여 전후 69일간 약 5백리 程의 산하를 답사한 관아정씨는 자가 조선에 대한 사적조사의 여행은 전후 4회인데 본년의 여행은 多히 발견하고 흥미가 有한 事는 희소하였으니 도선후 경성 및 강서 부근의 사적을 조사하였는

데 강서에서는 고려시대의 3개의 고분을 발굴하였는데 2간 4방 및 고 2간의 고분으로 석곽을 화강석으로써 成하고 그 중 2개는 석곽에 繪具로서 회화를 描하고 他는 漆喰으로써 석곽을 塗하고 同히 회화를 施한 자인데 3개가 皆 약 천삼백오십년경의 물품으로 중국 남북조식을 表한 자인바 아 足利 시대의 양식과 일치한 점이 有함을 認하고 그중 1개의 고분에는 … 4신을 描하고 천장에는 당초모양, 天人, 연화모양 등을 描한 화려한 자이니 일본, 조선, 중국을 통하여 최고의 미술품이라 도 사리원역 부근에서는 대방태수의 고분을 조사하고 남한산록에서는 백제초기에 대한 다수한 고분을 발굴하여 다소 得한 바가 有하였고 10월 5일 경성을 출발하여 5백리의 산천을 69일간에 跋涉하였는데 此行의 특히 記할 것은 춘천에서 맥국의 유적을 探하고 去하여 금강산巔을 究하여 장안사, 정양사, 마하사, 유점사, 신계사 등의 건축보물을 탐사한 중 유점사에서 신라시대의 제작에 係한 44체의 小銅佛을 발견하고 다시 금강산의 풍광에 친히 路를 동해안으로 취하여 건봉사, 낙산사 등을 經하여 濊國의 고도 강릉에 착하여 다시 대관령을 扨하여 오대산에 登하여 유명한 史庫를 조사하였는데, 상원사에서는 개원 13년의 銘이 有한 古鐘을 연구하였노니 此鐘은 조선최고의 제작하여 고유의 특색을 認할 진품이오 원주에서는 신라 고려 양 시대의 석탑, 석불, 철불, 석비, 석부도 등 다수를 조사하고 여주로부터 충주에 나가 우수한 고대의 유물을 발견하고 죽령을 넘어 소백산 대백산의 古寺를 역방하였는데 소백산의 부석사에서 고려시대의 목조건축 2동을 발견하였노니 유래 조선에서는 이조 이전의 목조건축은 미증유한 處로 건축사상의 大發見이라. 동시에 在한 고려시대의 제작에 係한 勝景 제1로 爲할 地는 금강산으로 주는 외금강 및 내금강을 究하였는데 특히 외금강의 풍광은 응혼장대 암석이 중첩하여 기봉이 究凡 한 절경은 도저히 妙義耶馬溪의 비가 아니요 강릉에 至하면 도처에 翠微가 叢횡하여 畫趣橫溢함을 覺하겠더라 운운

19130209(1) 고물보존에 就하야

총독부에서는 古社寺 등의 고대 건축물은 물론 신라 백제 양조시대의 고미술품의 보존보호에 관하여 각종 조사를 진행하는 중인데 일체로 차등 고건축물 기타는 사유재산이오 관유물로 認치 못할 것인 고로 전혀 차를 총독부에 의하여 보존법을 講할 성질의 물은 아니라. 금후 年々히 약간의 보조비를 계상하여 차 보존보호의 방법을 강할 외는 타도가 무하며 고건축물 등으로는 평양의 을밀대와 같은 것은 조사의 결과 수선함에는 전혀 근본적으로 영건할지오 기타도 대개 차류이라. 요건대 신사업 등에 경비를 요하는 일이 급한 금일인고로 차등 비교적 불급한 사업은 초초 간각 치지하는 힘이 없지않아 모처에서는 본년도 예산인여금으로써 2, 3개소에 대한 고대건축물을 수선하여 보존의 길을 강구하며 내년도부터는 점점 타에 미칠 방침이라더다

19130216(사설) 고물보존의 계획

…아 인민도 고물애호의 사상을 발휘하여 부근에 있는 제반 고적을 특히 보존하기에 노력할지며 후 상당한 힘으로 수선할 자는 어찌 개개히 공력을 기다리리오 고대 創建者(창건자)의 사상을 추하면 금 일 보존의 공을 아낌이 불가하도다

19130302(3) 개성보승회의 계획

개성군 보승회에서는 춘기를 당하여 해빙되는 동시에는 군내에 사부를 물론하고 각 명승지의 통행 하는 도로와 기타 대로측에는 미국 버들의 종류를 한 만여주 가량하고 재배할 예정이라더라

19130307(2) 고려자기 窯跡 발견

경성 동부 송신면 우이동은 … 내지인 近藤씨가 … 그 소유지 내에 2개소와 개울 너머쪽 삼각산 아래 에 고려시대로부터 명찰되는 도선사에 이르는 노방계류에 의하여 남면한 산록에 3개소의 고려자기 조적을 발견하였으므로 식자의 참고에 資키 위하여 木標를 세웠다더라

19130316(1 개성통신) 보승회계획

…작년중의 수목 및 식부와 도로개수와 휴게소의 설비 등을 완전케 하여 구적명승도 稍히 그 면목일 신하였으나 … 본년에는 고려자기의 진열장을 만월대에 設하고 또 명승구적에 통하는 도로에 지도 표를 건설하며 櫻 기타의 나무를 심어 풍치를 더하고 일층 관람자의 편의를 計함에 進하고 송도가 花都됨을 세상에 소개하며 …

19130320(2) 고석탑의 보존

개성 및 利川군 경내에 있는 고석탑 중 미술적 모범될 우수한 逸品이 不尠하므로 총독부에서 기술원이 출장 찬택후 撮取하여 고고의 자료로 보존하고자 목하 취조중

19130424(2) 개성보승회 植樹

…這回 남대문으로부터 선죽교에 이르는 9정 및 동문으로부터 만월대의 19정간에 일정한 간격을 취 하여 櫻 220본, 柳 150본을 식재하였다더라

19130430(1) 고분벽화의 모사

진남포부 관내 대상면의 고분벽화는 강서군 기양의 고분과 함께 비상히 年久한 자라. 금에 이왕가로 부터 박물관 촉탁 杉原鶴聲시를 파견하여 조사케 하였는데 … 벽화를 모사중

V. 글마당

유적발굴과 발굴자의 자세 / 조유전

유적발굴과 발굴자의 자세

조 유 전 *

- I. 여는 글
- II. 풍납토성 시굴
- III. 대곡리 출토 청동기
- IV. 닫는 글

I. 여는 글

지난 10월부터 중앙일보의 '남기고싶은 이야기들' 이란 지면에 나의 지나간 발굴이야기를 연재하다 보니 나름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어본 모양이었다. 내가 이야기를 풀어놓게 된 까닭은 뭐 내 업적을 자랑하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어려웠던 시절부터 고고학적인 발굴 조사에 종사해 왔던 사람들 중의 하나로서 무언가 반성이 될, 말하자면 고백성사의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畿甸考古』 편집실에서 나름으로 후학들에게 당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부탁해왔다.

여기서 나는 학부시절에 처음 참가했던 발굴과 졸업하고 사회인으로 첫발을 디디고 나서 참가하게 되었던 발굴조사 현장에 얽혔던 얘기를 한 두 가지 전하고자 한다.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상황에서 비추어 보면 얼마나 방법론적 오류를 저질렀던가 반성해 보고 또 지금 일선에서 발굴조사에 임하는 후배들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이다.

나는 1962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고고인류학과에 입학해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사회에 나와 1969년부터 고고학과 관련 있는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실(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근무하면서 나름으로 한 분야에 종사해 오다 2002년 6월 말로 명예로운 정년을 맞이했다. 말미 정년 이지 33년을 외길로, 그것도 대부분 문화유산 발굴조사에 몸바쳐 온 사람으로서 뒤돌아보면 많은 생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 전국립문화재연구소장

각들이 교차하고 있다.

II. 풍납토성 시굴

대학 3년 시절인 1964년에 실습으로 참가한 서울의 송파구에 있는 풍납동 백제시대 토성에 대한 시굴조사는 어언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푸른 별판이 현재의 모습으로 변한 세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도시화 되도록 토성의 보존을 위해 아무런 손을 쓰지 못했다 하는 반성의 차원에서 이야기이다.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학창시절 누구나 경험했겠지만 현장실습이 마련되어 참가했을 것이다. 지금은 전국 어디서든 연중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관심 있는 학생은 도처에서 진행중인 발굴조사 현장 중에서 관심있는 분야에서 실습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60년대 당시의 사정은 고고학을 전공할 수 있는 학과가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교가 유일했고 아울러 고고학적인 유구발굴 조사를 위한 실습을 한 번 하려해도 많은 제약이 따랐다. 말하자면 발굴조사 현장이 전무했던 시절이다. 그래서 실습할 유적의 선정에서부터 발굴조사에 따른 실제 비용문제인 인부임 등등 제반경비문제를 해결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지금은 전국적인 개발붐과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어차피 먼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또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인하여 발굴 경비까지 개발업



풍납토성 출토 초두

자가 부담하도록 한 까닭에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반 경비의 부담 때문에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는 비록 시굴대상의 유적이 있다고 해도 조사는 불가능했다. 그 이유는 많은 학생들의 실습에 따른 경비와 인부동원에 따른 비용마련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모든 경비는 교수가 연구비라도 받아야만 가능했겠지만 당시만 해도 학생들의 고고학실

습을 위해 발굴조사 경비를 부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시절이다. 그래서 굳이 실습을 할라치면 서울근교의 유적을 대상으로 하였고 인부들 대신 학생들이 삽 들고 몸으로 때워야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원시시대의 발굴조사였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대학 시절에 만만한(?) 실습발굴 현장으로 정해진 대상이 바로 풍납토성이었던 것이다.

풍납토성(風納土城)은 잘 알다시피 한성백제시대의 토성으로 알려져 왔으나 결정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25년 소위 乙丑年 대홍수로 한강이 범람하여 토성의 서북쪽 벽 일부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고 나서였다. 이때 출토되었다고 하는 자루 달린 용기의 일종인 고급 청동초두(靑銅鏃斗) 등을 당시 총독부박물관에서 구입하고 이후 이 토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선총독부에서 1936년에 조선총독부령고시 제69호 '조선보물 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 제1조에 따라 고적 제27호로 지정했던 것이다. 당시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풍납리에 소재한다고 해서 광주풍납리토성(廣州風納里土城)이란 이름으로 명칭을 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지정된 지역은 풍납리 67번지 임야를 비롯하여 총면적이 34,600평 정도로서, 유실되고 남은 토성벽만을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성내부 20만평 정도는 고적에서 제외되었다.

그 후 1939년 이병도(李丙巖)선생이 풍납토성을 『三國史記』 백제본기에 보이는 백제시대의 사성(蛇城)으로 비정 하는 논문을 진단학보(晉檀學報)에 발표한 이후부터 백제사성으로 비정 되어왔다.

광복 후에도 풍납토성은 일제시대 발표한 이병도선생의 주장에 따라 백제사성으로 알려져 왔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1963년 사적 제 11호로 다시 제정되었다. 명칭 역시 일제시대의 지정명칭을 그대로 썼고 아울러 지정범위도 토성벽에 한해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서 지정한 내용 그대로였다.

사적으로 지정된 그 이듬해인 1964년에 들어서 스승이신 고 김원룡(金元龍)선생께서 풍납토성의 성격을 나름대로 밝히기 위해 일종의 시굴조사인 시굴구덩이(테스트 핏트)를 몇 군데 마련하기로 하고 학부의 3·4학년생을 실습 겸해서 인부로 동원했던 것이다. 특히 3학년생인 우리들은 실습이라 학점이 따랐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스승의 의도를 이해하기 이전에 실습과목이라는 차원에서 무조건 동원에 따랐던 것이다. 지금의 대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1964년 당시의 풍납토성 안은 배추밭으로 경작되고 있었고 사람이 살고있는 집이라고는 몇 동에 불과한 한가한 시골의 풍경이었다. 집이 몇 동 밖에 없었던 것은 비가 많이와서 한강 물이 불어나기만 하면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선생께서 정해진 시굴구덩이 8개소를 2인 1개 팀으로 정해서 유물이 나올 때까지 노력봉사를 해야했다. 10월의 햇살은 아직 따가웠지만 흙지도 덤지도 않은 것이 작업하기는 좋은 날씨였다. 그러나 사방 2미터의 구덩이를 파내려 가는 일이 생각과 같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비지땀을 흘려가

며 팀별로 시굴구덩이 작업을 하면서 유물수습과 기록을 병행해 1개월 여를 작업에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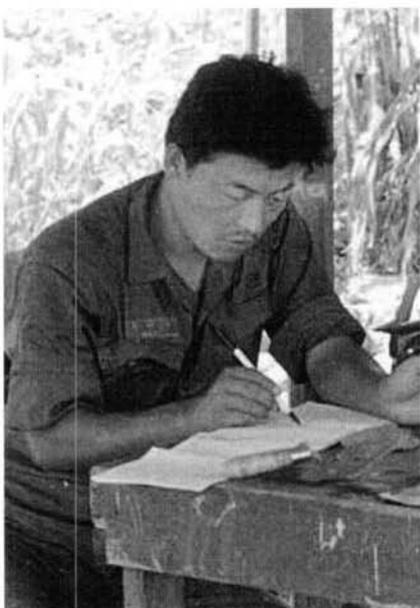
매일 시내에서 풍납동 시굴현장까지는 마장동에서 경기도 광주행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광장교를 건너고 나서 천호동에 내린 다음 풍납동까지 걸어서 가야했다. 그러나 스스로 원해서 하는 기분은 고단함을 날렸고 현장 왔다갔다하는 긴 시간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학창시절이라 낭만도 있었다.

물론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위치에서 시굴구덩이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일부에서는 모래땅이라 벽돌을 제조하면서 새로운 단독주택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말하자면 당시에 인위적으로 유적에 대한 손상과 파괴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모든 시굴조사가 완료되고 나서야 스승의 풍납토성내 시굴조사의 목적을 알게되었다. 말하자면 김원룡교수는 학생들의 실습 시굴조사를 통해 초기백제, 즉 백제가 한강을 중심으로 자리했던 시기 한성백제시대인들의 생활상을 알아보고 출토유물을 통해 풍납토성의 축조연대를 고고학적으로 밝혀보고자 의도했다는 것을 알게되었던 것이다.

그때까지 풍납토성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三國史記』에 기록되어있는 사성(蛇城)이라고 이병도선생이 일제시대부터 주장한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사성의 우리식 이름은 배암들이성이었는데 배암들이성이 세월이 지나면서 바람들이성으로 음변화가 생겼고 이 바람들이가 한자표기로 풍납(風納)으로 되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사성이 축조된 시기가 백제 책계왕(責稽王)때인 서기 286년, 즉 3세기 말 이란 주



동삼동 패총 발굴당시 필자

장이어서 이 풍납토성의 축조 시기가 3세기 말이라고 믿어져왔으며 광복 후까지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믿어져왔다는 점에 있었다. 김원룡교수는 우리들이 시굴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되 풍납토성의 축조연대를 기원 1세기로 보는 견해를 발표해 기존의 학설에 처음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극히 제한적인 조사가 있었을 뿐인데도 선생께서는 퇴적층 구조를 파악하고 출토유물을 고찰하여 초기철기시대에서 백제로 넘어오는 즈음의 역사구명이라는 문을 발견해주신 것이었다.

나는 대학생활 최초로 참가한 풍납토성 내의 시굴조사를 끝으로 학부를 졸업했다. 그리고 소정의 국방의무를 마치고 바로 지금의 국립문화재연구소 전신인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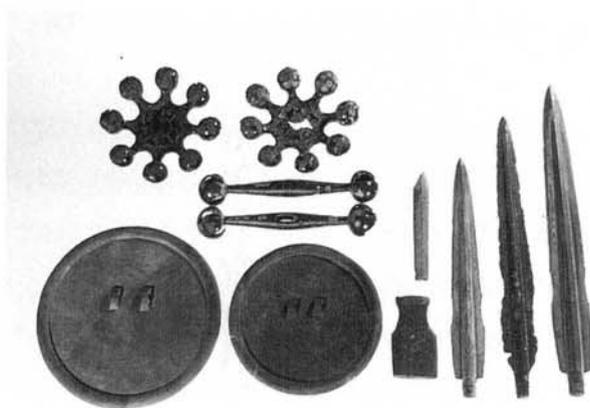


암사동 4차발굴 중 찍은 기념사진

어보자면 1971년 공주 송산리의 백제 무령왕릉,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 화순 대곡리 청동유물 일괄 출토 유적을 들 수 있다. 그 중 무령왕릉발굴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은 얘기가 알려져 있어 생략하고 같은 해 12월에 있었던 대곡리 청동유물 일괄출토지 확인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Ⅲ. 대곡리 출토 청동기

나는 1971년 11월부터 12월 초순까지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 합동으로 실시한 암사동 신석기 유적 발굴조사에 참여하고 이어서 문화재연구소의 본 업무였던 전국문화유적 지표조사의 일환으로 전남지역의 지표조사를 나가야 했다. 지표조사는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땅위에 노출되어 있거나 혼



대곡리 출토 청동기 일괄

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에 몸담아 오면서 명예로운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 대부분을 고고학적인 유적발굴조사에 세월을 보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디뎠던 문화재연구소 시절에 처음 참여한 발굴조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신석기유적인 부산의 동삼동패총이었고 그 후로도 기억에 남는 굵직한 발굴들을 들

적이 남아있는 것을 찾아 유적의 존재를 파악하는 조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 죽고 나뭇잎이 떨어져 식별이 쉬운 눈 내리기 전의 초겨울이나 이른봄 겨울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기 전이 가장 좋은 시기이다.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말고 꼭 조사가 필요한 지역에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발굴조사로 모습을 드러낸 암사동유적 전경



소양강댐 수몰지구 발굴조사에 나섰던 대원들

당시 내가 맡은 지표조사지역이 전라남도 지역이어서 암사동 발굴조사가 완료되자 실 틈도 없이 전남지역으로 조사를 나가게 되었다. 그해 12월 중순, 전라남도 광산군 일원의 지표조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기 전 그간 조사에 협조해준 데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잠깐 광주의 전라남도 도청 문화공보실에 들렀을 때였다. 문화재 담당자가 신고들어 온 유물이라고 청동유물 일괄을 내 보이면서 진품인지 가짜품인지 여부를 물어왔다.

유물을 본 순간 나는 심한 충격에 전율마저 느끼면서 내 눈을 의심했다. 어떻게 이렇게 생생한 청동유물이 한 점도 아닌 10여 점이나 한꺼번에 무더기로 신고

되었단 말인가. 머리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혼란스러웠으나 입에서는 감탄이 절로 터져 나왔다.

그 유물들의 출토위치가 분명해진다면 실로 우리나라 청동유물의 발견사상 최대의 수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유물의 중요성만큼이나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경위를 알아볼 필요를 느꼈고, 더 나아가 발견된 유구가 확인되면 틀림없겠다는 생각에 서울로 돌아가는 것도 잊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되어 전라남도 도청 문화공보실 담당직원의 안내로 도착하게된 곳이 바로 화순군 대곡면 도곡리다. 청동유물이 무더기로 출토된 곳은 야트막한 낮은 구릉에 30여 호의 민가가 모여 마을을 이루고 있는 중대곡 마을의 가장 높은 위치에 해당되는 곳이었다. 국도에서 중대곡 마을 입구에 이르렀을 때 고인돌(支石墓) 상석 위에 고려시대 호장(高麗戶長)벼슬을 한 조(曹)씨의 공적을 새긴 유허

비(遺墟碑)가 세워져 있어 그 마을이 선사시대 무덤지역이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마을에 도착하여 알아 보니 아니나 다를까 마을에서는 이 유허비가 세워져있는 고인들을 칠성바위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나 공통적인 현상으로 칠성바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7기의 고인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인데 이곳에서도 조(曹)씨 집안에서 선조(先祖)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선사시대 무덤인 고인들의 상석인줄 모르고 그 곳에 유허비를 세웠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발견경위를 추적해 보니 최초 발견자인 이 마을에 살고있는 구재천(具在天)씨가 자신이 살고있는 집의 북쪽 담장 밖으로 초가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낙수면을 따라 배수로를 조금 깊게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도중 뭔가 지하에서 쿵쿵 소리가 나 이상하게 여기고 더 깊게 파다가 그 청동유물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함께 들어낸 나무판대기(木板)는 다시 묻어 원상대로 복구하고 주변에 묻혀있던 돌들은 건어내어 자신의 마당에 쌓아둔 상태였다. 돌들은 할석(割石)편들로서 아마도 무덤의 벽면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였다. 재미있는 것은 발견자가 끄집어낸 유물들의 성격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저 무슨 쇠붙이 인가하고 동검(銅劍) 하나를 돌에다 대고 문질러보니 매우 단단해서 버리기는 아깝기에 그대로 두었다가 며칠 후에 마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고철 등 옛 물건들을 받고 돈이 아닌 엿을 주는 고물장수 겸 엿장수가 왔기에 주었다는 것이다. 엿장수가 유물들을 받고 보니 심상치 않아 전남도청에 신고하게 되었던 것이다.

현지 확인결과와 출토위치가 분명하고 발견자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 청동유물 출토지가 확실해졌다. 한편 전남도청에서는 문화재관리국과 국립박물관에 유물신고 경위를 알리고 후속조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유물들의 출토위치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나서 바로 서울 문화재연구소로 돌아왔다. 나의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그해의 모든 조사를 전남지방 지표조사로 마무리하고 바로 코앞에 와 있는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하면서 연말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즉시 현장으로 가서 정식으로 유구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상경한 다음날로 다시 화순 청동유물 발견현장으로 가야했다. 그날은 197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지금이야 크리스마스를 조용히 지내는 풍토가 정착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12월 한 달은 거리마다 캐롤송이 넘치고 흥분된 연말분위기로 세상이 온통 들떠서 지내던 시절이었다. 나는 그 해 4월에 결혼하고 나서 계속 발굴현장으로만 돌아다녔던 터였으므로, 바쁜 일도 마무리 되고 마침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축제에 가족과 오붓하게 함께할 수 있으리라는 부푼 기대가 일순 사라져버린 순간이었다.

나는 당시 국립박물관 윤무병(尹武炳) 수석학예관을 모시고 화순 도곡리 청동유물 발견 장소로 가

기 위해 광주까지 비행기를 이용하게 되었다. 당시 내나이 30세였지만 그때까지 비행기로 여행해 본 경험이 없었다. 말하자면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 본 것이었다. 지금이야 처음 고속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할 당시의 버스 편수보다 더 많은 수의 비행기가 전국적으로 운항되고 있어 그만큼 교통이 편해졌지만 당시만 해도 김포-광주 간의 비행기 운행은 하루에 왕복 한 두 차례에 지나지 않았고 비행기 기종도 조그만 프로펠러로 날아가는 쌍발여객기로서 30인승 내외의 비행기에 불과했다. 그래서 조금 우스운 소리로까지 들리겠지만 당시만 해도 신혼여행을 위해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게되면 온 가족들이 나와 전송하면서 마치 전쟁터로 자식을 보내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전송하였고 돌아올 때 역시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모양으로 공항에 양가의 가족들이 나올 수 있는 한 몽땅 마중 나오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촌스러운 진풍경이 연출되곤 했다.

나 역시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웬지 가슴이 부풀고 설레기는 커녕 두려움에 떨리고 두근거렸으며 추락하면 어떻게 하나 태산같은 걱정이 밀려왔다.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으면 비행기를 이용했을 것이니까 경험이 있어 그토록 걱정이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아무런 경험이 없어 비행기로 여행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신나는 기분은 결코 아니었다. 탑승해서 이륙하고 광주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1시간 가량 걸렸을 텐데 나로서는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운무병선생과 대화도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불안한 속에 광주공항에 도착하고서야 살았구나 하고 안도했으니 말이다.

마중 나온 도청직원의 안내로 곧장 화순현장으로 달려가 발견자인 구재천씨의 도움을 받아서 발견하고 묻어두었던 나무판대기(木板)를 다시 끄집어내고 무덤의 구조를 확인했다. 그러나 처음에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추가로 다른 유물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발견자인 구재천씨의 기억을 더듬어 청동유물 한 점 한 점이 놓였던 위치를 개략적이거나 확인하고 유구 실측조사를 끝으로 한나절 만에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과학적인 연대측정을 위해 목판의 일부를 시료로 채취해 원자력연구소에 의뢰하기로 하고 당일로 서울에 돌아왔다.

비행기로 서울 김포공항에서 광주공항으로 이동한 후 다시 화순현장으로 가서 교란된 유구조사를 마치고 난 후, 광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당일 되돌아 온 것은 지금 생각하면 내 평생에 제일로 초스피드 조사를 한 경우가 되었다. 유구조사를 마치고 비행기로 돌아오는 도중에 서울 상공에 거의 다와서 비행기가 기류 때문에 갑자기 하늘을 날다 고도가 푹 떨어지는, 말하자면 에어포켓에 걸렸다. 순간 일부 탑승객 가운데는 비명을 지르는 승객도 있었다. 나 역시 비명을 지르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죽는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비행기를 이용한 것이 크게 후회되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해서 나의 첫 비행기 탑승은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추억으로 남아있다.

이 화순청동유물은 청동거울(多鈕細文鏡) 2점, 청동검(細形銅劍) 3점, 청동방울(八頭鈴具 2 雙頭鈴具 2) 4점, 소형도끼(靑銅釜斧) 1점, 청동끌(靑銅削具) 1점 등 모두 11점의 일괄유물이다.

나는 다음해인 1972년 2월에 이 일괄유물을 지정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했다. 이어 3월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 제14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현재 이 유물들 중 청동거울 1점과 쌍두령구 2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진열되어 있고 나머지 유물은 국립광주박물관에 나뉘어 전시·보관되고 있다.

지금도 이 유물을 생각하면 같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다름 아닌 최초발견자 구재천씨이다. 그는 당시 67세의 노인이었는데 무지의 소치로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를 하지 않았고 마을을 떠돌아다니는 옛장수에게 몇 몇 가락 얻어 먹고는 그 유물들을 냉큼 주어버렸으니 나중에 국보로 지정되고서도 보상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 까닭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발견신고 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이었다. 나도 나름대로 노력해 보았지만 수포로 돌아갔고, 노구를 무릅쓰고 보상금 때문에 서울을 몇 차례 오르내리던 노인의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이 유물의 발견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청동유물 발견사상 최대의 발견이고 영산강유역의 청동기 시대를 새롭게 조명 해볼 수 있는 고고학상 위대한 발견이라 할 수 있는 큰 사건이었다. 이상으로 나의, 말하자면 고고학 인생에 있어서 초년시절이라 할 수 있는 당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풍납동토성의 경우 그것이 초기백제 도성이던 혹은 사성이던 그것은 연구자들의 몫이겠지만 최초 발굴조사 시절 사적지정의 범위를 확대했다면 오늘날과 같이 성내 거주 인구가 4만명 이상이나 되는 도시로 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확대지정을 한들 아무도 시비를 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재산권의 침해가 크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받아들였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개발은 눈 깜짝할 사이로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미처 손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것이다. 토성이 워낙 높고 두껍었던 관계로 오랜 세월 동안 한강의 범람으로 퇴적층이 두껍게 쌓여 대부분의 백제시대 유구와 유물이 지하 3미터 이하에 묻히게 되었으며 그 동안 중소형 건물위주의 도시가 형성되었어도 다행히 지하에 매장되어있는 유구와 유물은 온전하게 남아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이 풍납토성은 당초 토성벽을 포함해 전지역을 지정 보호했어야 옳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다음으로 화순 대곡리 청동유물 일괄출토 유적의 긴급조사에 있어서 하루만에 끝내고 돌아왔던 것에 대해 말하고 싶다. 지금 생각하면 차분하게 바닥의 흙이라도 물 체질을 했었다면 좁쌀 같은 크기의 유리구슬이라도 채집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따른다. 그 많은 일괄유물 가운데 구슬이 한점도 없었다는 것이 지금도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내가 발굴조사에 관련한 유구에 있어서 수물지구유적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술적인 발굴조사이어서 유적은 그래도 보존되고 있다는 것에 마음적으로는 다소나마 위안이 된다. 왜냐하면 당시에 조사가 부족했다라도 기회가 닿으면 후학들은 언제든지 그 유적을 재조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IV. 달는 글

오늘날의 발굴조사는 학술적 목적의 발굴조사보다는 개발에 따른 구제발굴이 주를 이루면서 전국 곳곳에서 쉼 없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들의 초년병시절은 학문적인 측면에서 유적을 발굴했고 또 그런 만큼 학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우 발굴조사가 학문적인 입장에서보다는 직업적인 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제의 시작은 필연적으로 경쟁적인 개발붐을 전국적으로 야기시켰고 그래서 지금도 사업시행 이전에 사전 문화재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유적이 수없이 많아서 발굴단체가 미처 소화를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와 있다.

발굴조사나 시굴조사에 있어서도 완전히 중장비를 이용해서 지형의 껍질을 벗겨 벌건 속살을 드러 내놓고 시작하고 있으니 구제 발굴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조사가 되어야 하나, 또 제대로 된 조사가 될까하는 회의가 앞선다. 더구나 한번 조사하고 나면 그야말로 지형이 완전히 변해버려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다시 살아 와서 본다고 해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구제발굴을 한 후 없애 버린다면 과연 다음에 연구할 고고학자는 무엇을 가지고 발굴해야 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구제발굴이 완벽한 것이었는지 잘못된 것이었는지 향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없어지고마는 것이니 심하게 말하면 유적을 발굴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고 있는 것이 오늘날 발굴조사전문 기관의 본업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걱정이다.

아무튼 나의 발굴인생 40여 년에 있어서 아무리 뒤 돌아보아도 평생을 바친 유적발굴조사가 어느것 하나 “이것이요!”하고 내 세울 정도로 완벽하고 제대로 조사된 것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은 1999년 발족되어 경기도 관할의 고고학적인 문화유적발굴조사와 지표조사, 문화재의 연구 및 보존방안 그리고 문화재관련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로서 발족한지 5년째를 맞이했고 그 동안 괄목할만한 고고학적인 발굴조사는 물론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에서 나름으로 많은 일을



지난해 6월 정년을 맞으면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근본적인 임무는 관할구역 내의 개발에 따른 각종 문화재의 구제발굴조사에 있는 것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발굴조사 단체라는 자부심보다는 유적의 파괴에 앞장서는 단체라는 삼가고 조심스런 생각에서 발굴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차선적 선택으로 하는 발굴조사유적이랄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최대로 발굴유적을 보존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마음을 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노력이 있는 연후에야 비로소 후배들이나 후손들에게 그나마 최선을 다한 단체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로써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존재가 성공적인 것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VI. 부록

1945년~1990년 경기도 문화재조사 자료 *

1957년도

차례	유적명	시 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서울 암사동 선사주거지	신석기	서울 강동구 암사동	경희대박물관		金元龍,〈先史時代-回顧와展望〉,《歷史學報》39, 1968	시굴

1958년도

차례	유적명	시 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부천 시도 패총	신석기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국립박물관		國立博物館,《美術資料》1, 1960	시굴



시도패총 제1지구 원경



시도패총 발굴모습

1961년도

차례	유적명	시 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남양주 수석리 집자리	신석기~청동기	남양주시 지금동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5.18~24	김원룡,〈水石里 先史時代聚落住居址調查報告〉,《美術資料》11, 1966	
2	서울 명일동 주거지	청동기	서울 강동구 명일동	고려대박물관	6.22~24	金廷鶴,〈廣州 明日洞 住居址 發掘報告〉,《古文化》1, 1962	
3	하남 미사리 선사유적	신석기~청동기	하남시 미사동	서울대	11.6~	김원룡,〈廣州 漢沙里 榑文土器遺蹟〉,《역사학보》14, 1961	시굴

1962년도

차례	유적명	시 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고구리 고인돌	청동기	강화군 하점면 고구리	국립박물관			

* 이 자료는 『문화재발굴조사연표』(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고고학의 보물창고 경기도』(최영준, 서한일보사, 1996)를 기초자료로 함.

1963년도

차레	유적명	시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가락동 주거지	청동기	서울 강동구 가락동	고려대	6.7~8	《古文化》2, 1963	
2	인천 영종도 고인돌	청동기	인천시 중구 운남동	국립박물관	11.6~	崔淑靑, 《永宗島 雲南里 支石墓》(金愛麻博士 梨花 勤續40周年紀念論文集), 1966	
3	강화 하도리 고인돌	청동기	강화군 하점면 하도리	국립박물관	11.11~30	《미술자료》8, 1964	

1964년도

차레	유적명	시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파주 옥석리 고인돌	청동기	파주시 월롱면 옥석리	국립박물관	6.11~17	국립박물관, 《미술자료》9, 1964	1차
2	광주 풍납토성	백제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10.1~11.4	김원룡, 《風納里 包舍層調査報告》, 1967, (서울大學校考古人類學科叢書 第3冊)	시굴
1965년 당시에도 늘어나는 민가에 의해 토성부분이 파괴되어 가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그로 인해 전체적인 규모의 발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8개의 시굴갱을 중심으로 하여 토기편을 수습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풍납리의 각 토기들이 적어도 토성始築時에는 모두 공존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3	광주 도마리 도요지	조선	광주군 퇴촌면 도마리 (도마치부락)	국립박물관	12.1~12.1	崔淳雨, 《廣州 道馬里 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 《考古美術》58, 1965	1차
조선초기의 중앙관요백자 특히 청화백자의 발생을 추적할 수 있는 유적으로 주목되던 곳으로 조사결과 본격적인 청화백자와 함께 그 발색을 실험한 靑色片들이 수습되어 청화백자의 시원이 여기서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일제시대의 풍납토성 내부



풍납토성 원경

1965년도

차례	유적명	시 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파주 옥석리 고인돌	청동기	파주시 월롱면 옥석리	국립박물관	4.21~5.3	國立博物館,〈玉石里遺蹟〉,〈韓國支石墓研究〉(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第6冊),1967	2차
		교적 높은 구릉 동단지점에 위치한 A1, 서쪽구릉의 5기를 발굴하였다. 특히 일부 지석묘의 밑에서수혈식주거지가 조사되어 주목을 끌었다. 유물로는 마제석촉,석부, 석도, 무문토기편 등이 채집되었다.					
2	광주 도마리 도요지	조선	광주군 퇴촌면 도마리	국립박물관	5.11~5.21	崔淳雨,〈廣州 道馬里 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考古美術〉58, 1965	2차
		도마리 요지 발굴에서는 조선청화백자의 시원 뿐 아니라 조선청자상감자료가 출토되어 큰 의의를 가진다. 고려적 상감기법으로 조선적 圖文을 표현하였으나 이는 후대로 지속 되지는 못하였다.					
3	파주 교하리 주거지	청동기	파주시 교하면 교하리	국립박물관	5.20~31	金載元·尹武炳,〈交河里遺蹟〉,〈韓國支石墓研究〉(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第6冊), 1967	
		4기의 지석묘를 발굴조사하였다. 옥석동 유적에서처럼 지석묘의 하부에서 수혈식주거지가 발견되어 주목되었다. 특히 즐문토기편도 9점 수습되었다.					
4	인천 녹청자 요지	고려	인천시 서구 경서동 산 146	인천시립박물관	12.6~12.10	金良洙,〈仁川 景西洞 綠靑磁窯址〉,〈畿甸文化研究〉1, 1972 국립박물관,〈仁川 景西洞 綠靑磁窯址〉,1990	1차



인천 경서동 녹청자요지 출토품



인천 경서동 녹청자요지 출토품



인천 경서동 녹청자요지 발굴 모습

1966년도

차례	유적명	시 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인천 녹청자 요지	고려	인천시 서구 경서동 산 146	인천시립박물관	12.6~12.10	金良洙,〈仁川 景西洞 綠靑磁窯址〉,〈畿甸文化研究〉1, 1972 국립박물관,〈仁川 景西洞 綠靑磁窯址〉,1990	2차
2	강화 삼거리 고인돌	청동기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국립박물관	5.8~15	金載元·尹武炳,〈三巨里遺蹟〉,〈韓國支石墓研究〉(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第6冊), 1967	1차
		소동부락 지석묘군 5기를 발굴하고 환상석부, 석촉, 석검, 무문토기편을 수습하였으며 지표에서 다수의 즐문토기편을 수습하였다. 소동부락 중심에서 동북향 3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각형토기편을 반출하는 주거지를 조사하였다.					

차례	유적명	시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3	강화 황촌리 고인돌	청동기	강화군 하점면 황촌리	국립박물관	5.18~15	金載元·尹武炳〈황촌리遺蹟〉,《韓國支石墓研究》(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第6冊),1967	
		황촌리 부락의 후면에 위치하는 지석묘 3기를 조사하였다. 강화도 소재의 지석묘들이 보통 탁자식인데 반해 개석식이어서 주목되었다. 반출유물은 없었으나 인근에서 고배형토기의 臺足部와 격자타날문 토기편 등을 수습하였다.					
4	서울 역삼동 주거지	청동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송실대박물관	8.22~8.29	金良善·林炳泰〈驛三洞住居址發掘報告〉,《史學研究》,第20號,1968	
5	강화 삼거리 주거지	청동기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송실대박물관	8.22~8.29	국립박물관,《美術資料》11,1966	2차

1967년도

차례	유적명	시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서울 암사동 선사 주거지	신석기	서울 강동구 암사동	경희대박물관	7.14~20	국립박물관,《美術資料》13,1969	
2	서울 면목동 유적	구석기	서울 중랑구 면목동	경희대박물관		황용훈,《경희사학》1970	시굴

1968년도

차례	유적명	시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하남 미사리 선사 유적지	신석기	하남시 미사동	서울대	6.25~7.4	문화재관리국 연감	
2	서울 면목동 유적	신석기	서울 중랑구 면목동	서울사대 역사과	8.22~29	金光洙,《岩寺洞 櫛文土器遺蹟發掘概要》,《考古美術》100,1969 金光洙,《岩寺洞 江岸遺蹟發掘報告》,《歷史教育》12,1970	2차

1969년도

차례	유적명	시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서울 가락동 2호분	백제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고려대박물관	8.24~9.23	尹世英,《可樂洞 百濟古墳第1,2號墳 發掘調查略報》,《考古學》3,1974	
2	가평 마장리 야철 주거지	초기철기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서울대박물관	10.24~	金元龍,《加平 馬場里 冶鐵住居址》,《歷史學報》50,1971	시굴

1970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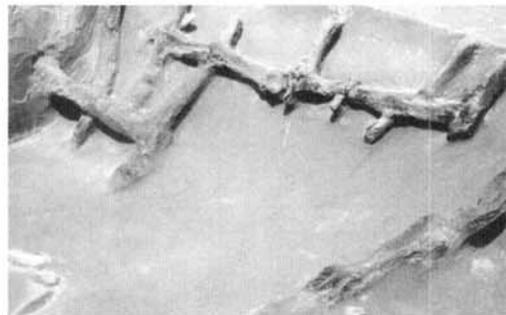
차례	유적명	시 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부천 시도 패총	신석기~ 초기철기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국립박물관	4.15~5.2 8.7~8.17	국립박물관 《矢島貝塚》 제1호, (국립박물관고적조사 보고제8책), 1970	1,2 차
			1916년 鳥居龍藏이 고적조사보고서에 언급한 이래 1957년 국박에서 이곳을 시굴하였고 다시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과에서 시굴한 이래 2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여 3개소의 줄문토기 패총3개소와 1개소의 김해토기패총, 그리고 분묘유구를 발굴하였다. 시도에서는 줄문토기에서 무문토기, 김해토기까지 출토되고 있으나 상호간에 뚜렷한 층위를 이루고 있는 단일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여주 보통리 고분	삼국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문화재관리국	10.5 ~10.25	姜仁求, 《驪州 甫通里의石 室古墳-末角藻井式 石室 墳의 一例》, 《韓佑勳博士 停年紀念 史學論叢》, 1982	발굴

1971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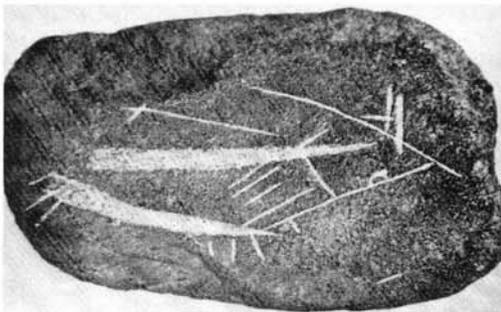
차례	유적명	시 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서울 석촌동 가옥잔구	초기철기	서울 송파구 석촌동	서울대	5.2~	金元龍, 《石村洞 原三國時 代의 家屋殘構》, 《考古美 術》113·114, 1972	수습
2	광주 창곡동 조선묘	조선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문화재관리국	6.16~18	池健吉, 《廣州 倉谷里 李朝 墓와 그 副葬品》, 《考古美 術》113, 1971	
3	서울 암사동 주거지	신석기	강동구 암사동	문화재관리국	6.16~18	金正基, 《韓國竪穴住居址考 (二)》, 《考古學》3, 1974	



암사동 발굴모습



암사동 주거지 노출상태



문호리 출토 물고기 선각화



문호리 적석총

1972년도

차례	유적명	시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여주 흔암리 주거지	청동기	여주군 점동면 흔암리	서울대박물관	5.1~14	金元龍 外, 《欣岩里 住居址》, 《서울대고고人類學叢刊4》	1차
2	양평 상자포리 고인돌	청동기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국립박물관	7.10~8.25	韓炳三·金鐘徹(楊平郡上紫浦里支石墓(石棺墓)發掘報告), 《八堂昭陽邑水沒地區遺蹟發掘調查報告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	
3	양평 양근·양덕리 지석묘	청동기	양평읍 양근리, 개군면 양덕리	연세대박물관	7.11~8.25	孫寶基·李隆助, 《楊平郡上紫浦里支石墓(石棺墓)發掘報告》, 《위책》	
4	양평 문호리 지석묘	청동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경희대박물관	7.28~8.24	黃龍渾, 《楊平郡 汶湖里地區遺蹟發掘報告》, 《위책》	
5	양주 진중리 선사유적	신석기~청동기	남양주시 와부읍 진중리	송실대박물관	7.31~8.14	林炳泰, 《楊州郡 鎭中里 先史遺蹟發掘報告》, 《위책》	
6	양평 양수리 고인돌	청동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문화재관리국	8.4~20	李浩官·趙由典, 《楊平郡兩水里支石墓發掘報告》, 《위책》	
7	양평 대심리 아철자리	초기철기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서울대박물관	8.4~20	金元龍·鄭永和·崔夢龍, 《楊平郡大心里遺蹟發掘報告》, 《위책》	
8	양주 금남리 고인돌	초기철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고려대박물관	8.~	金貞培, 《楊州郡 琴南里 高인돌 發掘略報》, 《위책》	
9	양평 상자포리 지석묘	청동기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이화여대박물관	9.7~17	秦弘燮·崔淑卿, 《楊平郡上紫浦里 支石墓 發掘報告》, 《위책》	
10	상자포리 고인돌 무리	청동기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단국대박물관	9.7~17	秦弘燮·崔淑卿, 《楊平郡上紫浦里 支石墓 發掘報告》, 《위책》	
11	서울 암사동 주거지	신석기	서울 강동구 암사동	국립박물관		金正基, 《韓國竪穴住居址考(二)》, 《考古學》3, 1974	4차

1973년도

차례	유적명	시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여주 흔암리 주거지	청동기	여주군 점동면 흔암리	서울대박물관	4.1~10	金元龍外, 《欣岩里住居址》, 《서울대고고人類學叢刊4》, 1973	2차
2	서울 암사동 선사 주거지	신석기	서울 강동구 암사동 154	국립박물관	11.27~12.13	문화재관리국 연감 참조	5차

1974년도

차례	유적명	시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서울 암사동 선사주거지	신석기	서울 강동구 암사동	국립박물관	4.8~22	金鐘澈,〈岩寺洞 所在先史時代 聚落地 發掘調査〉,《博物館新報》40, 1974	6차
2	여주 혼암리 집자리	청동기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	서울대박물관	4.29~5.12	金元龍外,《欣岩里住居址》,서울대고古人類學叢刊	5차

1975년도

차례	유적명	시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서울 암사동 선사주거지	신석기	서울 강동구 암사동 153~157	국립중앙박물관	4.7~6.5	李白圭,〈岩寺洞新石器時代住居址調査〉,《博物館新報》51號韓炳三,〈岩寺洞 先史住居址에대하여〉,《博物館新報》65호, 1976	7차
2	여주 혼암리 주거지	청동기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	서울대박물관	6.13~27	김원룡외,《欣岩里住居址3》,서울대고古人類學叢刊 7,1976	3차
3	서울 가락동 1호 주거지	청동기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서울대박물관	8.19~9.13	蠶室地區遺蹟發掘調査團,《蠶室地區遺蹟址發掘調査報告-1975》,1975	
4	서울 가락동 2·3·4호 주거지	청동기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서울대박물관	8.19~9.13	《위책》	
5	서울 가락동 3호분	삼국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서울대박물관	8.19~9.13	《위책》	
6	서울 가락동 4·5호분	삼국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이화여대박물관	8.19~9.13	《위책》	
7	서울 가락동 5호 주거지	청동기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고려대박물관	8.19~9.13	《위책》	
8	서울 가락동 6호 주거지	삼국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단국대박물관	8.19~9.13	《위책》	
9	서울 방이동 1호분	삼국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문화재관리국	8.19~9.13	《위책》 趙由典,〈芳美洞遺蹟發掘調査報告〉,《文化財》9,1975	
10	서울 천석 유적지	삼국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단국대박물관	8.19~9.13	蠶室地區遺蹟發掘調査團,《蠶室地區遺蹟址發掘調査報告-1975》,1975	
11	서울 잠실지구 제3지구 유적	청동기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송실대박물관	8.~10.	蠶室地區遺蹟發掘調査團,《蠶室地區遺蹟址發掘調査報告》,1975	2차



정비된 방이동 고분군



사당동요지

1976년도

차레	유적명	시 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서울 사당동 요지	통일신라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서울대박물관 문화재연구소	3.26 ~4.16	金元龍·李鍾宣,《舍堂洞新羅土器窯址調查略報》,《文化財》11, 1977	
2	여주 혼암리 주거지	청동기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	서울대박물관	4.11~25	서울대학교博物館·서울대학교考古人類學科,《伏岩里 住居址 4》, 서울대학교考古人類學叢刊 第8冊	4차
3	서울 석촌동 고분	삼국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서울대박물관	6.21~7.21	畿室地區遺蹟發掘調査團,《畿室地區遺蹟址發掘調査報告-1976年度》,1976	
4	서울 방이동 4·5·6호분/석촌동 5호분	삼국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서울대박물관 고려대박물관 숭실대박물관 전남대박물관	6.24~7.21	《위책》	3차
5	서울 잠실지구 유적	청동기 ~삼국	서울시 석촌동 / 방이동 일대	숭실대박물관	6.~8.	《위책》	3차



서울 석촌동 4호분 발굴모습



여주 혼암리 출토 토기



여주 혼암리 발굴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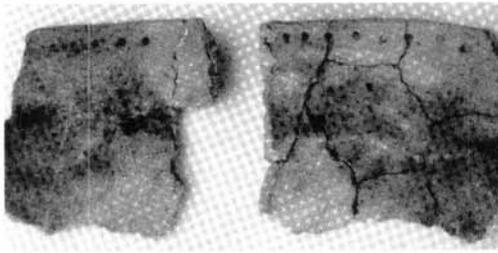
1977년도

차례	유적명	시 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여주 흔암리 주거지	청동기	여주군 점동면 흔암리	서울대박물관	4.16~5.6	서울대학교박물관·서울대학교고고인류학과,《欣岩里住居址4》, 서울大考古人類學叢刊제8책, 1978	5차
2	서울 화양지구 유적	고구려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송실대박물관 (화양지구유적 발굴조사단)	5.29 ~6.26	九宜洞報告書刊行委員會,《漢江流域의 高句麗 要塞-九宜洞遺蹟發掘調査綜合報告書》,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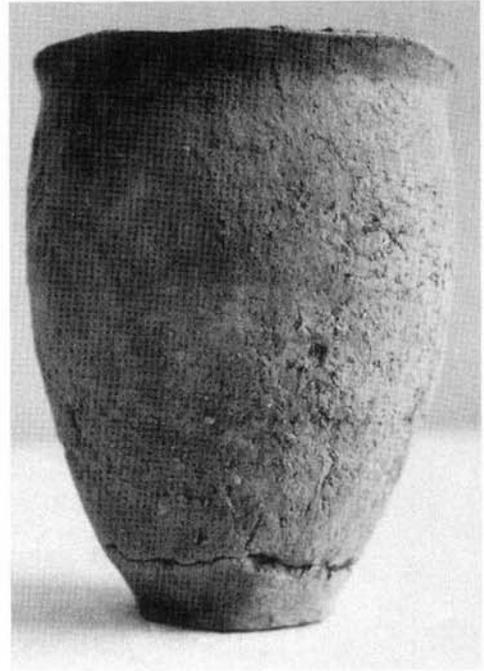
1978년도

차례	유적명	시 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여주 흔암리 주거지	청동기	여주군 점동면 흔암리	서울대박물관	4.10~5.6	서울大博物館,《韓國考古學年報》6, 1979	6차
2	화성 일리·원사리고분	조선	안산시 일동, 원사동	문화재관리국	9. ~	尹世英·安春培·尹德香,《一里·元時里古墳發掘調査報告》,《半月地區遺蹟發掘報告書》, 1979	
			일동에서는 고령말에서 조선에 걸치는 것으로 보이는 고분이 2기, 원사리에서는 회곽합장묘가 1기 확인되었다. 일동에서는 治平元寶, 원우통보, 대관통보 등의 동전이 수습되어 1호분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				
3	안산 양상리·월피리 지석묘	신석기~청동기	안산시 수암동	경희대박물관	9.2~10.1	황용훈,《楊上里·月波里遺蹟發掘調査報告》,《半月地區遺蹟發掘調査報告書》, 1979	
			반월공단예정부지 유적조사 중 경희대박물관에서는 지석묘 6기와 적석토광묘 1기를 조사하였다. 특히 적석토광묘와 인접해서 무문토기주거지가 발견되어 지석묘와 토광묘, 무문토기주거지의 관계에 의문을 던져주었다.				
4	안산 양상리 지석묘	청동기	안산시 수암동	건국대박물관	9.4~15	崔茂藏,《楊上里支石墓發掘調査報告》,《위책》	
			이지역 갖모봉 기슭에 위치하는 지석묘 10기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9기는 지석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10호분 만이 토광을 가진 지석묘로 확인되었다.				
5	시흥 목내리 산성	삼국	시흥시 군자동	단국대박물관	9.10~23	鄭永鎬,《木內里山城發掘調査報告》,《위책》	
			반월공단단지에 포함되는 않으나 공업단지를 오가는 도로개설이 예정되어 산성의 일부가 돌리게되어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성은 토축성으로서 자연암반을 이용하여 그 위에 토축한 형식으로 삼국시대의 전형적인 토축방법으로 축성되었으며 일대에서도 삼국시대토기편이 수습되었다.				
6	안산 사리 유적	미상	안산시 사동	송실대박물관 (반월지구유적 발굴조사단)	9.20~30	林炳泰,《四里一帶遺蹟調査報告》,《위책》	
7	시흥 초지리 패총	신석기~초기철기	시흥시 군자동 초지2리	서울대박물관	9.20~10.3	金元龍,《草芝里(別望)貝塚發掘調査報告》,《위책》	
			즐문토기문화의 패총으로서 시도·암사동과 연관성을 가진 서해안즐문토기후기의 양상을 보이는 패총으로서 무문토기단계 없이 원삼국시대 토기편이 보이고 있다.				

차례	유적명	시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8	가평 이곡리 주거지	초기철기	가평군 북면 이곡리	건국대박물관	11.1~26	崔茂藏,《梨谷里鐵器時代住居址發掘報告》,《建國大人文學論叢》第12輯,建國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1979	



가평 이곡리 출토 토기편



수원 서둔동 출토 토기

1979년도

차례	유적명	시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	구석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건국대박물관 경희대박물관 서울대박물관 영남대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3.26 ~4.19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全谷里》,1983 嶺南大學校博物館,《全谷里發掘中間報告》,1984	1차
2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	구석기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건국대박물관 경희대박물관 서울대박물관 영남대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9.17 ~11.30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全谷里》,1983 嶺南大學校博物館,《全谷里發掘中間報告》,1984	2차
3	수원 서둔동 주거지	청동기~초기철기	수원시 서둔동	송실대박물관	7.10~	《박물관신문》126호, 1982.	1차

1980년도

차 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	구석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건국대박물관 경희대박물관 서울대박물관 영남대박물관	10.3 ~12.10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全谷里》,1983 嶺南大學校博物館,《全谷里發掘中間報告》,1984	3차
1979년부터 시작된 전곡리지역에 대한 3차 조사이다. 전체적으로 아슐리안 형태의 구석기를 셋트로 출토시키는 유적으로서 층위별로 유물의 분포상태를 보면 석기의 발달상태를 통계학적으로나마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2	양주 양주산성	삼국	양주군 양주읍 어둔리	문화재연구소	10.7 ~10.16	文化財研究所·翰林大學校博物館,《楊州大母山城》,1994	
3	수원 서둔동 주거지	청동기~ 초기철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송실대박물관	11.6~15	임병태,《水原西屯洞住居址發掘》,《박물관신문》126호,1982	2차
4	하남 미사리 선사유적	신석기~ 청동기	하남시 미사동	고려대박물관 서울대박물관 송실대박물관 한양대박물관	12.9~23	任孝宰,《漢沙里緊急發掘調查》,《韓國考古學年報》8(1980年度),서울大學校博物館,1981 任孝宰,《漢沙里遺蹟緊急發掘調查》,《博物館新聞》115號,1981 尹世英,《漢沙里住居址》,《史叢》第25輯, 1981	2차

1981년도

차 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수원 서둔동	청동기~ 초기철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산1-1	건국대박물관 경희대박물관 서울대박물관 영남대박물관	9.17 ~12.12	임병태,《水原西屯洞住居址發掘》,《박물관신문》126호,국립중앙박물관, 1982	3차
2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	구석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문화재연구소	10.7 ~10.16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全谷里》,1983 嶺南大學校博物館,《全谷里發掘中間報告》,1984	4차
3	양주 양주산성	삼국~ 통일신라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문화재연구소	10.6 ~11.15	文化財研究所·翰林大學校博物館,《楊州大母山城》,1994	2차



대모산성 북문 외곽 동편성벽



북문 외곽 동편성벽

1982년도

차례	유적명	시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	구석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서울대박물관	7.28 ~8.25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全谷里》,1983	4차
2	시흥 현덕왕후 폐릉지	조선	시흥시 군자동 산7-2	경희대박물관	9.20 ~10.10	慶熙大博物館,《顯德王后廢陵址發掘調査報告書》,1982	
3	화성 제암리 유적	근대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	문화재관리국	9.21~26	문화재관리국연감 참조	
4	양주 양주산성	삼국	양주군 양주읍 어둔리	문화재연구소	11.1 ~12.30	文化財研究所·翰林大學校博物館,《楊州大母山城》,1990	3차

1983년도

차례	유적명	시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	구석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서울대박물관	3.21 ~7.15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全谷里》,1983	6차
2	서울 석촌동 3호분	백제	성루시 송파구 석촌동	서울대박물관	9.20 ~10.10	石村洞遺蹟發掘調査團,《石村洞3號墳(積石塚)復元을 위한發掘調査報告書》,1984	
3	서울 암사동 선사주거지	신석기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서울대박물관	5.17 ~6.16	岩寺洞遺蹟發掘調査團,《岩寺洞緊急發掘調査報告》,1983 서울大學校博物館,《岩寺洞》,1985	
4	서울 몽촌토성	백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서울대박물관	11.1~11.19	몽촌토성발굴조사단,《복원·정비를 위한 몽촌토성발굴조사보고》,1984	1차
5	여주 상교리 상방 하원석실분	고려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산 46-1	한양대박물관	11.10 ~12.10	漢陽大學校博物館,《陽州上橋里上方下圓石室墳》 漢陽大學校博物館叢書第1輯,1984	

이 석실분은 현실 평면이 원형에 연도가 달리고 상부는 방향의 이층기단으로 된 특이한 구조이다. 피장자에 대해서는 도굴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없으나 규모와 축조방법으로 보아 지방의 호족이나 권문세족의 무덤으로 추측할 뿐이다.

차 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 굴 기관	발 굴 기간	참 고 문 헌	기 타
6	양주 양주산성	삼국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문화재연구소	11.28 ~12.24	文化財研究所·翰林大學校博物館,《楊州大母山城》,1990	4차



서울 석촌동 증석봉토분



여주 상교리 상방하원석실분

1984년도

차 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 굴 기관	발 굴 기간	참 고 문 헌	기 타
1	서울 암사동 선사주거지	신석기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서울대박물관	5.28 ~7.15	岩寺洞遺蹟發掘調查團,《岩寺洞竪穴住址復元基礎調查報告書》,1984	
2	서울 석촌동 3호분	백제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서울대박물관	7.5~8.21	石村洞遺蹟發掘調查團,《石村洞3號墳(積石塚)復元을 위한發掘調查報告書》,1984	
3	서울 몽촌토성 III지구	백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한양대박물관	7.9~8.7	夢村土城發掘調查團,《整備·復元을 위한 夢村土城發掘調查報告書》, 1984	
4	서울 몽촌토성	백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서울대박물관	7.9~8.13	《위책》	
5	서울 몽촌토 II지구	백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송실대박물관	7.16 ~8.14	夢村土城發掘調查團,《整備·復元을 위한 夢村土城發掘調查報告書》, 1984	2차
6	서울 몽촌토성 IV지구	백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단국대박물관	7.21 ~8.11	夢村土城發掘調查團,《整備·復元을 위한 夢村土城發掘調查報告書》, 1984	
7	수원 서둔동 주거지	청동기~ 초기철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산 1-1 여기산	송실대박물관	8.20 ~10.8	문화재관리국 허기자료 참조	4차
8	서울 창경궁	조선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문화재관리국	8.23 ~9.30	張慶浩,《昌慶宮復元을 위한 原地盤 찾기 試掘調查》,《월간문화재》제4호, 1984 文化財管理局,《昌慶宮發掘調查報告書》, 1985	

차례	유적명	시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9	서울 창경궁	조선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문화재관리국	11.3 ~85.4.22	張慶浩, 〈昌慶宮復元을 위한 原地盤 찾기 試掘調査〉, 《월간문화재》제4호, 1984 文化財管理局, 《昌慶宮發掘調査報告書》, 1985	
10	용인 서리 요지	고려	용인시 이동면 서리	호암미술관	11.15 ~12.15	湖巖美術館, 《龍仁西里高麗白磁窯》, 1987	
11	양주 양주산성	삼국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국립문화재연구소	11.26 ~12.28	文化財研究所·翰林大學校, 《楊州大母山城》, 1990	5차
이번 조사에서 양주산성이 삼국시대에 어떤 명칭으로 불렸는지 단정할 만한 근거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문헌자료에 근거하여 大母山城으로 비정하였다. 출토유물을 보면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기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 삼국 이후로도 요충지로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85년도

차례	유적명	시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광명 철산동 지석묘	청동기	광명시 철산동 462-33	한양대박물관	1.5~1.20	漢陽大學校博物館, 《光明鐵山洞 支石墓》, 1985	
광명시청의 신축에 따라 철산고등학교 주변에 위치하던 고인돌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학교 안으로 이전 복원하였다. 구조상으로는 고인돌임을 확인하였으나 반출 유물은 무관하다.							
2	서울 몽촌토성	백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서울대박물관	5.3~11.17	夢村土城發掘調査團, 《夢村土城發掘調査報告書》, 1985	3차
3	서울 경희궁지	조선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단국대박물관	8.7~11.30	鄭永鎬, 《整備·復元을 위한 慶熙宮址發掘調査報告書》, 檀國大學校博物館, 1985	
4	광주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군 중부면 상번천리, 초월면 선동리	이화여대박물관	12.2 ~12.24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廣州朝鮮白磁窯址發掘調査報告》, 1986	

1986년도

차례	유적명	시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광주 상번천리 도요지	조선	광주군 중부면 상번천리	이화여대박물관	4.1~4.30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中部高速道路建設豫定地區廣州朝鮮白磁窯址發掘調査報告》, 1986	
2	중부고속도로내 문화유적	구석기 ~조선	광주·안성·이천, 충북 음성·진천·청원·청주	충북대박물관	4.20 ~6.20	忠北大學校博物館·韓國道路公社, 《中部高速道路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1986. 忠北大學校博物館調査報告 第19冊	

차례	유적명	시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3	하남 이성산성	삼국	하남시 춘궁동 산 36	한양대박물관	8.13 ~87.7.12	漢陽大學校博物館, 《二聖山城 發掘調査中間報告》, 1987	1차
4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	구석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88-2 일원	서울대박물관	10.15 ~12.20	서울大學校博物館, 《全谷里-1986年度 發掘調査報告書》, 1989	



연천 전곡리 발굴조사 광경



연천 전곡리 발굴조사 전경

1987년도

차례	유적명	시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서울 경희궁지	조선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단국대박물관	3.1 ~6.24	《整備·復元을 위한 慶熙宮址發掘調査報告書》, 檀國大學校博物館, 1987	
2	서울 석촌동 고분	백제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서울대박물관 경희대박물관 송실대박물관	3.2 ~5.28	石村洞遺蹟發掘調査團(石村洞古墳發掘調査報告), 1987	
3	서울 한강변 문화유적	조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의	동국대박물관	4.6~ 6.15	東國大學校 漢江邊 文化遺蹟發掘調査團, 《漢江邊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 1987.	
4	서울 몽촌토성	백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서울대박물관	4.25 ~7.27	서울大學校博物館, 《夢村土城-東北地區發掘報告》, 1987	4차
5	하남 이성산성	백제	하남시 춘궁동 산 36	한양대박물관	8.10 ~12.6	漢陽大學校博物館, 《二聖山城二次發掘調査中間報告書》, 1988 沈光注, 《二聖山城에 대한研究》, 漢陽大學校, 1988	2차
6	여주 매릉리 고분	삼국	여주군 여주읍 매릉리	한림대박물관	10.10 ~11.20	翰林大學校博物館, 《驪州梅龍里 용강골 古墳群 發掘報告書》 한림대학교박물관 연구총서 2, 1988	1차

8기의 석실묘와 2기의 토광묘를 발굴하였다. 토광묘는 제외하더라도 석실묘 내에서도 형식에 많은 차이점이 보이고 있어 연대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차 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7	용인 서리 요지	고려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	호암미술관	10.15 ~11.30	문화재관리국 허가자료 참조	2차
8	하남 미사리 선사유적	신석기 ~고려	하남시 미사동	미사리선사유적 발굴조사단	11.12 ~12.15	漢沙里先史遺蹟發掘調查團·京畿道公營開發事業團,《漢沙里》第1卷~第5卷,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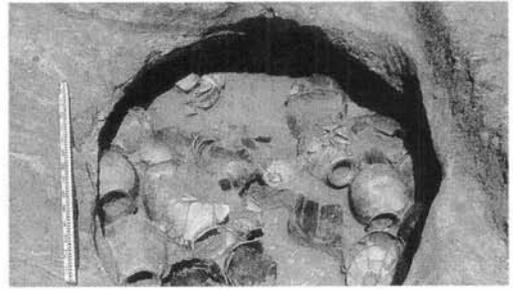
이성산성 저수지



이성산성 8각건물지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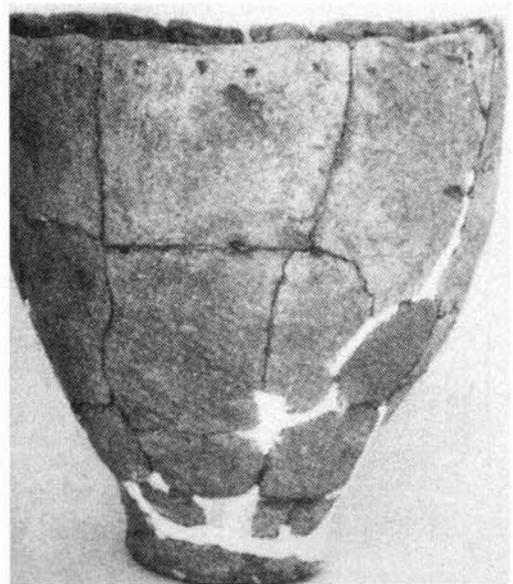
몽촌토성 3·4호 주거지



몽촌토성 10호 저장구덩이



용인 서리 요지 출토 갑발



파주 다울·당하리 주거지 출품토기

1988년도

차례	유적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서울 몽촌토성	백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서울대박물관	3.1~5.30	서울大學校博物館, 《夢村土城-東南地區發掘報告》, 1988	5차	
2	파주 다율리 지석묘	청동기	파주시 교하면 다율리	한국선사 문화연구소	3.14~3.25	문화재관리국 허가자료 참조	수습 조사	
3	판교-구리, 신갈-반월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유적	청동기~조선	성남시 수정구 삼평동, 수진동, 태평동 광주군 서부면 춘궁리, 수원시 파장동	충북대박물관외	4.25~7.25	忠北大學校博物館, 《板橋-九里, 新葛-半月間 高速道路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 1988		
4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고려	용인시 이동면 서리	호암미술관	5.6~6.25	문화재관리국 허가자료 참조	3차	
5	강화 두운리 고려묘	고려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한국선사 문화연구소	6.21~7.1	한국선사문화연구소, 《가락 허시중공 무덤 발굴조사약보》, 1988		
6	여주 매룡리 고분	삼국~고려	여주군 여주읍 매룡리	한림대박물관	7.18~8.12	翰林大學校博物館, 《羅州梅龍里 甕岡골 古墳群Ⅱ發掘報告書》, 1989	2차	
			삼국에서 통일신라에 이르는 동안 토착세력이 매룡리 식의 독특한 형식을 가진 고분을 조영하였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으나 6세기 중엽 이후 신라고분으로 보고 있다.					
7	시흥 오이도 패총	신석기	시흥시 군자동 정왕6리	서울대박물관	9.8~10.8	서울大學校博物館, 《烏耳島貝塚-新浦洞A~B貝塚發掘調查報告》, 1988		
			오이도의 남부패총군에 속하는 신포동 A, B패총의 출토품을 줄문토기의 문양모티브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각각 신석기 중기 후반, 신석기 후기의 1기인 시도기에 속하고 절대 연대는 BC2000~BC1500년 사이에 해당된다고 정리하였다.					



여주 매룡리 고분군 전경



여주 매룡리 고분

1989년도

차레	유적명	시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서울 경희궁지내 송정전지	조선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명지대 한국건축연구소	3.28 ~4.29	서울特別市·明知大學校 附設 韓國建築文化研究所, 《第1次 慶熙宮 崇政殿 發 掘 報告書》,《慶熙宮 崇政 殿 發掘 調查 報告 書》,1990	1차
2	서울 몽촌토성	백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서울대박물관	5.30 ~8.31	서울大學校博物館,《夢村 土城 西南地區發掘調查報 告》,1989	6차
3	연천 남계리 구석기유적	구석기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건국대박물관	8.26 ~9.30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 所,《漣川 楠溪里 舊石器遺 蹟發掘調查報告書》,1991	
4	파주 금파리 구석기유적	구석기	파주시 파명면 금파리	국립문화재연구소	10.7 ~11.29	裴基同,《坡州 金坡里 舊 石器時代 野外住居遺蹟 發 掘調查略報》,《第33回歷史 學大會 發表要旨》,1990 國立文化財研究所,《金坡 里 舊石器 遺蹟》,1999	1차
5	서울 경희궁지내 송정전지	조선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명지대 한국건축문화연구 소	10.17 ~90.2.28	서울特別市·明知大學校 附設 韓國建築文化研究所, 《第2次 慶熙宮 崇政殿 發 掘 報告書》,《慶熙宮 崇政 殿 發掘 調查 報告 書》,1990	2차
6	광주 망월사지	통일신라	광주군 중부면 상번천리	동국대박물관	11.7~12.7	문화재관리국 허가자료 참조	



호암산성 성벽



한우물 출토 대부단경호



군포 산본지구 유적발굴조사 모습



군포 산본동 백자가마터

1990년도

차례	유적명	시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서울 경희궁지내 자정전지	조선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명지대 한국건축문화연구소	3.~5.	서울特別市·明知大學校附設 韓國建築文化財研究所, 《慶熙宮 崇政殿回廊 및 資政殿 發掘調査 報告書》, 1994	3차
2	한우물 및 호암산성	통일신라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서울대박물관	3.12 ~5.20	서울大學校博物館《한우물-虎岩山城 및 蓮池發掘調査報告書》, 1990.	1차
성벽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있어야할 것이나 연지에 대한 조사로 마무리되었다. 수습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이성산성 출토유물과 유사하다. 6세기 중엽 이후부터 8세기 중엽까지 사용된 신라성곽으로서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여 통일후 대당전투를 치를 때 까지 사용된 석성으로 추정하였다.							
3	하남 이성산성	통일신라	하남시 준공동 산 36	한양대박물관	4.13 ~6.30	漢陽大學校博物館, 《二聖山城 3次發掘調査報告書》, 1991. 漢陽大學校博物館叢書 第12輯	3차
4	안양 평촌지구 문화유적	청동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명지대박물관	4.19~7.1	明知大學校博物館, 《安養坪村의 歷史와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1990.	
지석묘 6기와 초기백제주거지가 수습되었다. 특히 주거지는 아궁이와 3열의 구들골, 저장고와 기둥구멍까지 남아있어 자료가 많지 않았던 당시 삼국시대의 주거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었다.							
5	서울 경복궁내 궁궐유적	조선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문화재연구소	5.1~12.31	文化財管理局 國立文化財研究所, 《景福宮 寢殿地域 發掘調査報告書》, 1995.	
6	수원 고색동 유적	근현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4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10~6.7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華城白谷里古墳-附:水原古索洞遺蹟》, 1994	
7	성남 분당지구 문화유적	청동기 ~삼국	성남시 분당구 일대	한양대 등 8개기관	5.21 ~10.12	漢陽大學校博物館, 《盆唐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1991 漢陽大學校博物館叢書 第13輯	

차레	유적명	시대	소재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8	성남 도촌동 지석묘	청동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송실대박물관	7.3~8.23	崇實大學校博物館, 《島村洞 支石墓 A,B群 發掘調査報告》, 《盆唐地區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漢陽大學校博物館·京畿道, 1991	
9	군포 산본신도시 건설지구내 유적	통일신라 ~조선	군포시 산본동	명지대박물관 호암미술관	7.10 ~10.26	明知大學校博物館·湖巖美術館, 《山本地區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1990	
<p>고분군과 지석묘군에 대해서는 명지대에서, 도요지에 대해서는 호암미술관에서 조사하였다. 10기의 지석묘군이 조사되었으며 삼국시대 말경에서 통일신라기에 이르는 8기의 수혈식 석실분과 1기의 횡혈식석실분이 조사되었다. 도요지발굴에서는 작업장과 함께 반지하식요가 조사되었는데 번천리보다 약간 앞서는 16세기 전반기의 짧은 동안에 사용된 지방요로 보았다.</p>							
10	파주 금파리 구석기유적	구석기	파주시 파명면 금파리	국립문화재연구소	7.20 ~9.30	國立文化財研究所, 《金坡里 舊石器 遺蹟》, 1999,	2차
11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구서울구치소	근대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명지대 한국건축문화 연구소	10.26 ~12.15	明知大學校附設 韓國建築文化研究所, 《柳寬順烈士地下獄舍 및 中央舍地下獄舍發掘研究報告書》, 1990	
12	하남 미사리 선사유적	신석기 ~고려	하남시 미사동	미사리유적 발굴 조사단	12.26 ~91.12.26	漢沙里先史遺蹟發掘調査團·京畿道公營開發事業團, 《漢沙里》第1卷~第5卷, 1994	



미사리 유적전경



미사리 1호 주거지

畿甸考古

제2호 (2002)

발행일 : 2003년 6월 1일

발행처 :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편집집 : 기전문화재연구원 (☎ 031-258-5105)

제작 : (주) 경기출판사 (☎ 031-231-5520~7)

※ 이 책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십시오.

☎ 031-258-5105(교414) 김성태 / 김아관 / 허미형

〈비매품〉